

안녕하세요 이욱조 선생님 연구실입니다.

2019학년도 EBEST 수능특강 문학 지문 분석서 PDF파일 배포 일정과

2019학년도 EBEST 수능특강 문학 지문 분석서와 실전 훈련서의 구성 내용

2019학년도 EBEST 시리즈 학습 전략을 안내합니다.

이욱조T EBEST 수능특강 지문 분석서 PDF파일 배포 일정

2월 19일 현대시

2월 22일 현대 소설, 현대 극 & 수필

2월 26일 고전 시가, 고전 소설, 고전 극 & 수필

(EBEST 수능특강 실전 훈련서는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EBEST 수능특강 문학 분석서의 PDF파일 배포는

2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니다.]

이옥조T의 EBEST 수능특강 문학 지문 분석서와 실전 훈련서 구성

EBEST 수능특강 문학 지문 분석서

Vol.1 현대문학

1부 현대시 2부 현대소설 3부 현대 극 & 수필

Vol.2 고전문학

1부 고전시가 2부 고전소설 3부 고전 극 & 수필

- EBEST 수능특강 문학 지문 분석서는 EBS연계 교재의 전 지문을 상세히 분석하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는 교재입니다.

EBS연계 교재의 모든 문학 작품들을 담고 있으며 각각의 작품들마다 함께 연계되어 출제 될 수 있는 연계작품들을 정리해 두어 더욱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EBEST 수능특강 문학 실전 훈련서

Vol.1 현대문학

1부 OX퀴즈 2부 기출문제 3부 정답과 해설

Vol.2 고전문학

1부 OX퀴즈 2부 기출문제 3부 정답과 해설

- EBEST 수능특강 문학 실전 훈련서는 1부 OX퀴즈, 2부 기출문제, 3부 정답과 해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부 OX퀴즈를 통해서 작품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학습하였는지, 각 작품들의 세부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2부 기출문제에서는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문제들이 출제 되는지 확인하며 실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욱조T의 EBEST 시리즈 학습 전략

1단계 EBEST 수능특강 지문 분석서를 통해 EBS 문학 전지문에 대한 상세한 지문 분석과 알아두어야 할 주요 내용들, 연계작품들을 함께 학습합니다.

2단계 EBEST 수능특강 실전 훈련서를 통해 OX퀴즈와 기출 문제를 풀어보며 작품을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고, 실제 시험 문항들을 풀어보며 실전 능력을 키웁니다.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EBEST 수능특강 지문 분석서로 돌아가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 확실히 이해합니다.

3단계 2019학년도 EBS 수능특강 모든 교재를 반영한 EBEST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확실한 수능 대비 실전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2019학년도 EBEST 시리즈 안내

강좌·교재명	개강·출간일정	강좌	
EBEST 수특 문학 지문분석서	2.26	X	총 2권 (각 권 280페이지↑)
EBEST 수특 문학 실전훈련서	2.26	24강	총 2권 (각 권 100페이지↑)
EBEST 실전 모의고사	3.2	7강	총 2회 실모 +α

Contents

이육조국어연구소

I / 고전시가

01. 정약용, 「견여탄」	06
02. 백수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	10
03. 작자미상, 「남당사」	13
04. 이세보, 「농부가」	15
05. 작자미상, 「덴동어미화전가」	17
06. 이규보, 「도소녀」	21
07. 박인로, 「독락당」	23
08. 안조원, 「만언사」	27
09. 성훈, 「말 업슨 청산이오~」	31
10. 송순, 「면양정가」	33
11. 득오, 「모죽지랑가」	40
12. 작자미상, 「불 아니 땄지라도~」	42
13. 작자미상, 「상사별곡」	43
14. 작자미상, 「서경별곡」	48
15. 정철, 「성산별곡」	52
16. 정도전, 「신도가」	60
17. 김병연, 「안락성을 지나며」	63
18. 윤선도, 「우후요」	64
19. 작자미상, 「유산가」	67
20. 김인겸, 「일동장유가」	71
21. 작자미상, 「정선아리랑」	77
22. 김창협, 「작빙행」	82
23. 정구, 「청산아 웃지마라」	84
24. 황진이, 「청산은 내 뜻이오」	88
25. 권호문, 「한거십팔곡」	90
26. 김천택, 「흰 구름 푸른 너는~」	93

Ⅱ / 고전소설

01. 작자미상, 「가락국 신화」	96
02. 박지원, 「광문자전」	99
03. 작자미상, 「규중칠우쟁론기」	103
04. 작자미상, 「금방울전」	106
05. 김시습, 「남염부주지」	110
06. 작자미상, 「바리공주」	113
07. 작자미상, 「상사동기」	117
08. 작자미상, 「서동지전」	121
09. 임제, 「수성지」	124
10. 작자미상, 「옥낭자전」	127
11. 남영로, 「옥루몽」	129
12. 작자미상, 「온달설화」	132
13. 작자미상, 「옹고집전」	135
14. 이항복, 「유연전」	139
15. 작자미상, 「이춘풍전」	142
16. 작자미상, 「임진록」	147
17. 작자미상, 「장화홍련전」	152
18. 권필, 「주생전」	156
19. 조성기, 「창선감의록」	160
20. 작자미상, 「채봉감별곡」	165
21. 이규보, 「청강사자현부전」	169
22. 작자미상, 「청렴한 관리와 청지기」	172
23. 허균, 「홍길동전」	175
24. 작자미상, 「홍부전」	180

Ⅲ / 고전 극 & 수필

01. 작자미상, 「봉산탈출」	186
02. 정약용, 「수오재기」	192
03. 작자미상, 「양주 별산대 놀이」	196
04. 이옥, 「어부」	202
05. 작자미상, 「적벽가」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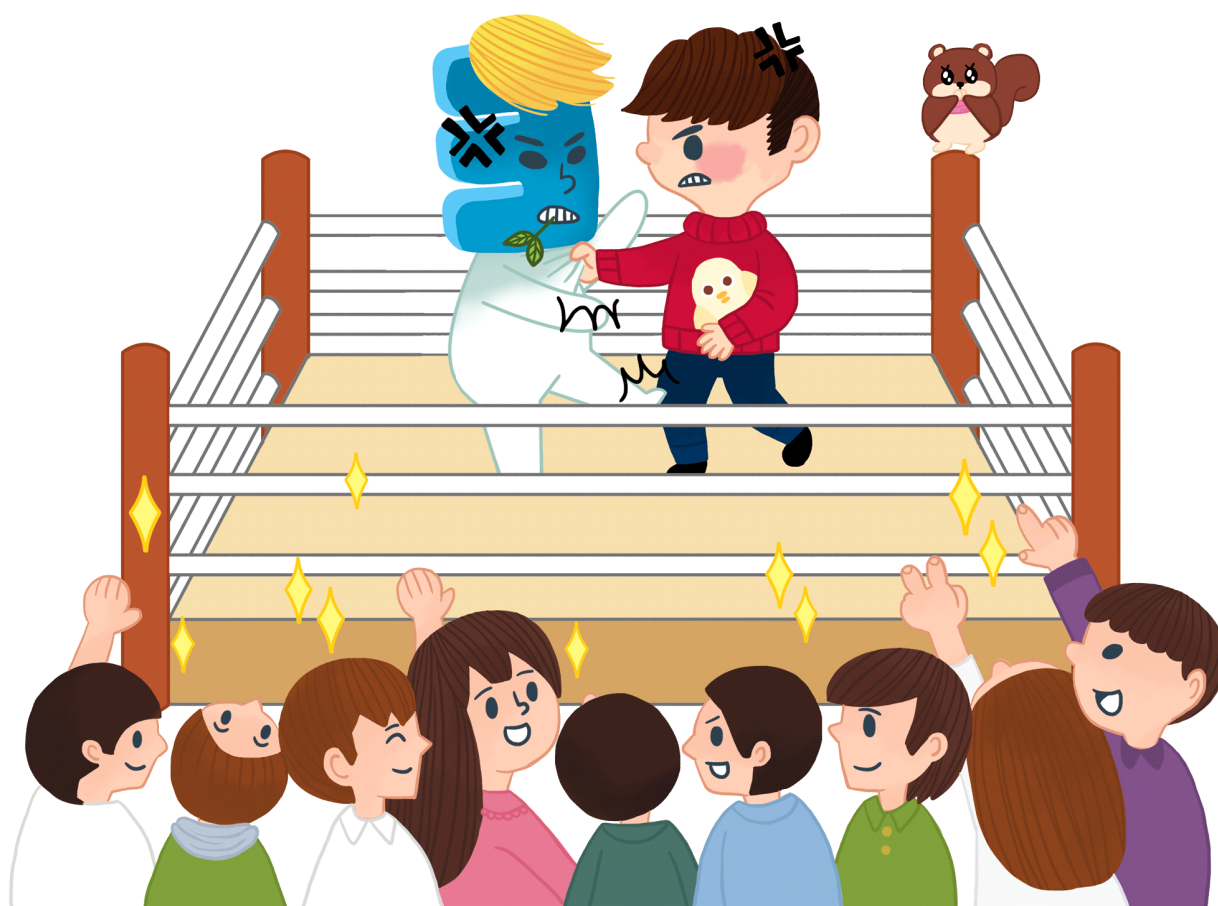


이육조 선생님의
변화를 이끄는 감동국어

이육조국어연구소

EBEST
수능 특강 지문 분석서

[고전문학]



I / 고전시가

01. 정약용, 「견여탄」	06
02. 백수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	10
03. 작자미상, 「남당사」	13
04. 이세보, 「농부가」	15
05. 작자미상, 「덴둥어미화전가」	17
06. 이규보, 「도소녀」	21
07. 박인로, 「독락당」	23
08. 안조원, 「만언사」	27
09. 성훈, 「말 업슨 청산이오~」	31
10. 송순, 「면양정가」	33
11. 득오, 「모죽지랑가」	40
12. 작자미상, 「불 아니 땔지라도~」	42
13. 작자미상, 「상사별곡」	43
14. 작자미상, 「서경별곡」	48
15. 정철, 「성산별곡」	52
16. 정도전, 「신도가」	60
17. 김병연, 「안락성을 지나며」	63
18. 윤선도, 「우후요」	64
19. 작자미상, 「유산가」	67
20. 김인겸, 「일동장유가」	71
21. 작자미상, 「정선아리랑」	77
22. 김창협, 「착빙행」	82
23. 정구, 「청산아 웃지마라」	84
24. 황진이, 「청산은 내 쫓이오」	86
25. 권호문, 「한거십팔곡」	90
26. 김천택, 「흰 구름 푸른 너는~」	93





견여탄(肩輿歎) / 정약용

‘견여’는 사람 둘이 앞뒤에서 어깨에 메는 가마 → ‘견여탄’ = 가마꾼의 탄식



사람들이 가마 타기 좋은 줄만 알고
 가마를 타는 사람들(비판의 대상)
 가마 메는 고통은 알지 못하네
 가마꾼의 고통, 힘겨움

1, 2행: 가마 메는 고통을 알지 못하는 가마 타는 사람들

가마 메고 높은 비탈을 오를 적엔
 빠르기가 산 오르는 사슴과 같고
 가마 메고 낭떠러지를 내려갈 적엔
 우리로 돌아가는 양처럼 쏠살같으며
 가마 메고 깊은 구덩일 뛰어넘을 땐

(가마꾼의 모습을 비유)
 다람쥐가 달리며 출추는 것 같다오

가마꾼의 노동을 고역으로만 보지 않고 노동의 통쾌를 그려 냄
 (민중의 삶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음)

바위 곁에선 살짝 어깨를 낮추고,
 좁은 길에선 민첩하게 다리를 꼬기도

역동적, 시각적, 묘사적

가마꾼이 산길을 지날 때의 어려움
 절벽에서 깊은 못을 내려다보면
 놀라서 났이 달아날 지경이건만
 평탄한 곳처럼 신속히 달리어라
 컷구멍에 썩썩 바람이 이는 듯하니

정감적 이미지
 이 때문에 이 산에 노닐 적엔

이 낙을 반드시 먼저 꿈는다오
 가마를 타고 가는 사람의 즐거움

3~16행: 가마의 역동적 움직임과 가마를 타고 가는 이의 즐거움

멀리 돌아서 관첩을 얻어 오는데도

벼슬아치에게 주던 임명장
 역속들이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데
 역인(역리와 역줄을 통틀어 이르는 말)=하급 관리
 더구나 너희야 역마 타고 부임하는

화림학사를 누가 감히 업신여기랴
 권력층, 지배 계층

통솔하는 아전은 채찍과 매를 쥐고
 관아에 속한 구실아치=하급 관리

우두머리 중은 대오를 정돈하여
 영접하는 덴 시한을 어기지 않고
 가는 데는 엄숙히 서로 뒤따라서

혈떡이는 숨소리는 여울 소리에 섞이고 : 청각적 이미지

땀국은 현 누더기에 흠뻑 젖누나 : 시각적 이미지

옴퐁 팬 곳 건널 땐 옆 사람이 받쳐 주고

험한 곳 오를 땐 앞사람이 허리 굽히네

백성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새끼에 눌러 어깨엔 흠이 생기고

둘에 부딪쳐 멍든 발은 낫지를 앓네

가마 메고 가는 사람의 고통 형상화

스스로 고생하여 남을 편케 함이니



당나귀나 말과 다를 것이 없구나

가마꾼의 고통을 비유 - 천대당하는 가마꾼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고발

(17~32행: 관청 얻은 한림학사를 모시고 가는 견여꾼들의 고통

너나 나는 본시 같은 민족으로서

하늘의 조화를 똑같이 타고났건만

신분제의 모순 지적(시대를 앞선 선진 의식, 패동사상)

네 어리석어 이런 천역을 감수하니

가마꾼이 어리석어 천대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봄(가마꾼의 어리석음을 탓하기 보다는 불합리적인 사회 제도를 원인으로 삼고 있음)

내가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오 — 설의법

정서의 직접적 표출 - 양반으로서 느끼는 부끄러움과 연민

나는 너에게 덕 입힌 것 없는데

어찌 너희 은혜만 받는단 말이나

가마를 탈 수 없음

형이 아우를 붙잡히 안 여기면

부모 마음에 노여워하지 않겠는가

굴(부모) - 신(형) - 밀(아우)의 관계에 비유

① 가마꾼의 노고를 감사해 하고 그들을 아껴야 함을 지적

② 신분제의 부당함을 부각(신분제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님), 사대부가 지켜야 할 태도를 언급한 작가의 선진 의식

중의 무리는 그래도 괜찮거니와

저 산 밑의 민호들이 애처롭구나 — 정서의 직접적 표출

관인들의 행차 때 가마를 매어 주는 의무를 지고 사는 마을

33~42행: 천역을 감수하는 가마꾼들과 산 밑 민호들의 애처로운 삶

큰 지렛대 쌍마의 가마에다가

주제: 비판의 대상

온 마을 사람들은 복마꾼 참마꾼으로 동원하네.

관리의 부도덕한 모습

개와 닭처럼 마구 몰아대니

직유법(가마꾼으로 강박된 백성들을 비유)

으르는 소리 시호보다 고약하도다

승냥이와 여우

가마 타는 텐 옛 경계가 있는데도

가마꾼의 노고에 감사하는 것

이 도리를 분토처럼 버린지라

김매던 자는 호미를 놓아 버리고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함

밥 먹던 자는 먹던 밥을 뺏고서

아무 죄 없이 꾸짖음을 당하면서

관리들의 횡포를 견뎌야 함

만 번 죽어도 머리만 조아리어

가까스로 어려움을 넘기고 나면

어허, 그제야 노략질을 면하도다

마을 지어 돌아다니며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것

가마 탄 자 한마디 위로도 없이

관리들의 도덕적 무감각함(애민 정신의 부재)

호연히 일산 드날리며 떠나가거든

행벌을 가리기 위하여 세우는 큰 양산

힘이 다 빠진 채 밭으로 돌아와선

진발 후 힘들어하는

실날 같은 목숨 시름시름하누나

농민들의 괴로운 삶

43~58행: 민호들을 몰아대는 관리들의 부도덕성과 민호들의 괴로운 삶

내 이 때문에 견여도를 그려 내어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신용하는 모습

돌아가 임금님께 바치려고 하노라

임금이 관리들의 횡포를 막아 주길 바라는 - 신하로서의 도리

59, 60행: 견여도를 그려 임금에게 고하고자 함



핵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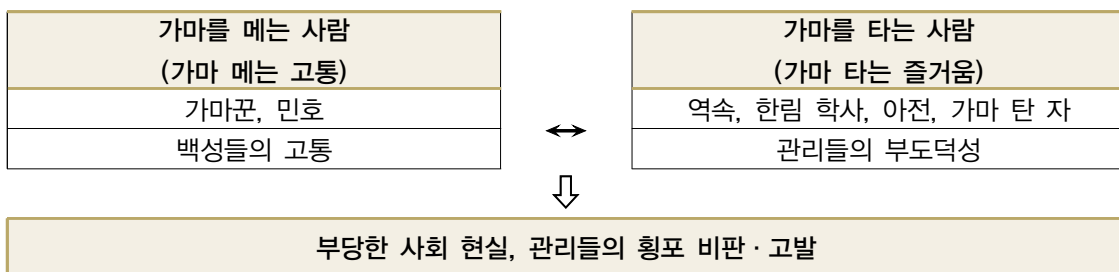
갈래	한시
구성	전 60행의 장시(五言詩)
성격	사실적, 비판적, 풍자적
제재	가마꾼으로 징집당한 백성들
주제	부당한 사회 현실과 관리들의 횡포에 대한 고발과 비판
특징	① 정통 한시의 격식에서 벗어나 시의 소재와 표현에서 독자적인 특징을 이룸 ③ 직유법을 사용해 가마꾼과 백성들의 고통을 형상화함

작품 해제

정약용이 귀양에서 풀려나 향리로 돌아와 1832년에 지은 작품으로, 정약용의 개인 문집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 수록되어 전한다. 조선 후기 가마꾼으로 징집 당한 백성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와 함께 풍자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정약용은 먼저 관리의 가마를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 가마꾼의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한 후, 가마 타는 즐거움은 알아도 가마 메는 괴로움은 모르는 관리들의 도덕적 무감각을 강하게 질타한다. 이런 비판 속에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작자의 진보적인 의식이 숨어 있다. 또한 마지막 두 행을 통해 화자는 임금과 관리들이 백성들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지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어의 의미



작가 소개

다산 정약용은 18세기 실학 사상을 집대성한 한국 최대의 실학자이자 개혁자이다. 개혁과 개방을 통해 부국강병을 주장한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겪어야 했던 귀양살이는 그에게 깊은 좌절도 안겨주었지만, 최고의 실학자가 된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귀양살이라는 정치적 탄압까지도 학문을 하라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 학문적 업적을 이뤄냈다.



작가로 엮어 읽기 - 고발과 비판

탐진촌요(耽津村謠) / 정약용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왔는데
 이방 ^{목화실로 짠 피륙} 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 가네.
 △: 지방 관리
 누전 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토지 대장의 기록에서 빼간 토지의 세금
 삼월 중순 세곡선이 서울로 떠난다고.
 세금을 받치는 곡식을 싣고 가는 배

고시 7 / 정약용

풀이면 다 뿌리가 있는데
 부평초만은 매달린 꼭지가 없이
 뿌리가 없어 정착하지 못할(연명의 대상, 백성)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언제나 바람에 끌려다닌다네
 목숨은 비록 붙어 있지만
 더부살이 신세처럼 가날프기만 해
 연잎은 너무 팔시를 하고
 △: 부평초를 팔시하고 필박하는 존재(탐관오리, 지배층)
 행채도 이리저리 가리기만 해
 똑같이 한 못 안에 살면서
 어찌면 그리 서로 어그러지지만 할까
 서로 어우러지지 못하는(지배층이 백성을 괴롭히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

고시 8 / 정약용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수탈당하는 백성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시적 화자의 동족 - 삶의 터전을 잃은 백성들의 고통
 느릅나무 해나무 목어 구멍 많은데
 제비가 살 만한 곳 - 백성들의 삶의 터전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제비 다시 지지귀며
 사람에게 말하듯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해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 제비의 삶을 위협하는 대상 - 지배 계층(관리)

핵심 정리

갈래	한시 (7언 절구)
성격	사실적, 비판적, 고발적
주제	관리들의 횡포(가렴주구, 苛斂誅求) 고발
특징	① 농민이 처한 현실을 농민과 황두의 대립 구도를 통해 수탈 계층의 포악성을 고발함 ② 피해한 농촌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함 ③ 직유법과 도치법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표현함

핵심 정리

갈래	한시 (5언 고시)
성격	우의적, 상징적, 비판적
주제	핍박 받는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
특징	①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② 자연물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를 강조함 ③ 연못의 모습을 통해 인간 세상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 줌

작품 해제

힘겹게 사는 백성들을 '부평초'에, 그들을 핍박하는 지배층을 부평초를 괴롭히는 자연물에 비유하여 지배층의 횡포에 고통 받는 백성들의 삶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핵심 정리

갈래	한시 (5언 고시)
성격	우의적, 풍자적
주제	지배층의 횡포와 피지배층의 고통
특징	① 관리들의 횡포로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드러냄 ② 우의적 수법으로 지배층의 횡포를 풍자함 ③ 제비를 의인화하여 대화 형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

작품 해제

지배층의 횡포와 피지배층의 서러움을 '제비'와 '황새' 그리고 '뱀'에 빗대어 우화적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시각적 상상 '물'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백수광부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

임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임과의 이별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임의 죽음

이제 임을 어이할꼬.
탄식과 체념 - 슬픔, 원망, 체념이 집약됨 / 애절한 심정이 최고조에 이름

<1구> 물을 건너는 임을 만류함

<2구> 물을 건너는 임
(1, 2구: 임의 떠남(물을 건너))

<3구> 임이 물에 빠져 죽음

<4구> 임에 대한 체념과 슬픔
(3, 4구: 임의 죽음)

핵심 정리

갈래	고대 가요, 한역시, 서정시
성격	체념적, 애상적
주제	임과 사별한 슬픔
특징	①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서정 시가 ② 집단적 서사시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단계의 가요 ③ 이 노래에 나타난 이별과 죽음에서 나오는 한의 정서는 「정음사」, 「가시리」, 「서경별곡」, 「진달래꽃」 등으로 이어지는 민족 정서의 전통을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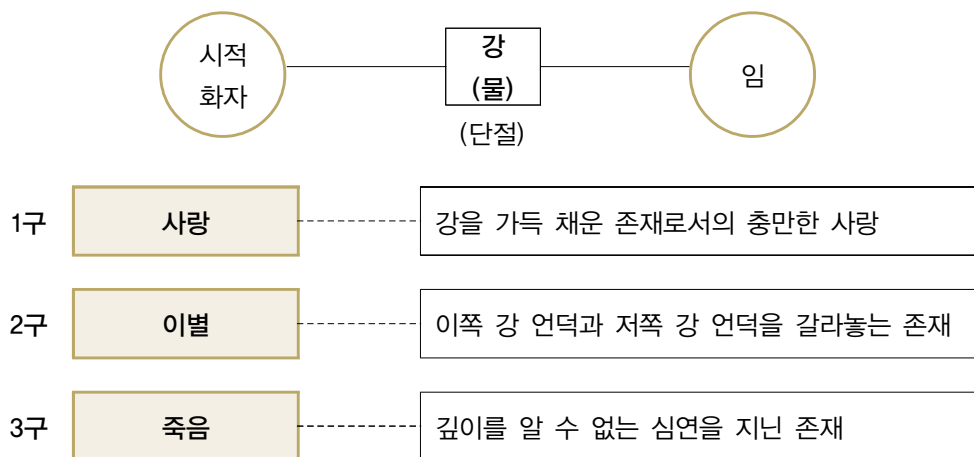
작품 해제

4연 4구로 되어 있는 고조선 시대의 작품이다. 중국의 고대 문헌에 먼저 소개되어 있고, 17세기 이후 우리나라의 문헌들에도 등장하고 있다. 머리를 풀어 헤친 남자가 물을 건너다 세상을 떠나자 남편을 만류하던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그 뒤를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함께 전해진다.

**배경 설화**

고조선의 뱃사공 껍리자고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배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때 머리가 허영게 센 미치광이 남자(백수 광부) 한 사람이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술병을 쥐고는 어지러이 흐르는 강물을 건너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그 뒤를 따라가며 말렸지만, 채 붙잡지 못해 그 미치광이는 끝내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에 그의 아내는 공후를 뜯으면서, ‘공무도하(公無渡河)’의 노래를 지었는데, 그 소리가 아주 슬펐다. 노래가 끝나자 그의 아내는 스스로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이러한 광경을 처음부터 목격한 껍리자고는 집으로 돌아와 자기 아내 여옥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노래를 들려주었다. 여옥은 슬퍼하며 공후를 뜯으면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듣는 사람들 중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여옥은 이 노래를 이웃에 사는 여용에게 가르쳐 주고, 노래 곡조를 「공후인(箜篌引)」이라 이름 지었다.

‘물’의 의미**갈래로 엮어 읽기 - 고대 가요**

고대 가요는 고대에 향유되었던 우리 노래를 가리킨다. 우리 민족은 대략 청동기 시대쯤에 부족 집단의 수준을 넘어서 고조선을 비롯한 고대 국가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반도에서 삼국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이전 시대의 시가 문학을 가리켜 고대 가요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주술적인 성격을 지닌 ‘구지가’와 개인 서정시인 ‘공무도하가’, ‘황조가’가 있었다. 이 노래들은 비교적 짧고 간결해서 소박한 민요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 번 읽어 보면 이해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다만 노래를 짓고 부르게 된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지므로, 그 배경 설화와 함께 기억해 두면 좋겠다.



구지가(龜旨歌)

거북아, 거북아.

신령스러운 존재.

소망을 들어주는 주술의 대상이자 매개체

<1> **로명**

머리를 내어라.

<2> **명령**

내어놓지 않으면

<3> **가정**

구워서 먹으리.

<4> **위협**

황조가(黃鳥歌)

훨훨 나는 저 피꼬리

객관적 상관물

암수 서로 정답구나.

외로울사 이 내 몸은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 시적 화자

넋와 함께 돌아갈꼬.

설외법(함께 돌아갈 사람이 없음)

갈래	고대 가요
성격	주술적, 집단적, 의식요, 노동요
주제	새로운 생명(성스러운 임금)의 강림 기원
특징	① 직설적이고 명령적인 어조를 통해 소망을 이루고자 하고 있음 ② 흠을 파면서 노래했다는 점에서는 노동요의 성격을, 다같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는 점에서는 집단 가무의 성격을 띠고 있음
배경 설화	옛날 구지봉이라는 산에서 무엇을 부르는 수상한 소리가 났다. “하늘이 나에게 명하시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여 임금 이 되라 하였으니 너희들은 산봉우리 흠을 파면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뛰놀게 될 것이다.” 하였다. 이에 구간(일종의 추장)들이 그 말을 따라 다 같이 빌면서 가무를 하였다. 10여 일 후에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 알 여섯이 사람으로 변하였는데, 그중 한사람을 처음 나타났다고 하여 이름을 수로라 하고, 그가 세운 나라를 대가락 또는 가야국이라고 불렀다.

갈래	고대 가요
성격	서정적, 애상적
주제	사랑하는 임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
특징	① 선경 후정의 표현 방식을 사용함 ② 객관적 상관물을 이용하여 그와 대비되는 자신의 감정을 강조함 ③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냄
배경 설화	고구려의 제2대 왕인 유리왕은 왕비인 송 씨가 세상을 떠나자, 화희와 치희를 계비로 맞아들였다. 두 여인은 왕의 총애를 두고 서로 다투어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 두 여인이 크게 다투게 되었고, 치희가 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치희를 쫓아갔으나 치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왕은 홀로 돌아오는 길에 나무 밑에서 쉬다가 피꼬리 한 쌍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 이 작품을 지었다고 한다.



남당사(南唐詞) / 작자미상

남당 물가에 우리 집이 있거늘

강진읍 가까이 있는 지명. 탐진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으로 예전에는 배가 닿는 항구였음

무슨 까닭으로 다산초당에 머무는고?

낭군이 기거하시던 곳 그 자취를 느끼고 싶어서요.

남당에 돌아가지 않는 이유를 밝힘

손수 가꾸신 꽃이 연못가에 피어 있어요.

〈제1수〉 원정인 남당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와 임과의 추억

굴동 서편 쪽으로 월출산 솟아 있는데

강진군 도암면의 다산초당이 소재한 마을

저 산마루 바위는 누구를 기다리나?

이 몸은 천만번 죽어도 한이 끝내 남으리라.

저 산마루 바위처럼 망부석이나 되고 지고.

망부석 전설에 빗대어 자신의 사무치는 그리움 표현

〈제2수〉 망부석 전설을 통한 애절한 그리움의 토로

서산에 지는 해 임을 위한 슬픔인가

늡기 전에 상봉하지 못함을 한하노니

해와 달. 해에는 다리 셋 달린 까마귀가 깃들이고 달에는 토끼가 살고 있다는 신화에서 유래함

아무도 오토를 붙잡아 댈 힘이 없다는데

화자의 환탄(임과 이별한 채 시간이 흘러감)

남은 세월 내내 생이별로 지낼거나.

〈제3수〉 애절한 그리움과 이별의 정한

남당 봄물에 안개가 자욱한데

늘어진 버들가지 갓 핀 꽃향기가 여객선을 띄네.

여기서 곧바로 하늘가로 길이 통해

배에 우리 아이 실으면 소내로 닿을 텐데…….

임에게 달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 다산의 고향인 경기도 광주 마현의 지명

〈제5수〉 임에게 가고 싶은 간절한

남당의 노래 여기서 그치나니

이 노래 마디마디 절명의 소리.

남당의 노래 들어 볼 것도 없이

저버린 마음이야 저버린 사람이 잘 알겠지.

제년의 어조(자신을 버리고 떠난 임에 대한 원망)

〈제6수〉 자신을 떠난 임에 대한 원망

**핵심 정리**

갈래	한시
성격	애상적, 서정적
주제	이별의 정한과 원망
특징	① 그리움의 대상인 임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함 ② 과거와 다른 현재(임의 부재)의 화자의 정서(이별의 정한과 상실감)를 표현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다산이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사랑했던 여인이 이별 후에 자신의 입장에서, 해배되려 돌아간 다산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한 16수의 한시이다. 다산이 한양으로 돌아가면서 여인을 친정인 남당 본가로 보냈으나, 여인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산이 머물던 초당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서문에 담겨 있다. 작자 미상으로 남겨져 있어서 실제로 그 여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인을 시적 화자로 설정하여 다산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서러운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의 창작 배경

다산의 소실이었던 여인은 다산의 유배가 해제되자 친정인 남당 본가로 보내졌다. 하지만 그녀는 우여곡절 끝에 다산초당으로 돌아와 날마다 연못과 누대, 초목 사이를 서성거리며 서럽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달랬다. 미상의 작가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몹시 슬프고 안타깝게 여겨 「남당사」 16수를 지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농부가(農夫歌) / 이세보

수능특강 P. 71

이육조국어연구소



완손 좌수의 잡은 춘광 우수로 옮겨 너어 ※각 연마다 유사한 형식의 구조 반복
대구적 표현 농부가 흥을 계워 수답의 이종호니 조, 중장 : 구체적 상황
유교적 이상 국가의 모습 아마도 모종을 옮겨 심으니 정세 낙민은 이뿐인가 종장 : 화자의 느낌이나 판단
이런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 : 조선 후기 시조창의 방식(종장의 마지막 음보를 생략함)

<제3수> 모내기의 흥겨움

교화의 대상 초운 재운 풀 밀 적의 저 농부 수고한다 농부의 수고를 높게 평가함
대구적 표현 스립 쓰고 호미 들고 상평 하평 분주하다
때를 놓치면 아마도 농사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훈계함 실시하면 일 년 십이 허사인가

<제4수> 김매기를 하는 수고와 농부에 대한 훈계

마음과 몸을 다하여 애써 근고하여 심은 오곡 날 가물어 근심터니 가뭄으로 인한 근심
구름이 문개문개 피어오름 유연 작운 오신 비의 피는 이삭 거룩하다 적당히 내린 비에 의해 근심이 해소됨
인공이나 성인이 덕으로써 교화함 아마도 우순풍조 성화 신가
비가 때마침내 알맞게 내리고 바람이 고르게 불

<제5수> 조화로운 자연과 임금의 덕

24절기 중 하나, 한로(寒露)와 입동(立冬) 사이에 들며, 아침과 저녁의 기온이 내려가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 백로 상강 다닷거든 낮 가려 손의 들고
24절기의 하나로, 처서(處暑)와 추분(秋分) 사이 지게 지고 가서 보니 백곡이 다 익었다
지금의 실시한 농부야 일어 무삼

<제6수> 잘 익은 곡식에 대한 감회

일 년을 수고하여 백곡이 풍등하니 풍성하니
잔뜩 먹고 배를 두드림 우순풍조 아니런들 함포고복 어이 허리
바람 불고 비오는 것이 때와 분량(分量)이 알맞음 아마도 국태평 민안락은 금세신가
유교적 이상 국가의 모습

<제7수> 풍년의 즐거움과 태평성대에 대한 찬양

그더 추수 얼마 현고 니 농스 지은 거슨 축수를 하고도
나라에서 성인 장정에 부과하던 군역과 부역 토세 진역 밋친 후의 몇 섬이나 남을는지 세금 거정에 근심하는 농민의 모습
아마도 다하고 나면 겨울나기 어려

<제8수> 토세와 신역으로 인한 어려움



핵심 정리

갈래	시조(연시조)
성격	사실적, 유교적
주제	계절에 따른 농가의 일상과 농부의 소임
특징	① 관찰 대상(농부들)의 외양과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② 각 수에서 계절에 따라 요구되는 농사일을 소개함 ③ 대구적 표현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드러냄 ④ 질문의 형식으로 자연의 고마움을 강조하고 청자의 동의를 구함 ⑤ 초, 중장에는 구체적 상황을, 종장에는 이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냄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왕실의 종친으로 철종과 고종 시대에 활동했던 경평군 이세보가 계절에 따른 농가의 일상과 어려움을 노래한 연시조이다. 세도 정치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백성의 교화를 통한 사회 질서 확립을 추구한 작가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덴둥어미화전가 / 작자미상

수능특강 P. 29
이육조국어연구소

천하 만물이 짝이 있건만 나는 어찌 짝이 없나?

화자의 고단한 삶 때문에 새소리에도 감흥을 느끼지 못함

새소리 들어도 회심(灰心)하고 꽃 핀걸 보아도 비참하네.

애고 답답 내 팔자야 어찌하여야 좋을거나.

가자 하니 말 아니오 아니 가고는 어찌할꼬.

청춘과부가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한탄함

덴둥어미 듣다가 썩 나서며 하는 말이
가지 마오 가지 마오 제발 적선 가지 말게.
팔자 한탄 없을까마는 가단 말이 웬 말이오?
잘 만나도 내 팔자요 못 만나도 내 팔자지.
백년해로도 내 팔자요 십칠 세 청상도 내 팔자요.

팔자가 좋을 양이면 십칠 세에 청상 될까?
신명(身命) 도망 못 할지라 이내 말을 들어 보소.

자기의 신명, 곧 팔자로부터 도망을 칭
(중략)

죽을 고생 하는 사람 칠팔십도 살아 있고
부귀 호강 하는 사람 이팔청춘 요사하니
고생하는 사람 덜 사잖코 호강하는 사람 더 사잖네. : 수명이 팔자에 달렸음

고생이라도 한이 있고 호강이라도 한이 있어
호강살이 제 팔자요 고생살이 제 팔자라.
남의 고생 꺾다 하나 한탄한들 무엇할고.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닿는 대로
좋은 일도 그뿐이요 그른 일도 그뿐이라.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놀이 왔거들랑

꽃빛을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종게 듣고

밝은 달은 예사로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좋은 동무 좋은 놀음에 서로 웃고 놀다 보소.

사람의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관계 찼고
고운 꽃도 새겨 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걸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새소리가 들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함
마음 심(心)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마음먹기에 달림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예사로 우는 거요

새소리와 수물자의 정서는 무관함을 확인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마음만 예사로 태평하면 예사로 보고 예사로 듣지.

보고 듣고 예사로 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

침울한 분위기의 전환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짐

청춘과부에 대한 덴둥 어미의 응교



앉아 울던 청춘과부 ^{외미 중복} 황연대각 깨달아서

텐동어미 말 들으니 ^{확하게 모두 깨달음} 말쑥마다 모두 옳아.

이내 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부쳐 보세.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 춘 자로 부쳐 두고

^{16세 무렵의 꽃다운 청춘, 또는 혈기 왕성한 젊은 시절}

화용윤택 이내 얼굴 꽃 화 자로 부쳐 두고

^{꽃다운 얼굴과 고운 자태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이르는 말}

술술 나는 긴 한숨은 ^{가랑비와 봄바람} 세우춘풍 부쳐 두고

^{우는 새와의 거리 두기 → 수심을 떨쳐 내고 신명 나게 하면서 화풍이를 대신하겠다는 의지}

밤이나 낮이나 술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게.

^{매우 근심하는 마음}

청춘과부의 깨달음과 화전놀이예의 함축

핵심 정리

갈래	가사(규방 가사)
성격	여성적, 사실적, 훈계적
시대	조선 후기
주제	덴동 어미의 기구한 인생 역정 고단한 삶에 대한 운명 극복과 삶의 의지
특징	① 여성들이 화전놀이를 하는 흥겨움 속에서 덴동 어미의 기구한 삶이 액자식 구성으로 제시됨 ② 여러 화자가 등장하여 이야기를 끌어간다는 점에서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소설적 요소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 ③ 4음보의 율격과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④ 문답법, 대구법 등의 표현 방식을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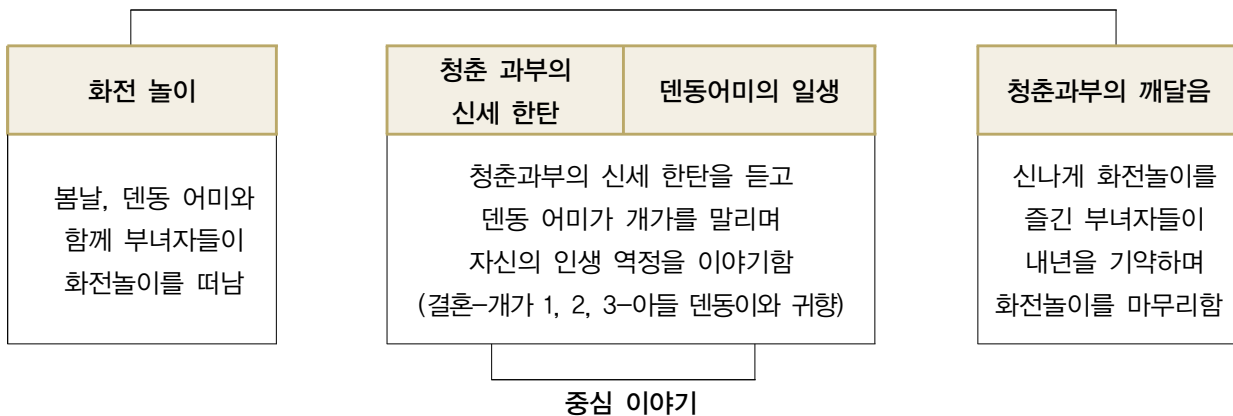
작품 해제

제목의 ‘덴동 어미’는 ‘불에 데인 아이의 어머니’란 뜻으로 덴동 어미의 기구한 인생 역정이 담겨 있다. 또한 ‘화전가’는 삼짇날을 전후하여 부녀자들이 화전놀이를 하며 지어 부른 노래를 뜻한다. ‘덴동 어미 화전가’는 순흥 지방의 화전놀이를 읊은 장편 서민 가사로, 화전놀이를 하는 과정과 흥겨움이 펼쳐지면서도 그 안에 덴동 어미의 기구한 인생 역정이 액자식 구성으로 들어가 있어 삶의 교훈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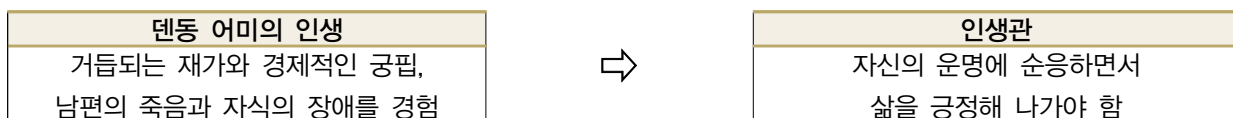
이 작품은 화전놀이에서 청춘과부가 신세를 한탄하며 집으로 가려 하자 덴동 어미가 나서서 개가를 거듭한 자신의 기구한 일생을 요약하고 삶의 방식과 태도에 대한 깨우침을 전하는데, 청춘과부가 이를 듣고 깨달음을 얻어 놀이에 합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작품의 구조 - 액자식 구성**

이 작품은 삼월에 부녀자들이 화전놀이를 하는 전체적인 내용 속에 ‘덴동 어미의 사연 부분’이 들어가 있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덴동 어미의 일생담’ 부분이 작품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화전가’의 형식(액자식 구성)**덴동 어미의 일생과 그 속에 반영된 사회상**

‘덴동 어미’는 아전의 딸로 이방의 아들에게 시집갔으나 남편이 그네를 타다 떨어져 죽자 17세에 과부가 된다. 다시 후처로 개가 했지만 집안은 망하고 둘째 남편은 괴질에 걸려 죽는다. 빈털터리가 되어 유랑하던 덴동 어미는 웅기 장수 황도령을 만나 세 번째로 혼인하였는데 갑자기 내린 비로 남편은 죽고 덴동 어미는 겨우 도망친다. 넷째 남편인 옛장수와 혼인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엿을 고다 불이 나서 남편은 죽고 아이는 불에 덴다. 불에 덴 아이의 어미라 덴동 어미라 불리게 된 그녀는 아이를 업고 60이 다 된 나이에 고향에 돌아온다. 덴동 어미의 고된 삶의 내력에서 조선 말기의 가혹한 징세와 경제적 몰락으로 인한 서민들의 궁핍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덴동 어미의 인생관

청상이 된 여인의 한은 죽은 남편이 살아서 오지 않으면 원래의 삶을 회복하여 풀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체념이나 좌절에 머물지 않고 덴동 어미의 조언을 듣고 청춘과부는 수심을 풀어내기 위해 노래를 통해 신명을 푼다.



갈래 이해하기 - 가사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걸쳐 발생한 시가 갈래인 가사는 4음보 연속체로 된 율문으로, 한 음보를 이루는 음절의 수는 3·4음절이 많고, 행수는 제한이 없다. ‘서사·본사·결사’의 짜임을 갖추고, 마지막에는 시조의 종장과 유사한 낙구를 덧붙이고 있다.

내용 면에서는 강호에서 유유자적하는 생활, 여행, 유배, 정치적 진퇴 등 사대부들의 경험과 소회를 서정적으로 읊은 작품들이 많다. 조선 전기의 가사는 양반 사대부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정극인, 송순, 정철 등이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후기에는 ‘덴동 어미 화전가’처럼 서민들의 생활상이 반영된 서사적인 성격의 작품도 많이 등장한다. 규방가사는 조선 사대부의 아녀자들에 의해 향유된 가사를 말한다.

갈래로 엮어 읽기 - 규방 가사

규원가(閨怨歌) / 허난설헌

(앞부분 생략)

출흥리 잠을 드러 꿈이나 보려 하니
바람의 디는 넓과 풀 속에 우는 즈생
 시적 화자와 임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
므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오는다.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혀서도
칠월칠석 일년일도 실기(失期)치 아니거든
 어기지 않고 만나거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련관디
오거나 가거나 소식(消息)조차 쓰쳤는고
난간의 비겨 서셔 님 가신 디 바라 보니,
돌 이슬 기대어 서서 저녁 구름
초로(草露)는 맺쳐 잇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시적 화자의 고독하고 서글픈 심정 강조
죽림(竹林) 푸른 고디 새 소리 더욱 설다.
 강정 이일의 대상
세상의 서륜 사람 수업다 흐려니와,
 서화론
박명(薄命)훈 홍안(紅顔)이야 날 가트니 또 이실가.
 시적 화자의 기구한 운명 나 같은 이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 흐려라.
 막으로 → 이에 대한 위망과 비난을 직접적으로 표출함

〈결사〉 서러운 마음으로 임을 기다리며 자신의 기구한 운명 한탄

해심 정리

갈래	가사(내방 가사, 규방 가사)
성격	체념적, 절망적, 원망적
주제	독수공방하는 부녀자의 외로움
특징	①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② 한자와 고사성어를 활용함 ③ 대구, 대조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함
의의	① 현존 내방 가사 중 가장 오래된 작품 ② 사대부들의 전유물이었던 가사의 작가층이 여성으로 확대됨

작품 해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규방에서 독수공방하며 눈물
과 한숨으로 늙어 가는 여인이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자신의 신세를 하탄한 작품이다.



도소녀(悼小女) / 이규보

수능특강 P. 251

이육조국어연구소



悼: 슬퍼할 (도) → 어린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로 인한 슬픔

「어린 딸의 얼굴이 눈같이 희고
충명하기 이를 데 없어
두 살에 능히 말을 하되
앵무새보다 능란하였다.
세 살에 수줍음을 아는 듯
놀아도 대문 밖을 나서지 않고
금년이 바로 네 살인데
능히 길쌈질을 배우기도 했다.」

「어린 딸」의 예전 모습과
성장 과정을 회상함

「어찌하여 빼앗김을 당했는지
갑자기 번개처럼 사라졌어라.
비로소 어린 새끼 떨어져 죽는 건
비유(=어린 딸) - 어린 새끼의 죽음

1~8행: 딸에 대한 회상

새 둥지 나쁜 타임을 깨달았노라.
도를 배운 나는 아픈 생각 씹어 삼키나
아내 울음은 언제 그치려나.」
어린 딸의 죽음에 대한 '나'의 태도
어린 딸의 죽음에 대한 아내의 태도

「나」와 아내의 다른
죽음에 대한 수용 방식

9~14행: 딸을 잃은 슬픔

「보건대 발 가운데

곡식의 어린 싹이 돌아날 때
비유(=어린 딸) - 어린 싹의 꺾어짐
혹시 뜻밖에 우박이 오면
모두 맞아 꺾어지나니.

조물주는 생명을 이미 만들어 내고
조물주는 생명을 또 사정없이 빼앗도다.
피고 시늉이 어찌 그리 덧없는가.
변화함은 도리어 거짓 같도다.
인생이 가고 옴이 모두 허깨비거니
아서라. 너와는 영영 이별이로구나.」
죽은 딸

삶과 죽음에 대한
화가의 인식

15~24행: 인생에 대한 성찰



핵심 정리

갈래	한시
성격	애상적
주제	딸의 죽음에 대한 애도
특징	①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어린 딸의 죽음과 그로 인한 슬픔을 형상화함 ② 과거 회상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 ③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화자의 성찰이 드러남 ④ 개인적 상황과 자연 현상을 비교함

작품 해제

이규보가 네 살배기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쓴 시이다. 비유적 표현을 통해 어린 딸을 갑작스럽게 잃은 슬픔을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작가는 어린 싹을 돌게 하였다가 다시 그것을 꺾어 버리는 자연의 어질지 못함을 언급하는데, 그러한 어질지 못함과 덧없음 또한 조물주의 이치이기에 어린 딸의 죽음 역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제로 엮어 읽기 - 열육의 죽음

곡자(哭子) / 허난설헌

지난 해 사랑하는 딸을 잃었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슬프고 슬픈 광릉의 땅이여.

화자의 슬픔 - 직설적 토로

두 무덤이 마주 보고 서 있구나.

아들과 딸의 무덤

백양나무에는 으스스 바람이 일어나고

무덤가에 주로 심음(죽음을 상징)

숲에서는 도깨비불 반짝이는데

지진으로 너희 혼을 부르고

죽은 사람이 저승으로 가면서 쓰라는 의미로 관 속에 넣는(불태우는) 돈 모양의 종이
너희 무덤에 술을 따르네.

아아, 너희들 남매의 혼은

밤마다 정답게 놀고 있으리.

비록 뱃속에는 아이가 있다 하지만

어찌 그 녀석이 제대로 자라기를 바라리오.

황대노래를 부질없이 불며

당나라 고종의 아들 장희 비가 지은 자식을 죽게 한 부모를 책망하는 노래

피눈물로 울다가 목이 메이도다.

곡자의 슬픔 토로

핵심 정리

갈래	한시
성격	애상적
주제	어린 딸과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
특징	① 영탄적 어조로 자신의 슬픔을 직설적으로 드러냄 ② 배경 묘사, 고사의 인용을 통해 화자의 쓸쓸한 정서를 드러냄 ③ 대조적 상황을 제시하여 슬픔의 정서를 부각함

대조적 상황의 역할

이 작품은 두 자식을 잃은 화자의 비통한 마음이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특히 뱃속에 있는 아기를 거론하는 부분은 두 아이가 죽은 상황과 대조되어 그 슬픔을 배가시킨다.



독락당(獨樂堂) / 박인로

수능특강 P. 76
이육조국어연구소

푸른 담쟁이 헤치고 독락당을 지어 내니

그윽한 경치는 건줄 데 전혀 없네.

수많은 긴 대나무 시내 따라 둘러 있고

만 권의 서책은 네 벽에 쌓였으니

독락당의 사방의 벽

왼쪽엔 안중, 오른쪽엔 유하. — 제자들과 더불어 학문에 정진하던 이언적의 토포하는 마음

공자의 제자인 안회와 증상 공자의 제자인 자유와 자하

서책을 벗 삼으며 시 읊기를 일삼아

한가로운 가운데 깨우친 것을 혼자서 즐기다.

독락(獨樂), 이 이름 뜻에 맞는 줄 그 누가 알리.

본가서 줄기

사마온공 독락원(獨樂園)이 아무리 좋다 한들

복속의 명재상이었던 사마광이 홀로 책 읽으며 운거하던 곳

그 속의 참 즐거움이 독락에 건줄쏘나.

독락당과 사마온공의 독락원 비교
-독락당에 대한 화자의 칭송 부각

[~10행: 독락당의 경치와 이언적의 모습]

□ : 공간의 이동

진경(塵境)을 다 못 찾아 양진암(養眞庵)에 돌아들어

진리

L 회개 선생이 후학을 가르치던 곳

바람 쐬며 바라보니 내 뜻도 뚜렷하다.

내 뜻도 맑아지는구나

퇴계 이황 자필(自筆)이 참인 줄 알겠노라.

퇴계 이황의 친필이 담긴 양진암의 글

관어대(觀魚臺) 내려오니 펼친 듯한 반석(盤石)에 자취가 보이는 듯.

L 물고기를 구경할 수 있는 높은 언덕

넓고 평평한 큰 돌

손수 심은 장송(長松)은 옛 빛을 띠었으니

가(옛날과)

큰 소나무

변함없는 경치가 그 더욱 반갑구나.

추상적 인상 → 구체적인 감각적 이미지에 빗대

상쾌하고 맑은 기운 난초 향기에 든 듯하네.

관어대 인근의 경치

몇몇 옛 자취 보며 문득 생각하니

우뚝한 낭떠러지는 바위 병풍 절로 되어

독락당 주변 경치의 아름다움 찬탄

용면의 숨씨로 그린 듯이 벌여 있고

중국 송나라 대 이름난 화가인 이공린의 화

깊고 맑은 못에 천광 운영(天光雲影)이 어리어 잠겼으니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

광풍제월(光風霽月)이 부는 듯 비치는 듯.

맑은 날의 바람과 비 개 날의 달

연비어약(鴈飛魚躍)을 말없는 벗으로 삼아

솔개는 날아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

독서에 골몰하여 성현(聖賢)의 일 도모하시도다.

성현처럼 학문을 닦고 덕을 쌓으셨구나

맑은 시내 비껴 건너 낚시터도 뚜렷하네.

비스듬히 건너

물노라, 갈매기들아. 옛 일을 아느냐.

자연과 동화된 경지 -물아일체 (의인법)

엄자릉이 어느 해에 한(漢)나라로 갔단 말인가.

이끼 낀 낚시터에 저녁연기 잠겼어라.

[1~28행: 독락당 주변 경치를 보며 회개 선생을 생각함]



봄옷을 새로 입고 영귀대에 올라오니

고금 없이 좋은 경치에 맑은 흥 질로 나니

풍류를 즐기는 옛사람의 모습을 오늘 다시 본 듯하다.

바람을 쏘이고 울조리며 돌아올(궁자의 제자 죽절이 늦봄에 봄옷을 입고 기수에서 묵묵하고 무대에서 바람 쏘면서 시를 울조리고 오겠다고 한 일화와 관련됨)
대(臺) 아래 연못에 가랑비 잠깐 지나가니

벽옥(碧玉) 같은 넓은 잎에 퍼지는 것 구슬이로다.

푸른 빛을 띠는 옥

구슬같도다(=넓은 잎에 있는 이슬) 비유

이러한 맑은 경치 봄 직도 하다마는

염계 가신 후에 몇몇 해를 지났는가. — 유학자에 대한 풍모

중국 북송 시대의 유학자로 성리학의 기초를 닦은 것으로 평가받는 주돈이의 호
변함없는 맑은 향기 다만 혼자 남았구나.

안개 비낀 아래에 폭포를 멀리 보니

붉은 벼랑 높은 끝에 긴 냇물 걸린 듯.

폭포의 모습 묘사

향로봉 그 어디오, 여산이 여기인가. — 여산에 견주어 폭포의 절경을 예찬함

여산에 있는 이름난 봉우리 선경을 간직한 중국의 명산

징심대 굽어보니 찌든 가슴 새로운 듯하다마는

마음을 맑게 하는 언덕

적막한 빈 대에 외로이 앉았으니

맑은 바람 잔잔한 물에 산 그림자 잠겨 있고

우거진 녹음에 온갖 새 슬피 운다.

강정 이입의 대상

배회하고 생각하며 참된 자취 다 찾으니

천천히 거닐면서

탁영대(濯纓臺) 연못은 고금 없이 맑다마는

어지러운 속세에 사람들이 다투니

이리 맑은 연못에 갇힌 새를 줄 그 뉘 알리.

늘 변함없는 자연과
서로 반복하는 인간 세상을 대비
- 속세를 개탄함

29~47행: 영귀대의 경치를 보며 인간 세상의 어지러움을 개탄함

**핵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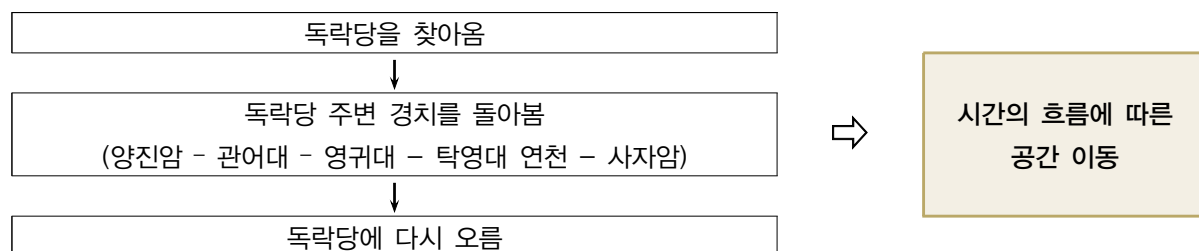
갈래	가사
성격	전원적, 예찬적, 추모적
주제	독락당 경치에 대한 예찬과 이언적에 대한 추모
특징	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이동이 드러남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자연을 예찬하며 그 속에서 대상(회재 이언적)의 흔적을 찾아 추모함 ③ 한자 성어와 중국 고사를 많이 활용하여 대상을 예찬함 ④ 회재 선생에 대한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표현함 ⑤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함
의의	3음보 혹은 4음보를 1행으로 하여 총 123행으로 된 장편 가사

작품 해제

시적 화자는 작가 자신으로 볼 수 있다. 무신의 신분으로 왜란을 참전한 뒤 늙어서야 회재 이언적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자옥산에 와서 독락당 곳곳을 둘러보고 있다. 독락당의 경치를 예찬하고, 회재 이언적을 추모하고 있다. 이언적은 조선의 성리학을 정립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며, 독락당은 이언적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며 학문에 정진하였던 곳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독락당 주변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이언적의 유지를 받들고 그의 풍모를 기리는 정을 노래하고 있다.

문학사적 의의

박인로의 가사에는 주로 성현의 치세에 대한 동경과, 현실과 이상이 합치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작자의 고민이 함께 표출되는데, 이 작품은 전자로 선현을 사모하고 추앙하는 마음을 밀도 있게 표현하였다. 박인로의 가사 중 가장 긴 가사이기도 하다.

작품의 구조



작가 소개

박인로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체험했던 인물이다. 그는 사대부로서는 거의 몰락한 가문에서 출생했으며, 비록 왜란 중에 무과에 급제하여 몇몇 벼슬에 올랐지만 일평생 가난을 겪어야 했다. 전란 후에도 가난은 계속되었지만, 그는 한미한 가문이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유교적 공부를 통해 선비의 길을 닦았다. 그는 정철, 윤선도와 더불어 조선을 대표하는 '3대 시가 작가'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작가로 엮어 읽기

누항사(陋巷詞) / 박인로

와실(蝸室)에 드러간들 잠이 와사 누어시라
 북창(北窓)을 비겨 안자 식비를 기다리니
 무정(無情)한 대승(戴勝)은 이니 한(恨)을 도우나
 종조(終朝) 추창(惆悵)하며 먼 들흘 바라보니
 즐기느 농가(農歌)도 흥(興) 업서 들리느다
 세정(世情)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느다
 : 소를 빌리지 못한 화자의 실망과 안타까움 (중략)
 강호(江湖) 한 꿈을 꾸언지도 오러러니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하야 어지버 이저쩌다
 침피기옥(瞻彼淇澳)흔디 녹죽(綠竹)도 하도 할사
 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낙디 하나 빌려스라.
 노화(蘆花) 김핀 곳에 명월 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야
 님지 업슨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늘그리라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흐라.
 다토리 업슬슨 다문 인가 너기로라.

핵심 정리

갈래	가사
성격	전원적, 사색적, 사실적
주제	① 자연을 벗 삼아 안빈낙도(安貧樂道)하고자 하는 선비의 궁핍한 생활상 ② 빈이무원(貧而無怨)하며 충효, 우애, 신의를 나누는 삶의 추구
특징	① 일상생활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보여 줌 ② 감정을 현실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드러냄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임진왜란 후 피폐해진 사회적 상황에서 이전과 달라진 양반 사대부의 현실을 잘 보여 준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 전기의 엄격하고 권위적인 삶의 방식이 붕괴되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삶의 모습이 좌우되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 작품의 화자는 사대부로서의 지위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농민으로 살아갈 만한 여건도 갖추지 못한 인물로, 양쪽 모두에서 소외된 양반 계층의 갈등과 괴로움을 절절하게 드러내고 있다.



만언사(萬言詞) / 안조원

수능특강 P. 82

이웃조국어연구소



산악 같은 높은 물결 뱃머리를 둘러치네

과장법(배를 위협하는 자연 현상)

크나큰 배 조리 젖듯 오장육부 다 나온다

과장법(배를 위협하는 자연 현상)

천은 입어 남은 목숨 마자 진(盡)케 되겠고나

초한건곤 한 영중에 장군 기신 되려니와

서풍 낙일 먹라수에 한나라 유방이 조나라 항우에게 포위되었을 때 유방을 대신하여 목숨을 바친 장수 굴살려는 불원이라

스스로 생을 마친 역사적 인물 제시
- 물에 빠져 죽기 싫음을 드러냄

억울함으로 인해 먹라수에 스스로 몸을 던졌던 조나라의 충신 굴원
차역 천명(此亦天命) 할 일 없다 일생일사(一生一死) 어찌하리

이 일 역시 하늘의 명이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작가가 추자도로 유배를 오게 된 일을 말함

출몰 사생(出沒死生) 삼주야(三晝夜)에 노 지우고 닳을 지니

살과 죽음이 교차하는 고비를 만남

3일 밤낮을 지냄

유배지로 이동 과정의 험난함

수로 천리 다 지내어 추자 섬이 여기로다

도중으로 들어가니 적막하기 태심(太甚)이라

사면으로 돌아보니 날 알 이 뉘 있으리

보이나니 바다히요 들리나니 물소리라

화자의 막막한 심경(주변의 사물을 확용해 나타냄)

벽해상전(碧海桑田) 갈린 후에 모래 모여 섬이 되니

추자 섬 생길 제는 천작지옥(天作地獄)이로다

해수(海水)로 성을 싸고 운산(雲山)으로 문을 지어 : 대구법

세상이 꿇겼으니 인간은 아니로다

풍도(豐都) 섬이 어디메뇨 지옥이 여기로다 : 대구법

도교에서 말하는 지옥

도착한 유배지를 지옥으로 표현 - 깊은 절망감

어디로 가잔 말고 뉘 집으로 가잔 말고

갈 곳 없는 처지

눈물이 가리우니 걸음마다 었더진다

이 집에 가 의지하자 가난하다 핑계하고

저 집에 가 의지하자 연고 있다 칭탈하네

무엇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이집 저집 아무덴들 적객 주인(謫客主人) 뉘 좋다고

유배 온 죄수를 관리하는 일을 맡은 사람

관력(官力)으로 꺾박하고 세부득이(勢不得已) 맡았으니

관청이나 관리의 권력

사정이 어쩔 수 없이

관채다려 못한 말을 만만할손 내가 듣네

관자에게(관자: 관아에서 파견하던 아전)

세간 그릇 흘던지며 역정 내어 하는 말이

저 나그네 헤어보소 주인 아니 불쌍한가

책편이 좋지 않은 자신에게

유배 온 사람을 맡긴 것에 대한 부당함의 표현

화자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는 사람

이집 저집 잘 사는 집 한두 집이 아니어든

관인(官人)들은 인정 받고 손님네는 혹언 들어

정도가 지나친 말

구태여 내 집으로 연분 있어 와 계신가

내 살이 담박한 줄 보신다면 아니 알가

앞뒤에 전답 없고 물속으로 생애하여

앞 언덕에 고기 낚아 뒷녘에 장사 가니

삼망 얻어 보리 섬이 믿을 것도 아니로세.



신겸처자(身兼妻子) 세 식구의 호구하기 어렵거든

^{물론 있는 몸이 아니고 세 식구}
양식 없는 나그네는 무엇 먹고 살려는고
집이라고 서 볼손가 기어 들고 기어 나며
방 한 간에 주인 들고 나그네는 잘 데 없네
뛰자리 한 잎 주어 담하에 거처하니

냉지에 누습하고 증생도 하도 할사
^{습기가 많고} ^{징그러운 벌레가 많다}
발 남은 구렁배암 뺨 넘운 청진의라

쾌적하지 않은 거처에 대한 불만

^{지네의 일종(특근빛을 띠고 있음)}
좌우로 돌렸으니 무섭고도 징그럽다

서산에 일락하고 그믐밤 어두운데
^{서산에 지는 해} ^{어두운 그믐밤}
남북춘 두세 집에 술불이 희미하다

화자의 어두운 심리와 조울

^{희미한 술불}
어디서 슬픈 소리 내 근심 더하는고
별포에 배 떠나니 노 젓는 소리로다

^{화자의 걱정이 심화되는 분위기를 조성}
눈물로 밤을 새와 아침에 조반 드니

화자의 근심으로 인한 눈물

^{익은} ^{거친 밥과 조리한 반찬을 이름}
덜 쓰른 보리밥에 무장평이 한 종자라

^{거친 보리밥과 간장뿐인 식사}
한술을 떠서 보고 큰 덩이 내어 놓고
그도 저도 아조 없어 굴물 적이 간간이라

^{보잘것없는 식사이지만 이조차도 없어 굶는 날이 간간이 있음}
여름날 긴긴 날에 배고파 어려워라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방 염천 찢는 날에 빠지 못한 누비바지
^{남쪽의 몹시 더운 날씨}
땀이 배고 때가 올라 굴뚝 막은 덕석인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겨울옷을 입고 있음

^{덜은 용도로 쓰이는 멍석}
덥고 검기 다 바리고 내암새를 어이하리



핵심 정리

갈래	가사(유배 가사)
성격	사실적, 애상적, 한탄적
주제	유배 생활의 어려움과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
특징	① 여러 필사본이 전하며, 그에 따라 작자가 안조원, 안조환, 안도원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 ② 「만언사」라는 주가사와 「만언사답」, 「사부모」, 「사처」, 「사자」, 「사백부」로 구성됨
특징	① 주변의 사물을 활용해 정서를 드러냄 ② 위협적인 자연 현상을 과장하여 보여줌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④ 대구적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정조 때 궁중에서 별감으로 일했던 작가가 자신의 잘못으로 추자도에 유배되어 유배지에서서의 어려움과 자신의 삶에 대한 회상을 기록한 장편 가사이다. 작가가 추자도로 유배되는 과정과 그 속에서의 경험을 담고 있다. 유배지에서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시적 화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한탄하면서 풀려나기를 기원하고 있다.

작품의 구조

서사	본사			결사		
귀양 가는 신세 한탄	⇒	과거 회상	유배의 노정	유배 생활	⇒	유배에서 풀려나기를 기원함
		어린 시절부터 벼슬살 이까지의 회상, 유배의 이유 (어려서 어머니를 여읜 - 혼인 이후 향락적 풍 류를 즐길 - 마음을 잡 고 공부하여 벼슬살이 하였으나 잘못된 공무 처리로 유배하게 됨)	추자도까지의 유배 여정	추자도에서의 궁핍한 생활과 임금에 대한 충성심 (추자도 사람들의 박 해 - 구걸하는 삶 - 궁벽한 삶 속에서도 변함없는 충성)		

문학사적 의의

작가가 34살 때 공무상의 잘못으로 추자도로 유배된 뒤,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는 상황과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내용을 노래한 작품이다. 김진형의 장편 유배 가사인 「북천가」와 쌍벽을 이루는 장편 유배 가사로 평가받는다.



작가로 엮어 읽기 - 「만언사담」

「만언사」에 대한 답가 형식을 띠고 있는 가사로, 유배 생활의 고충을 토로한 「만언사」 속 화자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다. 화자인 광부는 청자인 손님네(유배객, 「만언사」의 화자)에게 유배 생활이 고통스러워도 참으며 자신의 도리를 다하라고 위로한다.

만언사담(萬言詞答) / 안조원

이보시오 손님네야 설운 말삼 그만호오
손님 - 「만언사」의 화자
광부의 말이라도 성인이 가리시니
미친 사람 - 「만언사담」의 화자
시골말이 무식하나 이니 말삼 드러보소
경순환 표현

〈본사〉 귀양살이의 서러움을 토로함

(이하 생략)

이보시오, 손님네야, 서러운 말 그만하오.
 미친 사람의 말이라도 성인이 가리시니
 시골말이 무식하나 내 말씀 들어보소.

핵심 정리

갈래	가사(유배 가사)
성격	교훈적, 설득적
주제	유배객에 대한 위로
특징	① '손님'이라는 청자를 설정하여 듣는 이를 위로함

작품 속 화자와 청자의 관계

자신이 지은 노래에 자신이 답가를 하고 있으므로, 결국 화자와 청자는 같은 사람, 즉 작가 자신이다. 유배 생활의 고충을 토로한 「만언사」 속 화자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다. 유배객(손님)에게 유배 생활이 고통스러워도 참으며 자신의 도리를 다하라고 위로한다.



말 업슨 청산이요 / 성혼

수능특강 P. 67
이육조국어연구소

△말 업슨 청산(靑山)이요 태(態) 업슨 유수(流水) | 로다
모양 말이 많고 가변적인 인간 세상과 다른 자연의 속성 대구법 조장: 청산과 유수의 속성

△갑 업슨 청풍(淸風)과 넘즈 업슨 명월(明月)이라
값 가치를 따지지 않고 소유의 여부를 따지는 인간 세상과 다른 자연의 속성 중장: 청풍과 명월의 속성

이 중에 병(病) 업슨 이 몸이 ^{걱정 없이} 분별(分別) 업시 늙으리라.
화자 이 시의 해석: 자연과 더불어 근심 없이 살아가겠다는 소망을 표현함 종장: 근심 없는 삶의 지향

[현대어 풀이]
말이 없는 것은 청산이요, 모양이 없는 것은 흐르는 물이로다.
값이 없는 것은 바람이요, 주인이 없는 것은 밝은 달이로다.
이 자연 속에서 병 없는 이 몸은 걱정 없이 늙으리라.

핵심 정리

갈래	시조(평시조)
성격	한정가, 풍류적, 전원적, 달관적
주제	자연을 벗 삼아 사는 즐거움 자연과 더불어 근심 없이 사는 모습
특징	① 초장과 중장에서 대구법을 사용하여 자연의 좋은 점을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 ② 자연물에 가치를 부여하여 주제를 제시함

작품 해제

세속의 물욕이나 명리를 초월하여 자연 속에서 살겠다는 달관의 경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로, 이이와 깊은 교분을 나누었던 성혼이 자연에 귀의하여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여 쓴 작품이다. 자연을 본받고 자연 속에서 살고자 하는 성리학적 이상향이 잘 드러나 있다.

대립적 의미 구조

‘병’으로 상징되는 세속적 삶과 ‘청산, 유수, 청풍, 명월’ 등으로 드러낸 자연의 모습을 대비하고, 자연 속에서의 근심 없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말, 태, 갑(값), 임재(주인)	청산, 유수, 청풍, 명월
- 인위적 가치 - 유한함	- 자연적 가치 - 무한함



갈래 이해하기 - 시조

고려 말에 처음으로 나타난 시조는 조선 시대에 들어와 한글이 창제됨에 따라 우리 국문학의 대표적인 문학 양식으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 대표적 시가이다. 유교적 충의 사상에 바탕을 둔 내용이 주류를 이루며, 자연 속에서 한가롭고 평화로운 자연미를 노래한 한정가, 강호가가 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시조는 중인층 가객들의 등장과 함께 향유 기반이 넓어졌다. 특히 사설시조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사건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거나 현실 생활의 어려움을 풍자적으로 토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주제로 엮어 읽기 - 자연 친화

위의 작품과 「십 년을 경영하야」는 주로 양반이 향유층이었던 조선 전기의 평시조이다. 「논밭 갈아 기음 매고」는 하층민이 자신의 삶을 노래하며 그 속에서 여유와 흥겨움을 찾고 있는 사설시조이다.

십 년을 경영하야 / 승순

십 년을 경영하야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어 내니

나 한 칸 돌 한 칸에 청풍^{박이 새 칸밖에 없는 초가집(안빈낙도의 삶)} 한 칸 맞겨 두고

강산^{물아일체의 삶을 추구}은 들일 디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십 년을 준비하여 초가삼간 지으니
나 한 칸, 달 한 칸, 맑은 바람 한 칸 맡아 두고
강산은 들일 방이 없으니 둘러놓고 보겠노라.

핵심 정리

갈래	시조(평시조)
성격	자연친화적
주제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와 물아일체의 삶을 추구함
특징	① 자연물에게 자신의 방을 내어주겠다는 독특한 착상을 활용하여 자연물을 친근한 존재처럼 표현함 ② '한 칸'을 반복하여 '초려삼간'을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

논밭 갈아 기음 매고 / 작자미상

논 밭 갈아 기음 매고 비잠방이 다임 신들메고

논밭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버러 두러 매고 무림 산중(茂林山中) 들어가서 삭다리 마른 섶을 뵈거니 버히거니 지게에 질며 지팡이 바쳐 놓고 새암을 찾아가서 점심 도습 부시고 방대를 툭툭 떨어 뉘담배 뛰여 물고 코노래 조오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제 어깨를 추이르며 긴 소래 저른 소래 하며 어이 갈고 하더라.

논밭 갈아 김 매고 배잠방이 대님 쳐 신발을 잡아 매고
논밭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갈아 둘러메고 숲이 울창한 산 속 들어가서 삭정이, 마른 섶을 베어 지게에 질며 지팡이 받쳐 놓고 샘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 깨끗이 씻고 곰방대를 툭툭 떨어 담배 피어 물고 콧노래 부르며 줄다가,
석양이 언덕 너머로 질 때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이 갈까 하더라.

핵심 정리

갈래	시조(사설시조)
성격	전원적, 사실적
주제	농촌의 하루 일과와 그 속에서 느끼는 여유
특징	① 순우리말과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함 ② 농사일을 하는 하루 동안의 과정(오전-저녁)을 요약하여 제시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휴식을 취한 후, 해 질 녘에 노래를 부르며 집에 돌아가는 농부의 모습을 그린 사설시조이다. 작중 인물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여유로움과 흥겨움을 잃지 않고 있다. 작중 인물의 하루 일과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제시되고 있다.



면앙정가(倅仰亭歌) / 송순

수능특강 P. 73

이육조국어연구소



无等山(무등산) 흔 활기 피히 동다히로 버더 이서

멀리 떼쳐 와 齊月峯(제월봉)이 되어거늘

無邊大野(무변 대야)의 므슴 짐작 호노라 — 의인법

닐곱 구비 흙터 웁쳐 므득므득 버렸는 듯 — 적유법

가운데 구비는 굽기 든 늘근 놓이

선잠을 긋 씨야 머리 를 언쳐 시니

⇒ 면앙정이 위치한 제월봉의 모습

너르바회 우히

松竹(송죽)을 헤치고 亭子(정자)를 언쳐시니

구름 탄 靑鶴(청학)이 千里(천리)를 가리라 두 느래 버렸는 듯

푸른 학(면앙정을 비유함)

날개(면앙정의 지붕)

⇒ 면앙정의 모습

무등산 한 즐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무등산을) 멀리 떼어 버리고 나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끝없는 넓은 들에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일곱 굽이가 한데 웁츠리어 우뚝우뚝 벌여 놓은 듯

그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넓은 용이

선잠을 막 깨어 머리 를 얹어 놓은 듯 하며

넓고 편편한 바위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헤치고 정자를 얹혀 놓았으니
마치 구름을 탄 푸른 학이 천 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벌린 듯하다.

〈서사〉 제월봉의 산세와 면앙정의 모습

□ : 면앙정 주변의 풍경(군경에서 원경으로 묘사함)
(물 - 백사장 - 기러기 - 산)

玉泉山(옥천산) 龍泉山(용천산) 느린 물이

둘러내린 물

亭子(정자) 앞 너른 들히 울울히 퍼진 드시

넙쳐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디마나 — 대구법

雙龍(쌍룡)이 뒤트는 듯 긴 길을 치פת는 듯

어드러로 가노라 므슴 일 빅얏마

돋는 듯 싸로는 듯 밤늦으로 흐르는 듯 — 대구법

⇒ 면앙정 앞 넓은 들과 그곳을 흐르는 시내물(군경)

옥천산 용천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끝없이 (잇따라) 퍼져 있으니

넓거든 길지나, 푸르거든 희지나 말거나(넓으면서도 길며, 푸르면서도 희다)

쌍룡이 몸을 뒤트는 듯, 긴 비단을 가득 펼쳐 놓은 듯

어디로 가려고 무슨 일이 바빠서

달려가는 듯, 따라가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하다.

물을 따라 펼쳐진 백사장

므소친 沙汀(사정)은 눈긋치 퍼졌거든

어즈러운 기러기는 므스거슬 어르노라

사랑하노라



안즈락 느리락 모드락 핫트락

盧花(노화)를 스이 두고 우러곰 좇니는고

올며

⇒ 물가에 날아다니는 기러기의 모습(군경)

물 따라 벌여 있는 물가의 모래밭은 눈같이 하얗게 퍼졌는데,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통정(通情)하려고
앉았다 내려갔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며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서로 따라다니는고?

너른 길 밧기오 긴 하늘 아리

두르고 꼬곤 거슨 피 헐가 屏風(병풍)인가 그림가 아닌가 — 대구법

노픈듯 느즌 듯 근눈 듯 닛눈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 열거법

이츠러운 가운데 일흠는 양호야 하늘도 젓티 아녀

어지러운

유명한 제하여

두려워하지 않아

웃독이 섰는 거시 秋月山(추월산) 머리 짓고

龍龜山(용구산) 夢仙山(몽선산) 佛臺山(불대산) 魚登山(어등산)

湧珍山(용진산) 錦城山(금성산)이 虛空(허공)에 버러거든

遠近(원근) 瘡崖(창애)의 머른 것도 하도 할사 — 벌어겨 있거든
푸른 절벽 많기도 많구나 — 영탄적 표현

⇒ 면앙정에서 본 여러 산의 모습들(원경)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지는 듯 잇는 듯,
숨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며,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며,
어지러운 가운데 유명한 체 하여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 선 것이 추월산 머리 삼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여져 있는데,
멀리 가까이 푸른 언덕에 머운 것(펼쳐진 모양)도 많기도 많구나.

<본사> 면앙정에서 바라보는 주변의 경치 (군경 → 원경)

《EBS 수능특강 지문》

흰구름 브흰 煙霞(연하) 프르니는 山嵐(산람)이라

안개와 노을

산 아지락이

千庵萬壑(천암만학)을 제 집을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일희도 구논지고 — 외인법 : 구름, 안개, 노을, 산 아지락이가

나면서 들면서

아양도

떠는구나

사람처럼 아양을 떠다고 표현

오르거니 느리거니 長空(장공)의 떠나거니

하늘

廣野(광야)로 거너거니 프르락 불그락

여토락 지트락 斜陽(사양)과 서거지어 細雨(세우)조츠 뿌리는다

석양 무렵 가락비가 내리는 경치를 표현함

⇒ 면앙정의 봄 경치

흰 구름과 뿌연 안개와 놀, 푸른 것은 산 아지락이다.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제 집을 삼아두고,
나며 들며 아양도 떠는구나. / 오르기도 하며 내리기도 하며 넓고 먼 하늘에 떠나기도 하고
넓은 들판으로 건너가기도 하여,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질으락
석양에 지는 해와 석이어 보슬비마져 뿌리는구나.



藍輿(남여)를 빔아 타고

솔 아리 ^{재촉하여} 구분 길노 오며 가며 흐는 적의

祿楊(녹양)의 우는 黃鶯(황앵) 嬌態(교태) 겨워 흐는 고야

나모 새 즈즈지어 樹陰(수음)이 얼린 적의

^{우거져서} 百尺(백척) 欄干(난간)의 긴 조으름 내어 퍼니

水面(수면) 涼風(양풍)이야 긔칠 줄 모르는가 —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
^{서늘한 바람}

⇒ 면앙정의 여흥 경치

뚜껑 없는 가마를 재촉해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에,
푸른 버들에서 지저귀는 꾀꼬리는 흥에 겨워 아양을 떠는구나.
나무 사이가 가득하여(우거져) 녹음이 엉긴 때에
긴 난간에서 긴 줄음을 내어 퍼니,
물 위의 서늘한 바람이야 그칠 줄 모르는구나.

즌 서리 빠진 후의 산 빗치 錦繡(금수)로다

^{된 서리} 黃雲(황운)은 또 엇디 ^{수놓은 비단} 萬頃(만경)의 편저지요

^{노랗게 익은 곡식} 漁笛(어적)도 흥을 계워 돌로 ^{펼쳐 있는가?} 쓰라 브니는나

⇒ 면앙정의 가을 경치

된서리 걷힌 후에 산 빛이 수놓은 비단 물결 같구나.
누렇게 익은 곡식은 또 어찌 넓은 들에 펼쳐 있는고?
고기잡이를 하며 부는 피리도 흥을 이기지 못하여 달을 따라 부는 것인가?

草木(초목) 다 진 후의 江山(강산)이 매물켜늘

造物(조물)리 현스 하야 氷雪(빙설)로 꾸며 내니

瓊宮瑤臺(경궁요대)와 玉海銀山(옥해은산)이 眼底(안저)의 버러세라

乾坤(건곤)도 가을열샤 간 대마다 景(경)이로다 —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
^{풍성하구나} ^{절경}

⇒ 면앙정의 겨울 경치

초목이 다 떨어진 후에 강과 산이 문혀 있거늘
조물주가 야단스러워 얼음과 눈으로 자연을 꾸며내니,
경궁요대와 옥해은산 같은 눈에 덮인 아름다운 대자연이 눈 아래 펼쳐 있구나.
자연도 풍성하구나.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경치로다.

〈본사2〉 면앙정의 사계절 모습

人間(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인간 세상, 속세} 니것도 보려 호고 저것도 드르려코

브람도 혀려 호고 돌도 마즈려코
^{□ : 화자가 즐기고 싶어 하는 것(바람, 달, 방, 고기)}

밤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柴扉(시비)란 뉘 다드며 딘 곳츠란 뉘 쓸려노

아침이 낫브거니 나조히라 슬홀소나
^{떨어진 꽃은}
^{부족한데} ^{저녁이라}



오늘리 不足(부족)거니 來日(내일)리라 有餘(유여)하라 — **설의법**

이 뵈히 안즈 보고 저 뵈히 거러 보니

煩勞(번로)흔 막음의 버릴 일이 아조 업다

실 ^{바쁜}스이 업거든 길 ^{전혀}히나 전하리아

다만 흔 靑藜杖(청려장)이 다 ^{무디어}므디여 가노미라

⇒ 자연 속에서 즐기며 사는 화자의 모습

바람도 쏘이려 하고, 달도 맞이하려고 하니,
밤은 언제 줌고 고기는 언제 낚으며 사립문은 누가 달으며 떨어진 꽃은 누가 쓸 것인가?
아침나절 시간이 부족한데(자연을 완상하느라고) 저녁이라고 싫을소냐?(자연이 아름답지 아니하라)
오늘도(완상할 시간이)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넉넉하라?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 보니
번거로운 마음이면서도 아름다운 자연은 버릴 것이 전혀 없다.
실 사이가 없는데 (이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하러 올) 길이나마 전할 틈이 있으랴.
다만 하나의 명아주 지팡이가 다 못쓰게 되어가는구나.

술이 너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블니며 트이며 허이며 이아며

↳(노래를) ↳(악기를)

온가짓 소리로 醉興(취흥)을 비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지라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저즈락 — ‘~락’을 반복하여 취흥을 드러냄

을프락 프람하락 노혜로 소기니

↳(시름)

마음 놓고 노니

天地(천지)도 넓고넓고 日月(일월)도 혼가하다

희황(羲皇) 모을너니 니적이야 괴로고야

중국의 태평성대를 이룬 복희 황제 지금이야 그것이로구나

신선(神仙)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만족감

술이 익었거니 벗이 없을 것인가.
노래를 부르게 하며, 악기를 타게 하며, 악기를 끌어당기게 하며, 방울을 흔들며
온갖 아름다운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누웠다가 앉았다가 구부렸다 질렀다가,
시를 읊었다 휘파람을 불었다가 하며 마음 놓고 노니, / 천지도 넓고 넓으며 세월도 한가하다.
복희의 태평성대를 모르고 지내더니 이때야말로 그것이로구나.
신선이 어떻던가 이 몸이야말로 그것이로구나.

강산풍월(江山風月) 거느리고 내 백 년(百年)을 다 누리면

자연

악양루(岳陽樓)상의 이태백(李太白)이 사라오다 —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화자의 자부심

호탕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할소냐

넓고 끝없는 정다운 회포

이 몸이 이렇 굶도 역균은(亦君恩)이샀다

이렇게 지내는 것도 임금의 은혜

⇒ 자연을 벗 삼은 호탕정회

강산풍월 거느리고(속에 묻혀) 내 평생을 다 누리면
악양루 위에 이태백이 살아온다 한들
넓고 끝없는 정다운 회포야말로 이보다 더할 것인가.
이 몸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다.

〈결사〉 각자의 풍류와 감군은



핵심 정리

갈래	가사(양반 가사, 서정 가사, 은일 가사)
성격	강호 한정가, 서정적, 묘사적, 자연 친화적
어조	풍류를 즐기는 남성의 호방한 목소리
제재	면앙정 주변의 승경(勝景)
주제	면앙정 주변에서 즐기는 자연의 풍류와 군은(君恩)에의 감사
특징	① 의인법, 직유법, 대구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함 ② 설의적 표현과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③ ‘~는 듯’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함 ④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의 경치를 실감 나게 묘사함 ⑤ 열거법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림 ⑥ 4음보 연속체 형식으로 시구 전체가 대구를 이루며 규칙적 운율을 형성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면앙정이라는 정자에서 자연을 즐기는 모습을 노래한 가사 문학이다. 관직에서 물러난 작가가 고향인 담양에 내려와 정자를 짓고 사는 모습을 노래한 작품이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이 이동하면서 면앙정의 위치와 형세, 면앙정 주변의 다양한 산봉우리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 면앙정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와 그 경치를 완상하며 즐기는 시적 화자의 풍류와 호탕함을 담아내고 있다. 또한 마지막 결말을 ‘역군은(亦君恩)이샀다’로 끝내고 있어 유학자로서의 강호가도를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작품의 구조

기(起)	면앙정이 위치해 있는 제월봉의 위치와 형세를 노래함	서사
↓		
승(承)	면앙정에서 바라본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근경(近景)에서 원경(遠景)으로 묘사함	본사(선경)
↓		
전(轉)	춘하추동(春夏秋冬)의 계절 변화에 따른 면앙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함	
↓		
결(結)	자연 속에서의 풍류 생활과 호연지기를 노래함. ‘역군은’이라는 표현을 통해 유학자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보여 줌	결사(수정)



표현상의 특징

	화자가 바라본 대상	표현	효과
서사	제월봉	비유 (사람, 늙은 용)	▪ 역동성을 주어 생동감을 강화함
	면앙정	비유 (청학)	
본사	강물	▪ 비유 (쌍룡, 비단, 바쁘게 달려가는 사람) ▪ 대구법, 열거법	▪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고 역동성을 주어 풍광의 생동감을 더함
	기러기	비유 (정을 전하는 사람)	
	산봉우리	▪ 비유 (병풍, 그림) ▪ 대구법, 열거법	
	춘 구름, 안개, 노을, 아지랑이	활유법, 열거법	▪ 경쾌한 리듬감을 주어 봄의 생동감을 잘 표현함
	하 피꼬리, 나무 그늘, 수면 양풍	감정 이입, 묘사	▪ 한가로운 여름날의 정취를 탄력 있게 잘 표현함
	추 단풍, 노란 곡식	비유 (금수, 황운)	▪ 가을의 풍요로움을 표현함
	달, 피리 소리	관용적인 어구의 사용	▪ 가을의 정취를 드러냄
	동 얼음, 눈	비유 (경궁요대, 옥해은산)	▪ 눈으로 덮인 겨울 정취를 잘 드러냄
결사	자연 완상	열거와 나열	▪ 화자가 즐기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다양하게 표현함
	풍류	다양한 감각적 표현	▪ 술, 음악, 노래, 춤이 어우러진 흥겨운 정취를 감각적인 우리말을 사용하여 표현함
	호연지기와 역군은	이태백의 삶과 대조	▪ 자연을 즐기면서도 군은(君恩)을 잊지 않는 유교적 이념을 드러냄 (강호가도)

문학사적 의의

조선 전기 시가의 핵심은 '강호가도(江湖歌道)'를 확립한 작품이다. 정극인의 「상춘곡」의 계통을 잇고, 정철의 「성산별곡」, 「관동별곡」에 영향을 주었다.



강호가도(江湖歌道)

조선 시대 사대부들에게 갖은 당쟁과 사화는 현실 정치에 대한 많은 회의를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현실을 떠나 자연을 지향하며, 도학(道學)을 기반으로 한 세계관을 고민하는 사대부들이 많았다. 그들은 이러한 도학적 세계관을 문학에 접합하여 보편적인 '자연미'를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학적 자연미를 추구했다고 해서 조선의 사대부들이 유학자로서의 본연을 버린 것은 아니다. 비록 몸은 현실과 유리된 자연 공간에 존재하지만 임금에 대한 마음과 현실적인 정치를 고민하는 모습을 작품에 같이 담아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도학적 자연미에 유학자로서의 삶의 태도를 같이 담아낸 작품들을 묶어 흔히 '강호가도(江湖歌道) 문학'이라고 한다.

정극인의 「상춘곡」

강호가도의 시초

송순의 「면앙정가」

강호가도의 확립

정철의 「성산별곡」

강호가도의 발전

주제로 엮어 읽기 - 강호가도

상춘곡(賞春曲) / 정극인

紅塵(홍진)에 못친 분네 이 내 生涯(생애) 엇더호고.
 붉은 먼지(속세, 번잡한 세상)
 냇 사름 風流(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자신의 삶이 속세의 삶보다 낫다는 문근한 자부심의 표현
 天地間(천지간) 男子(남자)몸이 날만호 이 하건마는,
 나만 한 사람이 많지않은
 山林(산림)에 못쳐 이서 至樂(지락)을 맛들 것가.
 자연
 數間茅屋(수간모옥)을 碧溪水(벽계수) 얹피 두고,
 松竹(송죽) 鬱鬱裏(울울리)에 風月主人(풍월주인)
 자연 친화적 태도, 풍류 생활에 대한 자부심
 되어셔라.
 (이하 생략) <서사>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

세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아, 이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고?
 옛 사람의 풍류를 따를 것인가 못 때를 것인가?
 천지간 남자의 몸이 나와 같은 사람이 많건마는,
 산림에 묻혀서 지극한 즐거움을 모른다는 말인가?
 초가삼간을 시냇물 앞에 두고,
 소나무와 대나무 울창한 속에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구나.

핵심 정리

갈래	가사(서정 가사, 양반 가사, 은일 가사)
성격	묘사적, 예찬적, 서정적
주제	봄의 완상(玩賞)과 안빈낙도(安貧樂道)

작품 해제

조선 성종 때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로,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완상하는 풍류와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EBS 수능특강 지문》

간 봄 그리매

죽지랑과 함께 보냈던 봄

: 죽지랑에 대한 화자의 마음

모든 것사 우리 시름

울며 시름에 잠김

<1, 2> 죽지랑과 함께한 과거에 대한 그리움

아름 나토샤온

아름다움

즈시 살쥬 디니저

죽(모습) 주름살 지니려 하는구나

<3, 4> 죽지랑의 모습을 떠올림

눈 돌칠 스이에

눈 돌릴, 눈 깜짝할

맛보옵디 지소리

지오리, 되오리

<5, 6> 죽지랑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

낭(郎)이어 그릴 므스미 녀울 길

죽지랑

'낭'과 재회하려는 화자의 소망을 형상화

다북 므솔헝 잘밤 이시리

다북썩 우거진 마을에

<7, 8> 죽지랑과의 재회에 대한 믿음과 의지

지나간 봄 그리워하니
모든 것이 울며 시름하는구나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얼굴이 주름살 지니려 하는구나
눈 돌이킬(깜짝할) 사이에나마
만나 뵈도록 하리이다
낭이여 그리운 마음의 가는 길이
다북썩(우거진) 마을에 잘 밤이
있으리이까.

(양주동 해독)

간 봄 뜬 오리매

지나간 봄(죽지랑이 살아 있던 때)

모든 기스샤 우를 이 시름

살아계시지 못하여

<1, 2> 죽지랑과 사별한 슬픔

므뜸곳 불기시온

전각, 궁궐

즈시헝 헤나살 헐니저.

해가 갈수록

누니 도랄 없시 더웁

맛보기 엇디 일오아리.

<3~6> 죽지랑의 모습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

낭이여 그릴 므스미 죽 녀울 길

마음의 모습이 가는 길(비유를 통해 정서를 표현함)

다보짓 굴헝헝 잘 밤 이사리.

다북썩 우거진 구렁(무덤)

<7, 8> 죽어서 죽지랑을 다시 만나기를 바램

지나간 봄 돌아오지 못하니
살아계시지 못하여 울어 말라 버릴 이
시름
전각을 밝히오신
모습이 해가 갈수록 헐어 가도다.
눈의 돌음 없이 저를 만나 보기 어
찌 이루리.
낭을 그리는 마음의 모습이 가는 길
다북썩(우거진) 구렁에 잘 밤 있으리.

(김완진 해독)

**핵심 정리**

갈래	향가 (8구체)
성격	서정적, 예찬적, 추모적
주제	죽지랑에 대한 사모의 정
특징	① '과거 - 현재 - 미래' 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추모의 정을 극대화함 ② 시상이 전개 되면서 화자의 감정이 점점 고조됨
의의	① 주술성이나 종교적 색채가 없이 개인의 정회가 깃든 서정 가요 ② 낭도의 세계를 보여줌 ③ 8구체 향기 중 순수 서정시로 문학성이 높으며, 화랑 역시 향가의 창작층이었다는 것을 알려 줌

작품 해제

『삼국유사』에 수록된 신라 시대 8구체의 향가로, 신라 제32대 효소왕 때에 화랑 죽지랑이 죽자, 그의 낭도 가운데 '득오' 라는 급간이 죽은 죽지랑을 추모하여 지은 작품이다. 작품의 창작 시기가 죽지랑 생존인지, 사후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으나(양주동 해석), 일연은 이 작품을 기록하여 죽지랑의 고귀한 인품을 드러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작품의 구조

과거	죽지랑과 함께 했던 과거를 그리워함
현재	죽지랑이 없는 현실에 시름겨워함
미래	죽지랑과 다시 만나기를 바램

⇨ 감정의 고조 · 극대화

작품의 창작 배경

이 작품은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의 죽지랑에 대한 이야기 끝부분에 실려 있다. 득오가 익선이라는 관리에게 급히 징집되어 죽지랑에게 미처 알리지도 못하고 힘든 부역에 동원되었는데, 득오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죽지랑이 이 사정을 알고 직접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다른 낭도들과 함께 득오를 찾아가 위로하였다고 한다. 일연은 득오가 일찍이 죽지랑을 그리워하여 지은 노래라 설명하며 이 작품을 기록하였다.

갈래 이해하기 -향가

신라 때부터 고려 초 · 중엽까지 향유되었던 노래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 것이다.(향찰 표기) 향가의 초기 형태인 4구체에서 8구체, 10구체 향가의 형식을 살려볼 수 있다. 현존하는 향가에는 승려와 화랑들이 지은 작품들이 많은데, 작품 속에는 불교적인 세계관('체망매가', '원왕생가' 등)이나 정치적인 맥락('찬기파랑가', '안민가' 등)이 깔려 있다. 짧은 형식의 작품은 민요적 성격('풍요', '서동요' 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불 아니 씨일지라도 절로 익는 **술**과

여물줄 아니 먹어도 크고 술져 한 견는 **말**과, **질습** 잘하는 **여기첩(女妓妾)**과 술 심는 **주전자**와,

양 절로 낫는 검은 **암소** 두고
소의 위를 고기로 이르는 말

평생에 이 다섯 가져시면 부를 거시 **이시라**

수사적 의문으로 종결 - 청자의 공감 유도

<초, 중장> 고생 없이 살기 위해 바라는 것들

<종장> 풍족하고 편안한 삶에 대한 동경

불을 때지 않더라도 절로 익는 술과
여물죽 먹이지 않아도 크고 살찐 말과, 질쌘 잘하는 기생첩과, 술이 샘솟는 주전자와, 양 저절로 낫는 검은 암소 두고
평생에 이 다섯 가지를 둘 양이면 부러울 것이 없구나.

핵심 정리

갈래	시조(사설시조)
성격	사실적
주제	풍족하고 편안한 삶에 대한 동경
특징	① 일상적인 사물을 열거함 ② 수사적 의문형의 종결을 통해 청자의 공감을 유도함

작품 해제

풍족하고 편안한 삶에 대한 소망을 재치 있게 그리고 있는 사설시조이다. 열거된 다섯 가지는 주로 남성의 입장에서 떠올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당시 서민들의 일상적 노동과 연결될 수 있다.



상사별곡(相思別曲) / 작자미상

수능특강 P.85

이옥조국어연구소



인간리별 만스 중의 ^{아내가 남편 없이 혼자 밤을 지내는 일} 독수공방(獨守空房) 더욱 ^{서럽다} 켜다
^{세상의 모든 일} 상스불견(相思不見) 이니 ^{화자의 처지} 진정(眞情) 그 뉘 알리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나 보지 못할} 밋친 셔름 이렇저렇 ^{애뜻하여 거짓 없는 마음} 헛튼 근심 다 ^{뒤돌려 몰다. 모난 부분을 깎아 버리다} 후리쳐 던져두고
 자나 켜나 켜나 자나 님 못 보니 가삼 답답

대구법 [어린 양즈(樣姿) ^{익히지 않고 가물가물 보이는 듯함} 고혼 소리 눈에 ^{익히지 않고 가물가물 돌리는 듯함} 압압 귀에 징징 → 시각·청각적 이미지로 임에 대한 그리움 형상화
 얼굴의 생김 모양 - 임의 얼굴이 눈앞에 어려우려함
 듯고 지고 님의 소리 보고 지고 님의 얼굴]

인간 이별 만사 중에 독수공방이 더욱 서럽다.
 임 못 보아 그리운 이 내 심정을 그 누가 알리.
 맺힌 셔름 이렇저렇이라 흐트러진 근심 다 팽겨쳐 던져 두고,
 자나 깨나 깨나 자나 임 못 보니 가삼 답답하다.
 (눈에) 어린 얼굴, 고운 소리는 눈에 암암하고 귀에 쟁쟁하니,
 듣고 싶다 임의 소리, 보고 싶다 임의 얼굴.

〈서사〉 독수공방하는 화자의 처지와 임을 그리워하는 심정

비나이다 ^{기원의 대상} 하느님께서 ^{인과의 재회 기원} 이제 보게 심기소서
 전생(前生) 차생(此生) 무슨 죄로 우리 두리 생겨나서
 그린 상스 한디 만나 잇지 마자 백년 기약(百年期約)
 죽지 말고 한디 잇서 리별 마자 처음 밍세(盟誓)
 많은 돈이나 비싼 값(아주 귀중한 것), 구슬과 옥
 천금 주옥 귀에 빚기고 ^{‘세사 일분 관계하랴’의 착으로 보임(세상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뜻)} 세상 일불 관계하라
 근원(根源) 흘러 물이 되어 깊고 깊고 다시 깊고
 사랑 모혀 뵈히 되어 높고 높고 다시 높고
 문혀질 줄 모르거던 끈어질 줄 게 뉘 알니
 화옹(化翁)조츠 식음 발나 귀신도츠 회짓는다
 일조 낭군(一朝郎君) 리별 후에 소식조츠 돈절(頓絶) 하니
 오날이나 기별 올라 니일이느 사람을썻
 기다린 지 오리더니 무정세월 절로 간다

소년 청춘 다 보니고 ^{아무 일도 해 놓은 것이 없이 헛되이 늙음} 옥빈홍안(玉鬢紅顏) ^{아름다운 귀밑머리와 붉은 얼굴(아름다운 젊은 시절의 모습)} 공노(空老)로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이제 (임을) 만나도록 비나이다.
 전생과 금생에 무슨 죄로 우리 둘이 생겨나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만나 잇지 말자 하고 백년 기약
 죽지 말고 함께 있어 이별하지 말자고 처음 한 맹세
 비싸고 값진 것에 뜻을 두지 않고 세상일에 대해 관심을 두랴(오직 임에게만 관심이 있다)
 근원 흘러 물이 되어 깊고 깊고 다시 깊고
 사랑 모여 산이 되어 높고 높고 다시 높고
 무너질 줄 모르거던 끊어질 줄을 그 누가 알았겠는가
 조물주가 샘을 내는지 귀신이 장난질을 하는지
 하루 아침에 낭군과 이별한 후에 소식조차 끊어지니



오늘이나 (임의) 소식이 올까 내일이나 (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올까
기다린 지 오래더니 무정한 세월만 절로 가는구나
소년 청춘 다 보내고 아름다운 젊은 시절 지나 헛되이 늙는구나

：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오동추야(梧桐秋夜) 밝은 달에 밤은 어이 수거 가며
녹음방초(綠陰芳草) 저문 날에 희는 어이 더디 가노
이니 상스(相思) 알으시면 님도 응당 늦기리라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독수공방 홀로 안즈 반야 잔등(半夜殘燈) 벗슬 삼으
자신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언급함 한밤중 희미한 불빛
일촌간장(一寸肝腸) 석은 물이 소스나니 눈물이라

한 토막 뒤편 구부러진 곳(애달픈 마음을 일컬음)

가슴속에 물이 나서 뒤편나니 한숨이라

눈물이 바다 되면 비를 타고 아니 가라

설외적 표현

한숨 쉴새 없이 나면 님의 옷세 당기리라

화자의 그리움과 서글픔을 과장하여 표현함

화자는 과거의 상황을 떠올리며 자신의 감정을 표출함

교티(嬌態) 겨워 웃든 우습 생각하니 목이 멘다

이기지 못하여

디척 동방 천 리되야 바라보니 암암(暗暗)토다

임과 화자 간의 정서적 거리감

만첩 천희(萬疊千姬)그러 님들 혼 붓으로 다 그리라

경계가 둘러싸인 그리움

설외적 표현

날기 돛친 학이 되면 나라가다 아니 가라

임에게 가고 싶은 마음을 투영한 대상

산은 첩첩 고지 지고 물은 중중 흘러 근원 되니

： 임을 만나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 - 임을 만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턴디 인간 리별 중에 날 갓트니 또 잇는가

꽃은 뒤편 절노 지고 희도 다 저물것다

초로(草露) 갓튼 이니 인심 무슨 죄로 못 죽는가

화자의 안타까운 정서를 드러냄

바람 부리 구진비와 구름 끼여 저문 날에

오룩가룩 빈방으로 혼즈 서서 바자니며

임에 대한 그리움을 행동으로 표출

님 계신 더 바라보니 이니 상스(相思) 허스(虛事)로다

설외적 표현의 반복

- 임에 대한 사랑 강조

오동야우 성긴 비에 밤은 어찌 더디 가고
녹음방초 저문 날에 해는 어찌 쉽게 가나
임을 그리는 이내 마음을 아시게 되면 임도 나를 그리워하리라
독수 공방 홀로 앉아 한밤중의 희미한 등불을 벗슬 삼아
일촌 간장 썩은 물이 솟아나니 눈물이라.
가슴 속에 물이 나서 피어나니 한숨이라.
눈물이 바다 되면 배를 타고 아니가겠느냐.
한숨 끝에 불이 일어나면 임의 옷에 땀아 붙으리라
아리따운 자태(과거)에 이기지 못하여 웃던 웃음 생각하니 목이 멘다
가까운 거리도 천 리 되어 바라보니 멀기도 멀구나
겹겹이 둘러싸인 그리움을 그려낸들 한 붓으로 다 그리랴
날개 돛친 학이 되어 날아서 아니 가라
산은 어이 고개 되고 물은 흘러 깊어지니
이별하는 세상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이 또 있는가
꽃은 피어 저절로 지고 해도 다 지겠구나



이슬 같은 인생이 무슨 죄로 죽지도 못하는가
바람 불어 굶은 비와 구름 끼어 저문 날에
나며 들며 빈 방으로 오락가락 혼자 서서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이내 그리움이 허사로다

〈본사〉 소식 없는 임을 기다리며 외로움만 깊어감(이별로 인한 외로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

공방미인(空房美人) 독상스(獨相思)는 예로부터 잊것마는

독수공방하며 임 생각에 몸부림치는 일 - 화자의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냄

나 혼자 그리는가 님도 날 그리는가

노류장화(路柳牆花) 썩거 들고 봄빛출 놀닌는가

길가의 버들가지와 담장 위의 꽃송이를 가리킴

지나는 사람 누구든지 언제나 꺾을 수 있는 것

- 화류계 여인을 의미함

날 사랑하든 썩히 남 사랑하시는가

산계야목(山鷄野鶩) 길을 드려 노흘 줄을 모로는가

산 꿩과 들오리, 길들이기 어려운 날짐승들 - 성미가 괘씸하여 다잡을 수 없는 사람으로 임을 비유

노류장화(路柳牆花) 썩거 들고 봄빛출 놀닌는가

길가의 버드나무와 담 밑의 꽃. 화류계 여인을 의미하며 질투의 대상임.

가는 길이 자취 나면 오는 길이 무되리라

무디다, 터디다

한번 죽어 도라가면 다시 보기 썩을년가

임을 다시 보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

독수공방하며 임 생각에 몸부림치는 일이 예로부터 있었지만

나 혼자 그리워하는가 임도 나를 그리워하는가

화류계 여인을 얻어 기쁜 빛으로 다니는가

(임이) 날 사랑하시던 끝에 남을 사랑하시는가

산꿩과 들오리 같은 임을 길들여 놓을 줄 모르는가

버드나무와 꽃을 꺾어 들고 (화류계 여인들과) 봄빛으로 다니는가

가는 길이 자취 없어 오는 길이 무디리라

한번 죽어 돌아가면 다시 보기 어렵구나

〈결사〉 임의 마음을 궁극해 하며 임이 돌아오기를 기원함



핵심 정리

갈래	가사(애정 가사)
성격	애상적
주제	독수공방의 외로움,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임이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
특징	① 과장적 표현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냄 ② 가정의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냄 ③ 4음보 연속체, 반복법, 대구법을 활용함 ④ 여성적 어조로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표현함
의의	남녀 사이의 순수한 연정을 주제로 한 상사류 가운데 정형성을 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12가사의 하나로, 총 196구로 되어 있다. 18세기에는 가창으로 존재했던 것이 19세기에 대표적인 잡가로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4음보 연속체의 기본 형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간중간 음보의 결손 현상이 나타나 가창 가사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임과 이별한 여인으로, 독수공방의 외로움, 임에 대한 그리움, 임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 등을 노래하고 있다. 성리학 이념에 따른 연군 가사의 틀에서 벗어나 남녀 사이의 순수한 연정을 주제로 한 상사류 가사의 전형성을 보이는 작품이다.

시구의 역할과 기능

이 작품에서는 가을 밤에 떠 있는 달과 내리는 비를 통해 이별의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함과 동시에 화자의 정서를 유발하고 심화시킨다.

오동 추야 밝은 달	화자에게 이별한 임을 떠올리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함	→	화자의 정서를 유발함
오동 아우 성긴 비	임의 부재와 그로 인한 외로움을 심화함	→	화자의 정서를 심화함

상사류 작품

「상사별곡」은 남녀 사이의 연정을 주제로 하는 상사류 작품의 전형성을 보여 준다. 상사류 작품에서 화자는 임과 이별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마음속 울분을 표출하기도 하며, 스스로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화자는 변함없이 임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낸다.



주제로 엮어 읽기 - 상사류

사미인곡(思美人曲) / 정철

(생략)

하루도 열두 때 한 달도 서른 날,

저근덧 생각 마라 이 시름 닛자 하니

근음의 미쳐 이서 골수(骨髓)의 켜터지니

편작(扁鵲) 열히 오나 이 병을 엇디하리

‘명의’의 대유적 표현 임에 대한 사모의 정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출하리 식어디어 뽕나뽕 되오리라.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다짐
곳나모 가지마다 간디 족족 안니다가,

향 드든 놀애로 님의 오시 올드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츠려 하노라.임을 향한 일편단심<결사>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함

하루도 열두 때 한 달도 서른 날,

잠간이라도 임 생각을 말고 이 시름을 잊고자 하니,

마음에 맴혀 있어 뼈 속에 사무쳤으니,

편작 같은 명의가 열 명이 온들 이 병을 어찌하랴.

아, 내 병은 임의 탓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호랑나비가 되고 싶구나.

꽃나무 가지마다 간 데 족족 앉았다가,

향문은 날개로 임의 옷에 울드리라.

임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내가 임을 따르고자 하노라.

핵심 정리

갈래	가사(연군 가사, 유배 가사)
성격	서정적, 연정적, 여성적, 충신연주지사
주제	연군(戀君)의 정
특징	①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호소력을 높임 ② 뛰어난 우리말 구사와 세련된 표현을 사용함

작품 해제

작가가 유배지에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임에게 버림받은 여성의 목소리에 빗대어 계절에 따라 노래한 대표적 가사 작품이다.



서경별곡(西京別曲) / 작자미상

수능특강 P. 62

이육사국어연구소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西京)이 서울히마르는

지금의 평양 '○○○ 아즐가 ○○○'의 반복 - 정형적인 율격 형성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령디리

: 후렴구 (복소리의 외성어) - 작품 전체에 내용과 대비되는 경쾌한 운율을 형성함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경 **고외마른** — 자신의 삶의 공간인 서경에 대한 애정
- 그곳도 떠나 따라갈 수 있다고 하여
사랑하지마는 임에 대한 사랑을 더욱 강조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령디리

여히프론 **아즐가** 여히프론 **질삼괴** 브리시고

여의기보다는 길쌈하던 배(생업) →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는 소재
생업을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적극성 부각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령디리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리곰 쯏니노이다**. : 임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적극적 성격

↳(임이) ↳(임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령디리

[연: 임과의 이별에 애달파하며 임을 따르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보임]

서경(평양)이 서울이지만
(삶의 터전을) 새로 닦은
곳인 소성경을 사랑하지만
(임과) 이별하기보다는 차
라리 길쌈 배를 버리고라도
(임이) 사랑해 주신다면
(임을)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구슬(사랑) 바위(시련, 장애물)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령디리

긴히쑤 **아즐가** 긴히쑤 **그즈리잇가** **나**는

긴(임을) 끊어지지 않는 끈처럼 임에 대한 자신의 마음도 변하지 않음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령디리

즈른 히를 **아즐가**가 즈른 히를 **외오곰** 너신들

천(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불변함을 강조) 천 년, 외로이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령디리

신(信) 잇든 **아즐가** 신(信)잇든 **그즈리잇가** **나**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령디리

유사한 동사 구조의 반복

구슬이 바위 위에 떨어진들
곤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임과 헤어져) 천 년을 홀로
살아간들
(임에 대한) 믿음이야 끊어
지겠습니까?

[2연: 임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함]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너븐디 몰라셔

이별의 공간 임과 남겨진 화자 사이의 거리감 부각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령디리

빅 내여 **아즐가** 빅 내여 노훈다 **샤공아**

화자와 임과의 사이를 방해한다고 여기는 존재, 원망의 대상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령디리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럼난디** 몰라셔 : 사공의 아내가 음란하다고 모함

네 아내 음란한지
→ 사공이 배의 운항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의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령디리

넬 빅에 **아즐가** 넬 빅에 **연즌다** 샤공아

가는 배 ↳(임을) 없었느냐

→ 임이 대동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배를 띄워 놓은 사공에 대한 원망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령디리

대동강 **아즐가** 대동강 건너편 **고즐여**

꽃(임이 사랑하는 다른 여인, 질투의 대상)

대동강이 넓은 줄을 몰라셔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네 아내가 음란한 줄을 몰
라셔
다니는 배에 몸을 실었느냐?
사공아.
(나의 임은)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를 타고 가기만 하면 꺾
을 것입니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비 타 들면 아줄가 비 타 들면 것고리이다 나논

비를 타면

다른 여자를 만날 것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3연: 떠나는 임에 대해 불안해하며 사공을 원망함

핵심 정리

갈래	고려 가요
성격	이별가, 남녀상열지사
주제	이별의 정한(情恨)
형식	① 전 3연의 분연체(分聯體) ② 후렴구 ③ 3·3·3조, 3음보의 율격
특징	① 반복법, 설의법을 사용함 ② 간결하고 소박하며 함축적인 시어를 구사함 ③ 매 구 끝에 후렴구를 두어 운율감을 형성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고려 시대 민중들에 의해 널리 불리다가 궁중 음악으로 채택된 고려 가요로, 우리 시가의 전통적인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현실적 생활 감정의 표현을 통해 사랑과 믿음을 중요시하고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여성 화자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1연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임에게 정든 고향이나 일상적 삶을 모두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2연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의 사랑을 구슬을 꿰었던 끈에 비유하여 임과 영원한 이별을 할지라도 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3연에서 시적 화자는 임을 배에 싣고 가는 사공에 대한 원망을 통해 임이 강만 건너면 다른 여인을 사귀게 될 것이라는 불안과 그 상대 여성에 대한 질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고전 시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극적이고 인종의 미덕을 간직한 여성들과는 달리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시어의 의미

물(대동강)	■ 임과 단절되는 공간 ■ 임과 이별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야기하는 공간
곳	■ 다른 여인 ■ 화자의 불안한 심리가 투영된 것
사공	■ 임을 새로운 여인에게 데려다 주어 화자가 자신의 사랑을 방해한다고 여기는 존재 ■ 임에 대한 원망을 애꿎은 사공에게 돌려, 음탕한 짓을 하는 아내에게나 가 볼 것이지 괜히 여기서 배를 내어 놓느냐는 푸념을 늘어놓음



적층 문학

‘적층’은 ‘층층이 쌓임’이라는 의미이다. 적층 문학은 특정 작가에 의해 창작된 것이 아닌, 대중의 입을 통해 구전되면서 내용이 덧붙여진 것(다양한 작가의 공동작)을 말한다. 따라서 내용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많다.

1. 이질적 시상 전개

이 작품의 각 연은 시상 전개에 있어서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어조 역시 이질적이다. 1연은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목소리, 2연은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목소리, 3연은 임의 행동을 경계하는 목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3연의 노래가 정서적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이 구전 과정에서 첨삭 혹은 중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경(西京) 노래	구슬 노래	대동강 노래
소중한 것을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의지	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영원 할 것이라는 맹세	임이 강을 건너가도록 한 뱃사공에 대한 원망과 임에 대한 질투
극복 가능한 상황	임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	극복 불가능한 상황

2. 「정석가」와의 관련성

2연의 내용이 「정석가」의 6연과 같다. 당시 유행했던 표현이거나 구전 과정에서 차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제와 태도로 읽어 읽기 - 이별의 정한

가시리 / 작자 미상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太平聖代(대평성대)

<기> 떠나는 임에 대한 서러운 심정을 직접적으로 표출(원망)

날리는 엇디 살라 호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太平聖代(대평성대)

<수> 슬픔과 원망의 감정을 고조하여 표현(좌절)

잡스와 두어리마는

불잡아

선호면 아니 올세라.

서운하게 생각하면(주해: 님)

위 증즐가 太平聖代(대평성대)

<전> 임을 붙잡고 싶으나 남을 위해 단념(제념)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① 주해: 화자(나를 사랑해 한 임) ② 주해: 임(나와의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

가시는 듯 도쳐 오쳐서 나는.

화자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표출

위 증즐가 太平聖代(대평성대)

<결> 강정의 절제와 재회의 기원(당부)

핵심 정리

갈래	고려 가요
성격	여성적, 애상적, 자기희생적
주제	이별의 정한(情恨)
특징	① 반복법을 사용하여 운율을 살림 ② 간결하고 함축적 표현으로 이별의 정서를 표현함 ③ 순우리말을 사용한 여성적 정조의 원류가 되는 작품

작품 해제

간결한 형식과 소박하고 함축성 있는 시어를 통해 전통적 민요의 특징과 한의 정조가 잘 표현된 작품이다. 화자는 임과 이별한 여인으로, 이별을 한탄하다 체념의 정서로 발전한다. 임을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는 어찌 살라 하고 /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생각 같아서는) 붙들어 둘 것이지만 / (혹시나 임께서) 서
 운하시면 (다시는) 아니오실까 두렵습니다.
 서러운 임을 보내드리오니 / 가시는 것처럼 돌아서서 오소서.

	서경별곡	가시리
공통점	- 여성 화자 - 이별의 정한을 노래함	
차이점	- 원망, 질투, 호소 등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여성 -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 태도	- 인고와 순종을 미덕으로 간직한 여성 - 감정의 절제를 통해 재회를 기약하는 자기 희생적, 소극적 태도

특징으로 엮어 읽기

한림별곡(翰林別曲) / 한림 제유

원순문(元淳文) 인노시(仁老詩) 공로스록(公老四六)

니정언(李正言) 딴한림(陳翰林) 쌍운주필(雙韻走筆)

통기딴책(沖基對策) 광균경의(光鈞經義) 량경시부(良鏡詩賦)

위 시당(試場) 景(景) 괴 엇더흔니잇고

금학수(琴學士)의 옥순문생(玉筭門生) 금학수의 옥순문생

위 날조차 몇부니잇고

□ : 당시 신진사료들의 자만, 과시

<제1장> 문인들의 명문장과 금의의 문하생에 대한 찬양

유원순의 문장, 이인로의 시, 이공로의 사록변려문, 이규보와 진한림이 쌍운을 맞추어 거침없이 써 내려간 글, 유충기의 대책문, 민광균의 경서 뜻풀이, 김양경의 시와 부, 아아, 과거 시험장의 모습이 어떠합니까?(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금의가 배출한 죽순처럼 늘어선 제자들, 금의가 배출한 죽순처럼 늘어선 제자들, 아아, 나까지 몇 분이나 됩니까?(참으로 많습니다.)

핵심 정리

갈래	경기체가
성격	예찬적, 귀족적, 향락적, 풍류적
주제	신진 사대부들의 자긍심과 의욕적 기개 칭찬 귀족들의 향락적 생활과 풍류
특징	① 3·3·4조의 3음보 율격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나열과 집약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② '경(景) 괴 엇더흔니잇고'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자부심을 드러냄 ③ 생경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자랑함

작품 해제

고려 고종 때 한림원의 선비들이 지은 노래로, 그들의 문학적 경지와 자긍심 그리고 향락적인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서경별곡	한림별곡
갈래	고려 가요	경기체가
표기 방식	순 우리말의 구사	한자 어휘의 나열
내용	서민들의 진솔한 감정	귀족들의 향락적, 과시적 의식 세계

문학사적 의의

「가시리」와 함께 전통적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읊은 시가이다. 또한 「청산별곡」과 더불어 가장 문학성이 뛰어난 고려 가요 작품이며, 구비 전승되다가 조선 시대에 문자로 기록되었다.



엇던 디날 손이 성산의 머물며서

화자(정철 자신) 전남 담양에 있는 산

김성원이 자신의 스승이자 장인인 임억령을 위해 지은 정자
서하당 식영정 주인아 내 말 듯소.

김성원이 지은 정자

서하당과 식영정의 주인(김성원)

인생 세간(世間)의 도흔 일 하건마난

인간 세상

좋은

많건마는

엇디 훈 강산(江山)을 가디록 나이 너겨

자연 - 성산을 가리킴

낮게(종계) 여겨

적막 산중의 들고 아니 나시난고

손(정철) → 주인(김성원): 질문하는 방식을 취함

어떤 지나가는 손님이 성산에 머물면서
서하당 식영정 주인아, 내 말을 들으시오.

인생 세간에 좋은 일이 많건마는

어찌하여 (당신은) 강산을 갈수록 좋게 여겨서

고요하고 쓸쓸한 산중에 들어가 나오지 않으시는가?

<서사1> '손님(정철)'이 '성산'에서 생활하는 이유를 '식영정 주인(김성원)'에게 물음

송근(松根)을 다시 쓸고 죽상(竹床)의 자리 보아

소나무 뿌리

대나무 평상

저근덧 올라 안자 엇던고 다시 보니

하늘 가장자리

천변(天邊)의 떴는 구름 서석(瑞石)을 집을 사마

식영정 주인(김성원)을 비유

상서로운 돌 - 영정 근처의 서석대를 가리킴

나는 듯 드는 양이 주인과 엇더한고

둘러날락하는 모양

식영정 주인(김성원)

창계(滄溪) 흰 물결이 정자 알피 둘러시니

푸른 시내

앞에

천손운금(天孫雲錦)을 뒤라서 버혀 내어

적녀가 짙 아름다운 비단으로, 은하수를 가리킴

닛는 듯 퍼티는 듯 헌사토 헌사할샤

매우 화려롭고 아름답다는 뜻

산중의 책력(冊曆) 엽서 사시(四時)를 모르더니

달력

눈 아래 헤틴 경(景)이 철철이 절노 나니

펼쳐진 경치

듯거니 보거니 일마나 선간(仙間)이라

신선이 사는 세계 - 식영정 주변 경관

소나무 뿌리를 다시 쓸고 대나무 평상에 자리를 마련하여

잠시 잠깐 올라 앉아 어떤가 하고 (주변 경관을) 다시 보니,

하늘가에 떠 있는 구름이 서석대를 집을 삼아

나갔다가 이내 들어가는 모양이 주인의 풍류와 어떠한가? (주인과 비교하여 같지 않은가?)

푸른 시내의 흰 물결이 정자 앞에 둘러 있으니

하늘의 은하수를 누가 베어 내어

잇는 듯 펼쳐놓은 듯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산 속에 달력이 없어 사계절을 모르고 지냈는데

눈 아래 펼쳐진 풍경이 철을 따라 저절로 생겨나니

듣는 것 보는 것이 모두 신선이 사는 세상이로다.

<서사2> '구름'을 '주인'의 모습에 비교하여 '정자' 주변의 웅치 있는 자연 환경과 사계절의 자연 경관을 나타냄

[서사] 식영정 주변의 절경과 그 주인(김성원)의 풍류(선경)



 :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

매화가 피어 있는 창 - 봄

매창(梅窓) 아적 버테 향기에 잠을 깨니

아침 벌에

선옹(仙翁)의 히읏 일이 곳 엽도 아니하다

늙은 신선(김성원)

가새의 뜻을 지닌 부사

울 밋 양지 편의 외씨를 써허두고

울타리 밑

오이씨

매거니 도도거니 빗김의 달화 내니

김을 매거나 흙을 돋우거나

다루어(가꾸어) 내니

청문고사(靑門故事)를 이제도 잇다 할다

중국 한나라 때 소평이라는 사람이 청문 밖에 오이를 심었다는 고사. '청문'은 한나라 장안성의 남문을 말함

매화가 핀 창문에 든 아침벌의 향기에 잠을 깨니
산속 늙은이의 할 일이 아주 없지도 않구나.
울타리 밑 양지에 오이씨를 뿌려 두고
김을 매기도 하고 흙을 돋우기도 하고 비가 온 김에 손질하니
청문의 고사가 지금도 있다고 하겠구나.

<중사1> '청문고사'를 인용하면서 봄날 '선옹의 할 일', 즉 산중 생활을 노래함

망혜(芒鞋)를 뵈야 신고 죽장(竹杖)을 훑더디니

질신(이투리)

재촉하여

여기저기 옮겨 걸으니

도화(桃花) 핀 시내 길히 방초주(芳草洲)의 니어세라.

복숭아꽃 - 무릉도원을 연상하게 함

아름다운 풀이 우거진 물가의 작은 섬

닷북근 명경(名鏡) 중(中) 절로 그린 석병풍(石屏風)

잘 닦은

병풍처럼 둘러친 석벽

그림재 버들 사마 서하(西河)로 함끼 가니

그림자를

도원(桃園)은 어드매오 무릉(武陵)이 여기로다

무릉도원(도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선경

질신을 바베 신고 대나무 지팡이를 옮겨 짚어가니
복숭아꽃 핀 시냇길이 풀이 우거진 물가로 이어졌구나.
잘 닦은 거울(맑은 물) 속에 저절로 그려진 바위 병풍
그림자를 벗으로 삼아 서하로 함께 가니
무릉도원이 어디인가, 여기가 바로 그곳이로다.

<중사2> '방초주'를 무릉도원에 견주어 봄날 한가로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삶의 여유를 노래함.

[본사1] 춘(春): 소박한 주인의 생활과 성산의 봄 경치

남풍이 건듯 부러 녹음(綠陰)을 헤터 내니

마파람

절(節) 아는 괴꽃리난 어드러서 오돏던고

때(계절)

희황(羲皇) 벼개 우회 푯잠을 얼푯 깨니

모서리에 회황상인을 수놓은 벼개. 이 벼개를 베면 잠을 편안하게 잔다는 말이 있음 - 태평함을 상징

공중 저즌 난간(欄干) 를 우회 떠 잇고야

공중에 솟아 있으면서도 그림자는 물속에 젖어 있는 정자의 난간

마의(麻衣)를 니피 차고 갈전(葛巾)을 기우 쓰고

삼베옷

참배로 만든 두건

구브락 비기락 보는 거시 고기로다.

금혔다가 기대었다가



남풍이 문득 불어 녹음을 헤쳐 내니
계절을 아는 꾀꼬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희황 베개 위에서 든 풋잠(얕게 든 잠)을 얼핏 깨니
공중에 젖은 난간이 물 위에 떠 있는 듯하구나.
삼베옷을 여미어 입고 갈건을 기울여 쓰고
(몸을) 굽혔다가 (난간에) 기대었다가 (하면서) 보는 것이 물고기로구나.

〈하사1〉 성산의 한가로운 여름 경치 속에서 '꾀꼬리' 노래 소리에 '풋잠'을 깨어 '공중에 젖은 난간'에서 '고기'를 보며 즐김

하룻밤 비 끄운의 **홍백련(紅白蓮)**이 섰거 피니
비가 온 기운 붉은 연꽃과 흰 연꽃
바람끼 업시서 만산(萬山)이 향기로다
염계(廉溪)를 마조 보와 태극(太極)을 못줍는 듯
속나라의 학자 주돈이의 로 주돈이가 「태극도설」을 지음
태을진인(太乙眞人)이 옥자(玉字)를 헤쳐는 듯
천지의 도를 터득한 신선 황제가 남긴 비결서인 '금간옥자'

하룻밤 비가 온 기운에 붉은 연꽃과 흰 연꽃이 섞여 피니,
바람 불지 않아도 온 산에 향기가 가득하구나.
염계를 마주하여 태극의 이치를 묻는 듯
하늘의 선인이 옥자를 헤쳐 놓은 듯

〈하사2〉 '만산' 가득한 '홍백련의 향기' 속에 인간만사를 모두 잊고 진리를 탐구하고 신선이 된 듯 느껴면서 경치를 즐김

노자암 건너보며 자미탄 겨테 두고
식영정 아래에 있는 바위 이름 돌이 맑은 줄은 길
장송(長松)을 차일(遮日)사마 석경(石逕)의 안자하니
햇빛을 가리기 위해 치는 포장
인간(人間) 유월(六月)이 여기는 삼추(三秋)로다
인간 세상(속세) 속세는 덩겟지만 여기는 시원하다는 의미
청강(淸江)의 떴는 올히 백사(白沙)의 올마 안자
오리
백구(白鷗)를 벗을 삼고 잠 깰 줄 모르나니
무심코 한가하미 주인과 엇더하니
김성원

학가하게 잠을 자는 오리의 모습
↓(비교)
장님 없이 학가한 주인의 모습

노자암을 바라보며 자미탄(개울)을 곁에 두고
큰 소나무를 햇빛 가리개 삼아 돌길에 앉아보니
인간 세상의 유월이지만 여기는 늦가을처럼 선선하다.
맑은 강에 떠 있는 오리가 흰 모래밭으로 옮겨 앉아
흰 갈매기를 벗 삼아 잠을 깰 줄을 모르니
무심하고 한가함이 주인(김성원)과 비교하여 같지 아니한가?

〈하사3〉 '자미탄' 가에서 여름인데도 가을처럼 서늘한 가운데 '무심코 학가하게' 산중 생활을 즐기는 '주인'의 모습을 노래함
[본사2] 하(夏): 시원한 정자 위에서 즐기는 성산의 여름 풍경

《EBS 수능특강 지문》

오동(梧桐) **서리돌**이 사경(四更)의 도다 오니
새벽 1시~3시
서리가 내릴 때 뜨는 달
천암만학(千巖萬壑)이 나진 돌 **그러 홀가**
가을밤의 산의 경치를 낮과 비교하여
달밤의 아름다움을 드러냄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 설의적 표현 - 자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냄
호주(湖洲) 수정궁을 뒤라서 옮겨 온고
중국 서쪽에 있는 수정궁
은하를 뛰어 건너 광한전의 올랐는 듯
달 속에 있다는 궁전(목왕상제가 거처하는 곳)



오동나무 사이로 가을달이 사경에 돌아 오르니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가 낮인들 이렇게 아름다울까(밝을까)?
호주의 수정궁을 누가 옮겨 온 것인가?
은하수를 건너 광한전에 올라 있는 듯

<추사> '광한전'에 올라와 있는 듯한 기분으로 '오동나무에 환한 달'이 걸린 풍경을 읊음

작 마즌 늘근 술란 조대(釣臺)에 세여 두고

작이 맞는 늙은 소나무 낙시터
그 아래 비를 띄워 갈 대로 더더 두니

홍료화(紅蓼花) 백빈주(白蘋洲) 어느 스이 디나관디

붉은 여뀌꽃 흰 마름꽃이 피어 있는 성
환벽당(環碧堂) 용(龍)의 소히 빗머리에 다하세라

석양강 맞은편에 있는 집으로 산론 김용제가 지어 살던 집
청강(淸江) 녹초변(綠草邊)의 쇼 머기는 아히들이

푸른 풀이 우거진 강변
석양의 어위 계워 단적(短笛)을 빗기 부니

즐거움(흥)을 못 이겨 청각적 이미지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내려날 듯

너찍에 나온 학이 제 기슬 버리고

안개 가운데 길(보금자리)를

반공(半空)의 소소 뜰 듯

허공, 공중

석양에 비친 자연에 대한 감흥을 드러냄

한 쌍의 늙은 소나무를 낙시터에 세워 놓고
그 아래에 배를 띄워 가는 대로 내버려 두니
홍료화 백빈주를 어느 사이에 지났기에
환벽당 용의 연못에 뱃머리가 닿았구나.
많은 강 풀이 우거진 물가에서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의 즐거움을 못 이겨 짧은 피리를 비스듬이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을 깨어 일어날 듯

<추사2> 낙시터에 배를 띄워 배 가는 대로 맡겨 '연못'에 이름. 뱃놀이의 풍류가 목동의 '단적' 소리에 한층 운치를 더함

소선(蘇仙) 적벽(赤壁)은 추칠월(秋七月)이 도타 호디

송나라 문인인 소동파가 지은 「적벽부」

팔월(八月) 십오야(十五夜)를 모다 었디 과흐는고

팔월 보름날 밤 칭찬하는가
섬운(纖雲)이 사권(四捲)하고 물결이 채 잔 적의

얇고 아름다운 구름 사방으로 걷히고
하늘의 도든 달이 솔 우히 걸려거든

잡다가 빠딘 줄이 적선(謫仙)이 현스홀샤

하늘에서 귀양 온 신선(여기서는 이태백을 가리킴)

달을 잡으려다 강에 빠진 적선을 떠올림
- 달밤의 아름다움

소동파의 적벽(소동파가 적벽강에서 뱃놀이를 하고서 지은 글)은 음력 칠월이 좋다고 하였으되
팔월 보름날 밤을 모두 어찌 칭찬하는가?
얇고 고운 비단 같은 구름이 사방으로 걷히고 물결도 잔잔할 때에
하늘에 둥근 달이 소나무 위에 걸렸으니
(강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 (물에) 빠진 이태백이 한 짓이 야단스럽구나.

<추사3> '소선적벽'과 '적선'의 고사를 인용하여, 구름 걷히고 물결 잔잔한 가운데 소나무에 걸린 달이 빛어내는 가을 달밤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고 있음
[본사3] 추(秋) : 성상의 가을 풍경



공산(空山)의 싸한 님힐 삭풍(朔風)이 거두 부러

아무도 없는 산

북풍

떼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모라오니

천공(天公)이 호스로와 옥으로 고줄 지어

조물주

옥으로 만든 꽃(=눈)

만수천림(萬樹千林)을 꾸며곰 낼세이고

수많은 나무와 수풀

썰썰한 산중에 쌓인 낙엽을 걷어 들이듯 북풍이 몹시 불어
구름떼 거느리고 눈까지 몰아오니
조물주가 일 꾸미를 좋아하여 옥으로 눈꽃을 만들어
수많은 나무와 수풀을 다시 꾸며 내는구나.

<동사1> 온 산 가득 눈으로 뒤덮인 새로운 모습의 겨울 성산의 풍경을 그림

압 여흘 ㄱ리 어러 독목교(獨木橋) 빗것논터

앞 여울

가리어(떨어) 얼어

외나무 다리

막대 멘 늙은 중이 어니 덜로 간닷 말고

산옹(山翁)의 이 부귀를 늙드려 헌스 마오

산에 사는 늙은이(=김성원)

아름다운 자연을 벗하며 즐기는 마음의 부귀

옥으로 만든 굴(=성산)

경요굴(瓊瑤窟) 은세계(銀世界)를 츠즈리 이실세라

눈이 내린 겨울 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비유

앞 여울물이 모두 얼어 (그 위에) 외나무다리 비스듬히 놓여 있는데
지팡이를 멘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인가?
산옹의 이 부귀를 남에게 소문내지 마오.
경요굴 은밀한 세계를 찾을 이가 있을까 두렵도다.

<동사2> 성산 겨울 경치에 매료되어 '늙은 중'에게조차 '남에게 소문 내지 말라'고 당부함
[본사4] 동(冬) : 눈 덮인 성산의 겨울 풍경

산중의 벗이 업서 한기(漢紀)를 빠하 두고

책을

만고 인물을 거스리 헤혀 하니

옛 시대의 인물

거슬러 올라가

성현도 만크니와 호걸(豪傑)도 하도 할샤

하늘 삼기실 제 곳 무심할가마는

하늘이 (사람을) 나게 하실 때

엇디훈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하얏는고

시대나 그때의 운수

통했다가 망했다가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들움도 그지업다

나이가 많은 사람(여기서는 '허유'를 이룸)

기산(箕山)의 늙은 고블 귀는 엇디 싯뎃던고

허유가 귀를 씻은 고사를 의미함(요 임금이 왕위를 물려주고자 하였으나 거절하고,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 하여 영천에 귀를 씻었음)

일표(一瓢)를 썰턴 후의 조장이 ㄱ장 늙다

기개 있는 풀렐

허유가 포주박 하나도 귀찮다고 핑계하고

산 속에 벗이 없어 책을 쌓아 놓고
옛 시대의 인물들을 거슬러 올라가 헤아려 보니
성현도 많을 뿐만 아니라 호걸도 많기도 많다.
하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아주 무심할 리 없지만



어찌하여 한 시대의 운이 흥했다가 망했다가 하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끝이 없구나.
기산의 높은 허유가 귀는 어떻게 씻었던가?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고 던져 버린 허유의 지조와 행장이 더욱 높구나.

〈결사〉 산속에서 ‘객을 쌓아두고’ 독서를 즐기며, ‘옛 시대의 인물들’을 풍평하고 인간 세상의 통망성회를 가능하는 지식인의 모습

인심(人心)이 늦 곳^{새상일}터야 보도록 새롭거늘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머^{시름을 덜어 주는 매개물}호도 머^{기울이니}흘시고
엿그제 비^{기울이니}즌 술이 어도^{조금이나마}록 니^{떨어진다}건느니
잡^{시름(현악기의 줄)}거니 밀^{악곡 이름}거니 슬^{누가 손님이고 주인인지}크장 거^{후로니}후로니
므^{손님이고 주인인지}음의 미친 시^{누가 손님이고 주인인지}름 저^{후로니}그나 흐^{후로니}리는다
거^{손님이고 주인인지}문고 시^{누가 손님이고 주인인지}웁 언^{후로니}저 풍^{후로니}입송(風入松) 이야^{후로니}고야
손^{누가 손님이고 주인인지}인동 주^{누가 손님이고 주인인지}인인동 다 니^{후로니}저 버^{후로니}려셔라

인간의 마음이 얼굴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세상일은 구름 같아서 멀기도 멀구나.
엿그제 빛은 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술잔을)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걱정이 조금이나마 떨어진다.
거문고 줄을 얹어 풍입송을 타자구나.
(누가) 손님이고 (누가) 주인인지 다 잊어 버렸도다.

〈결사2〉 세상의 모든 시름을 접어 두고 ‘술’과 ‘거문고’로 ‘손’과 ‘주인’도 잊을 정도의 산속 풍류와 통취를 노래함

장공(長空)의 찢는 학^{높고 먼 공중}이 이 골^{진정한 신선(=학)}의 진선(眞仙)이라
요대(瑤帶) 월하(月下)의 형^{목으로 만든 누각}혀 아니 만나^{달 아래}신가
손^{손님(정월)이 주인(김성월)에게}이서 주^{그(학=진선)인가}인드려 닐^{후로니}오더 그^{후로니}터 권^{후로니}가 흐^{후로니}노라.

높고 넓은 하늘에 떠 있는 학이 이 골짜기의 진정한 신선이라.
목으로 만든 누각(신선이 사는 곳) 달 아래에서 행여 (그 신선을) 만나지 않았는가?
손님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진짜 신선인가?"하고 묻는구나.

〈결사3〉 성상의 자연 속에 묻혀 지내는 ‘주인’을 ‘손님’이 ‘학’에 비교하여 ‘진선’이라 칭송함
[결사] 세속을 떠난 신선 같은 주인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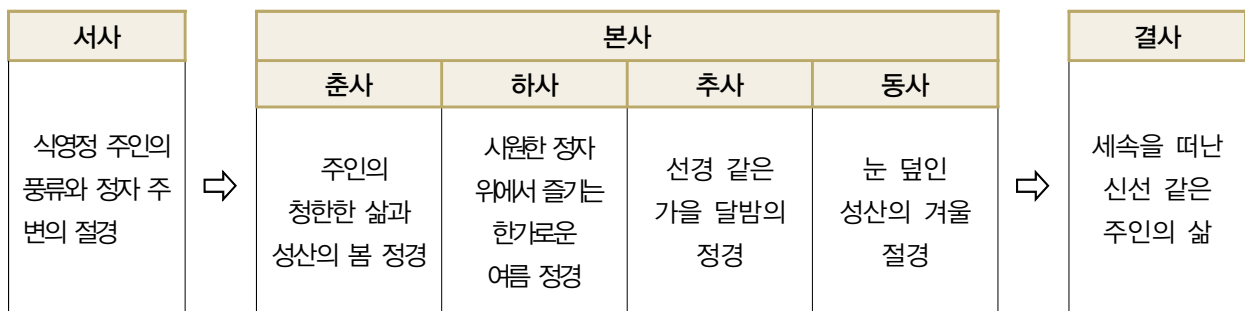
핵심 정리

갈래	가사(서정 가사, 양반 가사)
성격	전원적, 풍류적, 예찬적
주제	성산의 사계절 풍경과 식영정 주인(김성원)의 풍류를 예찬함
특징	① 〈본사〉에서 계절에 따른 자연 경관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묘사함 ② 〈서사〉에서 주인에게 물어본 말의 대답(‘손’이 궁금해 한 내용)을 〈결사〉에 등장시켜 서로 호응하는 구조를 드러냄 ③ 한문투와 중국 고사 관련 표현들을 주로 사용함 ④ 성산의 절경을 시간의 흐름(계절의 변화)에 따라 전개함
의의	① 강호가도(江湖歌道)를 확립함 ② 송순의 「면앙정가」에 직접적 영향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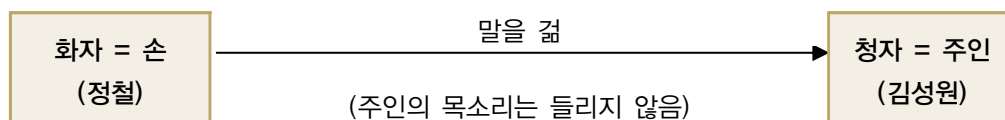
작품 해제

정철이 25세 되던 해, 그의 처 외재당숙인 김성원(金成遠)이 서하당과 식영정을 지었을 때, 사계절에 따른 그 곳의 풍물과 김성원에 대한 흠모의 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정철은 을축사화로 말미암아 귀양다니던 아버지를 따라 16세 때 낙향하여, 등과한 27세까지 전남 창평 지곡리에서 지냈던 것이다. 이 작품은 서하당의 주인인 김성원의 멋과 풍류를 노래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철 자신의 풍류를 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연에 은거하는 은자의 모습과 성산 식영정 주변의 자연 경관을 사계절에 맞추어 표현하여 정철의 가사 문학이 지닌 특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작품의 구조



대화체 형식





작가로 엮어 읽기

관동별곡(關東別曲) / 정철

(생략)

송근(松根)을 베어 누어 풋즙을 얼핏 드니,

□ : 신선 □ : 화자(정철)

꿈에 한 사람이 날더러 내놓은 말이,

화자의 감동을 해소해주는 매개

그대를 **내** 모르랴, 상계(上界)에 **진선(眞仙)**이라.

황정경(黃庭經) 일자(一字)를 었디 그릇 닦거 두고,

신성들이 있는다는 도가의 경서

인간(人間)의 내려와서 **우리**를 쫓아온다. 저근덧 가

디 마오. 이 술 한 잔 머거 보오.

북두성(北斗星) 기우려 창희수(滄海水) 부어 내어,

북두칠성(=국자) 푸른 바닷물(=술)
저 먹고 **날** 머거늘 서너 잔 거후로니,

화풍(和風)이 습습(習習)하야 낭익(兩腋)을 추혀 드니,

구만리(九萬里) 당공(長空)에 저기면 놀리로다.

이 술 가져다가 **스히(四海)**에 **고로노화**

억만창성(億萬蒼生)을 다 취(醉)케 밍근 후(後)의,

그제야 고터 맞나 또 한 잔 호젓고야.

관리로서 백성을 먼저 걱정하고 나중에 즐긴다는 '선우후락(先憂後樂)의 정신' -갈등 해소
말 디자 학(鶴)을 타고 구공(九空)의 올라가니,

공둥(空中) 옥소(玉簫)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나도 즘을 끼여 바다를 굽어보니, 기피를 모르거니
그인들 었디 알리

명월(明月)이 천산만낙(千山萬落)의 아니 비췌 더 업다.

밝은 달=임금의 은혜 온 세상

<결사2> 공중에서 신성을 만나 갈등을 해소함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서 선잠을 얼핏드니,
꿈에 한 사람이 날더러 이르기를,
“그대(송강)를 내가 모르랴, 그대는 하늘의 진짜 신선이라.
황정경의 한 글자를 어찌하여 잘못 읽어서
속세로 귀양 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잠간 동안 가지 말고 이 술 한 잔 먹어 보오”
북두칠성을 국자 삼아 푸른 바닷물을 잔에 부어
저도 먹고 나도 먹이거늘 서너 잔을 기울이니
화창한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 양쪽 겨드랑이를 추켜드니,
구만리나 되는 먼 하늘에 웬만하면 날 것 같다.
“이 술을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골고루 나누어
모든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 때에야 다시 만나 또 한 잔 하자꾸나.”
그 말이 끝나자 신선은 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공중에서 들려오는 옥피리 소리가 어제던가, 그제던가?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그 깊이를 모르는데 끝이야 더욱 어떻게 알겠는가.
밝은 달이 온 세상에 아니 비췌 곳이 없다.

핵심 정리

갈래	가사(기행 가사)
성격	서경적, 서정적
주제	관동 지방의 절경 유람과 연군, 애민 정신
특징	① 대구법을 사용하여 경쾌한 느낌이 듭 ② 호흡이 지속되는 유창성과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는 표현이 많음

작품 해제

작가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관동 팔경을 돌아보면
서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심정을 읊은 노래로 우리말의 구
사가 뛰어나 가사 문학의 백미로 꼽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작가 자신으로,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후 관동
팔경을 유람한다. 경치를 유람하며 강호가도적 마음을 가지
고 있지만, 유교적 충의 사상과 도교적 신선 사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옛날에는

네 논 양주(楊州) | 소울히여

한양의 옛 명칭

고을

- 샀다(강타형 어미): 건국 주체로서의 당당함과 자신감 표현

디위에 신도형승(新都形勝)이 샀다.

경계

새 도읍의 아름다고 뛰어난 경치

1, 2행: 새로운 도읍의 빼어난 모습

기국성왕(開國聖王)이 성덕(聖代)를 니르어 샀다.

태조 이성계

태평성대

태조 이성계의
성덕을 기림

- 니르(강타형 어미)

잣다운더 당금썩(當今景) 잣다운더

도성

지금의 경치(새 도읍의 아름다고 뛰어난 경치)

성수만년(聖壽萬年) 하샤 만민(萬民)의 함락(咸樂)이 샀다.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백성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제시함

임금께서 수명을 만 년까지 누리

즐거움을 누리

아으 다롱다리

: 여흥구. 전대절과 룡소절 구분(교려 가요, 경기체가의 본적)

3~6행: 태조의 창업과 도성에 대한 찬양

[전대절] 새 도읍지인 한양의 빼어난 경치와 태조 이성계의 공덕 예찬

알폰 한강슈(漢江水)여 뒤흔 삼각산(三角山)이여

배산임수의 명당 터인 한양의 모습

덕둥(德重) 하신 강산(江山)즈으메 만세(萬歲)를 누리쇼셔.

덕을 쌓으신

사이에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

7, 8행: 태조의 만수무강 기원

[룡소절] 배산임수의 명당 터에서 태조의 공덕을 기리며 만수무강을 빌

옛날에는 양주 고을이었도다.

이 자리에 새 도읍이 아름다운 경치로구나.

나라를 여신 거룩한 임금께서 태평성대를 이루셨도다.

도성답구나, 지금의 경치, (과연) 도성답구나.

임금께서 만년을 누리시어 온 백성도 함께 즐거움을 누리is구나.

앞에는 한강물이여, 뒤에는 삼각산이여.

덕이 많으신 강산 사이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소서.



핵심 정리

갈래	속요체 악장
성격	송축가(頌祝歌), 기원적, 예찬적
주제	한양의 아름다운 모습과 태조 이성계의 성덕 예찬
특징	① 고려 가요의 형식과 유사한 3음보의 율격이며, 여음구가 있음 ② 경기체가와 같이 전대절과 후소절로 구분되어 있음 ③ 조선 초기 시가에 흔히 쓰이는 ‘-이샀다’, ‘-이여’, ‘-이쇼셔’ 등의 감탄 어미가 쓰임 ① 조선을 건국하고 새 도읍을 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작가의 긍지가 드러남 ② 조선 건국에 대한 긍지와 낙관적 전망이 예찬적 어조로 표현됨 ③ 조선 왕조 창업기에 민심을 수습하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성을 띠고 있는 ‘악장’이 문학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가 됨

작품 해제

조선 초기에 정도전이 지은 악장으로 서울인 한양의 형세를 칭찬하고, 임금의 덕이 무한함을 찬양한 작품이다. 창작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3음보격을 갖추고, 여음 ‘아으 다름다리’를 전후하여 ‘전대절+후소절’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전반부는 한양의 빼어난 모습과 새로운 왕조를 연 태조의 성덕을 칭송하고 있으며, 후반부는 배산임수의 명당 터에서 태조의 공덕을 기리며 만수무강을 빌고 있다.

문학사적 의의

이 작품은 조선 건국에 앞장섰던 정도전이 한양으로의 천도를 찬양하기 위해 지은 악장이다. 조선 왕조 창업 초기의 혼란스러운 민심을 수습하고 건국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작가의 목적 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조선 초 대표적인 송축가이다.

이 작품은 한양 도읍에 대한 불안한 민심을 해소하고, 한양이 새로운 도읍으로서 임금의 덕치와 백성들의 교화로 길이 이어갈 터전임을 노래한 목적 문학으로, 순수 우리말로 지어져 국문학사에 있어서 「용비어천가」와 함께 악장 문학으로서 그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악장이 궁중 음악과 함께 활용되던 문학 갈래였기에 내용이 대상에 대한 찬양 일변도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보인다.



갈래 이해하기 - 악장

‘악장’은 궁중의 여러 의식과 행사 및 연례에 쓰인 노래의 가사로 조선 초기의 송축가를 말하며, 조선 전기 특정한 시가들에 붙여진 역사적 갈래의 명칭으로 쓰인다. 초기에는 중국 고체시를 본받고, 훈민정음 창제 후에 국어가 섞인 현토체로 바뀌었다가 후에 정형성을 띤 신체 형식으로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문물제도를 찬양하며 임금의 만수무강과 왕가의 번창을 기원하고, 후대 왕들에 대한 권계와 귀감을 담았다. 개국 공신인 유학자들이 창작의 주체였으며, 주로 특권층에서 향유되었다.

갈래로 엮어 읽기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 정인지 외

海東(해동) 六龍(육룡)이 느르샤 일마다 天福(천복) 이시니
우리나라 우리나라 육조 '조선 건국'에 관련된 일
 古聖(고성)이 同符(동부) 하시니
중국의 옛 성군

〈제1장〉 조선 건국의 정당성

우리나라에 여섯 성인이 나시어, (하시는) 일마다 모두 하늘이 내린 복이시니,
 (이것은) 중국 고대의 여러 성군(聖君)이 하신 일과 부절을 맞춘 것처럼 일치하십니다.

불휘 기쁜 남근 ~~보르네~~ 아니 뭇씨 꽃 도코 여름 하느니
기초가 튼튼한 나라 문화와 문물의 번영
 식미 기쁜 뜨른 ~~즈르네~~ 아니 그칠씨 내히 이러 바르
유서가 깊은 나라 무궁한 발전
 래 가느니

〈제2장〉 조선의 영원한 발전 기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찬란하게 피고 열매가 많습니다.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끓이지 아니하므로 내를 이루어 바다로 흘러갑니다.

千世(천세) 우희 미리 定(정)호산 漢水(한수) 北(북)에
하늘이 한양
 累仁開國(누인개국) 호샤 卜年(복년)이 조업스시니
왕조의 운수가 끊어 없으니
 聖神(성신)이 니스샤도 敬天勤民(경천근민) 호샤샤
위대한 후대의 왕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하여 복지런히 일함
 더욱 구드시리이다 님금하 아르쇼셔 落水(낙수)에 山
 行(산행)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나라를 다스릴 때 본받지 말아야 할 좋지 못한 군왕의 예 - 타산지석(他山之石)

〈제125장〉 후왕에 대한 권계

천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한양에, 어진 덕을 쌓아 나라를 여시어, 나라의 운명이 끊어 없으시니. 성스러운 임금이 이으시어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돌보셔야 더욱 굳으실 것입니다. 임금이시여, 아소서. 낙수에 사냥 가 있으며 할아버지를 믿었습니까?

핵심 정리

갈래	악장, 영웅 서사시, 송축가(頌祝歌)
성격	송축적, 예찬적, 서사적, 설득적
구성	전 125장, '서사 - 본사 - 결사'의 3단 구성
주제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후대 왕에 대한 권계
의의	① 한글(훈민정음)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 ② '월인천강지곡'과 함께 악장 문학의 대표작 ③ 세종 당시 국어 연구의 귀중한 자료 ④ 역사 연구의 보조 자료가 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세종(世宗)의 명을 받은 정인지, 권제, 안지 등이 편찬한 악장으로, 조선을 건국한 육조(六祖)의 사적을 찬양함으로써 국조 창업의 천명성을 강조하며, 후대의 왕에게는 왕권의 확립과 수호를 권계(勸戒)하고, 신하와 백성들에게는 조선 건국이 천명에 의한 것임을 밝혀 국가에 충성을 다할 것을 권고할 목적으로 지어졌다.



안락성을 지나다가 배척받고 / 김병연

이육사국어연구소



안락성 안에 날이 저무는데

공간적 배경(반어적 지명) 시간적 배경(화자가 안락성에서 하루를 묵어야 하는 이유)

관서 지방 못단 것들이 시 짓는다고 우쭐대네

관서 지방 양반들의 허세에 대한 풍자

(우쭐대네: 상대의 행동을 낮잡아 보는 화자의 태도)

수련(首聯): 관서 지방 양반들의 허세 풍자

마을 인심이 나그네를 싫어해 밥 짓기는 미루면서

화자 자신(객관화) - 마을 사람들에게 숙식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

마을 인심의 각박함을 경험하는 존재(약자)

주막 풍속도 야박해 돈부터 달라네.

항련(牧聯): 마을의 야박한 인심과 풍속 풍자

빈 배에선 자주 천둥소리가 들리는데

과장법, 정감적 이미지(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해학적으로 표현)

뚝뚝 대로 뚝뚝 창문으로 냉기만 스며드네.

열악한 처지(배경 묘사)

경련(頸聯): 배고픔과 추위로 인한 고통

아침이 되어서야 강산의 정기를 한번 마셨으니

아침이 되어서도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함

인간 세상에서 벽곡(辟穀)의 신선이 되려 시험하는가.

곡식은 안 먹고 술일, 대추, 밤 따위만 날로 조금씩 먹음 - 신선이 되기 위한 수련법

→ 마을 인심이 야박하여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한 자신의 상황을 회화화

미련(尾聯): 비참한 처지를 해학적으로 수용

安樂城中欲暮天(안락성중욕무천)

關西孺子謔詩肩(관서유자옹시견)

: 유자(孺者선비) 대신 유자(孺子, 어린아이)라는 동음이의어를 사용해 양반의 허세를 유치하다고 풍자함

村風厭客遲炊飯(촌풍영객지취반)

店俗慣人但索錢(점속관인단색전)

虛腸曳來頻有響(허창에리빈유향)

破窓透冷更無穿(파창투냉갱무천)

朝來一吸江山氣(조래일흡강산기)

試問人間辟穀仙(시문인간벽곡선)

핵심 정리

갈래	한시(7언 율시)
성격	풍자적, 비판적, 해학적, 낙관적
주제	양반들의 허세와 관서 지방의 야박한 인심 풍자
특징	① 제목을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풍자의 효과를 얻음 ② 과장과 언어유희적 표현을 활용해 부정적 세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함 ③ 곤궁한 상황에서도 채치와 해학을 잃지 않음

작품 해제

작가는 22세 되던 해부터 샷갯을 쓰고 죽장을 짚은 채 유랑을 시작하여 57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날카로운 풍자 정신이 담긴 시를 지었다. 이 작품은 7언 율시의 한시로, 유랑 생활 중 평안도의 안락성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보낸 작가가 그 지역 양반들의 허세와 야박한 인심을 풍자한 작품이다. 부정적인 대상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와 함께 고달픈 자신의 처지를 해학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제목의 의미 - 반어와 풍자

‘안락성’은 편안하고 즐거운 성을 뜻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아 전혀 ‘안락’하지 않은 화자의 상황, 즉 야박한 현실을 반어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구름비 개단 말가 흐리던 구름 걷단 말가 — 대구법
 시련, 모함 간신, 임금의 총명을 가리는 신하

<초장> 비가 그치고 날씨가 갠

압내회 기쁜 소히 다 맑았다 흐느낀다

시내의 깊은 소(연못) - 조정 ① 날씨가 갠 후의 깨끗한 느낌
 ② 화자의 상황이 매우 개선되었음

<중장> 앞 시내의 연못이 맑아졌다는 소식

진실(眞實)로 맑디웃 맑아시면 갠진 시서 오리라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면 <맹자>의 <동문공편>의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갠진을 씻고 물이 흐르면 발을 씻는다'(탁영탁족(濯纓濯足) 고사)

<종장> 진실로 맑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현대어 풀이]
 구름비 개었다 말인가, 흐리던 구름 걷혔단 말인가.
 앞 내의 깊은 못이 다 맑았다 하는구나.
 진실로 맑디맑았다면 갠진(갠진)을 씻어 오리라.

핵심 정리

갈래	시조(평시조)
성격	의지적
주제	① 비가 갠 풍경으로부터 느끼는 감회 ② 자신의 억울함이 풀린 것을 기뻐함
특징	화자의 억울함이 풀린 것을 날씨(비 갠 후의 상황)에 비유함

작품 해제

작가 윤선도가 31세 때 함경도 경원에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자신을 유배 보낸 정승이 잘못을 뉘우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억울함이 풀어진 것에 대한 기쁨을 지루한 비가 개고 구름도 걷힌 것처럼 상쾌하다고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의 제목은 '비 온 뒤의 노래'라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전통적으로 모함과 시련 등을 뜻하는 '고즌 비'와 '구름'이라는 시어를 사용하고, 날씨가 '맑았다'는 어휘를 통해 자신의 누명이 벗겨졌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종장의 '맑디웃 맑아시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임금을 속이는 간신이 사라지고 조정이 깨끗해질 길 바라는 화자의 궁극적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로 엮어 읽기

「견회요(遣懷謠)」와 「우후요(雨後謠)」는 유배지에서 지은 작품으로서, 처음으로 맛본 정치적 좌절의 심경을 담담한 어조로 읊조리고 있다.

견회요(遣懷謠) / 윤선도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울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나라와 임금에 대한 무국충정
그 밋기 여남은 일이야 分別(분별)할 줄 이시랴.

<제1수>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겠다는 의지
내 일 망녕된 줄 내라 하여 모랄 손가.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세.
강요한 일도 임금을 위한 의도에서 한 것임
아무리 아무리 일러도 임이 해여 보소서.
모항을 해도

<제2수> 자신의 결백 호소
항경북도 경원의 옛 이름
秋城(추성) 鎮胡樓(진호루) 밋기 울어 예는 저 지내야.
귀양지
무음 호리라 晝夜(주야)에 흐르는다.
장가의 '임 향한 내 뜻을 강조하기 위한 시적 장치'
님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임금에 대한 충성심

<제3수>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
△ 화자와 아버지 사이의 장애물
외흔 길고 길고 △ 물은 멀고 멀고.
「실리적 거리감 강조」

아버이 그릴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강정이임의 대상

<제4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아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지니
임금을 걱정하는 마음(충성심)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 不孝(불효)인가 여기노라.
충과 효는 하나일 수밖에 없음

<제5수> 충과 효가 하나라는 계달음과 임금에 대한 충성

<제1수>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그르다 하나
내 몸의 할 일만 닦고 닦을 뿐이로다.
그 밖의 다른 일이야 생각할(또한 근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2수>
내 일이 잘못된 줄 나라고 하여 모르겠는가?
이 마음 어리석은 것도 모두가 임(임금)을 위한 탓이로구나.
그 누가 아무리 험뜯더라도 임께서 해아려 주십시오.

<제3수>
추성 진호루 밖에서 울며 흐르는 저 시냇물아.
무엇을 하려고 밤낮으로 그칠 줄 모르고 흐르는가?
임 향한 내 뜻을 따라 그칠 줄을 모르는가?

<제4수>
산은 길게 길게 이어져 있고, 물은 멀리 멀리 굽어져 있구나.
부모님 그리워하는 뜻은 많기도 많다.
어디서 외기러기는 슬피 울며 가느는가?

<제5수>
아버이 그리워할 줄은 처음부터 알았지만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만드셨으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것이 불효인가 여기노라.

갈래	시조(연시조(전 5수))
성격	연군적, 우국적
주제	유배지에서 느끼는 정회(情懷)
특징	① 감정 이입(시내 - 외기러기)을 통해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② 반복과 대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함 ③ 각 연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주제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으면서 통일성을 드러냄

문학사적 의의

제목 '견회요(遣懷謠)'는 '시름을 쫓는 노래'라는 뜻으로, 이 작품은 작가가 유배지에서 느낀 감회를 노래하고 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부모에 대한 효심을 읊고 있다.



「하우요(夏雨謠)」는 장마철을 맞은 농촌의 모습을 나타낸 작품으로, 전원적 삶에 깊숙이 침윤된 사람만이 포착할 수 있는 생활 풍경을 노래하였다.

하우요(夏雨謠) / 윤선도

[비] 오는데 들희 가랴 사립문 닫고 쇼 머겨라
 '비(장마)'의 중의성 들(들+의) 사립문
 ① 자연: 비가 갠 후 농사를 짓겠다
 ② 정회적 시련: 시련이 끝난 후 조정으로 복귀하겠다
마히 미양이라 잡기 연장 다스려라
장마가 쟁기
 쉬다가 갠 날 보아 스래 긴 밭 가라라
이랑 밭
 <제1수> 장맛비가 내릴 때 날씨가 개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를 준비함
 심심은 하다마는 일 업술 손 마히로다
것은(손+이) 대구법
 답답은 하다마는 한가할 손 밤이로다
 아히야 일즉 자다가 동트거든 닐거라
 <제2수> 비가 내려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의 한가함

<제1수>
 비가 오는데 들에 나가겠느냐? 사립문 닫고 소에게 여
 물이나 먹여라.
 장마가 언제나 이렇듯 계속되겠느냐? 쟁기와 연장을 손
 질하여라.
 쉬다가 갠 날 보아서 이랑이 긴 밭을 갈아라.

<제2수>
 심심하지만 일 없는 것은 장마로다.
 답답하지만 한가한 것은 밤이로다.
 아이야, 일찍 자다가 해가 뜨거든 일어나거라.

갈래	시조(연시조(전 2수))
성격	교훈적
주제	여름철의 농촌 생활
특징	①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비가 개면 농사를 짓겠다는 뜻을 보임 ② 고유어를 사용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림 ③ 설의법(제1수)과 대구법(제2수)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함

문학사적 의의

윤선도가 해남에서 은거할 때 지은 시조이다. 여름 장마철에 농사를 쉬고 있는 농촌의 모습과 비가 개면 농사를 지으려는 뜻이 함께 나타나 있어, 지금은 은거하고 있지만 장마(시련)가 끝나면 다시 조정에 나가겠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



유산가(遊山歌) / 작자미상

수능특강 P. 321

이육조국어연구소



「사특적인 학문(하층 문학인 장가가 상층 문학을 모방했음을 알 수 있음)」

화란 춘성(花欄春城)하고 만화방창(萬化方暢)이라.

꽃이 활짝 피어 봄 성에 가득함

만물이 화창하게 피어남

때 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개(山川景概)를 구경을 가세.

산천(자연의 경치)

〈서사〉 봄을 맞이한 산천 경치의 구경을 권유함

죽장망혜(竹杖芒鞋) 단표자(單瓢子)로 천리강산을 들어를 가니,

대지팡이와 짚신, 한 개의 표주박 (간편한 차림새)

시각적
이미지
(봄은색
녹색)

만산 홍록(滿山紅綠)들은 일년 일도(一年一度) 다시 피어

온 산에 가득한 꽃과 풀 일 년에 한 번씩

춘색(春色)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봄빛, 봄기운

창송 취죽(蒼松翠竹)은 창창울울(蒼蒼鬱鬱)한데,

푸른 솔과 푸른 대나무

기화요초(琪花瑤草) 난만 중(爛漫中)에 꽃 속에 잠든 나비

목같이 고운 풀에 핀 구슬같이 아름다운 꽃

자취 없어 날아난다.

대구법

유상앵비(柳上鶯飛)는 편편금(片片金)이요,
(비꼬리) 색채의 유사성 (금)

버드나무 위로 나는 비꼬리

(중독한 나비)

모양의 유사성

(눈)

화간점무(花間蝶舞)는 분분설(紛紛雪)이라.

꽃 사이에서 춤추는 나비

삼춘가절(三春佳節)이 좋을세고.

도화 만발 점점홍(桃花滿發點點紅)이로구나.

어주 축수 애삼춘(漁舟逐水愛三春)이어든

와유의 「도원행」에서 인용한 구절

- 고깃배를 타고 물을 따라 봄을 즐김

무릉도원(武陵桃源)이 예 아니냐.

이상향

양류 세지 사사록(楊柳細枝絲絲綠)하니

황산 곡리 당춘절(黃山谷裏當春節)에 연명 오류(淵明五柳)가

도연명이 온거 후 마당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심고 스스로를 오류 선생이라 칭한 고사를 인용

예 아니냐.

〈본사〉 봄의 화려한 경치의 아름다움

《EBS 수능특강 지문》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 저서 — 대구법

봄이 되어 제비가 돌아오고, 기러기는 돌아가려 함

거지중천에 높이 떠서 두 나래 활썬 펴고

허공(하늘 한복판에 있음)

펼 펼 백운 간에 높이 떠

외태어 흰 구름 사이

천 리 강산 머나먼 길에 어이 같고 슬피 운다

전체 정서와 대조(시적 화자의 정조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새가 우는 사실 자체를 기록한 것임)

[서사]

꽃이 활짝 피어 봄을 맞이한 성(城)에 만발하구나.

시절이 좋구나 벗님네야, 산천의 경치를 구경 가자꾸나.

[본사1]

대나무 지팡이와 짚신, 한 소쿠리의 밥, 물을 들고 천리강산 들어가니 / 온 산의 꽃들은 일년에 한 번 다시 피어나서

봄 색을 자랑하느라고 색갈마다 붉었는데, /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는 울창하고,

아름다운 꽃과 물은 난만한(활짝 피어 화려한) 가운데 꽃 속에 잠든 나비는 여기저기 날고 있다.

버드나무 위로 나는 비꼬리는 조각조각 금조각이요, 꽃 사이에 춤추는 나비는 가루가루 흩어지는 눈이로다. 봄 석 달의 아름다운 계절이 좋구나.

도화는 만발하여 점점이 붉어 있고, / 고깃잡이배를 띄워 놓고 봄을 즐기니

무릉도원이 바로 여기 아니냐?

버드나무 가는 가지는 가닥가닥 녹색을 띠고 / 황산 골짜기에 봄을 맞았으니 도연명이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어 놓고 지냈다는 곳이 여기 아니냐?

[본사2]

제비는 물을 차고 오르며 날고, 기러기는 무리를 지어

하늘 한복판에 높이 떠서 두 날개를 활짝 펴고, / 펼 펼 흰 구름 사이에 높이 떠서 / 천 리 먼 길을 어찌 같까 하고 슬피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출하여
 먼 산 : 의태어를 사용한 생동감 있는 묘사
 기암(奇岩)은 **층층**, 장송(長松)은 **낙락**
 기이한 바위 가지가 크고 길어 죽죽 늘어짐

원경에서 근경으로
 일정한 방향을
 잡아 경지를 나열

에이구부러져 광풍(狂風)에 흥을 겨워
 조금 휘어져 굽어 미친 듯 사나운 바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절벽 상에 폭포수는 **팔팔**

층층이 바위가 쌓여 있는 절벽

수정련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룩**

수정으로 만든 발 직유법(폭포의 모습)

저 골 물이 **찰찰** 열의 열 골 물이 한데 합수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코라지고 평퍼저** **넌출지고 방울저**
 천방지방 (천방지쪽으로 날뛰는 모양) 돌어지고 다시 깨지고

저 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팔팔

병풍 모양의 바위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흘러지니

직유법

소부(巢父) 허유(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이 아니냐

요 임금 때 기산에 은거한 중국의 은인

소부 허유가 은거했던 곳 (이상향)

<본사2> 봄을 맞이한 산들과 폭포의 장엄한 아름다움

[본사2]
 먼 산은 첩첩, 태산은 우뚝하며,
 기이한 바위는 층층히 쌓였고,
 큰 소나무는 가지가 축축 늘어지고
 구부러져 성난 바람에 흥이 겨
 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층 바위 절벽 위의 폭포수는
 팔팔 쏟아지는데,
 마치 수정발을 드리운 듯, 이 골
 짜기 저 골짜기 물이 주루룩, 쌀
 쌀 흘러내리고

여러 곳의 물이 한 곳에 합수하
 여 / 천방지방으로 솟아오르고 퍼
 져 나가고 끝없이 이어지고 방울지
 며 흐르다가

건너편 병풍석으로 으르렁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같이 흘러지니,
 소부와 허유가 세상과 단절하고
 지내던 기산과 영수가 바로 여기가
 아니냐?

주각제금(住刻啼禽)은 천고절(千古節)이요

두견새

천고의 절개, 옛날과 같음

대구법

적다정조(積多鼎鳥)는 일년풍(一年豐)이라

소쩍새

일 년의 풍년을 미리 알림

일출 낙조(日出落照)가 눈앞에 버려니 경개 무궁 좋을시고

해 뜨는 광경과 해 지는 광경

한없이 아름다운 경치

<결사> 자연의 무궁한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

[결사]
 주각주각 울어 데는 주걱새는
 예나 다름이 없고,
 소쩍소쩍 울어 데는 소쩍새는
 풍년을 노래함이라.

해 뜨고 해 지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구나. 아름다운 경치가 무궁
 토록 좋을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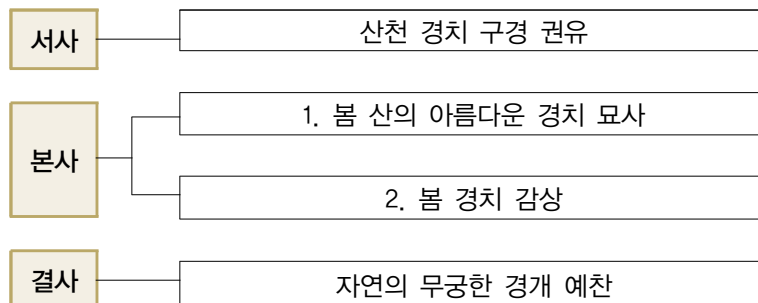
핵심 정리

갈래	잡가
성격	풍류적, 감각적, 묘사적
주제	봄 경치의 아름다움
특징	① 4·4조, 4음보를 토대로 한 가사체이나 파격이 심함 ② 상투적인 한자어(한시 구절, 중국 고사 포함)를 많이 사용함 ③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함 ④ 대구법, 열거법, 비유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함 ⑤ 의태어와 의성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주며,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림 ⑥ 화창함, 현란함, 악동감이 넘쳐 즐거운 리듬감을 느끼게 함

작품 해제

조선 후기 12잡가의 하나로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한 작품이다. 화창한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를 완상하면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노래하고 있다. 봄날을 맞아 아름다운 산천을 구경 가자는 제안으로 시작하여 산속의 아름다운 풍경을 활기차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작품의 구조



봄 경치 구경 권유	봄 경치 완상	자연의 아름다움 예찬
화란 춘성 만화방창 산천경개 구경	만산 홍록, 유상 앵비 창송취죽, 화간접무 기화요초, 도화 만발 제비 기러기 첩첩산중 기암괴석 폭포수 낙락장송 ▪ 봄의 화려한 경치 묘사 → 동양화적 화폭 ▪ 봄의 장엄한 경치 완상 → 웅장한 풍경화	일출 낙조 경개 무궁



봄 경치의 완상과 예찬 : 자연 친화적, 자연 예찬적 태도



문학사적 의의

조선 후기에 발달된 잡가로,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난 잡가 12마당(12잡가)의 대표적인 작품이며, 우리말 표현과 한자어가 혼용되어 있다.

갈래 이해하기 - 잡가

조선 후기에 서민층인 직업적인 소리패에 의해 불려진 것으로, 율격이 산문적으로 파격을 이루는 가사 형태를 가진 노래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즉, 조선 후기 가사의 정형성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평민 중심의 노래 형식이다. 민요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기존 가사의 정형성이 사라지고 가사와 민요의 중간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 / 김인겸

수능특강 P. 79

이웃조국어연구소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거센 바람

기센 섯 복선 섯

삼현과 군악 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거문고, 가야금, 향비파의 세 가지 현악기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물고기

부산 남구에서 바라다보이는 돌바위 성(썰물 때는 6도, 밀물 때는 5도로 보이므로 붙여진 이름)

해구를 얼른 나서 오륙도 뒤 지우고

바다의 흥미진 곳으로 들어간 어귀(=부산항)

고국을 돌아보니, 아색이 창망하여

고국에 대한 열려

밤 경치

넓고 멀어서 아득함

아무것도 아니 뵈고, 연해 각진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뵈 만하다.

동시사를 보내는
성대한 확충식
(교장법)

▶부산항 돌발 광경

거센 바람에 돛을 달고 여섯 척의 배가 함께 떠날 때,

악기 연주하는 소리가 온 세상을 진동하니,

물 속의 고기들이 마땅히 놀람직하도다.

부산항을 얼른 떠나 오륙도를 뒤로 하고

고국을 돌아보니 밤빛이 아득하여 아무 것도 아니 보이고, 바닷가에 있는 군영 각 포구의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서 보일 듯 말 듯하다.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선실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과자, 직유법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큰 배

많이 울퉁하게 주저앉은 곳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직유법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줄기에서 뻗어 나간 결가지

썬두 폭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굵은 우레 잔 벼락은 등 아래서 진동하고,

성난 고래 동한 용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은유법(형하고 거센 파도)

방 속의 요강 타구 자빠지고 엎어지며,

가래나 침을 뱉는 그릇

상하좌우 배 방 넓은 앞안이 우는구나.

판판하고 넓게 켜 널빤지

▶바다에서 폭랑을 만남

선실에 누워서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나 마음이 어지러운데 큰 바람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이 천지에 자욱하니,

만 석을 실을 만한 큰 배가 마치 나뭇잎이 나부끼듯

하늘에 올랐다가 땅 밑으로 떨어지니,

열두 발이나 되는 쌍돛대는 나뭇가지처럼 굽어 있고,

썬두 폭으로 엮어 만든 돛은 반달처럼 배가 불렀네.

큰 천둥소리와 작은 벼락은 등 뒤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성난 고래와 용이 물 속에서 희롱하는 듯하네.

선실의 요강과 타구가 자빠지고 엎어지고

상하 좌우에 있는 선실의 널빤지는 저마다 소리를 내는구나.



이윽고 해 돋거늘 장관을 하여 보세.
 일어나 배 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사면을 돌아보니, 어와 장할지고!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아득하게 멀고 넓어서 끝이 없는 모습}
 등 뒤쪽을 돌아보니, ^{적유법} 동래 산이 눈썹 같고,
^{부산에서 멀리 떨어져}
 동남을 바라보니, 바다가 가이 없어
 위아래로 푸른빛이 하늘 밖에 닿아 있다.
^{수평선의 모습}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건가?
 함께 떠난 다섯 배는 간 데를 모르겠다.
 사면을 돌아보니, 이따금 물결 속에
 부채만 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하는구나!

▶ 바다의 장관

이윽고 해가 돋거늘 굉장한 구경을 하여 보세.
 일어나 선실 문을 열고 문설주를 잡고 서서,
 사면을 바라보니 아아! 굉장하구나,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이 또 있을까?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다만 큰 물결뿐이로세.
 등 뒤로 돌아보니 동래의 산이 눈썹만큼이나 작게 보이고
 동남쪽을 돌아보니 바다가 끝이 없네.
 위아래 푸른 빛이 하늘 밖에 닿아 있다.
 슬프다. 우리의 가는 길이 어디란 말인가?
 함께 떠난 다섯 척의 배는 간 곳을 모르겠도다.
 사방을 두루 살펴보니 이따금 물결 속에
 부채만 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하는구나.

배 안을 돌아보니, 저마다 수질하야
^{배 멀미}
 똥물을 다 토하고, 혼절하여 죽게 앓네.
 다행할사 종사상은 태연히 앉았구나.
^{종사관(조선 시대에 통신사를 수행하던 임시 벼슬)을 놀여 이르던 말}
 배 방에 도로 들어 눈 감고 누웠더니,
 “대마도 가깝다.”고 사공이 이르거늘
^{화자의 여정}
 다시 일어 나와 보니, 십 리는 남았구나.

▶ 대마도에 도착함

배 안을 돌아보니 저마다 배 멀미를 하여
 똥물을 다 토하고 까무라쳐서 죽게 앓네.
 다행하도다. 종사상은 태연히 앉았구나.
 선실에 도로 들어와 눈 감고 누웠더니
 대마도가 가깝다고 사공이 말하거늘
 다시 일어나 나와 보니 십 리는 남았구나.

(중략)

이십 리 실상사가 삼상사 조복할 때
^{관원이 조정에 나아가 하례할 때에 입던 예복(여기서는 그 행위를 가리킴)}
 나는 내리잡고, ^{왜성}으로 바로 가니,
^{교토}



“인민이 부러하기 대판만은 못하여도

^{부유하고 화려하기 오사카}
서에서 동에 가기 삼십 리라.”하는구나.

^{매우 넓음을 알 수 있음}
관사는 본룡사요, 오층 문루 위에

열 아문 구리 기둥 운소에 닿았구나. — ^{과장법}

^{여남은, 열이 조금 남은} 구름 낀 하늘

^{일본 경치에 대한 감상}
수석도 기절하고, 죽수도 유취 있네.

^{신기하고 기이함} ^{그윽한 정취}
왜 황이 사는 데라 사치가 측량없다.

^{화자의 비탄 정신}
산형이 웅장하고, 수세도 환포하여

^{사방으로 둘러싸}
옥야천리 생겼으니, 아깝고 애달픈

^{끝없이 넓은 기름진 들판}

이리 좋은 천부 금탕 왜놈의 기물 되어

^{천연의 요충지} ^{살림살이에 쓰는 그릇}
칭제 칭왕하며, 전자 전손하니,

^{황제라고 칭함}

개돌 같은 비린 유를 다 모두 소탕하고,

^{개와 돼지}

^{겉이나 속성이 비슷한 부류}

^{대우법(일본)}

사천 리 육십 주를 조선 땅 만들어서

^{일본의 국토와 행정 구역}

왕화에 목욕 감겨 예의국 만들꼬다.

^{일본인들을 예의 바른 국민으로 만들고 싶다는 작가의 재치 있는 말}

일본에 대한
화자의 적개심

▶관사와 경치에 대한 감상과 비판

이십 리 실상사에 가 세 사신이 하례할 때,

나는 내리지 않고 왜성으로 바로 가니,

사람들이 부유하고 화려하기가 오사카만은 못하여도,

성에서 동에 가기 삼십 리라 하는구나.

관사는 봉국사요 오층 문루 위에

여남은 구리 기둥 구름 낀 하늘에 닿았구나.

물과 돌로 이루어진 자연의 경치도 아주 신기하고 대나무도 그윽한 운치가 있네.

일본 천황이 사는 곳이라 매우 사치스럽기 그지없다.

산 모양이 웅장하고 물의 흐름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끝없이 넓고 기름진 들판이 생겼으니, 아깝고 애달프다.

이렇게 좋은 방어 시설이 타고난 성이 왜놈의 살림살이에 쓰이는 그릇이 되어,

황제라고도 칭하고 군왕이라고 칭하며 자식, 손자에게 전하니

개와 돼지 같은 더럽고 아니꼬운 종자를 다 몰수하고 없애버려,

일본 땅을 조선 땅으로 만들어서,

왕의 교화에 목욕 감겨 예의 국민 만들고 싶구나.



핵심 정리

갈래	가사(기행 가사, 장편 가사, 사행 가사)
성격	직설적, 사실적, 관찰적
형식	3·4(4·4)조, 4음보의 연속체
구성	추보식 구성
주제	일본 여행에서의 견문과 여정
특징	① 약 11개월 동안의 여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른 추보식 구성 방식으로 서술함 ② 일본 풍속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나타남 ③ 정확한 여정과 일시를 적고, 날씨, 자연 환경, 일어난 사건, 작가의 느낌 등을 과장 없이 묘사함 ④ 대구법, 과장법, 직유법 등 다양하고 참신한 표현법을 사용함 ⑤ 작가의 비판 정신과 실학 사상 등이 드러남
의의	① 작가가 재미 통신사의 삼방서기로 일본에 다녀오면서 견문하고 체험한 바를 기록한 장편의 기행 가사로, 우리말로 쓴 최장편 기행 가사임 ② 다시의 외교상의 미묘한 갈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외교사적 자료로도 평가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영조 때의 문인이었던 작가가, 영조 39년 조엄(趙暉)이 통신사로 일본에 갈 때 통신사 삼방서기(三房書記)로 발탁되어 수행하면서 견문(見聞)한 바를 기록한 장편 기행 가사이다. 1763년 8월 3일 한양을 출발하여 이듬해인 1764년 7월 8일 경희궁에 들어가 복명(復命)할 때까지의 약 11개월에 걸친 긴 여정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으로, 총 4책 8,000여 구로 구성된 대작이다. 삼방서기는 통신사를 보좌하여 여러 기록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작가는 500명에 달하는 대규모 통신 사절단의 긴 여정과 견문을 기록하였다. 정확한 노정(路程)과 일시(日時), 날씨, 자연 환경, 이동하면서 겪은 사건과 그 곳에서 보고 들은 일본의 문물제도, 인물, 풍속, 외교 임무의 수행 과정 등과 이에 대한 느낌을 소상히 기록하고, 여기에 작가의 날카로운 비판, 기발한 유희와 해학을 곁들여 실감나게 묘사함으로써 기행 문학의 묘미를 잘 살려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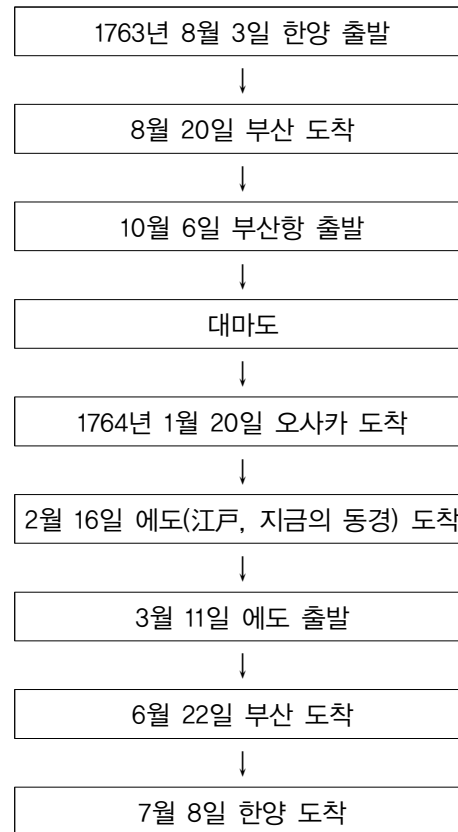
작품의 구조

구성		주요 내용
제1권	212구	일본에서 친선 사절을 청하여, 여러 수속 끝에 8월 3일 한양(서울)을 출발하여 용인, 충주, 문경, 예천, 안동, 영천, 경주, 울산, 동래를 거쳐 부산에 이름.
제2권	5845구	10월 6일, 부산에서 승선하여 발선(發船)하는 장면에서부터 대마도, 일기도(壹岐島), 축전주(築前州), 남도(藍島)를 거쳐 적간관(赤間關)에 도착하여 머뭄.
제3권	368구	정월 초하루 적간관의 명절 이야기로부터 오사카, 교코, 오다와라, 시나카와를 거쳐 에도(江戸)에 들어가 사행(使行)의 임무를 마침.
제4권	1818구	3월 11일 귀로에 올라, 6월 22일 부산에 귀환, 7월 8일 한양에 와서 임금(영조)에게 복명(일본을 다녀온 결과를 보고)함.

**작품에 나타난 여정(旅程)과 통신사 활동**

1763년 8월 한양을 출발한 뒤, 1764년 7월에 일본에서 돌아와 경희궁에 복명(復命)할 때까지의 11개월에 걸친 긴 여정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여행 목적	일본 관백(關白) 토쿠가와 이에시게가 죽고 그 아들인 토쿠가와 이에하루가 관백의 자리를 계승하자, 일본은 조선에 수교와 구호를 요청함. 이에 조선은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관백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통신사를 차출하여 파견함.
여행 기간	1763년(영조 39) 8월 3일부터 1764년(영조 40) 7월 8일까지의 11개월
여행한 곳	대마도 - 오사카 - 에도
수행원	정사(正使) - 조엄, 부사(副使) - 이인배, 종사관 - 김상익 외에 477명 수행

**갈래로 엮어 읽기 - 기행가사**

정철이 「관동별곡」은 지은 여행의 체험을 문학으로 형상화한 기행 가사이다. 1580년(선조 13) 정월 작가 정철이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관동 팔경을 돌아보면서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심정을 읊은 노래로, 우리말의 구사가 뛰어나 가사 문학의 백미로 꼽히는 작품이다.

더불어 홍순학의 연행가는 작가가 25세 때 고종의 가례 책봉 주청사의 서장관으로 연경(지금의 북경)에 다녀와서 쓴 기행 가사로, 청나라의 문물과 풍속을 예리한 관찰력과 사실적이고 비판적인 필치로 그려 낸 기행 가사이다.

연행가(燕行歌) / 홍순학

집집마다 만주 사람들은 길에 나와 구경하니,
 옷차림이 청나라 사람들 처음 보기에 놀랍도다.
변방에 대한 묘사
 머리는 앞을 깎아 뒤편 땅아 늘어뜨려
 당사실로 땡기를 드리고 마래기라는 모자를 눌러쓰며,
 명주실의 일종 중국 청나라 때 관리들의 모자

핵심 정리

갈래	가사(기행 가사, 장편 가사, 사행 가사)
성격	직설적, 사실적, 관찰적
주제	청나라 연결을 다녀온 견문과 연정



일 년 삼백 육십 일에 양치질 한 번 아니하여
이빨은 황금빛이요 손톱은 다섯 치라.

로인에 대한 인식여기(해학적으로 표현함)

검은 빛의 저고리는 깃이 없이 지었으며,
옷고름은 아니 달고 단추 달아 입었으며,
검푸른 바지와 검은 남빛 속옷 허리띠로 눌러 매고,
두 다리에 행진 모양 타오구라 이름 하여,
바지를 입을 때 정강이에 꺾어 무릎 아래에 매는 물건
발목에서 오금까지 가뜰하게 들이끼우고
깃 없는 푸른 두루마기 단추가 여럿이며,
좁은 소매가 손등을 덮어 손이 겨우 드러나고,
두루마기 위 에 덧저고리 입고 무릎 위에는 슬갑(膝甲)이라.
주위를 막기 위해 무릎까지 내려오게 입는 옷
(하략)

특징

- ① 존명 배척(명나라를 높이고 청나라를 배척함)의 의식이 드러남
- ② 치밀한 관찰력으로 이국의 문물과 풍속, 인물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함
- ③ 중국 고사나 한자어보다는 소박한 표현이 사용됨

작품 해제

조선 후기 고종 3년에 청나라 사신으로 갔던 홍순학이 지은 기행 가사이다. '일동장유가'와 마찬가지로 여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을 관찰하여 자세히 묘사하고 순 한글로 기록했다. '일동장유가'와 더불어 조선 시대 대표적인 기행 가사 작품으로 평가된다. 두 작품 모두 이국적 풍물과 견문에 대한 관찰과 감상이 드러나 있으며, 동시에 일 본인을 '왜놈'으로 표현하고 청나라 사람들의 위생 상태를 알잡아 보는 등 사대부로서 지니는 자긍심과 자존심이 은연 중에 드러나 있다.



정선 아리랑 / 작자미상

눈이 올러나 비가 올러나 ^{여러 날 동안 억수로 내리는 장마} 억수장마 지려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 든다

^{송악산의 다른 이름} : ^{지명의 직접 인용 - 지역적 특수성과 향토성이 드러남}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 ^{후렴구}

I: 노래의 시작을 알림

《EBS 수능특강 지문》

명사십리가 아니라면은 해당화는 왜 피며

^{함경남도 원산시에 있는 해수욕장}
모춘 삼월(暮春三月)이 아니라면은 두견새는 왜 우나

^{늦봄, 음력 3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늦은 봄의 자연에서 느끼는 애상감 (EBS 교재 [B]부분)

정선 읍내 일백오십 호 몽땅 잠들여 놓고서

이모장네 만머느리 데리고 ^{정선과 평창의 경계에 있는 고개} 성마령을 넘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아우라지 ^{정선에 있는 지역명} 뱃사공아 배 좀 건너 주게

짜릿골 ^{제철보다 일찍 꽃이 피는 동백 - 시간의 흐름을 나타냄} 울동백이 다 떨어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 (EBS 교재 [C]부분)

떨어진 동백은 낙엽에나 짝이지

^{자연물의 외롭지 않은 모습}
잠시 잠깐 입 그리워서 나는 못 살겠네

^{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입에 대한 그리움 (EBS 교재 [D]부분)

2: 봄에 대한 애상감과 입에 대한 그리움

오라버니 장가는 ^{내년} 평년에나 가시고

검둥 송아지 툭툭 팔아서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음} 날 시집보내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저 건너 묵발은 작년에도 묵더니

^{시집 못 간 시적 화자의 처지와 유사함}
올해도 날도 같이 또 한 해를 묵네

^{올해도 시집을 가지 못함}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간다지 못 간다지 얼마나 올었나

송정암 ^{임과의 이별로 인한 화자의 슬픔과 한을 구체화한 표현} 나루터가 환강수가 되었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글을 읽거나 시를 읊는 목소리 - '울음소리'를 비유함

3: 시집가고 싶어 하는 처녀의 마음과 시집을 못간 설움

앞 남산 빼꾸기는 조성도 좋다
세 살 적에 들던 목소리 변치도 않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정 들이고 가시는 임은 가고 싶어 가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임의 사랑처럼 많으면(앞 영의 임과는 다른 임)

4: 임과의 이별

한치 뒷산에 곤드레 따주기 임의 맘만 같으면
'고려엉귀'와 '장대', 식물이 가능한 식물
올 같은 흥년에도 봄 살아나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삭달 가지를 뚝뚝 꺾어서 군불을 때고
'삭정'의 강원도 방언
중방 밑이 다 타도록만 잘 살아보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정선의 구멍은 무릉도원이 아니냐
옛 이름
무릉도원은 어디 가고 산만 충충하네
빛깔이 산뜻하지 못하고 칙칙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5: 가난한 생활 속 삶의 애환 (EBS 교재 [A]부분)

핵심 정리

갈래	민요(강원도 정선)
성격	서정적, 해학적, 적층적
주제	강원도 정선 사람들의 삶의 애환
특징	① 구체적인 지명과 비유적 표현을 사용함 ② 삶의 애환을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표현함 ③ 체념과 한탄의 어조로 서민의 한을 형상화함 ④ 4음보를 바탕으로 3음보가 혼재되어 있는 형식을 취함 ⑤ 앞부분의 가사는 선창하고 뒷부분의 후렴구는 후창하는 선후창 방식을 취함 ⑥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사랑이 확고함을 강조함
의의	강원도 정선에서 전해 오는 '아리랑' 계 민요로 「강원 아리랑」과 구별되며, 「밀양 아리랑」과 유사한 가사가 등장함

**작품 해제**

가난 속에서도 낙천적으로 살아온 강원도 정선 사람들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노래로, 우리나라 3대 아리랑(「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중 하나이다.

서로 다른 주제의 혼합

임에 대한 그리움	시집 못 간 설움	체념과 한탄
‘아우라지 뱃사공’ ‘떨어진 동백’	‘검둥 송아지’ ‘묵은 묵발’ ‘한강수’	‘군불을 때고’ ‘잘 살아보세’ ‘산만 충충하네’

이 작품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어 널리 수용되는 과정에서 가사와 가락이 바뀌거나 첨삭되는 변이 작용을 겪었다. 따라서 주제의 통일성과 응집성이 없고 계속 이어 부를 수 있는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선 아리랑

강원도 정선 지방에서 구전되는 민요로, 남녀 간의 사랑과 시집살이의 애환 등이 담겨 있다. 당대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정선 아리랑’은 부르는 사람에 의해 내용이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이본들로 불렸으며, 위 노래도 그중 하나이다.

발생 및 분포	강원도 정선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태백산맥의 동쪽 전역과 남·북한 강 유역에 고루 분포한다.
내용적 특성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신세 한탄, 세태 풍자 등이 자주 등장하며, 대부분의 사설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기능적 특성	노동요로 사용될 때도 있으나, 일정한 기능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전승 양상	수백 수의 사설이 전해지며, 이 중에는 관련 설화를 가진 것도 있다.
관련 설화	아우라지 나루 건너의 총각을 사랑한 처녀가 싸릿골 동백을 따다는 핑계로 강을 건너다 니다 홍수로 만남이 어렵게 되자 이를 원망하여 불렀다고 한다.



갈래로 엮어 읽기

밀양 아리랑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날 줌 보소.

화자의 적극적인 직설적인 표현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줌 보소.

자신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방가이 맞아 주길 바라는 심정

후창[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임의 사랑과 관심을 일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

정든 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남녀가 유별한 조선 시대 사회상을 보여줌

부여일을 할 때 덧입는 작은 치마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화자의 애뜻한 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

후창[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임에 대한 애뜻한 마음

을 너머 총각의 각피리 소리

울타리 동물의 뿔을 이용해 만든 피리

물 길는 처녀의 한숨 소리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

후창[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젊은 처녀의 안타까운 사랑

늑이 잘나 내가 잘나 그 누가 잘나

죽이도, 지빠

구리 백통 지전이라야 일색이지.

관련 속담 - 돈만 있으면 개도 멍청지

후창[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돈을 중시하는 세태 풍자

진도 아리랑

형난함 삶을 상징

문경 새재는 웬 고개이고 구비야 구비야 눈물이 난다.

경북과 전북의 경계를 이루는 고개 굽이 탄식을 직설적으로 표현함

후창[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꽃소리. 여기서는 김을 지고 고개를 오르내리는 소리, 한숨 소리, 울음소리 등을 의미

치어다보니 만학 천봉 / 굽어보니 백사지로드.

여러 개 겹쳐진 골짜기와 수많은 봉우리

후창[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1, 2연: 인생의 형난함

임이 죽어서 극락을 가면 / 이내 몸도 따라가지 지장보살

죽더라도 임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후창[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다려가오 날 다려가오 / 우리 님 뒤따라서 나는 가네.

다려가오

후창[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3, 4연: 죽음을 초월한 사랑

원수야 악마야 이 몸쓸 사람아.

자신을 버린 임에 대한 원망

생사람 죽는 죽을 왜 모르나.

화자

후창[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저님의 계집에 눈매 줌 보소.

속눈만 뜨고서 발발 떠네.

감은 듯 막 듯함 눈

후창[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5, 6연: 한스러운 삶

왜 왔던고 왜 왔던고. / 울고 울 길을 왜 왔던고.

후창[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7연: 고달픈 삶에 대한 원망과 자책

갈래	민요(경상남도 밀양), 유희요
성격	풍자적, 적층적
주제	청춘 남녀 간의 사랑과 애환과 돈만을 중시하는 세태 풍자
특징	① 선후창의 연창 방식을 사용함 ② 이절적 내용들이 서로 묶여 적층성을 띠
화자의 정서·태도	▪ 임이 화자를 봐 주기를 바라면서도 부끄러움 을 타고 있음 ▪ 4연에서는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음

갈래	민요(전라남도 진도)
성격	애상적, 한탄적
주제	고달픈 삶의 애환 및 임과 사별한 슬픔
특징	① 선후창의 연창 방식을 사용함 ② 4음보 율격으로 리듬감을 형성함 ③ 인생의 험난함을 자연물로 비유하여 표현함
화자의 정서·태도	고달픈 삶을 한탄하고, 임과의 사별을 서러워하고 있음
배경설화	경상도 대갯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진도 총각이 주인집 딸과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밀애 끝에 결국 쫓기는 몸이 되어 진도로 도망쳐 와서 정 답게 살다가 총각이 병으로 먼저 죽었다는 이야기 와, 진도 총각과 혼약한 한 처녀가 총각이 육지에서 다른 처녀를 데리고 오자 원망하며 이 노래를 불렀 다는 이야기 등이 전해진다.



갈래 이해하기 - 민요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노동, 의식, 놀이 등을 위해 불러 온 구전 가요로, 민족·민중 공동체의 희비와 애환이 담겨 있으며,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함축되어 있는 노래이다.

민요의 형식	연속체의 긴 노래로, 3음보, 혹은 4음보가 주를 이루며, 대개 후렴이 붙어 있다. 특히 민요는 가창 형식과 시가 형태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선후창, 교환창 등 다양한 가창 방식이 존재한다.
민요의 내용	일의 고달픔이나 보람, 삶의 애환, 남녀의 애절한 사랑, 윤리 의식, 놀이의 표현 등 민중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정한이 드러난다. 이렇듯 민요는 일반 서민들의 보편적인 정서를 노래하였다는 점에서 문학사에서 중요한 정서적 가치를 가진다.
민요의 전승 방식	민요는 문자에 의한 기록과 무관하게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구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늦겨울 한강에 얼음이 어니

계절적 배경

많은 사람들이 강가로 나왔네

: '~네'의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팡팡 도끼로 얼음을 찍어 내니

청각적 이미지(현장감)

울리는 소리가 용궁까지 들리겠네

얼음 깨는 소리가 무척 큼 - 많은 사람들이 얼음을 깎음

찍어낸 얼음이 설산처럼 쌓이니 — 과장법

눈 덮인 산

싸늘한 음기가 사람을 엄습하네

사람들이 얼음을 등에 거서 나르고

아침이면 석빙고로 저 나르고

무더운 여름을 대비해, 겨울에 깨낸 얼음을 저장하던 창고

밤이면 얼음을 파 들어가네

해 짧은 겨울에 밤늦도록 일을 하니

노동요 노래 소리 모래톱에 이이지네

과거 한강에 모래사장이 있었음 - 노동의 고됨을 덜고자 노래를 부름

짧은 옷 맨발은 얼음 위에 얼어붙고

가난한 백성

매서운 강바람에 언 손가락 떨어지네 — 과장법

열악한 노동 현장의 심각성 표현

늦겨울 한강에서의
백성들의 노동 현장을 지각함

백성들의 과중한 노동의 지속

백성들의 노동의 비참함

[전반부] 겨울에 얼음을 채취하는 부역에 시달리는 백성들

고대왕실 **오늘날** 무더위 찌는 날에

양반들이 사는 크고 넓은 집

계절적 배경

△: 백성들의 모습과 대조

여인의 하얀 손이 맑은 얼음을 내어오네

난도로 그 얼음 깨 자리에 두루 돌리니

↳(양반들이 모여 있는)

멀건 대낮에 하얀 안개가 피어나네

양반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는 장면을 묘사함

환락으로 가득한 집은 더위를 모르고 사니

얼음 뜨는 그 고생을 그 누가 알아주리 — 설의법

백성들의 고생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음을 강조

『그대는 못 보았나, 길가에 더위 먹고 죽어 뒹구는 백성들이』

시를 읽는 사람(=백성의 고됨을 외면하는 양반들) (맑은 얼음을 자리에 둘러놓은) 양반들의 모습과 대조됨

지난겨울 강 위에서 얼음 뜨던 자들인 것을』

도치법을 통한 의미 강조
- 양반들의 반성을 촉구

『』: 백성들이 죽어가는 참상에 대한 화자의 문제의식

[후반부] 무더위 속에서 얼음을 즐기는 양반들



핵심 정리

갈래	한시
성격	사실적, 관찰적, 고발적, 비판적
주제	고통 받는 백성들의 현실 고발
특징	① 계절감을 드러내는 상황을 제시하여 시상을 전개함 ② 화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씀 ③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이 드러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엄동설한에 얼음을 채취하는 노동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참상과 무더위 속에서 얼음을 즐기는 양반들의 모습을 대조하여 고통 받는 백성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작가로 읽어 읽기

산민(山民) / 김창협

말에 내려 인가를 찾아가 보니
 화자의 신분이 양반임을 알 수 있음
 아낙네 문간에 나와 맞이하네
 띠집 처마 아래 손을 얹게 하고
 떠나 이어 따위로 지붕을 인 초라한 집
 나를 위해 밥과 반찬 내어오네
 남편은 어디에 나가 있는지
 아침에 따비를 메고 산에 올라
 풀뿌리를 뜯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며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한다네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산속에서의 외로운 생활
 닭과 개만 산기슭을 의지해 사네
 산 속에는 사나운 호랑이 많고
 산속에서의 두려운 생활
 나물을 뜯어도 얼마 되지 않네
 슬프다, 외진 산림 무엇이 좋아서
 가파른 이 산중에 있는고
 화자의 질문
 평지와 대비되는 공간이지만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공간
 저 쪽의 평지가 좋기야 하지만
 산속 생활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공간
 백성의 당
 원님이 무서워 갈 수가 없구나
 비판의 대상

핵심 정리

갈래	한시(5연 배율)
성격	현실 비판적, 사실적
주제	백성들의 힘겨운 삶과 관리들의 횡포
특징	① 견문(보고 들은 것)을 중심으로 비판적 현실 인식을 드러냄 ② 인물(아낙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현장감을 살림 ③ 대비적 공간을 제시하여 현실의 고통을 강조함

공간의 대비

화자는 산속의 힘든 삶이 평지의 벼슬아치의 폭정보다는 낫다는 산민의 말을 통해 가렴주구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산속	평지
이웃이 없이 외로움 사나운 호랑이가 많음	관리들의 폭정으로 산중의 생활보다 더 고통받음

〈
(괴로움의
정도)



청산(靑山)아 웃지 마라 백운(白雲)아 조롱(嘲弄) 마라 — 속세에 머물고 있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남

의인법(속세에서의 삶을 즐기는 행태를 비판)
나이가 많거나 근심이 많은 화자의 처지를 드러냄

백발(白髮) 홍진(紅塵)에 내 즐겨 돈니더냐

붉은 먼지(=번거롭고 속된 세상, 속세) - 화자가 현재 머무는 공간

조장: 자연에 있지 못하는 아쉬움

증장: 즐겁지 않은 세속에서의 삶

성은(聖恩)이 지중(至重)히 하니 감고 가려 하노라

임금의 은혜

지극히 귀중함

현실을 떠나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 합리화

증장: 세속에 머무는 이유와 자연 속 삶에 대한 소망

푸른 산아 웃지 마라 흰 구름아 조롱하지 마라
흰 머리 속세에 내가 즐겨서 다니는 것이더냐
임금의 은혜가 귀중하니 감고 (자연에) 가려 하노라



핵심 정리

갈래	시조(평시조)
성격	풍류적, 유교적
주제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소망
특징	①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함 ②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유교적 충의 사상이 드러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임금을 보필하느라 세속에서 살고 있는 화자가 자연으로 돌아갈 날을 소망하고 있음을 드러낸 시조이다. 지금 세속에 머물고 있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성은에 보답하기 위한 일임을 강조하면서, 언제나 자신의 마음은 자연에서의 삶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작가로 엮어 읽기

강호에 기약을 두고 / 정구

강호(江湖)에 기약(期約)을 두고 십 년을 분주(奔走)하니
때를 정하여 약속함

그 모른 백구(白鷗)는 더디 온다 하려니와
조장: 강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흰 갈매기(대유법=자연)

성은(聖恩)이 지중(至重)하시매 갓고 가려 하노라.
중장: 백구의 재촉(외인법)
종장: 성은의 지중함

자연에서 살겠다고 약속하고도 십 년을 벼슬길에서 분주하게 다니니
 그 속을 모르는 갈매기는 늦게 온다고 하겠지마는
 임금의 은혜가 중하기로 그 은덕을 갓고 가려 하노라.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성격	유교적, 풍류적
주제	성은의 지중함과 강호에 대한 지향
특징	① 선공후사의 자세가 드러남 ② 자연을 표상하는 상투적 단어 사용(강호, 백구)

작품 해제

이 작품은 강호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는 가운데 성은의 지중함을 함께 이야기하며, 물러남(수기(修己)의 삶)과 나아감(치인(治人)의 삶)의 조화를 추구했던 조선조 사대부의 보편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청산(靑山)은 내 뜻이요 녹수(綠水)는 님의 정(情)이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변하지 않음) 임과 동일시되는 대상(흘러가 버림)

초상: 변함없는 '나'의 마음과 움직이는 임의 마음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變)홀손가.
변하지 않는다 (설외법)

중상: 임은 변해도 변치 않는 '나'의 마음

녹수도 청산을 못 니져 우리 예어 가느고.
감정 이입(의인화) 울면서 흘러가는가

종상: 임도 '나'를 그리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청산은 (변함없는) 나의 마음이고, 녹수는 (쉽게 변하는) 임의 정이로다.
 녹수가 흘러가더라도 청산이야 변하겠는가?
 녹수도 청산을 잊지 못해 울면서 흘러가는가?

핵심 정리

갈래	시조(평시조)
성격	애상적, 감상적
주제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특징	① 시어의 대비(청산 ↔ 녹수)와 감정 이입(녹수)을 통해 주제를 드러냄 ② 사대부들에게 있어 시간적으로 무한성을 상징하는 '녹수'를 유한성의 이미지로 사용함으로써 색다른 이미지를 창출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지조를 자연물로 형상화하여 노래하고 있다. 특히 대립되는 소재에 각각 화자와 임을 동일시하고, 자신의 마음을 대상에 투사하여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낸다. 또 사물의 이미지에 대한 재해석은 작가로서의 독창적 면모를 알 수 있게 한다.

시어의 의미





작가로 엮어 읽기

황진이는 조선 중기의 재색을 겸비한 기생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여류 문학계의 백미로 손꼽히고 있다.

청산리 **벽계수** | 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영원한 자연 ① 푸른 시냇물 ② 덧없는 인생 ③ 시적 대상의 이름

일도창해 하면 도라오기 어려오니

① 넓은 바다(자연) ② 학병 늙거나 죽으면

빈산에 가득 참

명월이 만공산하니 수여 간들 엇더리

① 밝은 달 ② 화자(황진이)

청산에 흐르는 푸른 시냇물아, 빨리 흘러가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한 번 넓은 바다에 이르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니, 밝은 달이 텅빈 산에 가득 비추고 있으니 잠시 쉬어간들 어 떤하겠는가?

어저 내 일이야 그럴 줄을 모로드냐

강한사(정서의 깊이를 더해 줌)

이시라 후더면 가라마는 제 **구태여**

있으라고 했다면(주해: 나)

중의적 표현

① 도치: 제 구태여 가라마는

(‘일’이 주체가 되어 떠난 ‘일’의 행동을 강조함)

② 행간 걸침: ‘가라마는 / 제 구태여 보내고’

(화자가 주체가 되어 일을 보낸 ‘나’의 행동을 강조함)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후노라.

자존심과 연정 사이의 갈등

아, 내가 한 일이야! 이렇게 그리워 할 줄을 몰랐단 말인가? 있으라고 말씀드리면 (임이) 떠나시려 했겠느냐마는 제 구태

여 보내놓고 나서 (이제 와서) 그리워하는 마음은 나도 모르겠구나!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부정적 시간 - 임의 복제

추상적 시간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함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넉넉**다가

따뜻한 이불

넉넉하다

사랑하는 임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긍정적 시간 - 임과 함께함

구뵈구뵈 : 음성상징어(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림)

동짓달 긴긴 밤의 한가운데를 베어 내어,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속에 서리서리 넣어 두었다가 정든 임이 오신 밤이면 굵이굵이 퍼리라.

청산리 벽계수 | 야 / 황진이

의인법과 중의법을 통해 상대방에게 인생을 즐길 것을 권하는 낭만적 분위기의 작품이다.

핵심 정리

갈래	시조(평시조)
성격	감상적, 낭만적
주제	인생의 덧없음, 향락의 권유
특징	① 의인법과 중의법을 통해 시조에 묘미를 더함

어저 내 일이야 / 황진이

우리말의 절묘한 구사를 통해 자존심과 연정 사이에 겪는 화자의 오묘한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핵심 정리

갈래	시조(평시조)
성격	감상적, 애상적, 여성적
주제	이별의 회한과 임에 대한 그리움
특징	① 중의적 표현, 도치법, 행간 걸침, 영탄법을 통해 자의 안타까운 정서를 강조함

동지스들 기나긴 밤을 / 황진이

일 년 중 가장 밤이 긴 동짓달에, 사랑하는 임을 그리워 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외로운 여인의 마음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핵심 정리

갈래	시조(평시조)
성격	애상적, 감상적
주제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특징	①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를 통해 임과 함께 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냄 ②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린 음성 상징어로 긴장과 이완을 표현함



이옥조국어연구소

산은 넷 산이로되 / 황진이

정지되어 있는 산과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다.

핵심 정리

갈래	시조(평시조)
성격	관조적, 애상적
주제	인생무상, 임에 대한 그리움
특징	① 산과 물의 대조를 통해 시상을 전개함 ② 단정-부연-종결의 시상 구조를 지님 ③ 일상적 시어로 세련된 표현을 이룸

내 언제 무신하야 / 황진이

초조하게 임을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을 여성 특유의 섬세한 시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아래 서경덕의 시조에 대한 답시이다.

핵심 정리

갈래	시조(평시조)
성격	애상적, 감상적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특징	① 계절적·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 오해를 유발하는 매개물, 설의적 표현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고조시킴

마음이 어린 후니 / 서경덕

임을 그리는 인간 본연의 진솔한 감정을 연역적 시상 전개로 나타낸 작품이다.

핵심 정리

갈래	시조(평시조)
성격	서정적, 감상적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
특징	① 연역적으로 시상을 전개함 ② 과장법, 도치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물러가는 물(승강, 가변)
 산은 넷 산이로되 물은 넷 물이 안이로다.
 정지되어 있는 산(영원, 불변) ↔ △ : 대조법
 주야에 홀은이 넷 물리 이실쏜야.
 있을 수 있겠는가(설의법)
 : 표작의 근거(옛 물이 아닌 이유)
 인걸도 물과 갯아야 가고 안이 오노매라.
 ① 사람 ② 서경덕 무상감

산은 옛날의 그 산이나 물은 그 옛날의 물이 아니로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흐르니 옛날의 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사람도 물과 같아서 (한 번) 가고는 다시 오지 않는구나.

내 언제 無信(무신)하야 님을 언제 속엿관디
 서경덕 속엿기에
 月沈三更(월침삼경)에 온 쫓지 쏜(전)혀 업다.
 서경덕 찾아오는 기척
 秋風(추풍)에 지는 님 소리야 낸들 어이 흐리오.
 서경덕의 「마음이 어린 후니」의 나도 어찌 할 수 없다(설의법)
 '지는 일 부는 바람'을 좌우환 시구
 : 외로움과 쓸쓸함을 심화시키는 소재

내가 언제 신의가 없어서 임을 한 번이라도 속였기에,
 달마저 기울어진 한밤중이 되도록 아직도 찾아올 듯한 기척이 전혀 없네.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조차 (임의 기척인 줄 속게 되는) 내 마음만을 어찌하리오.

마음이 어린 後(후)니 하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어리석은 (일반적 견해)
 萬重雲山(만중운산)에 어니 님 오리마는
 입과와 만남의 장애물
 지는 님 부는 바람에 幸(행)혀 권가 호노라.
 작각을 유발하는 소재 임이 오는 소리 (구체적 견해)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모두 어리석구나.
 구름이 겹겹이 쌓여 험난하고 높은 이 산 중으로 어느(어찌) 임이 나를 찾아오겠는가마는,
 바람이 불어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에 혹시 임이 오는 소리가 아닌가 하노라.



갈래로 엮어 읽기 - 기녀의 시조

뒹벼들 같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더

시적 화자의 분신

자시는 窓(창) 밧긔 심겨 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넌 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자신을 잊지 말아 달라는 소망을 표현함(다부)

산에 있는 벼들가지 중 아름다운 것을 골라 꺾어 임에게 보내오니
주무시는 방의 창문가에 심어 두고 살펴 주십시오.
행여 밤비에 새 잎이라도 나면 마치 나를 본 것처럼 여겨 주십시오.

뒹벼들 같히 것거 / 흥량

기생 흥량이 임(최경창)의 복해 평사 임지에 따라갔다가, 임이 그 이듬해 다시 서울로 돌아가게 되자, 영흥까지 배웅하고 함관령에서 비를 맞으며 이 노래를 지어 뒹벼들 가지고 함께 보냈다고 한다.

핵심 정리

갈래	시조(평시조)
성격	연정가, 애상적
주제	임에 대한 사랑
특징	① 상징법과 도치법을 사용하여 여성 특유의 섬세한 이미지로 감정을 표현함

이화우 ^봄훗썩릴 제 / 계랑

부안의 이름난 기생이었던 계란이 자신과 정이 깊었던 유희경이 서울로 간 후 소식이 없자 그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조이다.

핵심 정리

갈래	시조(평시조)
성격	감상적, 애상적
주제	임을 그리는 마음
특징	①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이별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시함 ② 은유법을 통해 이별의 정한을 표현함 ③ 대비되는 이미지를 사용함

이화우(梨花雨) ^{가을}훗썩릴 제 울며 잡고 이별(離別)하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 리(千里)에 ^{임을 향한 마음}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임과의 공간적·정서적 거리감

□ : 계절적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

배꽃이 흩날리던 때에 손 잡고 울며 불며 헤어진 임
가을 바람에 낙엽 지는 것을 보며 나를 생각하여 주실
까?
천 리 길 머나먼 곳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평생에 원하느니 다몬 충효(忠孝)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 | 나 다라리아
금수 설의병(다르겠는가)
마음에 하고져 하여 십재 황황(十載遑遑) 호노라
나(중로를) 마음이 급함

<제1수> 충효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

계교(計巧) 이르더니 공명이 느껴세라
(임과 골재주름) 서로 견주어 살펴봄 공을 세워 자신의 이름을 드러냄
부급 동남(負笈東南) 하야 여공불급(如恐不及) 호는 뜰을
책 상자를 지고 스승을 찾아 이리저리 다님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호야라
걱정이 되느구나

<제2수> 벼슬을 하지 못한 안타까움

자연, 화자의 지향 공간
비록 못 일위두 임천(林泉)이 도하니라
<제2수>의 '못 이룰까 하여라'와 연관
무심(無心) 어조(魚鳥)는 자한한(自閑閑) 호얏느니
아무 욕심 없는 물고기와 새
조만(早晚)에 세사(世事) 넷고 너를 조츠려 호노라
=무심어조(친밀감)

<제3수> 속세를 잊고 자연을 벗하고 싶은 마음

조상의 마지막 구절과 중자의 첫 구절을 이어받아 대비적 상황을 드러냄
강호에 노자하니 성주(聖主)를 버리레고
<제3수>의 '임천'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所樂)에 어기에라
호운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더 몰라 호노라
자연과 벼슬의 갈림길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제4수> 자연과 벼슬 사이에서의 갈등

어지게 이러그러 이 몸이 엇디 홀고
이러저러 <제4수>의 갈등과 연관
현실을 벗어난 공간(=소락)이 가능한 공간
행도(行道)도 어렵고 은처(隱處)도 정(定)티 아냐다
도를 행하는 것(사대부의 도리를 다하는 삶) 자연을 마음껏 즐기며 사는 것
언제야 이 뜻 결단(決斷) 하야 중아 소락(從我所樂) 호려노
질문의 형식을 통해 화자의 고민 부각

<제5수> 자신이 즐기는 일을 하는 것의 어려움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호려 호려 호디 이 뜰 못 호여라
이 뜰 하면 지락(至樂)이 있느니라
자연에서의 삶
우습다 엇그제 아니던 일을 누 올타 호던고
질문의 형식을 통해 화자의 고민 부각

<제6수>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함에 자조

벼슬길에 오르는 것
말리 말리 호디 이 일 말기 어렵다
이 일 말면 일신(一身)이 한가하다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성과 효도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날짐승이나 물짐승과 무엇이 다를쏘냐.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 노라.

서로 견주어 살펴봄이 이렇더니 공을 세우고 명성을 떨침이 늦었어라.
이리저리 공부하러 가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비록 못 이루어도 자연이 좋으니라.
무심한 새와 물고기는 절로 한가하였으니
머지않아 세상의 일을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자연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갈림길에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어쩌랴 이러구러 이 몸이 어찌할꼬?
도를 행하기는 어렵고, 은거할 곳도 정하지 아니하였네.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을 것인가?

하려하려 하되 이 뜻을 못 하였네
이 뜻을 하면 지극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우습다! 엇그제 아니하던 일을 누가 옳다 하던고.

그만두자 그만두자 하되 이 일 그만두기 어렵다.
이 일 그만두면 내 몸이 한가하다
어쩌랴 엇그제 하던 일이 다 그른 줄 알겠네.



어지개 엇그제 하던 일이 다 윈 줄 알과라

어지하라

독백적 어조

<제7수> 벼슬길에 대한 미련

『(벼슬길에)』

『(자연에)』

출(出)하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하면 조월경운

임금에게 몸을 바쳐 충성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풀

(釣月耕雲)

달빛을 낚고 구름밭을 갈(강토에서의 삶)

명철 군자(明哲君子)는 이룰사 즐기느니

현명하고 사리에 밝은 군자

이것(자연을 벗 삼는 것)을

흐물며 부귀(富貴) 위기(危機) | 라 빈천거(貧賤居) 호오리라

가난하고 천하게 사는 삶

독백적 어조

<제8수> 군자로서의 가난한 삶 추구

나아가면 임금을 섬기며 백성에게 은
덕이 미치게 하고, 들어오면 달빛 아래
고기 낚고 구름 속에서 밭을 간다네.
총명하고 밝은 군자는 이것을 즐기나
니

하물며 부귀는 위태하니 가난한 삶을
살아가리라.

핵심 정리

갈래	시조(연시조(전 19수))
성격	유교적, 은일적
주제	치군택민과 조월 경운 사이의 고민과 한가한 삶의 수용
특징	① 각 수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의미의 흐름이 연계되어 시상을 체계적으로 전개함 ② 유교적 이념을 실현하려는 공명의 삶과 자연을 즐기려는 한가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 잘 드러남 ① 계절감을 지닌 시어를 활용해 화자의 처지나 심리를 제시함 ② 질문의 형식을 통해 화자의 고민을 강조함 ③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대비함 ④ 의인법을 통해 자연물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냄 ⑤ 독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내면적 심리를 드러냄 ⑥ 감탄적 어조 및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안타까움이나 갈등을 잘 드러내고 있음

작품 해제

이 작품은 퇴계 이황의 제자 권호문이 진사가 된 후 벼슬길을 가지 않고 자연에 은거하며 쓴 연시조이다. 제목 ‘한가십팔곡’은 ‘한가로운 삶을 노래한 18개의 노래’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19수의 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자연에 은거하게 된 과정을 보여 주고, 그 속에서 자연을 벗하며 사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하지만 <제4수>와 <제5수>에서는 속세의 삶, 특히 벼슬을 하여 임금을 모시는 일에 대한 미련도 드러나 있다. 마지막 19수에서는 현실적 고뇌를 떨쳐 버린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며 시상을 마무리하였다.



화자의 갈등

치군택민

화자

조월 경운

‘치군택민’은 ‘임금과 함께 정치를 하며 백성을 윤택하게 한다.’라는 말로 세상에 나가 충성을 다하고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삶을 뜻하고, ‘조월 경운’은 ‘달을 낚고 구름을 경작한다.’라는 말로 자연에 묻혀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뜻한다.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대부로서 화자는 이 두 삶의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주제로 엮어 읽기 - 자연과 속세 사이에서의 갈등

어부단가(漁父短歌) / 이현보

이 둥에 시름 업스니 漁父(어부)의 生涯(생애)이로다.

一葉片舟(일엽편주)를 萬頃波(만경파)에 띄워 두고

人世(인세)를 다 니졌거니 날 가는 줄을 안가.

인간 세상의 일

<제1수> 속세를 잊은 어부의 생활

(중략)

長安(장안)을 도라보니 北闕(북궐)이千里(천 리)로다.

魚舟(어주)에 누어신들 니즌 스치 이시랴.

두어라 내 시름 안니라 濟世賢(제세현)이 업스랴.

세상을 구할 현인

<제5수> 나라에 대한 걱정

<제1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근심 걱정 없는 것이 어부의 생활이로다. 자그마한 배 한 척을 넓은 바다에 띄워 놓고, 인간 세상의 일을 다 잊었으니 세월 가는 줄을 모르겠도다.

<제5수>

서울 쪽을 바라보니 궁궐이 천 리 밖에 있도다. 내 비록 고기잡이 배에 있으나 한시라도 잊은 적이 있으랴. 두어라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세상을 구할 현인이 없겠느냐.

핵심 정리

갈래	시조(연시조(5수))
성격	풍류적, 자연 친화적
주제	강호에 묻혀 사는 어부(漁父)의 한정(閑情)
특징	① 대조에 의해 시상을 전개함 ② 설의법과 대구법을 사용해 주제를 강조함 ③ 한자어가 많이 사용됨 ④ 경치 묘사가 구체적이지 않고 관념적임

작품 해제

고려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부가」를 개작한 것으로 자연을 벗하며 고기잡이를 하는 풍류적인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한가롭고 여유로운 어부의 삶을 즐기면서도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흰 구름 푸른 너는 / 김천택

수능특강 P. 65
이육조국어연구소

흰 구름 푸른 너는 골골이 잠겼는데

골짜기마다

□ : 색채 대비

조장: 아름다운 자연 배경

추상(秋霜)에 물든 단풍(丹楓) 봄꽃도곤 더 조해라

-보다(비교)

증장: 봄꽃보다 아름다운 단풍의 모습 예찬

하늘을 의인화하여 존칭을 붙임

산빛(산의 경치)

천공(天公)아 날을 위하여 피 빛을 꾸며 너도다

가을 산의 경치에 대한 만족감

증장: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될 만큼 아름다운 단풍 예찬

[현대어 풀이]

흰 구름 푸른 시냇가는 골골이 잠겼는데,
가을 서리에 물든 단풍 봄꽃보다 좋구나.
하늘이 나를 위해서 산빛을 꾸며 놓았구나.

핵심 정리

갈래	시조(평시조)
성격	한정적, 풍류적, 자연 친화적, 묘사적, 예찬적
주제	▪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 ▪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 예찬
특징	① 색채 대비를 통해 가을의 아름다움을 묘사함 ② 비교를 통해 가을의 아름다움을 강조함

작품 해제

시적 화자는 가을에 물든 단풍을 바라보며 봄에 피는 꽃보다 더 좋다고 말하면서 비교의 방법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흰 구름, 푸른 내, 붉은 단풍의 조화된 색이 눈에 보이듯 감각적으로 그려냈다. 아름다운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단풍 든 산 경치는 나를 위하여 하느님이 꾸며 주었다는 표현에서 작가의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비교를 통한 아름다움의 강조

가을 서리에 물든 단풍

>

봄꽃

색채 대비를 통한 묘사

흰색
구름

푸른색
푸른 시내

붉은색
단풍

이육조 선생님의
변화를 이끄는 감동국어

이육조국어연구소

EBEST
수능 특강 지문 분석서

[고전문학]



Ⅱ / 고전소설

01. 작자미상, 「가락국 신화」	96
02. 박지원, 「광문자전」	99
03. 작자미상, 「규중칠우쟁론기」	103
04. 작자미상, 「금방울전」	106
05. 김시습, 「남염부주지」	110
06. 작자미상, 「바리공주」	113
07. 작자미상, 「상사동기」	117
08. 작자미상, 「서동지전」	121
09. 임제, 「수성지」	124
10. 작자미상, 「옥낭자전」	127
11. 남영로, 「옥루몽」	129
12. 작자미상, 「온달설화」	132
13. 작자미상, 「웅고집전」	135
14. 이항복, 「유연전」	139
15. 작자미상, 「이춘풍전」	142
16. 작자미상, 「임진록」	147
17. 작자미상, 「장화홍련전」	152
18. 권필, 「주생전」	156
19. 조성기, 「창선감의록」	160
20. 작자미상, 「채봉감별곡」	165
21. 이규보, 「청강사자현부전」	169
22. 작자미상, 「청렴한 관리와 청지기」	172
23. 허균, 「홍길동전」	175
24. 작자미상, 「흥부전」	180



천지가 개벽한 이후로 이 땅에 아직 나라의 칭호가 없었고, 군신의 칭호도 없었다. 이때
 『아도간(我刀干)·여도간(汝刀干)·피도간(彼刀干)·오도간(五刀干)·유수간(留水干)·유천간(留天干)·
 신천간(神天干)·오천간(五天干)·신귀간(神鬼干)』 등 구간(九干)이 있었다. 이 주장들이 백성을
 아울러 다스렸으니, 모두 백 호에 칠만 오천 명이였다. 대부분이 저마다 산과 들에 모여 살았고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서 먹었다.
 국가 형성 이전의 원시 혼란 사회의 모습 ② - 임금과 신하의 칭호 부재
 국가 형성 이전의 원시 혼란 사회의 모습 ① - 나라의 칭호 부재
 아를 명의 주장이 함께 통치하는 연합 사회의 면모를 보임
 『』 : 가야국 초기에 있던 아를 부족의 우두머리
 국가 형성 이전의 원시 혼란 사회의 모습 ③ - 왕의 부재
 국가 형성 이전의 원시 혼란 사회의 모습 ④ - 집단 정착 생활
 국가 형성 이전의 원시 혼란 사회의 모습 ⑤ - 자급자족의 농경 사회

후한의 세조(世祖) 광무제(光武帝) 건무(建武) 18년 임인년(A.D. 42년) 3월 계육일(禊祿日)에
 그들이 살고 있는 북쪽 구지봉(龜旨峯)―이는 산봉우리의 이름인데, 『마치 십봉(十朋)이 얹드려
 있는 형상이므로 이렇게 부른다.』에서 사람들을 부르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다. 그래서
 『』 : 구지봉이라는 이름의 유래
 무리 이삼백 명이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사람의 소리 같았지만 형체는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렸다.

“여기에 사람이 있는가?”

구간이 말했다.

“우리가 있습니다.”

또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구간이 다시 대답했다.

“구지봉입니다.”

또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에서 나에게 이곳에 내려와 새로운 나라를 세워 임금이 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일부
 러 온 것이다. 너희들이 모르시기 봉우리 꼭대기의 흙을 파내면서
 「구지가」를 노동요로 보는 근거
 대왕의 출현의 예고 - 천손 하강형 화소

거북아, 거북아,

기원의 대상 - 절대적, 신적 존재

네 뿔을 내밀어라.

우두머리, 임금

만약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불의 사물을 전제한 위협

신령스러운 존재(로명)

왕의 출현 기원(명령)

명령 불이행(부정형의 가정)

위협(소망 성취의 강한 의지)

라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춤추게 되리라.”

「구지가」를 임금을 맞이하기 위한 주술요. 영신 군가로 보는 근거

구간은 그 말대로 하면서 모두 기쁘게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얼마 후 하늘을 우러러보니 자줏

「구지가」를 집단요, 집단 무가로 보는 근거

「구지가」를 원시 종향 예술로 보는 근거

천상과

빛 새끼줄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았다. 줄 끝을 살펴보니 붉은색 보자기로 싼 금합(金盒)

지식을 연결하는 매개물 - 전기성을 부여하는 소재

금으로 만든, 둥글넓적하며 뚜껑이 있는 그릇

이 있었다. 그것을 열어 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 알 여섯 개가 들어 있었다.

임금이 될 존재가 6명임을 암시함 - 가락국을 구성하는 6가야를 의미함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기뻐서 허리를 굽혀 백 번 절하고, 얼마 후 다시 금합을 싸안고 아도간의 집으로 가져와 탈 위에 두고 제각기 흠어졌다.

12일이 지나고 이튿날 새벽에 여러 사람이 다시 모여 합을 열어 보니 여섯 개의 알은 어린아이들로 변해 있었는데, 용모가 매우 빼어났다. 그들을 평상에 앉혀 절하며 축하하고 지극히 공경했다. ① 여섯 아이 모두 천손임 ② 하늘에서 떨어 내려오는 천가란 설화의 면모를 보임

『그들은 나날이 자라서 열흘 남짓 되자 키가 아홉 자나 되어 은(殷)나라의 탕왕(湯王) 같았고, 얼굴은 용과 같아 한(漢)나라의 고조(高祖)와 같았고, 눈썹의 여덟 색 채가 요(堯)임금과 같았고, 눈동자가 검은색이 된 것이 한나라의 조대 왕이었던 우방을 말함 ① 비현실적 외양 묘사 - 인물의 비범성 부각

『순(舜)임금과 같았다.』 ② 비정상적인 배운 성장 - 인물의 신성성 부각

성군의 상징 ③ 중국의 전설적 인물들에 빗댄 - 중국 중심의 세계관(중화사상) 반영

그달 보름에 즉위했는데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이름을 수로(首露) 혹은 수릉(首陵)이라 하였다. 여섯 개의 알 중에서 가장 먼저 깨고 나왔음

나라를 대가락(大駕洛) 또는 가야국(伽倻國)이라 부르니, 바로 여섯 가야 중 하나이다. 나머지 다섯 사람도 각각 다섯 가야의 임금이 되었다. 전국 신화로서의 면모 - 수로왕이 가야국을 건국함

동쪽은 황산강, 서남쪽은 창해,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 남쪽은 나라의 끝이 되었다.
 그는 임시로 궁궐을 짓게 하고 들어가 다스렸는데, 「^{한재의 낙동강 하류 지역}질박하고 ^{주민 대가 없이 수습하고}검소하여 지붕의 이엉을 자르지 않
 았고, 흙으로 쌓은 계단은 석 자를 넘지 않았다.」
 「^{조가집의 지붕이나 담을 이기 위하여 길이나 새 따위로 역은 물론}궁궐의 외양과 규모가 화려하거나 크지 않을

즉위 2년 계묘년(A.D. 43년) 봄 정월에 왕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도움을 정하고자 한다.”

이에 임시로 지은 궁궐 남쪽 신답평(新畓坪)―이곳은 옛날부터 한전(閑田)이었는데 새로 경작
 한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답(畓)이란 글자는 속자(俗字)이다.―에 행차하여 사방의 산악을 바
 라보다가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고는 말했다.

“이곳은 마치 『여뀌잎처럼 좁지만, 뺨어나게 아름다워 열여섯 나한(羅漢)이 머물 만하다. 더군
 마디풀과의 한해살이풀 아라한(阿羅漢). 생사를 이미 초월하여 배울 만한 법도가 없게 된 경지의 부처
 다나 하나에서 셋을 만들고 셋에서 일곱을 만드니 일곱 성현(七聖)이 머물 만하여, 정말로 알맞은
 풍수지리설의 음양오행론 : 물[一]이 나무[三]를 낳고 나무가 불[七]을 낳는다는 원리
 곳이다.』 그러니 이곳에 의탁하여 강도를 개척하면 참으로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천오백 보 둘레의 외성(外城)과 궁궐, 전당(殿堂) 및 여러 관청의 청사와 무기 창고, 곡
가야의 수도 신당평이 석곽, 궁궐, 가옥, 관청, 무기고, 학교 등을 완비한 도시였음을 알 수 있을 수공업에 종사하던 주민
식 창고 지을 곳을 두루 정하고 궁궐로 돌아왔다. 국내의 장정과 공방(工匠)을 두루 불러 모아 그
전국의 작정과 기술자들이 총동원될 정도로 큰 공사였음을 알 수 있을
 달 20일(즉위 2년 봄 정월)에 튼튼한 성곽을 쌓기 시작하여 3월 10일에 역사(役事)를 마쳤다.

궁궐과 옥사(屋舍)는 농한기를 기다려 그해 10월 안에 짓기 시작하여 갑진년(A.D. 44년) 2월에 이르러 완성했다. 좋은 날을 가려 새 궁궐로 옮겨 가서 모든 정치의 큰 기틀을 살피고 여러 가지 일을 신속히 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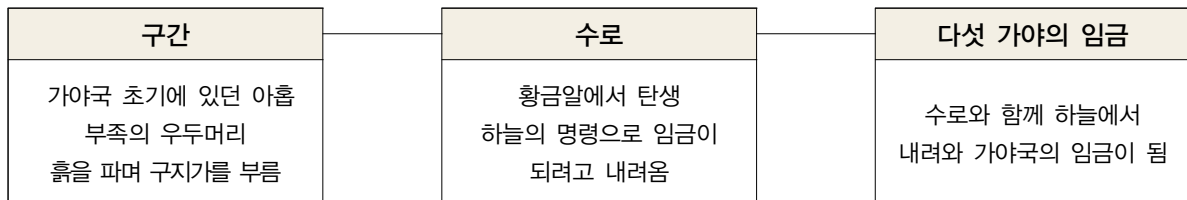
핵심 정리

갈래	신화(건국 신화)
성격	신화적, 서사적, 상징적
주제	김수로왕의 탄생과 가락국의 건국 내력
특징	① 가야의 건국 과정을 기록한 유일한 자료 ② 삼입 가요인 구지가는 가장 오래된 집단 무요이며 주술적 노동요 ③ 임금을 맞이하는 노래라고, 영신군가라고도 함 ④ 천손하강과 난생 설화소를 가진 신화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수로왕이 가락국을 건국하는 과정을 그린 신화로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가락국의 시조가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태어난다는 난생 신화로, 자신들의 시조가 하늘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다. 신탁에 의해 백성들이 신을 맞이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인물 관계도



삼입 가요 「구지가」

현전하는 우리나라 최고(最高)의 집단 무요로 고대 서사시의 흔적을 보여 주고 있으며, 흠을 파면서 불렀다는 점에서 노동요로 보기도 한다. ‘부름-명령-가정-위협’의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거북의 목’은 ‘생명, 우두머리, 임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목을 내민다는 것은 ‘수로왕이 알에서 나오는 것’, ‘수로를 왕으로 옹립함’과 대응된다.



광문자전(廣文者傳) / 박지원

수능특강 P. 144

이육조국어연구소



광문(廣文)이라는 자는 거지였다. 일찍이 ^{지금의 종로} 종루(鐘樓)의 ^{고전소설에서 전형적인 인물인 재주가 많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닌} 저잣거리에서 빌어먹고 다녔는데, 거지 아이들이 ^{가게가 죽 누어서 있는 거리} 광문을 추대하여 꽤거리의 우두머리로 삼고, 소굴을 지키게 한 적이 있었다.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리는데, 거지 아이들이 다 함께 빌러 나가고 그중 한 아이만이 병 ^{한 아이가 죽게 되는 사건과 관련된 배경} 이 들어 따라가지 못했다. 조금 뒤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숨을 몰아쉬는데 그 소리가 몹시 처량 하였다. ^{광문의 성격, 인물됨} 광문이 ^{병든 아이를 가엾이 여기는 착한 광문의 성격} 너무도 불쌍하여 몸소 나가 밥을 빌어 왔는데,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벌써 죽어 있었다.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광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다 함께 광문을 두들겨 쫓아내니, 광문이 밤에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개를 놀라게 하여 주인에게 잡힘} 그 집 개를 놀라게 하였다.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다 ^{개를 놀라게 하여 주인에게 잡힘} 꿰뚫어 보으니, 광문이 외치며 하는 말이,

“나는 날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온 것이지 감히 도적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님이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저자에 나가 알아보십시오.”

하는데, 말이 몹시 순박하므로 집주인이 내심 광문이 도적이 아닌 것을 알고서 새벽녘에 풀어 주 ^{거짓 없는 순수한 성품이 행동으로 드러남} 었다. 광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떨어진 거적을 달라 하여 가지고 떠났다. 집주인이 끝내 ^{광문의 순박한 인간성을 알아본 집주인의 안목} 몹시 이상히 여겨 그 뒤를 밟아 멀찍이서 바라보니, ^{죽은 거지 아이의 시신을 수습하고자 함}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수표교(水標橋) ^{조선 세종 때 창계천에 놓은 다리} 에 와서 그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 버리는데, ^{거지 아이들의 목인정한 행동} 광문이 다리 속에 숨어 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다른 거지들이 갖지 못한 인간적인 면모} 그 시체를 싸서 가만히 쫓아지고 가, 서쪽 교외 공동묘지에다 묻고서 울다가 중얼거리다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사유를 물으니, 광문이 ^{독료 거지들에게 오해 받게 되어 주인집에 오게 된 것} 그제야 그전에 한 일과 어제 그렇게 된 ^{광문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아는 인물임을 알아본 어떤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쓰도록 소개하거나 추천함} 상 ^{광문이 집주인의 도움으로 약박에 고통됨} 황을 낱낱이 고하였다. 집주인이 내심 광문을 의롭게 여겨, 데리고 집에 돌아와 의복을 주며 후히 대우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광문을 ^{광문이 집주인의 도움으로 약박에 고통됨}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천거하여 고용인(雇傭人)으로 삼게 하였다.

「[」] : 약국 부자가 광문을 의심하여 문단속을 함
「오랜 후 어느 날 그 부자가 문을 나서다 말고 자주자주 뒤를 돌아보다, 도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자물쇠가 걸렸나 안 걸렸나를 살펴본 다음 문을 나서는데, 마음이 몹시 미심쩍은 눈치였다.」
^{거지라는 미천한 신분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광문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음} 얼마 후 돌아와 깜짝 놀라며, 광문을 물끄러미 살펴보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다가, 안색이 달라 ^{광문이 돈을 통쳤으리라 의심하고 있지만 물증이 없어 말을 꺼내지는 않음.} 지면서 그만두었다. 광문은 실로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날마다 아무 말도 못 하고 지냈는데, 그렇다고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가지고 와 부자에게 돌려주며,

“얼마 전 제가 아저씨께 돈을 빌리러 왔다가, 마침 아저씨가 계시지 않아서 제멋대로 방에 들어가 가져갔는데, 아마도 아저씨는 모르셨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었다. 이에 ^{광문이 돈의 통쳤으리라 의심하고 있지만 물증이 없어 말을 꺼내지는 않음.} 부자는 광문에게 너무도 부끄러워서 그에게,



정직한 광문을 의심했기 때문에

간사하고 도량이 좁은 사람

“나는 소인이다. 장자(長者)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나는 앞으로 너를 볼 날이 없다.”
 하고 사죄하였다. 그리고는 알고 지내는 여러 사람들과 다른 부자나 큰 장사치들에게 광문을 의
 로운 사람이라고 두루 칭찬을 하고, 또 여러 ^{귀한 손님} 종실(宗室)의 빈객들과 ^{문객이 드나드는 관서 있는 집} 공경(公卿) 문하(門下)의 측
 근들에게도 지나치리만큼 칭찬을 해 대니, ^{임금의 친족} 공경 문하의 측근들과 ^{높은 벼슬} 종실의 빈객들이 모두 이야깃거
리를 만들어 밤이 되면 자기 주인에게 들려주었다. 그래서 두어 달이 지나는 사이에 사대부까지도
신의 있는 광문의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됨
모두 광문이 옛날의 훌륭한 사람들과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당시에 서울 안에서는 모
광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끊임없이 재생산되었음
 두, 전날 광문을 후하게 대우한 집주인이 현명하여 사람을 알아본 것을 칭송함과 아울러, 약국의
 부자를 장자(長者)라고 더욱 칭찬하였다.

밭과 그 근처에 농사짓는 데 편리하도록 간단하게 지은 집

이때 돈놀이하는 자들이 대체로 머리꽃이, 옥비취, 의복, 가재도구 및 가옥·전장(田庄)·노복 등
 의 문서를 저당 잡고서 본값의 십분의 삼이나 십분의 오를 쳐서 돈을 내주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동산을 재무의 담보로 잡거나 담보로 잡힘
 광문이 빚보증을 서 주는 경우에는 담보를 따지지 아니하고 천금(千金)이라도 당장에 내주곤 하였다.

광문의 신의 있는 태도를 믿음

「광문은 외모가 극히 추악하고,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킬 만하지 못하며,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
 락날락하고, 만석희(曼碩戲)를 잘하고 ^{중국 전설상의 팔선 중 하나인 이철괴의 모습을 흉내 내어 추는 춤} 철괴무(鐵拐舞)를 잘 추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서로 욕
 을 할 때면, “니 형은 달문(達文)이다.”라고 놀려 댔는데, 달문은 광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개성 지방에서 문력 4월 8일에 연희되던 인형극} 「 」: 다른 고전 소설의 주인공과는 다른 새로운 인물형 제시

광문의 못생긴 외모에 빅대어 욕하는 말

광문이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그도 역시 옷을 흘랑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 뭐라
 고 시부렁대면서 땅에 금을 그어 마치 누가 바르고 누가 틀리다는 것을 판정이라도 하는 듯한 시
 능을 하니, 온 저자 사람들이 다 웃어 대고 싸우던 자도 웃음이 터져, 어느새 싸움을 풀고 가 버
 렸다.

광문은 나이 마흔이 넘어서도 머리를 땅고 다녔다. 남들이 장가가라고 권하면, 하는 말이,

결혼하지 않았음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나는 본래 못생겨서 아예 용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였다. 남들이 집을 가지라고 권하면,

“나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없는데 집을 가져 무엇 하리.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
혈혈단신(孑孓單身) - 외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인 광문
래를 부르며 저자에 들어갔다가, 저물면 부귀한 집 문간에서 자는 게 보통인데, 서울 안에 집 호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목심 없고 자유분방한 거지 광문
수가 자그마치 팔만 호다.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 해도 내 평생에는 다 못 자게 된다.”
 하였다.
^{광문의 목심 없는 삶의 태도}

서울 안에 명기(名妓)들이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광문이 성원해 주지 않으면 그 값이 한 푼
^{사심이 없고 사람 보는 안목이 있었던 광문}
 어치도 못 나갔다.

궁중의 각종 행사 및 차비(差備)에 참여하고 임금이나 세자가 행차할 때 호위하는 일을 맡아보던 하인

「예전에 궁중의 우림아(羽林兒), 각 전(殿)의 별감(別監), 부마도위(駙馬都尉)의 청지기들이
^{궁궐의 호위를 맡은 친위 부대 중의 하나인 우림위 소속의 군인들을 말함}
^{임금의 사위에게 주던 칭호} 양반집에서 시중을 들던 사람
 웃소매를 늘어뜨리고 운심(雲心)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 운심은 유명한 기생이었다. 대청에서



「 」 : 조선 후기 부패한 사회상을 엿볼 수 있음
 술자리를 벌이고 거문고를 타면서 운심더러 춤을 추라고 재촉해도, 운심은 일부러 녹장을 부리며
권력을 등에 업은 사람들에게 도도한 태도를
보이는 운심 선뜻 추지를 앉았다. 광문이 밤에 그 집으로 가서 대청 아래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마침내 자리에
 들어가 스스로 상좌(上坐)에 앉았다. 「광문이 비록 해진 옷을 입었으나 행동에는 조금의 거리낌도
원사람이 없는 자리 없이 의기가 양양하였다.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광문의 태도 눈가는 짓무르고 눈곱이 끼었으며 취한 척 구역질을 해 대고, 형클어진
아무렇게나 막 끌어 올려 한 상투 머리로 북장투(北髻)를 튼 채였다.」 온 좌상이 실색하여 광문에게 눈짓을 하며 쫓아내려고 하였다.
 「 」 : 무례하고 당당한 태도에 비해 추태한 몸골을 함 놀라서 얼굴빛이 변함
 광문이 더욱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치며 곡조에 맞춰 높으락낮으락 콧노래를 부르자, 운심이 곧바
로 일어나 옷을 바꿔 입고 광문을 위하여 칼춤을 한바탕 추었다. 그리하여 온 좌상이 모두 즐겁게
권력자보다 허식 없는 광문을 위해 춤을 추는 운심 놀았을 뿐 아니라, 또한 광문과 벗을 맺고 헤어졌다.

핵심 정리

갈래	한문 소설, 풍자 소설
성격	사실적, 풍자적, 비판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① 광문의 신의 있는 자세와 허욕을 부리지 않는 태도 칭송 ② 신의 없고 위선적인 당시 양반들에 대한 풍자
특징	① 재자가인(才子佳人)이 아닌 비천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② 조선 후기 시정의 모습을 사실적인 필치로 그려 내고 있다. ③ 당대의 현실을 풍자하면서 새 시대의 바람직한 인간형을 제시하고 있다. ④ 인간성을 긍정하고 남녀 귀천에 관계없이 인간이 평등하다는 생각이 드러남

작품 해제

이 글은 신분이 미천하고 외모가 추하지만 인정 있고 의리를 지키는 바람직한 성품의 소유자인 거지 광문을 통해 탐욕과 부패에 빠진 당시 양반 계층에 대한 풍자적 태도가 드러나며, 이러한 인물 설정은 양반 계층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인식에서 창조된 새로운 인간형이라 할 수 있다. ‘광문’이라는 비천한 거지의 따뜻한 마음씨와 신의 있는 모습을 통해 인간성을 중시하고, 남녀 귀천에 관계없이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작가의 근대적인 가치관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광문의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 권모술수가 판을 치던 당시의 양반 사회를 은근히 풍자하면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문·지위·부·외모보다는 신의 있는 자세와 따뜻한 인간애가 더 중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전체 줄거리

광문은 종루 저잣거리의 거지로, 거지 아이들의 추대로 두목이 되어 소굴인 움막집을 지키던 중 병들어 죽은 아이 때문에 의심을 받아 쫓겨난다. 광문은 어느 집으로 피신하려다 도둑으로 오인받아 집주인에게 붙잡힌다. 집주인이 그가 도둑이 아님을 알고 풀어 주자, 광문은 거적때기를 얻어 죽은 아이를 장사 지내 주는데, 이를 숨어서 지켜본 집주인이 그를 가상히 여겨 약국에 추천한다. 어느 날 약국에서 돈이 없어지는 사건 때문에 광문은 또 의심을 받는다. 며칠 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이 일을 계기로 약국 주인은 광문의 정직함을 널리 알린다. 광문이 보증을 선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담보 없이 빌려줄 만큼 광문의 신망이 높아진다. 광문은 마흔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장가가길 권할 때마다 자신의 외모가 추하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한다. 한편 운심이라는 기생이 광문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본 양반들은 광문과 친구가 되기를 청한다.

박지원 소설의 특징

박지원 소설의 특징은 작품을 통해 어떤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점이다. ‘광문자전’의 경우, ‘이 시대에 어떠한 인간형이 필요한가?’를 묻고 이에 대한 답을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 후기(18세기)에 양반들의 사림은 표면적으로는 유교의 명분을 지향하면서도 실제 현실에서는 권세 있는 자에게 아첨하고 현실에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연암은 ‘군자의 사림 = 말 거간꾼의 술수’라는 담론을 통해 기존 가치 체계에 대항하고 명분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풍자하였다.

‘광문자전’의 풍자성

비록 거지의 신분이지만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인간성을 지닌 광문이 모든 사람들과 어울리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 줌



탐욕과 부패에 빠진 조선 후기 양반 계층을 은연중에 풍자함



규중칠우쟁론기(閨中七友爭論記) / 작자 미상

수능특강 P.212

이옥조국어연구소



세요 각지 가는 허리 구붓기며 날랜 부리 두루혀 이르되,

「양우(兩友)의 말이 불가하다. ^{허리가 가는 각지(바늘)}진주 열 ^{구부리며}그릇이나 ^{둘리며}펜 후에 ^{강이나 재목 따위를 치수에 맞도록 재거나 자르는 일}구슬이라 할 것이니, ^{척 부인(자)과 교두 각지(가위)}재단(裁斷)에 능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소능대(能小能大)하다 하나 나 곧 아니면 ^{옷을 짓는 일}작의(作衣)를 어찌하리오. ^{누빔 줄이 뽕뽕하고 고운 누비, 중간으로 누빔 누비, 짧은 솜}세누비 미누비 저른 솜 긴 ^{재어}옷을 일우미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 」: 세요 각지의 자기 자랑}잘게 뜨며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오. 척 부인의 자혀 내고 교두 각지 버혀 내다 하나 내 아니면 공이 없으려든 두 벗이 무삼 공이라 자랑하나뇨.”

청홍 각지 얼굴이 붉으락프르락하야 노 왈,

「세요야, 네 공이 내 공이라. 자랑 마라. 네 아모리 착한 체하나 한 솜 반 솜인들 내 아니면 네 어찌 성공하리오.”」 「 」: 청홍 각지의 자기 자랑

감토 할미 웃고 이르되,

「각지님네, ^{감투를 쓴 할미(공목)}위연만 자랑 마소. 이 늙인이 수말 적기로 아가시네 ^{어지간히}손부리 아프지 ^{바늘을 꿰을 때와 뺄 때, 즉 적당한 시기}아니하게 바느질 ^{감토 할미의 역할}도와 드리나니 ^{옛말에 이르기를}고어에 운(云), ^{뛰어난 자의 품위를 좇아다니다보다 보잘것없는 데의 우두머리가 되는 모양이 나을}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 뒤는 되지 말라 하였으니, 청홍 각지는 세 ^{매번 바느주어 질리지만 공목의 두꺼운}요의 뒤를 따라다니며 무삼 말 하신나뇨. 실로 얼굴이 아까왜라. ^{「 」: 청홍 각지의 자기 자랑}나는 매양 세요의 귀에 질리었으

되 ^{가죽 덕분에 견딜}낮가죽이 두꺼워 견딜 만하고 ^{인화 낭재}아모 말도 아니 하노라.”」 「 」: 청홍 각지의 자기 자랑

인화 낭재 이르되,

「그대네는 다토지 말라. 나도 잠간 공을 말하리라. 미누비 세누비 놀로 하여 저가락같이 고으며, ^{흔들한 옷의 솜기}흔술이 나 곧 아니면 어찌 ^{나로 하여금}폴로 붙인 듯이 고으리요. 침재(針才) 용숙한 재 들락날락 바르지 못한 ^{「 」: 인화 낭재의 자기 자랑}것도 내의 손바닥을 한번 씻으면 잘못된 흔적이 ^{감추어져}감초여 ^{「 」: 인화 낭재의 자기 자랑}세요의 공이 날로 하여 ^{「 」: 인화 낭재의 자기 자랑}광채 나나니라.”」

을 낭재 크나큰 입을 벌리고 너털웃음으로 이르되,

「인화야, 너와 나는 소임이 같다. ^{다릴 등(다리미)}연이나 인화는 ^{그러나}침선뿐이라. 나는 천만 가지 의복에 ^{꾸깃꾸깃한}아니 ^{참여하여 관계함}참에 하는 곳이 없고, ^{과섬하고 알아들}가증한 ^{하루}여자들은 ^{그대로 한 곳에 묻혀 놓아}하로 할 일도 ^{넓은 볼기(다리미의 바닥)}열흘이나 ^{「 」: 을 낭재의 자기 자랑}구기여 ^{「 」: 을 낭재의 자기 자랑}살이 주역주역한 것을 내의 ^{「 」: 을 낭재의 자기 자랑}광둔 (廣臀)으로 한번 스치면 굵은 살 가는 살 날날이 퍼지며 제도와 모양이 고와지고 더욱 ^{「 」: 을 낭재의 자기 자랑}하절(夏節)을 만나면 소님이 ^{일이 많아, 바빠서}다사하야 ^{「 」: 을 낭재의 자기 자랑}일일도 한가하지 못한지라. 의복이 나 곧 아니면 어찌 고으며 더욱 ^{「 」: 을 낭재의 자기 자랑}세 답하는 년들이 게으러 풀 먹여 넣어 두고 잠만 자면 ^{부딪쳐}브듯쳐 ^{「 」: 을 낭재의 자기 자랑}말린 것을 나의 광둔 아니면 어찌 고 으며, 세상 남녀 어찌 ^{「 」: 을 낭재의 자기 자랑}반반한 것을 입으리오. 이러므로 ^{「 」: 을 낭재의 자기 자랑}작의공(作衣功)이 내 제일이 되나니라.”」

규중 부인이 이르되,

「^{규중 부인의 개입으로 칠우의 자랑이 끝나고 내용이 전환됨}칠우의 공으로 의복을 다스리나 그 공이 사람의 쓰기에 있나니 어찌 칠우의 공이라 하리오.” 하고 언필에 칠우를 밀치고 베개를 돋우고 잠을 깊이 드니 척 부인이 탄식하고 이르되, ^{말을 마침}「매야할사 사람이오 공 모르는 것은 ^{매정한 것은}녀재로다. 의복 ^{여자로다}마를 제는 ^{마를질할}문저 찾고 ^{일을 완성해 내면}일워 내면 자기 공이라 하고, 게으른 중 잠 깨오는 막대는 나 곧 아니면 못 칠 줄로 알고 내 허리 ^{노역지}브러짐도 모르니 어찌 야속하고 ^{「 」: 을 낭재의 자기 자랑}노흡지 아니리오.”」



교두 각지 이어 가로대,

머리가 교차하는 각지(가위)

“그대 말이 가하다. 옷 말라 버힐 때는 나 아니면 못 하려마는 드나니 아니 드나니 하고 내어 던지며 양각을 각각 잡아 흔들 제는 토심적이고 노획기 어찌 측량하리오. 세요 각지 잠간이나 쉬라 하고 다라나면 매양 내 탓만 너져 내게 집탈하니 마치 내가 감춘 듯이 문고리에 거꾸로 달아 놓고 좌우로 고면하며 전후로 수험하야 얻어 내기 몇 번인 동 알리오. 그 공을 모르니 어찌 애원하지 아니리오.”

세요 각지 한숨짓고 이르되,

“너는커니와 내 일즉 무삼 일 사람의 손에 보채이며 요악지성(妖惡之聲)을 듣는고. 각골통한(刻骨痛恨)하며, 더욱 나의 약한 허리 휘드르며 날랜 부리 두루혀 힘껏 침선을 돕는 줄은 모르고 마음 맞지 아니면 나의 허리를 브르질러 화로에 넣으니 어찌 통원하지 아니리오. 사람과는 극한 원수라. 갇을 길 없어 이따감 손톱 밑을 질러 피를 내어 설한(雪恨)하면 조금 시원하나, 간혹한 감토 할미 밀어 만류하니 더욱 애답고 못 견디리로다.”

부인을 바늘로 찔러 복수하려는 것을 골목가 방해하는 것을 말함

인쇄 눈물지어 이르되,

“그대는 데아라 아야라 하는도다. 나는 무삼 죄로 포락지형(炮烙之刑)을 입어 붉은 불 가운데 낮을 지지며 굳은 것 깨치기는 날을 다 시키니 쉽고 괴롭기 칙량하지 못할레라.”

단단한 것을 깨뜨릴 때 인두를 사용하기도 함

울 낭재 척연 왈,

근심하고 두려워함

“그대와 소임(所任)이 같고 옥되기 한가지라. 제 옷을 문지르고 먹을 잡아 들까부르며, 우겨 누르니 황천(皇天)이 덮치는 듯 심신이 아득하야 내의 목이 달아날 적이 몇 번이나 한 동 알리오.”

칠우 이렇듯 담논하며 회포를 이르더니 자던 여재 문득 깨쳐 칠우다려 왈,

이야기하며 맺힌 마음을 풀니

칠우의 불평이 끝나는 계기

“칠우는 내 허물을 그대도록 하느냐.”

감토 할미 교두 사 왈(叩頭謝曰),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며 말하기를

“젊은 것들이 망녕도이 험이 없는지라 죽하지 못하리로다. 저희들이 재죄 있으나 공이 많음을 자랑하야 원언(怨言)을 지으니 마땅히 결곤(決棍)하암즉하되, 평일 깊은 정과 저희 조고만 공을 생각하야 용서하심이 옳을가 하나이다.”

여재 답 왈,

「」: 부인은 자신에게 아첨하는 강토 할미를 가장 높이 평가함 - 아첨하는 자를 편애하는 지배층을 풍자함

“할미 말을 좇아 물시(勿施)하리니, 내 손부리 성하미 할미 공이라. 께어 차고 다니며 은혜를 잊지 아니하리니 금낭(錦囊)을 지어 그 가운데 넣어 몸에 진혀 서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비단으로 만든 주머니

하니 할미는 교두 배사(叩頭拜謝)하고 제봉(諸朋)은 참안(慙顔)하야 물러나리라.」

머리를 조아려 인사를 함

여러 벗들 - 칠우

부끄러워



핵심 정리

갈래	고전 수필, 내간체 수필
성격	풍자적, 교훈적, 논쟁적, 우화적
주제	역할과 직분에 맞는 삶에 대한 인식과 추구
특징	① 사물을 의인화하여 세태를 풍자함 ② 3인칭 시점에 의한 객관적 관찰 ③ 사물을 의인화하여 사람의 일에 견줄 수 있게 하는 가전체의 전통을 따르고 있음 ④ 작가는 마치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처럼 규중 칠우의 내면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외면만 관찰하고 있음 ⑤ 부녀자들의 일상어를 우리말로 쓴 내간체임 ⑥ 여느 수필과 달리, 소설처럼 인물 간의 갈등과 사건이 있음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작자 미상의 한글 수필로, 규방 부인이 침선에 사용하는 도구들을 척 부인(자), 세요 각시(바늘), 교두 각시(가위), 청홍 각시(실), 인화 부인(인두), 울 낭자(다리미), 감토 할미(골무)로 의인화하여 인간 세상의 처세술을 드러내며 풍자하고 있다. 규중 칠우는 의복을 만들고 관리하는 일과 관련해 저마다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데, 도구의 모양이나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관찰력이 돋보인다. 규중 칠우를 조선조 규방 여인들을 의인화한 존재로 본다면, 자신의 능력과 노고를 인정 받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구를 내포한 작품으로도 볼 수 있다.

전체 줄거리

규중 부인이 잠든 사이 칠우는 제각기 자신의 공을 늘어놓으며 다투는데, 부인에게 꾸중을 듣게 되자, 이번에는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부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다. 잠에서 깬 부인이 이를 꾸짖자 감토 할미가 나서서 사죄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그 공을 인정받게 된다.

‘규중 칠우’의 별명과 별명의 근거

규중 칠우	별명	별명의 근거
자	척 부인	한자 ‘척(尺 : 자)’과 발음이 같음.
가위	교두 각시	생김새
바늘	세요 각시	생김새(허리가 가늘다.)
실	청홍 각시	실의 다양한 색깔
골무	감토 할미	생김새(감투와 유사함)
인두	인화 부인	쓰임새(불로 가열하여 꺼내어 사용함)
다리미	울 낭자	울은 한자 ‘다릴’에서 따온 것임. 그리고 ‘울’은 ‘울다’의 어간과 같으므로 다리미에서 수증기 올라오는 모습을 연상해서 붙인 것임



해룡이 들어와 변 씨에게 문후(問候)한 후에 비를 들고 눈을 쓸러 함에 홀연히 일진광풍(一陣狂風)이 일어나며 반시간이 못 되어 눈을 쓸어버리고 광풍이 그치는 것이었으니, 해룡은 이미 짐작하되 「변 씨는 더욱 신통히 여기어 마음에 생각하되 해룡이 분명 요술을 부리어 사람을 속이는도다. 만약 그대로 두었다가는 큰 화를 입으리라 하고 아무쪼록 죽여 없앨 의사를 내어 틈을 얻어 해할 묘책을 생각하다가 한 계교를 얻어 해룡을 불러 이르기를,

“집안 어른이 돌아가시매, 가산이 점점 탕진하여 형편이 없음을 너도 보아 아는 바라. 우리 집의 전장이 구호동에 있더니 요즘에는 호환(虎患)이 자주 있어 사람을 상하기로, 꽤놓된 지가 아마 수십 년이 된지라. 이제 그 땅을 다 일구면 너를 장가도 들이고 우리도 또한 네 덕에 좋이 잘살면 어찌 아니 기쁘리오마는 너를 위지(危地)에 보내면 행여 후회 있을까 저어하노라.”

해룡이 혼연히 허락하고 이에 장기를 거두어 가지고 가려 하거늘, 변 씨가 짐짓 말리는 체하니 생이 웃고 말하기를,

“인명(人命)은 재천(在天)이니, 어찌 짐승에게 해를 보리오.”

하고 표연히 떠나가니 변 씨가 밖에 나와 말하기를,

“속히 잘 다녀오라.”

하고 당부하더라. 「해룡이 대답하고 구호동에 들어가니, 사면이 절벽이요, 그 사이에 작은 길이 있는데 초목이 가장 무성하였으매, 등라를 붙들고 들어가니 다만 호표(虎豹) 시랑(豺狼)의 자취뿐 이요 인적은 아주 없었으니, 해룡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옷을 벗고 잠깐 쉬려니 날이 서산에 저물고자 하거늘 발을 두어 이랑 갈 때 홀연히 바람이 일고 모래가 날리며 문득 산상으로부터 갈범이 주홍과 같은 입을 벌리고 달려들매, 해룡이 정신을 진정하여 대항코자 할 때, 서편에서 또다시 큰 호랑이가 벽력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드는 것이니, 해룡이 정히 위태하더라.」

이때 홀연히 등 뒤로부터 금방울이 내달아 한 번씩 받아 버리니 그 범이 소리를 지르고 달아나 거늘 방울이 나는 듯이 연하여 받으니, 두 범이 모두 거꾸러지는 것이었으니, 해룡이 달려들어 두 범을 죽이고 본즉 방울이 번개같이 굴러다니며 한 시각이 되지 못하여 그 넓은 밭을 다 갈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금선 공주가 요괴에게 납치되자 황제는 공주를 구한 자에게 천하의 반을 주겠다고 한다. 집을 떠났던 해룡은 공주를 구하러 가던 중 갑작스러운 짐승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를 막던 금방울이 짐승에게 먹힌다.

해룡이 이 거동을 보고 대경하여 낙담하여 말하기를,

“이번에는 분명히 금령이 죽었도다.”

하고 탄식하며 어찌할 줄 모르더니 홀연히 광풍이 일어나며 공중에서 크게 부르짖기를,



“금령을 구하지 않고 이리 방황하느뇨? 급히 구하라.”

하고 문득 간데없으매, 해룡이 생각하되,

‘하늘이 가르치시니 부득이 구하려니와, 그러나 빈손뿐이요, 몸에는 쇠조각 하나 없으니 어이 대적하리오. 그러나 금령이 없으면 내 어찌하여 살아났으리오.’ 맞서 싸울 무기를 말함

하고 장속(裝束)을 단단히 하고 한번 뛰어 들어가니, 지척을 분별치 못할 지경이더라.

입고 매고 하여 몸자리를 든든히 갖추어 꾸밈
수삼 리를 안으로 들어가니 홀연히 천지가 밝아지고 해와 달이 고요한데, 두루 살펴보니 청석 돌비에 금자로 새겼으되, ‘남천산 봉래동’이라 하였고, 구름 같은 석교 위에 만장폭포가 흐르는 소리 새삼에서 일어나는 웅장 일 세사를 잃어버릴 만하였고, 그곳을 지나 점점 들어가니 아문(衙門)을 크게 열고 동중(洞中)에 진주나 조개 따위의 보물로 토화찬란하게 꾸민 대궐 주궁괘궐(珠宮貝闕)이 하늘과 땅에 닿아 해, 달, 별이 빛나는 석곽의 내성 삼광요내성 외곽이 은은히 보이거늘, 자세히 본즉 문 위에 금자로 썼으되 ‘금선수부’라 하니라. 원래 금색 털을 가진 머리가 아홉 달린 요괴 금체는 천지개벽 후에 일월 정기로 생겨나서 득도하여 신통이 거룩하고 재주가 무쌍한지라, 해룡이 문밖에서 주저하여 감히 들어가지 못하더니, 이윽고 안으로부터 공주와 구녀들이기 때문에 평민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임 여러 계집들이 나오는데 요괴의 시녀들, 인질 색태가 아름답고 시골에 묻힌 계집과 여자의 몸과 아름다운 자태 판이하거늘 아주 다르거늘 해룡이 급히 피할 때, 몸을 풀포기에 숨기고 동정을 살피니, 이윽고 사오 명의 계집이 피 묻은 옷을 광주리에 담아 이고 서로 손을 이끌고 나와 시냇가에 이르러 옷을 물에 빨며 근심이 가득하여 서로 말하기를,

“우리 대왕이 전일에는 요괴 용력이 절인하고 신통이 거룩하여 당해 낼 자 없더니 씩씩한 힘 오늘은 나가시더니 금령이 요괴 앞에서 계속 배를 찢고 잇기 때문 홀연 속을 앓고 돌아와 피를 무수히 토하고 기절하니, 그런 신통으로도 이 같은 병을 얻었으니 곧 나오면 좋으려니와 만일 오래 어려운 일을 당하여 몹시 고생하여 신고하여 어려운 일을 당하여 몹시 고생하여 낫지 못하면 우리들의 괴로움을 어디에다 비하리오.” 하니 그중에 한 여자가 말하기를,

“우리 금선 공주 공주 낭랑이 간밤에 한 꿈을 얻으니, ‘하늘에서 한 선관이 내려와 이르되 ‘내일 오시(午時)에 한 명의 재주가 뛰어난 사람 - 해룡을 가리킴 일위 수재(一位秀才)가 이곳에 와서 악귀를 잡아 없이하고 공주 낭랑을 구하여 돌아갈 터이니, 」 : 낭랑 공주의 꿈(해룡이 악귀를 물리치고 낭랑 공주를 구함)을 통해 장래의 일을 예언함 염려 말라.’ 하시고, 또 ‘이 사람은 다른 수재가 아니라 해룡 동해 용왕의 아들이니 그대와 속세 연분이 있음에 그대가 이렇게 됨이 또한 하늘의 명령 천수(天數)라 인력으로 못 하나니, 천명을 부디 어기지 말고 순순히 따르라.’ 당부하고 이른 말을 누설치 말라 하시더라. 그러더니 오늘 오시가 되도록 소식이 없으니 그런 꿈도 거짓말 허사가 아닌가 하노라.”

하고 서로 크게 말을 하며 슬피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우리도 언제나 이곳을 벗어나 고국에 돌아가 부모님을 만나 뵈옵고, 우리도 팔자가 사남고 복이 없어 기박하여 이처럼 공주 낭랑과 같이하니 이도 또한 팔자에 매인 천수인가.”

하거늘 해룡이 이 말을 모두 듣고 즉시 풀 포대를 헤치고 부지불식간에 내다르니, 그 계집들이 놀라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달아나려 하니 해룡이 나아가 만류하며,

“그대들은 놀라지 말라. 내 여기 들어옴이 다른 일이 아니라 악귀를 없애고자 들어왔으니 아무 의심을 두지 말고 그 악귀 있는 곳을 자세히 가리키라.”



하니 그 계집들이 이 말을 듣고 공주 낭랑의 몽사(夢事)를 생각하매, 신기하기 그지없는지라.
공주 낭랑이 간방에 쓴 꿈의 내용 - 용왕의 아들이 와서 악귀를 잡아 없애고 공주 낭랑을 구해 돌아갈 것이라고 선관이 말한 일
 여러 계집들이 나아가 울며 말하기를,

“그대 덕분에 우리들을 살려 내어 공주 낭랑과 모두 살아나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찌 이런 덕택이 있겠습니까?”

하고 해룡을 인도하여 들어가니, 중문은 첩첩하고 전각은 의의하여 반공에 솟았는데, 몸을 숨기어 가만히 들어가니 한 곳에 흥악하게 신음하고 앓는 소리에 전각이 움직일 듯하니라. 해룡이 뛰어 올라가 보니, 그 짐승이 『전각에 누워 앓다가 문득 사람을 보고 일어나려 하다가 도로 자빠지며 배를 움키고 온몸을 뒤틀어 움직이지 못하고 입으로 피를 무수히 토하고 거꾸러지더라.』

해룡이 이 형상을 보고 하수코자 하나 빈손으로 몸에 촌철이 없어 할 수 없이 방황하는데, 그 때 한 미인이 칠보 홍군으로 몸도 가볍게 걸어오며, 벽상에 걸린 보검(寶劍)을 가져다가 급히 해룡에게 주는 것이매, 해룡이 즉시 그 보검을 받아 들고 달려들어 그 요괴의 가슴을 무수히 찌르고 보니, 그 짐승이 그제야 죽어 늘어지는지라. 자세히 보니 금 터럭 돋친 암톨이어늘, 가슴을 헤치고 본즉 금령이 굴러 나오니, 해룡이 크게 반기며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요괴를 죽이자 요괴에게 잡아먹혔던 금방울이 살아나옴
 “너희 수십 명이 필경 다 요괴로 변하여 사람을 속임이 아니냐?”

하니 모든 여자가 일시에 끓어앉아,

“우리는 하나도 요괴가 아니오. 우리 팔자가 기구하여 그릇 이놈의 요괴에게 잡혀 와서 험악한 욕을 보고 수하에 있어 사환이 되어 이처럼 부지하여 죽도 살도 못하고 어느 때를 만나야 다시 세상을 불고 하여, 이곳에 어찌할 수 없어 억류되어 있는 급한 목숨들이로소이다. 아까 공자에게 보검을 드리던 분이 곧 천자의 외파님이시며, 금선 공주 낭랑이로소이다.”

**핵심 정리**

갈래	고전 소설, 영웅 소설, 전기 소설
성격	전기적, 도술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금방울의 영웅적 활약과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남녀의 결합
특징	다양한 전래 설화가 모티프로 사용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연대 미상의 소설이다. 동해 용왕의 아들과 남해 용왕의 딸이 각각 해룡과 금방울로 환생하여 우여곡절 끝에 요괴를 퇴치하고, 액운을 다한 뒤 탈을 벗고 부부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인 금방울의 활약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특징으로, 이는 당시 주요 독자였던 여성들의 흥미와 관심을 의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체 줄거리

동해 용왕의 아들과 남해 용왕의 딸은 부부였으나 요괴의 침입을 받아 죽게 되어 인간 세상에 장원의 아들 해룡과 막씨의 딸 금방울로 태어난다. 해룡은 전쟁 중 장원과 헤어져 도둑 장삼의 집에서 살게 되지만 장삼의 부인의 구박을 받으며 고생을 하고, 금방울은 가난한 막 씨를 도우며 살아간다. 장삼이 죽고 난 후 장삼의 집을 나온 해룡은 공주가 요괴에게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공주를 구하러 가지만 위험에 처하게 되고 해룡을 대신하여 금방울이 요괴에게 먹히는 일이 벌어진다. 해룡은 요괴의 배를 갈라 금방울을 구하고 공주와 돌아가 부부가 되지만, 싸움터에 갈 때마다 금방울은 계속 해룡을 돕는다. 때가 되어 금방울이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처녀가 되자, 이 사연을 안 왕의 허락으로 금방울과 해룡은 혼인하여 부부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신선이 되어 승천하게 된다.



박생이 말하였다.

“왕께서는 무슨 인연으로 이 이국에서 왕이 되셨습니까?”

남국 영부주(영라대왕이 다스리는 국)의 왕 남염부주(저수)

왕이 말하였다.

“나는 인간 세상에 있을 때에 왕에게 충성을 다하며 힘내어 도적을 토벌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 맹세하기를 ‘죽은 뒤에도 마땅히 사나운 귀신이 되어 도적을 죽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충성심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흉악한 곳에 와서 왕이 된 것이지요.” 도적을 모두 토벌하지 못함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우러러보는 자들은 모두 전생에 부모나 임금을 죽인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이곳에 의지해 살면서 나에게 통제를 받아 불종과 불교가 만연한 당대의 사회상을 암시함 그릇된 마음을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사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이곳에서 하루도 왕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염부주의 공간적 의미 - 망자의 개과천생을 유도하는 공간 내가 들으니 그대는 정직하고도 뜻이 굳어서 인간 세계에 있으면서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고 하니, 남염부주의 왕이 될 수 있는 조건 (군주의 자질) 참으로 달인(達人)입니다. 박생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 그런데도 그 뜻을 세상에 한 번도 펴 보지 못하였으니, 마치 형산의 옥덩이가 티끌 덮인 벌판에 내버려지고 명월주가 깊은 못에 잠긴 것과도 같습니다. 넒리 사목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 박생과 같은 인재를 알아주지 않음 - 인재 등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비판 뛰어난 장인을 만나지 못하면 누가 방에 객재를 발하는 구수 남염부주의 왕 지신 지극한 보물을 알아보겠습니까? 이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나는 운수가 다하여 장차 이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대 또한 운명이 다하여 곧 쑥 덩불 사이에 묻힐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맡아 다스릴 분이 그대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그러고는 잔치를 열어 극진히 즐겁게 하여 주었다.

왕이 박생에게 삼한(三韓)이 흉하고 망한 자취를 물었더니, 박생이 하나하나 이야기하였다.

삼국 시대 이전에 있었던 나라 : 마한, 진한, 변한

고려가 창엽한 이야기에 이르자, 왕이 두세 번이나 탄식하며 서글퍼하더니 말하였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하여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따르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반역할 뜻을 품고 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면 커다란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군주 군주가 경계해야 할 것 덕이 있는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임금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이 비록 임금이 되라고 간곡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올바르게 일하는 모습을 백성에게 보여 줌으로써 백성의 뜻에 의하여 임금이 되게 하니 정치적 지도자의 자질 ① - 유교적 덕치주의 상제(上帝)의 명은 참으로 엄합니다. 정치적 지도자의 자질 ② - 도덕성, 군면성 나라는 백성의 나라이고, 명령은 하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천명이 떠나가고 민심이 떠나간다면, 임금이 비록 제 몸을 보전하려고 하더라도 어찌 되겠습니까?” 국가 유지의 조건 ① 국가 유지의 조건 ②

박생이 또 역대의 제왕들이 불교를 숭상하다가 재앙을 입은 이야기를 하자, 왕이 문득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하였다. 불교를 비판적으로 보는 작가의 사상을 대변함

“백성이 임금의 덕을 노래하는데도 큰물과 가뭄이 닥치는 것은 하늘이 임금으로 하여금 근신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홍수 임금이 잘해도 재앙이 내리기도 함 백성이 임금을 원망하고 탄식하는데도 상서로운 일이 나타나는 것은 임금이 잘못해도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함 요



괴가 임금에게 아첨하여 더욱 교만 방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왕들에게 상서로운 일이 나타났
다고 해서 백성이 편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원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길한 징조를 선경의

결과라고 오해하는 왕들의 태도 비판

박생이 말하였다.

「간신이 벌 떼처럼 일어나 큰 난리가 자주 생기는데도 임금이 백성을 위협하고 위엄 부리는 것
관리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
 을 잘한 일로 여겨 명예를 구하려 한다면, 그 나라가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 」: 임금이 간신들을 계양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는 상황 비판

왕이 한참 있다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그대의 말씀이 옳습니다.”

남영부주의 왕이 박생의 의견에 동의함

잔치가 끝나자 왕은 자신의 왕위를 박생에게 물려주려고 다음과 같이 직접 선위문(禪位文)을 지
임금의 자리를 물려줌
 었다.

염주의 땅은 무서운 풍토병이 많은 곳이므로, 우(禹)임금의 발자취도 이르지 못하였고, 목왕(穆王)
어떤 지역의 특수한 기후나 토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병
 의 준마도 오지 못하였다. 붉은 구름이 해를 가리고 독한 안개가 하늘을 막고 있으며, 목이 마르
 면 뜨거운 구리 물을 마셔야 하고 배가 고프면 불에 쪄인 뜨거운 쇳덩이를 먹어야 한다. 야차(夜叉)
 나 나찰(羅刹)이 아니면 발붙일 곳이 없고, 도깨비가 아니면 그 기운을 펴 수가 없는 곳이다. 불
 꽃이 타오르는 성(城)이 천 리나 뻗어 있고 쇠로 된 산이 만 겹이나 둘러 데다, 백성들의 풍속이
옛날부터 그 사회에 전해 오는 생활 전반에 걸친 습관 따위를 이르는 말
 거칠고 사나워서, 정직하지 않으면 그 간사함을 판단할 수가 없다. 지세도 굴곡이 심해 험준하니,
 신통한 위엄이 아니면 이들을 교화시킬 수가 없다. 아아, 동쪽 나라에서 온 그대 박 아무개는 정
가르치고 이끌어 줄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
 직하고 사심(私心)이 없으며,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다. 남을 포용하는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어
 리석은 자를 계발하는 재주도 지니고 있다. 살아 있을 때에는 비록 높은 벼슬을 못 하였지만, 죽
 은 뒤에는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백성이 길게 믿고 의지할 자가 그대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마땅히 도덕으로 인도하고 예법으로 바르게 하여, 백성들을 지극히 착하게 만들라.

「 」: 남영부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도리 - 작가가 생각하는 현실 세계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지켜야 할 도리
 몸소 실천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세상을 태평하게 만들라.」 하늘을 본받아 뜻을 세우고,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던 일을 본받아 나도 이 자리를 그대에게 물려주겠다. 그대는 삼가 받
순리에 따라 왕위를 물려주어야 함을 드러낸 말 - 폭력으로 왕위를 빼앗은 세조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음
 을지이다.

박생이 이 글을 받아 들고 응낙한 뒤에, 두 번 절하고 물러 나왔다. 왕은 다시 신하와 백성들에
 게 명령을 내려 축하드리게 하고, 태자의 예절로써 그를 전송하게 하였다. 그러고는 박생에게 말
 하였다.

“오래지 않아 돌아와야 하오. 이번에 가거든 수고롭지만 내가 한 말들을 전하여 인간 세상에 널
 리 퍼뜨리시오. 황당한 일을 다 없애 주시오.”

박생이 또 두 번 절하여 감사드리고 말하였다.

“만분의 하나라도 그 뜻을 널리 전하지 않겠습니까?”



박생이 문을 나서자, 수레를 끄는 자가 발을 헛디더 수레바퀴가 넘어졌다. 그 바람에 박생도 땅에 쓰러졌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 깨어 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눈을 떠 보니 책은 책상 위에 내던져 있었고, 등잔불은 가물거리고 있었다.

박생은 한참 의아하게 여기다가, 장차 자신이 죽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날마다 집안일을 정리하기에 전념하였다. 『박생이 몇 달 뒤에 병에 걸렸는데, 결코 일어나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았다. 그래서 의원과 무당을 사절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던 날 저녁에 이웃집 사람의 꿈에 어떤 신인(神人)이 나타나서 말하길, 박생이 염라대왕이 되었다고 하였다 한다.』

핵심 정리

갈래	한문 소설, 단편 소설, 몽유 소설, 전기(傳奇) 소설
성격	환상적, 전기적(傳奇的)
주제	유교 이념을 기반으로 한 왕도 정치의 이상
특징	'현실-꿈-현실'의 몽유(夢遊) 구조

작품 해제

이 작품은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한문 단편 중 하나로, 작가의 사상이 가장 직접적이고 압축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별한 사건 없이 박생과 염주의 왕 사이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작가는 자신의 종교관 및 국가관, 불의한 당대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 등을 드러내고 있다.

전체 줄거리

기상이 고매하고 학식이 뛰어난 박생이란 사람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불만이 있었다. 그러나 뜻이 높고 강직하며 인품이 훌륭하여 주위의 칭찬을 받는다. 어느 날 주역과 중용을 읽다가 잠이 들게 되는데, 꿈속의 그곳은 바다에 있는 한 섬으로 지옥과도 같았다. 그는 거기에서 염주의 왕을 만나 그동안 궁금했던 공자와 석가, 귀신, 천당과 지옥의 존재 유무에 대해 물어보며 사상적인 담론을 벌인다. 염주의 왕은 박생의 참된 지식을 칭찬하고, 왕위를 물려주겠다며 선위문을 내려 주고는 세상에 잠시 다녀오라고 한다. 꿈에선 깬 박생은 가사(家事)를 정리하고 지내다가 얼마 뒤 병이 들어 죽었는데, 신인이 이웃집 사람에게 나타나 박생이 장차 염라대왕이 될 것이라고 전하였다.



[앞부분의 줄거리] 블라국의 오구 대왕과 갈대 부인은 공주만 여섯을 내리 낳고, 일곱 번째 낳은 아기도 공주임을 알고 강물에 띄워 버린다. 세월이 흘러 오구 대왕과 갈대 부인은 큰 병에 걸렸는데, 서천 서역국에 가서 약수를 구해 와야 하지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다. 한편 버려진 바리공주는 석가세존의 도움으로 무사히 지내다 부모의 상황을 알고 자청하여 약수를 구하러 떠난다.

석가세존님 하시는 말씀이,

바리공주의 조력자

“국왕에게 칠 공주 있다는 말은 들었어도 세자 대군이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다. 너를 대양서촌(大洋西村)에 버렸을 때에 너의 잔명(殘命)을 구해 주었거든 그도 그러 하려니와 평지 삼천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바리공주를 석가세존이 구해줄 리를 왔지마는 험로(險路) 삼천 리를 어찌 가려느냐?”

험한 길

“가다가 죽사와도 가겠나이다.”

죽음을 당하더라도 부모님을 구해야겠다는 바리공주의 의지. 바리공주의 지극한 효성이 드러남

“라화(羅花)를 줄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가다가 큰 바다가 있을 테니 이것을 흔들면은 대해(大海)가 육지가 되나니라.”

가시성(荊城) 철성(鐵城)이 하늘에 닿은 듯하니,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고 라화를 흔들니 팔 없

가시로 둘러싸인 성, 철로 만든 성

수많은 귀신들

는 귀신, 다리 없는 귀신, 눈 없는 귀신 억만귀졸(億萬鬼卒)이 앙마구리 끌 듯하는구나.

모든

악마구리. '갈 우는 개구리'라는 뜻으로, '참개구리'를 이르는 말

칼산지옥 불산 지옥문과 팔만 사천 제 지옥문을 열어, 십왕 갈 이 십왕으로, 지옥 갈 이 지옥으 로 보내일 때, 『우여 슬프다 선후망의 아모 망재 찌은 귀 찌은 입에 자세히 들었다가 제 보살님께 외오시면 바리공주 뒤를 따라 서방 정도 극락세계로 가시는 날이로성이다.』

『』: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바리공주의 능력을 강조함

아기가 한곳을 바라보니, 동에는 청유리 장문(牆門)이 서 있고 북에는 흑유리 장문이 서 있고,

담의 문

한가운데는 정렬문(貞烈門)이 서 있는데 무상 신선(無上神仙)이 서 계시다. 『키는 하늘에 닿은 듯

여자의 지조나 절개가 곧고 공음을 기리기 위해 세운 문

바리공주를 시험하는 존재

하고, 얼굴은 재반만 하고 눈은 등잔만 하고, 코는 줄병 매달린 것 같고, 손은 소댕(釜蓋)만 하고

약 1m

진흙으로 만든 병

솔뚜껑

말은 적 자 세 치라.』 하도 무서웁고 끔찍해야 물러나 삼배를 들이니,

『』: 무상 신선의 외양 묘사

무상 신선 하는 말이,

“그대가 사람이뇨 귀신이뇨? 날짐승 길버러지도 못 들어오는 곳에 어떻게 들어왔으며 어디서 왔느냐?”

“나는 국왕마마의 세자로서 부모 봉양 왔나이다.”

“부모 봉양 왔으면은 물값 가지고 왔소? 나뭇값 가지고 왔소?”

“충망 길에 잊었나이다.”

“물 삼 년 길어 주소, 불 삼 년 때어 주소, 나무 삼 년 베어 주소.”

대왕 부부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수를 얻기 위해 거쳐야 할 시험으로, 여성의 가사 노동을 상징함.

석삼년 아홉 해를 살고 나니, 무상 신선 하는 말이

『“그대가 앞으로 보면 여자의 몸이 되어 보이고 뒤로 보면 국왕의 몸이 되어 보이니, 그대하고 나하고 백년가약을 맺어 일곱 아들 낳아 주고 가면 어떠하뇨?”』 『』: 여성성을 통한 부모 구원

“그도 부모 봉양할 수 있다면은 그리하성이다.”



천지로 장막 삼고, ^{등척으로} 베개 삼고, 잔디로 요를 삼고, 떼구름으로 차일(遮日) 삼고, 셋별로 등촉(燈燭)을 삼어 ^{등나무} 초경(初更)에 허락하고, 이경(二更)에 머무시고, ^{밤 11시에서 1시} 삼경(三更)에 사경 오경(四更 오경(五更)의 첫째 부분. 저녁 7시에서 9시 저녁 9시에서 11시 새벽 1시에서 3시/저녁 7시에서 9시)에 ^{인연} 근연 맺고, 일곱 아들 낳아 준 연후에 아기 하는 말씀이,

“아무리 ^{인연} 부부 정도 중하거니와 부모 소양 늦어 감네. 초경에 꿈을 꾸니 은바리가 깨어져 보인디 ^{은바리가 깨어져 보이는 것은 모친의 사망,} 다. 이경에 꿈을 꾸니 은수저가 부러져 보인디다. 양전마마 한낱한시에 승하하옵신 게 분명하오. ^{은수저가 부러진 것은 부친의 사망을 암시함} 부모 봉양 늦어 가오.”

“그대 ^{길어 오던} 깃든 물 ^{약이 되는 물} 약려수이니 ^{금으로 만든 그릇} 금장군에 지고 가오. 그대 ^{배던} 비든 나무는 ^{살과 배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니} 살살이 뼈살이니 가지고 가오.”
“앞바다 물 구경하고 가오.”

“물 구경도 경이 없소.”

“^{경향이 없소} 뒷동산의 꽃구경하고 가오.”

“꽃구경도 경이 없소.”

“전에는 혼자 홀아비로 살아왔거니와 이제는 ^{무상 신선과 일곱 아들} 여덟 홀아비가 되어 어찌 살나오?”

“일곱 아기 데리고 가오.”

“그도 부모 소양이면 그리하여이다.”

큰 아기는 걷게 하고 어린 아기는 업으시고,

무상 신선 하시는 말씀이,

“그대 뒤를 좇으면은 어떠하오?”

^{둘 사이의 관계가 역전되어 바리공주가 주도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음}

“여필종부(女必從夫)라 하였으니 그도 부모 소양이면 그리하여이다. 한 몸이 와서 아홉 몸이 돌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말} 아가오.” ^{바리공주가 무상 신선과 일곱 아들을 데리고 부모에게 돌아간다는 뜻}

(중략)

“양전마마 한낱한시에 승하하셔서 인산거동 난 줄 아는데, 그대는 사람이뇨 귀신이뇨. 바리공주는 약수 삼천 리 약을 얻으러 가더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돈절(頓絶)하다.”

바리공주 깜짝 놀라 일곱 아기는 덩불 밑에 숨기시고, 무상 신선은 수풀 속에 숨기시고 ^{괜치나 소식 따위가 딱 끊어짐}

“^{운상과 불상. 발인 때에 새우는 계구} 명정(銘旌) 삽전(簪扇) 바라보니 임금 왕 자 분명하다.”

^{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은 기}

“곤포(袞袍) 만장(輓章) 바라보니 신하 신 자 분명하다.”

^{죽은 이를 슬퍼하여 지은 글} 머리 풀어 발상(發喪)하고,

^{상례에서,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고 나서 상제가 머리를 풀고 슬피 울어 조상난 것을 알림}

“지너 상궁들아, 장 안(帳內)으로 시위해라.”

“만민 조정들아, 장 밖(帳外)으로 시위해라.”

“소여대여(小與大與) 나우쳐라.”



『천개(天蓋)를 위로 들어서 굴려 사개를 물리치고, 것매 일곱 고를 풀어 헤치시고, 숨살이는 살
^{과외 두꺼}에 넣고 뼈살이는 뼈에 넣고, 살살이는 살에 넣고 일영주(日映珠)는 눈에 넣고, 약려수는 입에 흘
 려 넣으시고 한낱한시에 회춘하옵시니』

^{죽한 병에서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음} 『 』 : ^{바리공주가 저승에서 구해온 약으로 부모님을 되살려냄(정기적 요소)}
 “잠도 깊이 들었구나. 앞바다 물 구경 나왔드냐. 뒷동산 꽃구경 나왔드냐.”

“물 구경도 아니웁고 꽃구경도 아니웁고 한낱한시에 승하하셔서 인산 거동 났나이다. ^{임금이나 존귀한 사람이 세상을 떠남을 놀여 이르던 말}바리공주
 가 약수 삼천 리에 가서 회춘약 구해다가 한낱한시에 회춘하야 계옵시나이다.”

인산령(因山令)을 걷고 거동령(擧動令)을 늦는이다. 어전마마 통명전에 환궁하시교 칠대 중전마
^{임금과 왕비의 차례}마는 내전으로 환궁하시교 ^{일에 나서서 움직이는 태도}만조백관과 삼천 궁녀와 산호만세를 부른 후에 만백성도 일시에 만세를
 부르니라.

“만조백관은 문안이 있어도 아기씨는 어찌 문안이 없느냐?”

“아기씨 죄를 짓고 왔나이다. 무상 신선과 양위되어 일곱 아들 낳아 왔나이다.”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무상 신선과 연을 맺어 아이를 낳은 것을 죄로 여기는 바리공주}
 “네 죄가 아니라 내 죄로다. 너를 국(國)을 받을 주랴? 사대문에 드는 천을 주랴?”

^{무상 신선과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임금}
 “국도 지녀야 국이웁고 천도 지녀야 천이로소이다. 소녀 부모 슬하에 호의호식 못 하였사오니
 만신(萬神)의 인위왕(人爲王)이 되겠나이다.”

^{‘위로는 원주 비단으로 수놓은 저고리’라는 뜻임}
 치여다 백재일은 산 이 천도하고, 내려다 유재일은 죽은 이 천도하고, 치여다 원중입증(元絀立塵)
수조고리 입단치마 수당혜(繡唐鞋) 은아 몽두리 쥬쇠방울 넓은 흥띠 선대한림 만신의 몸주(身主) 되다.
^{수를 놓은 당혜. ‘당혜’는 가죽식의 한 가지} ^{쥐는 방울} ^{넓고 큰 부채}



핵심 정리

갈래	구비 서사시, 서사 무가, 무조 신화
성격	신화적, 교훈적, 서사적, 무속적
주제	바리공주의 고난과 희생을 통한 구원의 성취
특징	① 고난을 당한 주인공이 조력자의 도움으로 뜻을 이루는 영웅 설화의 구조 ② 죽음을 관장하는 무조신의 유래를 밝힌 본풀이임. ③ 특정 계층(무당)에게 전승되는 노래로 이본이 존재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천도하기 위해 행해지는 오구굿에서 불리는 서사 무가로, 한국 서사 무가의 전통적인 성격을 가장 잘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 작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저승을 관장하는 신이 되는 바리공주의 일생이 영웅 서사의 구조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핍박받는 바리공주의 삶을 통해 남존여비 사상과 가부장적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죽은 부모를 회생시키는 구원자의 모습을 보이는 내용을 죽은 자의 영혼을 천도하는 오구굿에서 부른다는 점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민중의 소망과 초월적 세계에 대한 염원을 엿볼 수 있다.

전체 줄거리

불라국의 오구 대왕과 그 부인은 딸만 내리 일곱을 낳고, 화가 난 대왕은 일곱째로 태어난 딸을 내버린다. 버림받은 딸 바리공주는 석가세존의 도움으로 무사히 자라난다. 세월이 흘러 오구 대왕과 부인은 큰 병이 든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서천 서역국에 있는 신이한 약물이 필요하지만 만조백관과 여섯 딸이 모두 약물을 구하러 가는 것을 거절하고, 결국 버림받은 바리공주가 찾아와 약물을 구하겠다고 떠난다. 바리공주는 무상 신선의 요구로 고된 일을 여러 해 해 주고 그와 혼인하여 일곱 아들까지 낳은 뒤 겨우 약물을 얻어 돌아온다. 돌아오는 길에 바리공주는 왕과 왕비의 상여를 만나고, 죽은 왕과 왕비의 입에 약물을 흘려 넣어 왕과 왕비를 회생시킨다. 그 공으로 바리공주는 신과 인간의 영역을 중개하는 신적인 존재가 된다.



상사동기(相思洞記) / 작가 미상

수능특강 P. 147

이옥조국어연구소



밤이 다 끝나 갈 즈음에 새벽닭이 꼬끼오 울며 날 밝기를 재촉하고, 멀리서 파루를 알리는 종소리
 리가 은은하게 울려왔다. 조선 시대에 서울에서 동행궁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종을 치던 일 김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가지를 챙겨 입고 탄식하며 다급히 말했다.

“좋은 밤은 괴로울 정도로 짧고 사랑하는 두 마음은 끝이 없는데, 장차 어떻게 이별을 하리오?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의 애절함을 드러냄 궁궐 문을 한번 나가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터이니, 이 마음을 어떻게 하리오?”

영영이 남자와 접촉해서는 안 되며, 평생 수절해야 하는 궁녀이기 때문

영영은 이 말을 듣고 울음을 삼키며 흐느끼더니, 고운 손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홍안박명은 옛날부터 있었으니, 비단 미친한 저에게만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살아서 이렇듯 이
 얼굴이 예쁜 여자는 팔자가 사나운 경우가 많음을 이르는 말
 별하니, 죽어서도 이렇듯이 원통할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꽃이 시들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
김생과의 이별이 원통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함과 같으니, 굳이 날씨가 추워지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낭군은 철석같은 마음을 가진 남자

인데, 어찌 소소하게 아녀자를 염려하다가 성정(性情)을 해쳐서야 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 : 큰 뜻을 품은 남아이니 자신을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 (설외적 표현이 사용됨)』

낭군께서는 이별한 뒤에는 제 얼굴을 가슴속에 두어 심려치 마시고, 천금같이 귀중한 몸을 잘 보
 존하십시오. 또 학업을 계속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운로(雲路)에 올라 평생의 소원을 이루시길 간
 절히 바라고 또 바라옵니다!” 『 : 영영은 김생을 깊이 사모하지만 헤어진 후의 김생을 염려하여 자신을 잊어 줄 것을 부탁함

〔중략 부분의 줄거리〕 회산군의 궁녀인 영영과 헤어진 김생은 온갖 근심 속에서 지낸다. 3년 후에야 과거에
 급제한 김생은 회산군 댁 근처를 지나다 문득 옛날 생각이 일어나 취해서 말에서 떨어진 듯 땅에 일부러 누
 워 버린다. 이 모습을 회산군 댁의 시녀들이 발견한다.

이때 회산군은 죽은 지 이미 삼 년이나 되었으며, 궁인들은 이제 막 상복(喪服)을 벗은 상태였
 다. 그동안 부인은 마음 불일 곳 없이 홀로 적적하게 살아온 터라, 상년상이 끝난 상태임 광대들의 재주가 보고 싶었다.

그래서 회산군의 아내 시녀들에게 김생을 부축해서 서쪽 가옥으로 모시고, 죽부인을 베개 삼아 비단 무늬 자리에
 누이게 하였다. 김생은 여전히 눈이 어질어질하여 깨닫지 못한 듯이 누워 있었다.

이윽고 광대와 악공들이 뜰 가운데 나열하여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면서 온갖 놀이를 다 펼쳐 보
 였다. 궁중 시녀들은 고운 얼굴에 분을 바르고 구름처럼 아름다운 머릿결을 드리우고 있었는데,
 주렴을 걷고 보는 자가 수십 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영영이라고 하는 시녀는 그 가운데 없었다.

김생은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그녀의 생사를 알 수가 없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한 남자
회산군의 궁녀인 영영가 나오다가 김생을 보고는 다시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고, 안팎을 들락거리며 어찌할 줄 모르고
외도대로 회산군 집에 들어온 김생 있었다. 이는 바로 영영이 김생을 보고서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차마 남이 알아챌까 봐 두
구슬을 실에 꿰어 만든 발려워한 것이었다.

이러한 영영을 바라보고 있는 김생의 마음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날은 이미 어두워지
 려고 하였다. 김생은 이곳에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지개를 켜면서 일
 어나 주위를 돌아보고는 놀라서 말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외도적인 행위임

물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이 회산군댁임을 몰랐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한 질문임



궁중의 늙은 노비인 장희이라는 자가 달려와 아뢰었다.

“회산군 댁입니다.”

김생은 더욱 놀라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장희가 사실대로 대답하자, 김생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였다. 이때 부인이 솔로
인한 김생의 갈증을 염려하여 영영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
^{김생과 영영이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가까이하게 되었으나, 말 한마디도 못 하고 단지 눈길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영영은 차를 다 올리
^{궁녀는 궁 밖의 남자와 내외해야 하는 당시의 관습 때문에}
 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품속에서 편지 한 통을 떨어뜨렸다. 이에 김생은 얼른 편지를 주위
^{김생에 대한 영영의 마음을 전해 주는 매개체}
 서 소매 속에 숨기고 나왔다.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와 뜯어보니, 그 글에 일렀다.

박명한 첩 영영은 재배하고 낭군께 사릅니다. 저는 살아서 낭군을 따를 수 없고, 또 그렇다고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나운}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해만이 남은 숨을 헐떡이며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어찌 제가
^{궁녀의 궁 밖의 남자와 사랑에 빠지서는 안 된다는 관습 때문에}
^{썩거나 타다 남은 뼈}
 성의가 없어서 낭군을 그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은 얼마나 아득하고, 땅은 얼마나 막막하던
^{김생과 만날 수 없는 외로움과 그리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지! 복숭아와 자두나무에 부는 봄바람은 첩을 깊은 궁중에 가두고, 오동에 내리는 밤비는 저를 빈
^{봄바람이 불어도 궁중 앞을 나가지 못했으며 밤비가 내릴 때에도 빈방에 홀로 있었음을 말함}
방에 묶어 놓았습니다. 『오래도록 거문고를 타지 않으니 거문고 갑(匣)에는 거미줄이 생기고, 화장
^{상자}
거울을 공연히 간직하고 있으니 경대(鏡臺)에는 먼지만 가득합니다. 지는 해와 저녁 하늘은 저의
^{화장대}
한을 돋우는데, 새벽별과 이지러진 달인들 제 마음을 염려하겠습니까? 누각에 올라 먼 곳을 바라
^{한쪽이 차지 않은 달}
보면 구름이 제 눈을 가리고, 창가에 기대어 생각에 잠기면 수심이 제 꿈을 깨웠습니다. 『아아, 낭
^{『』 : 일이 곁에 있지 않아 쓸쓸하고 외롭게 지내 있음을 표현함}
군이여! 어찌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또 불행하게 그사이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어 편지를 부
^{그동안의 슬픔을 설의적 표현으로 강조함}
치고자 하여도 전달할 길이 없었습니다. 헛되이 낭군의 얼굴 그릴 때마다 가슴과 창자는 끊어지는
 듯했습니다. 설령 이 몸이 다시 한번 더 낭군을 뵈는 다 해도 꽃다운 얼굴은 이미 시들어 버렸는
 데, 낭군께서 어찌 저에게 깊은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낭군 역시 저를 생각하고 있
 었는지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다 해도 저의 한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아아, 어찌하리오! 그저
 죽는 길밖에 없는 듯합니다. 종이를 마주하니 처연한 마음에 이를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편지 끝에 다시 칠언 절구(七言絶句) 다섯 수가 씌어 있었다.

好因緣反是惡緣 좋은 인연이 도리어 나쁜 인연이 되었으나,

不怨郎君只怨天 낭군은 원망스럽지 않고 하늘만 원망스럽네.

若使舊情猶未絕 만약 옛정이 아직 끊이지 아니하였다면,

他年尋我向黃泉 먼 훗날 황천으로 날 찾아오소서.

^{죽어서라도 김생과 맺어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함}

(후략)



김생은 다 읽은 뒤에도 오랫동안 편지를 만지작거리며 차마 손에서 놓지 못하였으며, 영영을 그리
리는 마음은 예전보다 두 배나 더 간절하였다. 그러나 청조가 오지 않으니 소식을 전하기 어렵고,
흰기러기는 오래도록 끊기어 편지를 전할 길도 없었다. 끊어진 거문고 줄은 다시 맴 수가 없고 깨
어진 거울은 다시 합칠 수가 없으니, 가슴을 졸이며 근심을 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생은 마침내 몸이 비쩍 마르고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러던 중 마침 동년배인 이정자가 문병을 왔다. 김생이 정자의 손을 잡고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병이 깊어진 까닭을 말하자, 정자가 놀라더니 위로하며 말했다.

“이제 그대의 병은 낫게 되리라! 무릇 회산군 부인은 나의 고모로, 나와는 절친한 사이이기 때
문에 그대가 품고 있는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부인은 남편과 사별한 이후로 이승
과 저승, 인과응보(因果應報)와 같은 불교의 설(說)을 믿어 재산과 보배를 아끼지 않고 남을 위하
여 베푸니, 내가 그대를 위해 다시 영영과 만날 수 있도록 일을 도모하겠다.”

김생은 기뻐하며 말했다.

“뜻하지 않게 오늘 모산의 도사를 다시 만났구나.”

김생은 거듭거듭 약속을 정하고 두 번 절한 뒤 정자를 전송했다.

영영을 만나지 못해 상사병에 걸림

김생과 영영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 」: 김생의 이야기를 듣고 김생과 영영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도우려 함

예를 갖추어 떠나 보내다



핵심 정리

갈래	한문 소설, 애정 소설
성격	낭만적, 현실적
주제	현실의 역경을 뛰어넘는 사랑의 성취
특징	① 한시를 삽입하여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고,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함. ② 사실적 표현과 생동감 있는 비유를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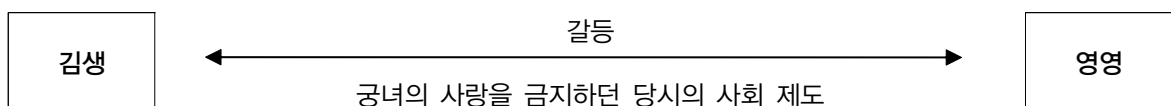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영영전’ 또는 ‘회산군전’이라고도 불리는 한문 소설로, 공녀와 선비의 사랑을 소재로 삼는다는 점에서 「운영전」과 자주 비견된다. 이 작품은 사실적인 묘사, 생생한 비유로 절절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데, 전기성, 우연성을 바탕으로 갈등이 해결되는 기존 고전 소설과 달리 개연성을 바탕으로 핵심 사건이 전개된다는 특징이 있다. 남녀 주인공이 공녀와 선비라는 신분상의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을 성취한다는 점에서 근대적 의식이 반영된 소설이라고 평가된다.

전체 줄거리

명나라 효종 때, 김생이라는 선비는 성 밖에서 미인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간다. 그녀의 정체를 수소문한 결과 그녀가 회산군의 공녀 영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녀의 할머니인 상사동 노파를 찾아가 인연을 맺게 된다. 김생은 궁에 숨어들어 영영과 정을 나누지만, 공녀라는 신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게 된다. 3년이 지난 후 김생은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 급제를 하게 되는데, 회산군의 집 앞에서 쓰러진 듯 누워 있다가 영영을 다시 만나게 된다. 영영의 편지를 전해 받고 그리움으로 앓아누웠던 김생은 회산군 부인의 조카인 이정자의 도움으로 영영과 해후하고, 여생을 함께 보내게 된다.

「상사동기」의 인물 관계도





서동지전(鼠同知傳) / 작자 미상

수능특강 P. 245
이목조국어연구소

〔앞부분의 줄거리〕 중국 웅주 땅에 사는 쥐 서대주는 당나라 태종을 도운 공으로 벼슬을 얻어, 온 종족을 초청하는 잔치를 베푼다. 스스로를 백면서생의 선비라고 일컫는 하도산의 다람쥐는 천성이 게을러 빈궁하게 살던 중 서대주의 잔치에 찾아가 사정을 호소하고 식량을 받는다. 겨울에 다시 굶는 신세가 된 다람쥐는 서대주를 찾아가 구걸했으나 거절당한다. 이에 원한을 품은 다람쥐는 아내 다람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곤륜산의 백호산군에게 서대주가 자신의 식량을 도적질했다고 소송하고, 백호산군은 그의 말을 들어 보고자 서대주를 잡아 오게 한다.

“네 어찌 이같이 무식 무례한다? 글에 일렀으되 ‘수중청룡은 만어왕(萬魚王)이요 산상백호(山上白虎)는 백수장(百獸長)이라’ 하였으니 나는 백 짐승의 장수어늘, 네가 내 면전에 이르러 길게 읊하고 절을 아니함은 어쩐이오?”

서대주에 대한 통독

서대주 안색을 불변하고 눈을 깜짝이며 소리를 가다듬어 대답하여 왈,

“산군(山君)의 이르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온지라, 대개 산군은 천산만악과 태산오악을 살피며 돌아다니시어 짐승의 선악을 살피시는 직임(職任)이요, 의신(矣身)은 멀리 바다 한구석에 있고 아는 것이 적어서 거친 피와 깊은 골에 웅거하여 다만 산군 절제(節制)를 받을 따름이로되, 만리강산과 사해팔황(四海八荒) 안에 허다 만물은 당천자(唐天子)의 신민 아닌 것이 없는지라, 이제 의신 몸 위에는 당천자께서 나리신 교지를 머물렀는고로 기리 읊만 하고 절하지 아니함은 실로 당천자에게 욕되지 않도록 함이요 산군의 위엄을 범함이 아니오니, 원컨대 산군은 살피소서.”

「 」 : 서대주는 자신이 당천자의 교지를 받아 작위가 있다는 점으로 산군에게 절하지 않음

백호산군이 양구(良久)에 왈,

시간이 꽤 오래 지남

“진실로 선재(善哉)라. 이는 충의의 말이라. 그러나 들으니 요사이 다람쥐로 더불어 무삼 결원(結怨)이 있어 남의 겨우살이 양식(糧食)을 도적함은 어쩐 연고이뇨?”

하고 인하여 다람쥐를 불러들여 서대주로 대송(對訟)할새, 다람쥐의 소지(所志)를 내어 서대주에게 읽혀 들리며 분부 왈,

“서대주는 들으라. 다람쥐 소지 원정(原情)이 이와 같으니 사실 이허(事實裏許)가 과연 이러하뇨? 조금도 감추거나 숨기지 말고 이실직고하라.”

사정을 하소연함

알려지지 않은 내막

서대주 이 말을 듣고 전상을 우러러 소리를 높이며 왈,

“산군의 명령을 듣고 어색하온 말로 감히 여쭙기 어려운지라, 바라진대 잠깐 머무르시면 한 장 소지를 베풀어 의신의 뜻을 아뢰겠나이다.”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글로써 풀어내려는 서대주

산군이 이에 허락하니 서대주 종이와 붓을 취하여 잠시 동안에 일장 소지를 지어 올리거늘, 산군이 그 소지를 받아 보니 가라사대,

(중략)

동네에서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른을 높여 이르는 말

“옛날 한 태조는 진나라를 멸하고, 함양에 들어가 부로(父老)로 더불어 삼장법(三章法)을 언약할 제 살인자는 죽이고 상인자(傷人者)와 도적은 죄에 다 다스리기로 국법을 밝혔사오니, 원컨대



산군은 진상을 명찰하신 후에 만일에 의신이 도적에 나타나는 형상이 분명하올진대 께히 의신을 명백하게 그 죄명을 집어내어 나중에 다른 짐승으로 하여금 징계하시고, 산군도 덕화를 멀리 베풀지 못하사 교화 널리 흐르지 못함으로 이런 송사가 생기는 것이오니 스스로 탄식만 하옵시고 의신 등의 생송함을 그르다 마옵소서.”

백호산군이 서대주의 소지를 본 후 말이 없더니, 이윽고 제사(題辭)를 부르매 그 제사에 가로되,
“예로부터 일렀으되 재하자(在下者)는 유구무언이어늘, 당돌히 위를 범하여 나의 덕화 없음을 꾸짖으니 죄당만사라. 그러나 임금이 어질어야 신하가 곧다 하였나니, 「위나라 임좌는 그 임금 무후의 그림을 말하였고 한나라 신하 주운은 그 임금 한제의 그림을 말하였더니, 너는 이제 나의 무덕함을 말하니 너는 진실로 임좌와 주운이 되고 나는 진실로 무후와 한제 되리니, 너같이 곧은 자 어찌 다람쥐의 양식을 도적하리오. 어불성설이니 다람쥐는 엄형정배(嚴刑定配)하고 서대주는 즉시 풀어 주라.”」

「 」 : 임금의 덕화 없음을 간할 수 있는 서대주의 용기를 칭찬하고 그런 서대주가 잘못을 저지를 리가 없으니 풀어 주라는 의미

핵심 정리

갈래	풍자 소설, 송사 소설, 우화 소설
성격	우의적, 교훈적, 풍자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배은망덕한 행동에 대한 비판과 아량 있는 태도의 권장
특징	① 동물을 의인화하여 주제를 전달함. ② 봉건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담고 있는 우화 소설로, 제시문은 ‘서대주’와 ‘다람쥐’의 송사가 전개되는 과정의 일부이다. 이 작품은 간악한 다람쥐를 용서하는 서대주의 아량 있는 태도, 다람쥐와 그 아내의 대립을 통해 드러나는 가부장적 권위의 모순, 다람쥐의 빈곤한 처지와 관련된 경제적 갈등 등 동물을 의인화하여 조선 후기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권선징악을 주제로 제시하여 교훈을 전달하면서 이면적으로는 여성의 자기주장을 드러내어 봉건적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사건 전개 과정에서 다양한 인물의 행동 양상을 통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줄거리

중국 웅주 땅 토굴에 사는 서대주는 공로를 세워 벼슬을 받고 잔치를 베풀던 중, 경제적으로 빈곤한 다람쥐가 와서 딱한 사정을 호소하자 도움을 준다. 다람쥐는 그 후 식량이 떨어지자 또다시 서대주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서대주가 종족의 형편을 들어 도움 주기를 거절하자 원한을 품은 다람쥐는 백호산군에게 거짓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그 과정에서 만류하던 계집 다람쥐는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에 분노하여 집을 나간다. 소송장을 받은 백호 산군은 오소리와 너구리를 시켜 서대주를 잡아 오게 한다. 서대주는 백호산군 앞에서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밝히는 소지를 작성하여 백호산군을 설득한다. 백호산군은 이러한 서대주의 태도와 서대주가 작성한 소지를 통해 다람쥐가 그를 허위로 고발했다고 판단하고, 다람쥐를 귀양 보내고자 한다. 서대주는 이에 관용을 베풀어 다람쥐를 풀어 줄 것을 간청하고 백호산군이 서대주의 아량에 감동하여 다람쥐를 석방한다. 다람쥐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서대주에게 감사를 표한 후 돌아가고, 많은 이들이 서대주의 덕행을 칭송한다.

‘서대주’와 ‘다람쥐’의 인물 유형

서대주	다람쥐
▪ 자신이 도와 준 다람쥐에게 모함을 당하고도 결국 그를 용서하는 후덕한 인물 ▪ 누명을 벗기 위해 뇌물이라는 부당한 수단까지도 이용하는 현실적인 인물 ▪ 변화하는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권익을 추구하는 능동적인 인물	▪ 몰락했지만 양반이라는 허위 의식에 젖어 열심히 일을 하기보다는 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나태하고 무능한 인물 ▪ 아내의 올바른 충고를 무시하고 질책하는 가부장적 인물 ▪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서대주를 모함하는 배은망덕한 인물
긍정적, 근대 지향적 인물 - 조선 후기 신흥 상공인 계층을 형상화	부정적, 권위적, 봉건적 인물 - 조선 후기 몰락한 양반 계층을 형상화



그 앞에 오는 사람은 안색이 초췌하고, 형용이 고고(枯槁)하며 절운관(切雲冠)을 썼는데, 허리에는 긴 칼을 차고 연잎의 옷을 입고, 호초(胡椒)와 난초의 패물을 달고, 눈썹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수심(愁心)을 띠고, 눈에는 임금을 생각하는 눈물이 가득하니, 곧 회왕을 통탄하고 상관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닌가!

뒤따라오는 사람은 신색(神色)이 추수(秋水)처럼 맑고, 얼굴은 관옥같고 초나라 의복에 초나라 갓을 쓰고, 초나라의 말씨로 초나라의 노래를 하니, 이는 한평생 오직 초양왕만을 섬겼던 사람이 아닌가!

함께 와서 천군(天君)에게 절하며 아뢰기를,
“천군의 높은 의리를 듣고 특별히 와서 함께 방문하노니, 다만 천지가 비록 넓다고 하나, 우리를 제대로 용납하지 못하였더니, 이제 천군을 보니 마음의 경지가 자못 넓어집니다. 원컨대, 돌무더기 한 구석을 빌어서 성(城)을 쌓아 거처하려 하오니, 천군께서는 쉬이 허락하실지 않으실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천군이 이에 옷깃을 거두고 추연(愀然)히 이르기를,
“남자의 회포는 고금(古今)이 마찬가지로, 내 어찌 조그마한 땅을 아껴서 조처하지 않을까 보냐!” 드디어 조서(詔書)를 내리어 가로되,
“그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감찰관이 알아서 하고, 그들이 성을 쌓을 수 있도록 뇌외공(磊砢公)이 알아서 조처하라.”

고 분부를 내리니, 두 사람이 절하여 사례하고 흉해(胸海)가로 향하여 가 버리더라.

이 뒤부터 천군은 두 사람을 생각하고 생각해서 능히 마음에 잊지 못하여 항상 출납관을 시켜 초사(楚辭)를 높이 읊게 하고는 다른 일을 겸하여 주관하지 않더니, 추구월에 천군이 해상에 친히 다다라서 성 쌓는 것을 관망할 때 수만 갈래의 원통한 기운과 수심에 찬 천첩(千疊)이나 되는 구름 사이로 옛날의 충신·의사(義士) 등 까닭 없이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하나씩 둘씩 오락가락하는데, 그중에 진나라의 태자 부소는 일찍이 장성(長城)을 쌓는 것을 감독했던 까닭에, 몽염과 더불어 형곡(硯谷)에서 일을 하던 유생 400여 명을 묻으려 할 때, 경영(經營)을 급히 맡게 하여도 재빠르게 되었으니, 그 성을 쌓아 이루는 데는 토석은 쓰지 않았으니, 수송하는 일에는 무슨 수고가 있었겠느냐?

크다고 하려니 붙여진 곳이 비좁고, 적다고 하려니 포괄한 바가 많도다. 없는 듯하면서도 있고, 형용이 드러나지 않는데도 형체가 있어, 북으로는 태산(泰山)에 의거하였고, 남으로는 푸른 바다에 연(連)했으며, 지맥(地脈)은 바로 아미산(峨眉山)으로부터 내려왔으므로 울퉁불퉁하고 더덕더



덕해서 수심과 한(恨)이 모인 까닭에 이름을 수성(愁城)이라 하였다.

성의 이름을 수성으로 지은 까닭 - 수심과 한이 모임

[중략 부분의 줄거리] 성중에 조고대와 충의문, 장렬문, 무고문, 별리문 등 네 문을 설치하고, 백성들이 항상 불안과 수심에 싸여 살게 되자, 그 세력이 천군에까지 미치게 된다. 중대한 위기에 처한 천군에게 주인옹은 수성을 뿌리째 없애 버릴 수 있는 방책을 제안하면서 국양 장군을 추천한다.

장군이 옥으로 만든 배를 타고 술못[酒池]을 건너면서, 돛대를 치며 맹세하여 말하기를,

“수성을 탕평(蕩平)하지 못하고 다시 건너는 일이 있다면, 이 물과 같이 되리라.”

하고는 이에 바다 입구에 배를 대고, 곧 장서기(掌書記)인 모영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격문(檄文)을 지어 말하기를,

“모월 모일에 옹주(雍州)·병주(並州)·뇌주(雷州)의 대도독(大都督) 구수대장군(驅愁大將軍)이 수성에 격문을 보내노니, 대저 여관 같은 천지간과 과객 같은 세월 중에 팽조와 같이 오래 살았던 이나, 요절한 사람이나 모두가 한바탕의 꿈이었으니, 무릇 모든 인생은 똑같은 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살아서 근심하고 한함은 축루의 낙(樂)에 미치지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않으리오? 오직 네 수성은 우환으로 된 지가 오래여서 쫓겨난 신하와 근심 걱정이 있는 부인과 열사(烈士)와 소인(騷人)들만 편벽스럽게 찾아서, 거울 속의 얼굴빛을 쉽게 시들게 하고 귀밀의 머리털을 서리로 재촉하니, 이로 하여금 뺨고 뺨어도 도모하기 어렵도록 해서는 안 될지라.

이제 나는 천군의 명령을 받아서 신평의 군사를 거느리고, 선봉은 곧 서주(西州) 역사(力士)이고 좌막은 함리 해오라. 비록 제갈공이 풍운의 진(陣)을 벌이더라도, 또한 고금에 으뜸가는 초패왕의 용맹이라도 어린애를 희롱하는 것같이 될 것이다. 어찌 능히 우리를 당하라! 하물며, 초나라 못에서 홀로 깬 사람이야 어찌 죽히 개의라도 할 수 있으리오?”

격문이 이르는 날에 일찍이 항복하는 깃발을 세우라 하고, 출납관을 시켜서 소리를 가다듬어 격문을 읽게 하여, 성중(城中)에 들리게 하였더니, 성안에 가득한 사람들이 모두 항복할 마음을 가졌으나, 굴평만이 홀로 굴복하지 않고 머리털을 풀어 헤친 채로 달아나서, 그가 간 곳을 알지 못하겠더라.

장군이 바다 입구로부터 물이 든 병을 거꾸로 세운 듯이 급히 내려가니, 형세가 대나무 쪼개듯이 급박한 기세로, 공격하지 않아도 성문이 저절로 열리고, 싸우지 않아도 성중에서 이미 항복하니, 장군이 이에 무기를 번쩍거리며 위엄을 부리면서, 혹은 흩어져서 밖으로 포위하고, 혹은 모여서 안에 진을 치니, 형세가 바다 나라에 조수(潮水)가 생기듯, 강성(江城)이 비로 인하여 물이 넘치는 듯하매, 천군이 영대(靈臺)에 올라서서 바라보니 구름은 사라지고 안개는 걷히고, 자혜로운

신령스러운 곳이라는 뜻으로, '마음'을 이르는 말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평온한 마음의 상태가 찾아왔음을 보여줌



바람과 나른한 햇빛에 접때 『슬펏던 것이 기쁘게 되고, 괴로웠던 것이 즐겁게 되고, 원망스럽던 것은 잊혀지고, 한스럽던 것은 사라지고, 분한 것은 빠져나가고, 성났던 것은 기쁘게 되고, 근심하던 것은 즐거워지고, 답답하던 것은 후련해지고, 신음하던 것은 노래 부르고, 주먹 쥐었던 것은 춤추며 뛰고, 백륜은 그 덕을 칭송하고, 사종이 그 가슴을 씻고, 도연명은 갈건과 소금으로써 뜰의 나뭇가지를 바라보매 기쁜 얼굴로 되고, 이태백은 접이와 금포를 입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달에 취했더라.』 『 : 사랑들이 슬픔, 괴로움, 원망, 한, 분함, 성냄, 답답함 등 나쁜 감정을 털어내고 행복이 찾아옴

핵심 정리

갈래	한문 소설, 의인체 소설
성격	우의적, 연대기적
주제	인간의 심적 조화의 필요성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임제가 지은 한문 단편 소설로, 마음을 의인화하여 심적 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물이나 동물을 의인화하여 세상을 경계한 가전체의 전통을 잇고 있으며, 마음을 의인화한 소설의 계열인 천군소설(天君小說) 계열의 작품이다. 작품의 기본 전체 줄거리는 마음을 의인화한 천군이 수성(愁城)을 쳐서 수기(愁氣)를 물리치고 명랑함을 되찾는다는 내용으로, 단순하지만 이를 통해 당대의 부정적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풍자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전체 줄거리

천군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의 신하인 인(仁)·의(義)·예(禮)·지(智)·희(喜)·노(怒)·애(哀)·낙(樂)·시(視)·청(聽)·언(言)·동(動) 등이 제각기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여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의 충신, 의사로서 무고하게 죽은 이들이 찾아와 천군에게 허락을 받고 수성을 쌓고 항상 불안과 수심에 싸여 살게 되자, 그 세력이 천군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중대한 위기에 처한 천군에게 주인공은 수성을 뿌리째 없애 버릴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국양(술)을 추천한다. 국양 장군이 천군의 명을 받고 신품의 군사를 거느려 수성을 치니 마침내 항복을 받아 온 성 안은 화기가 돌고 수심이 일시에 없어졌다. 이렇게 천군의 나라는 다시 평온을 되찾게 된다.



옥낭자전(玉娘子傳) / 작자 미상

수능특강 P. 277

이문조국어연구소



옥랑이 옥에 갇힌 지 수삼 일이 지나니, 영흥 부사가 좌기를 엄숙히 하고 살육 죄인을 잡아들여 ^{주체적 여성} 문초할새, 옥랑이 큰칼의 무거움을 이기지 못하여 옥줄에게 부축되어 겨우 들어가니, 보는 사람마다 불쌍하게 여기더라. 부사가 죄인을 살펴보니 전일에 가둔 죄인이 아닌지라, 놀라며 이상히 생각한 부사는 일변 옥줄을 잡아들여 ^{옥랑이 이시업을 대신하여 옥에 갇힘} 꿰어앉히고 꾸짖어 이르기를,

“살인자는 국법이 지엄하거늘, 네 감히 죄인을 임의로 바꾸었으니 그 죄는 죽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으려다!”

하며, 사령을 호령하여 형틀에 매어 놓고 벌하며 간계를 자세히 아뢰라 하니라.

그러하나 본디 처음에 이시업을 가둘 때 압송하던 옥줄은 갑자기 병이 나서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옥줄이 거행하게 되었으니 그 진가(眞假)를 알지 못하였더라.」 옥줄들이 천만뜻밖에 이러한 곤경을 당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즉시 원통함을 일컬으며 아뢰기를,

“소인들이 어찌 감히 막중한 관령을 반잡고 간사한 죄를 지을 수 있겠나이까? 소인들은 저 죄인 ^{」: 옥줄들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함}을 처음 압송하옵던 무리가 아니온 고로 죄인의 진가를 알지 못하오니, 당초에 분부를 받자온 옥리를 잡아들여 문초하옵시면 자초지종이 스스로 밝혀지겠나이다. 소인들은 실로 억울하오니 명정지하에 목숨은 바칠지라도 간계를 꾸민 일은 없사온즉 밝히 통촉하소서.”

하니, 부사가 그 말을 옳게 여겨 죄인을 처음 압송한 옥리를 잡아들이라 하니라.

이때 그 옥리는 신병이 중하여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하는지라, 부사가 매우 노하여 하는 말이, ^{강옥에서 죄수를 감시하던 관리} “병세가 중함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는 죄를 지었으며, 거짓으로 칭병하여 죄를 모면하려 함이니 빨리 잡아들이려다.”

하며 호령이 추상같으니, 나졸이 성화같이 재촉하더라.

기실 그 옥리는 병세가 침중하여 기동을 못 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능히 들어올 수 있으리 ^{사실상으로} 요마는, 관령이 지엄하니, 부득이 들것에 의지하여 들어가게 되니라. 부사가 살펴보매 옥리는 과연 병세가 침중하여 정신이 혼미하고 숨이 곧 끊어질 것 같기에 즉시 도로 내어보내라 하나, 미처 관문을 나지 못하여 죽는지라, 부사는 후회함을 마지아니하더라.

이러하여 죄인의 진가를 알지 못하겠기로, 즉시 옥랑을 형틀에 올려 매고 노한 음성으로 물어보되, “너는 어떠한 사람이기로 감히 죄인을 대신하여 감히었으며, 처음 갇힌 죄인을 어디로 보내었느냐? 사실대로 바로 아뢰되, 추후도 은회치 말려다!”

하나, 옥랑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이 태연히 공초(供招)하여 말하되,

“죄인은 원래 본군 김 좌수의 딸 옥랑이온데, 고원 땅 이춘발의 아들 시업과 혼인을 맺었삽기로 금월 십오일이 혼례일이오라 친사를 맺고자 길을 차려 오옵더니 중로에서 불행히도 어망홍리(魚網鴻離)로 뜻밖의 변을 당하와 죽게 되었나이다. 죄첩은 듣자오니 ‘남자는 여자의 소천(所天)이라.’ 하옵기로, 여자의 도리는 타인에게 한번 허락하면 목숨이 다하도록 고치지 아니하는 법이오니, ^{아내가 남편을 이르는 말} 가군이 실지로 죄를 지어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의리는 또 따라 죽사옵이 마땅하거늘, 하물며 성문 ^{옥랑이 시백 대신 옥에 장려 들어간 이유}



실화(城門失火)로 감히 남북으로 갈아입고 옥리를 속여 대신 갇히고 가군을 내어보냈사오니, 국법에는 죽을죄를 지었사오나 죄첩의 의리에는 마땅하온지라 당장 죽사와도 여한이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속히 형벌을 밝히소서.” 『 』: 옥랑이 자신이 이시백 대신 옥에 갇혀온 경위를 솔직하게 말함

이렇듯 낭자의 언사가 매우 씩씩한지라, 부사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헤아리되,

『이 지방에 왕화(王化)가 멀므로 풍속이 보잘것이 없어 삼강오륜을 제대로 아는 자 드물거늘, 어찌 저러한 여자가 있을 줄을 뜻하였으리오? 이는 비록 옛날의 열녀(烈女)라 할지라도 이에서 더할 수는 없을지니, 진실로 아름답고 회한한 일이다.』

『 』: 옥랑의 당당하고 명명한 태도와 남편을 위해 아내의 도리를 다하려는 태도에 감명 받음
부사는 즉시 사연을 갖춰 기록하여 감영에 장계를 올려 아뢰니, 함경 감사가 이 보장을 읽어 보고 크게 칭찬하기를,

“하방 여자로서 어찌 이런 식견이 있을까 보냐? 이는 진실로 범상한 여자가 아니니라.”

『 』: 옥랑이 평범한 여인이 아님을 드러냄
하며 내당으로 들어가 부인에게 그 말을 전하면서 무수히 찬양하더라.

핵심 정리

갈래	국문 소설, 송사 소설
성격	사실적
주제	남편이 될 사람을 위해 대신 감옥에 갇힐 것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옥랑의 의지
특징	주체적인 여성 등장인물(옥랑)의 모습이 드러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혼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그 사건의 해결 과정에 뛰어드는 주인공 옥랑의 사연을 중점적으로 다룬 조선 후기의 소설이다. 주인공 옥랑은 남편이 될 사람(시업)을 대신해 죽음을 각오하는 여성으로, 자신이 시업 대신 감옥에 가겠다는 결심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만류하는 시업을 설득해 내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의 달라진 여성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전체 줄거리

함경도 고원 땅에 사는 이시업은 영흥 땅에 사는 김좌수의 딸 옥랑과 정혼을 한다. 시업이 혼례를 올리기 위해 김 좌수의 집에 가던 길에 하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토호의 하인 하나가 죽게 된다. 이에 시업은 살인죄로 투옥된다. 옥랑은 시업을 살리겠다는 계획을 세워 남북을 하고 감옥에 찾아간다. 간신히 시업을 만나 자신이 신부 될 사람임을 밝힌 옥랑은 시업에게 자신이 사업을 대신해서 감옥에 갇히겠다고 주장한다. 시업이 이를 거절하자, 옥랑은 비수를 꺼내 들고 자신의 말대로 따라 주지 않으면 자결을 하겠다는 결심을 밝힌다. 이에 시업은 비통해하면서 옥랑과 옷을 바꿔 입고 감옥을 빠져나온다. 이후 영흥 부사의 문초에 옥랑은 자신이 남편 될 사람을 대신해 자발적으로 감옥에 들어왔음을 고백한다. 이에 감동한 부사는 옥랑의 절행을 상부에 보고하고, 상감은 옥랑의 의지를 칭찬하며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준다.



옥루몽(玉樓夢) / 남영로

수능특강 P.141

이옥조국어연구소



이때 강남홍은 사부의 명으로 만왕 을 구하러 오기는 했지만 부모의 나라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조용히 옥적으로 장자방이 통소를 붙어서 항우의 병사들인 강동(江東) 지역 자제들을 흠어 버린 일을 본받아 전투를 끝내려 했다. 그런데 뜻밖에 명나라 진영에서도 옥적으로 화답하는 것이었다. ^{남만의 원수로, 명나라를 공격함} 남만의 왕. 남만은 중국의 남쪽에 사는 오랑캐를 지칭함 ^{강남홍과 양창국의 만남을 매개하는 역할을 함} 강남홍과 양창국의 만남을 매개하는 역할을 함. 곡조는 다르지만 음률은 차이가 나지 않고 기상은 다르지만 뜻은 다름이 없어, 마치 아침 햇살에 아름다운 봉황이 날아오르며 수컷이 노래를 부르자 암컷이 화답하는 듯하였다. 강남홍은 잠시 옥적을 멈추고 망연자실하여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생각하였다.

‘이 옥적은 본래 한 쌍이다. 하나는 문창성에게 있는데, 내가 귀국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있다고 들었다. 이제 대명국의 원수가 문창성의 정기가 아니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그러나 하늘이 옥적을 낳았으되 어찌 한 쌍만을 낳았을 것이며, 이제 한 쌍이 있는 것이라면 어찌 남과 북에서 그 짝을 잃어버리게 하였다가 서로 만나 합치게 되는 것이 이토록 늦었을까?’

이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옥적이 이미 짝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부는 사람은 반드시 짝일 것이다. 하늘이 곱어살피시고 명월이 밝게 비추어 주시니, 강남홍의 짝은 양 공자 한 분뿐이라, 혹시 조물주가 도우시고 보살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공자님께서 지금 명나라 진중에 원수로 와 계신 것일까? 어제 진영 앞에서 이미 병법을 보고 오늘 밤 달빛 아래 다시 피리 소리를 들어 보니, 이 시대에 짝을 찾을 수 없는 뛰어난 인재다. 내 마땅히 내일 싸움을 걸어서 원수의 모습을 봐야겠구나.’

그녀는 즉시 객실로 돌아갔다. 아침이 되자 만왕을 만나 말했다.

“오늘 마땅히 도전하여 싸움을 결정하려 합니다. 대왕은 먼저 병사들을 거느리고 골짜기 앞에 진을 치십시오.”

나타이 응낙하고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 강남홍은 수레에서 내려 말을 타고 손삼랑과 진 앞으로 갔다. 양창국 역시 진세를 이루어 포진하였다. 강남홍은 권모설화마(捲毛雪花馬) 위에서 부용검을 차고 활과 화살을 허리에 두른 뒤, 진영의 문 앞에서 손삼랑에게 소리치게 하였다.

“어제의 싸움은 먼저 무예를 시험했던 까닭에 좀 봐주었지만, 오늘은 나를 당할 자 있다면 즉시 나오라. 만약 당할 수 없다면 괜히 출정하여 전쟁터 위에 백골을 더하지 말도록 하라.”

좌익 장군 동초가 크게 노하여 창을 뽑아 들고 나왔다. ^{죽지} 홍량이 말고삐를 어루만지며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말했다.

“너는 돌격장이니 내 적수가 아니다. 빨리 다른 장수를 보내라.”

^{강남홍은 장군 동초가 자신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함} 동초가 크게 화를 내며 창을 휘둘러 맞붙으려 하는데, 강남홍이 웃으며 꾸짖는다.

“네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나는 네 창끝에 달린 상모(象毛)를 쏘아 떨어뜨리겠다. 네가 피할 수 있겠느냐?” ^{깃발이나 창 따위의 머리에 술이나 이삭 모양으로 만들어 다는 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초의 창끝에서 켁그랑 옥 같은 소리가 나더니 상모가 말 앞에 떨어지는 것이었다. 강남홍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내가 다시 네 왼쪽 눈을 맞히겠다. 피할 수 있겠느냐?”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활시위 소리가 났다. 동초는 말 위에 납작 엎드려 황망히 본진으로 돌아왔다. 마음이 몹시 급하여 당황하여 허둥지둥하며 뇌천풍이 바라보고 있다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도끼를 휘두르며 나갔다. 강남홍이 웃으며 말했다.

“노장(老將)은 노쇠한 정력을 함부로 낭비하지 마시오. 내가 마땅히 당신의 목숨을 빌려줄 테니 노장은 갑옷 위의 칼자국을 살펴보고 내 숨씨를 보시구려.” 강남홍이 상대 장수를 타이르며 자신의 칼술씨로 상대박을 거뜬히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냄

말을 마치고도 전에 부용검을 휘두르며 몇 합 맞붙어 싸웠다. 뇌천풍이 자신의 갑옷을 내려다보니 칼자국이 낭자했다. 그는 싸울 생각이 없어지면서 말을 돌려 돌아갔다. 강남홍의 무예가 매우 뛰어남을 드러내줌

명나라 진영의 여러 장수들이 서로 돌아보며 출전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양창곡이 크게 노하여 분연히 일어났다. 양창곡의 혈기왕성한 성격 청충사자마(靑驄獅子馬)에 걸터앉아 장팔탱천이화창(丈八撐天梨花槍)을 들고 붉은 도포에 갈기와 표리가 피르스름한, 사자처럼 생긴 말. 양창곡이 탄 말 길이가 길고, 몸이 뾰족하며 날이 날카로운 창금빛 갑옷을 입었다. 허리에 활과 화살을 두르고 진영 앞에 나와 섰다. 소유경이 간하여 말했다.

“원수께서 황제의 명을 받들어 삼군을 지휘하시니, 국가의 안위(安危)가 원수 한 몸에 달려 있으며 종묘사직의 중대함이 진퇴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필마단기(匹馬單騎) 혼자 몸으로 친히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한때의 분노로 승부를 내려 하시니, 이 어찌 몸을 보전하고 나라를 위하는 뜻이라 하겠습니까?” 현실적 여건을 내세워 출전을 말리는 노련한 소유경

이때 양창곡은 소년의 날카로운 기상으로, 강남홍의 무예가 절륜한 것을 알고 한번 대항해 보고 싶어서 소유경의 간언을 듣지 않고 말을 달려 출전했다. 강남홍은 원수가 나오는 것을 보고 말을 두드리게 뛰어남 돌려 칼을 휘두르며 그를 맞아 싸웠다. 그러나 일 합을 맞붙기 전에 강남홍의 총명으로 어찌 양창곡의 모습을 몰라보겠는가. 양창곡 너무 기뻐 눈물이 먼저 흐르며 정신이 황홀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편정자적 논평

그러나 지기지심(知己知心)을 가진 양창곡이라도 한밤중 황천으로 영원히 떠난 강남홍이 지금 만리절역(萬里絕域)에서 자기와 싸우는 오랑캐 장수가 되었으리라고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양창곡이 창을 들어 강남홍을 찌르니, 그녀는 머리를 숙여 피하면서 쌍검을 던지고 땅에 떨어지며 낭랑하게 외쳤다. 남군인 양창곡과 적으로 만난 데 대한 감정 서로 마음이 통하여 지극하고 참되게 알아주는 마음 「 」: 양창곡은 강남홍이 이미 죽은 것으로 알고 있음 양창곡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기 위해 일부러 쌍검을 던지고 땅에 떨어짐

“소장이 실수로 칼을 놓쳤습니다. 원수는 잠시 창을 멈추고 칼을 줍도록 해 주시오.”

강남홍 양창곡은 그 목소리가 귀에 익어서 창을 거두고 그 모습을 살폈다. 양창곡도 강남홍을 알아봄

강남홍은 칼을 거두어 말에 오르더니 양창곡을 돌아보며 말했다.

“천첩 강남홍을 어찌 잊으실 수 있습니까? 첩은 당연히 상공을 따라야 하나, 제 수하의 노졸이 강남홍 오랑캐의 진영에 있사오니, 오늘 밤 삼경에 양창곡 군중에서 만나 뵈기를 기약하겠습니다.” 경험이 노련한 병사

말을 마치고 채찍질을 하여 오랑캐의 본진을 향하여 훌쩍 돌아갔다. 밤 1시~새벽 1시 사이

**핵심 정리**

갈래	한문 소설, 영웅 소설, 군담 소설, 염정 소설
성격	유교적, 철학적
주제	양창곡의 영웅적 일생과 현실 비판
특징	① 영웅의 일대기 구성 ② '구운몽' 및 '삼국지' 의 수용 ③ 개성 있는 여성 인물의 등장 ④ 현실 개혁의 방법 및 의지 표현 ⑤ 방대한 규모, 다양한 소재,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임 ⑥ 다른 고전 소설에 비해 서술보다 대화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 생동감을 줌 ⑦ 인물의 성격 창조가 뛰어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몽자 소설의 계보를 잇고 있는 장편 소설이다. 양창곡을 주인공으로 한 군담계의 영웅 소설이면서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룬 가정 소설, 양창곡과 여러 여인의 사랑을 다룬 애정 소설 등의 다채로운 성격을 갖는다. 구성이 치밀하고 대중적 재미와 문학적 완성도가 높아 고전 소설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으며, 뛰어난 능력과 개성적 면모를 지닌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동시에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전체 줄거리

천상계에서 문창성이 취중에 지상계를 그리워하는 시를 읊고 선녀들을 희롱한다. 이를 안 옥황상제가 크게 노하여 문창성은 양창곡, 선녀들은 각각 윤 소저, 황 소저, 강남홍, 벽성선, 일지련으로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한다. 인간 세상으로 하강한 양창곡은 과거를 보러 가던 중 기생 강남홍과 가연을 맺고, 강남홍의 천거로 윤 소저와도 인연을 맺는다. 이 무렵, 소주 자사 황 공이 강남홍을 탐하자 강남홍은 강물에 투신하지만 윤 소저에 의해 구출 되어 남쪽 탈탈국의 절에 몸을 의탁한다. 양창곡은 장원 급제하여 대원수가 되어 남만을 치는데, 만국의 원수가 되어 있던 강남홍은 명의 원수가 양창곡임을 알고 그에게 온다. 연왕으로 책봉된 양창곡은 처첩들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천상계로 돌아가 다시 선관이 된다.

인물 분석

양창곡의 성격	강남홍의 성격
양창곡은 자신의 임무에 솔선수범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원수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부하들이 강남홍에게 패하자 직접 싸움에 나가려고 한다. 더불어 강남홍과의 싸움에 몰두하여 강남홍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강남홍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압도하는 무술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장부다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더불어 전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장이 양창곡임을 알아볼 만큼 섬세하고, 양창곡을 위해 위험한 적진으로 찾아가겠다고 할 만큼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 : 등장인물 □ : 인물의 성격

온달(溫達)은 고구려 평강왕(平岡王) 때 사람이다. 용모는 구부정하여 우스꽝스러웠지만, 속마음은 환하게 빛났다. ^{고구려 제25대 왕인 평원왕} 집이 매우 가난하매 늘 음식을 구걸해다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온달의 외양} 찢어진 적삼과 헤진 신발로 시정 사이를 왕래하니, 당시 사람들이 가리켜 ‘바보 온달’이라고 하였다.

평강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잘하니, 왕이 희롱해 말하기를 “네가 늘 울어 대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니 자라면 반드시 사대부의 아내가 되지 못하고 마땅히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가리라.”라고 하였다. 왕이 매번 그렇게 말하더니, 딸의 나이 16세가 되자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림} 상부(上部)의 고 씨에게로 시집보내 ^{귀족} 고자 하였다. 이에 공주가 왕에게 말하였다.

“대왕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바보 온달의 아내가 될 것이다.’라고 하시더니, 이제 무슨 까닭으로 전의 말씀을 바꾸십니까? ^{평강 공주의 성격 ① - 신뢰를 중시함} 필부도 오히려 식언(食言)하지 않으려 하거늘 하물며 지금 ^{신분이 낮고 보장없는 사내} 히 존귀한 왕께서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임금에게는 농담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대왕의 명령은 잘못이므로 저는 감히 받들어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강직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하여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평강 공주의 모습} 왕이 노하여 말하였다.

“네가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니 진정 내 딸이 될 수 없도다. 어찌 함께 살겠느냐? 마땅히 네가 갈 데로 가거라.”

이에 공주가 보석 팔찌 수십 매를 팔꿈치 뒤에 매고 궁궐을 나와 홀로 길을 떠났다. ^{평강 공주의 성격 ② - 주체적·의지적임} 길에서 한 ^{온달과 생활할 때 필요한 살림 밑천} 사람을 만나 온달의 집을 물어보았다. 이윽고 그 집에 이르러 눈먼 늙은 어머니를 보고 가까이 다가 ^{홀로 궁궐을 나와 온달의 집을 찾아가} 인사하고 아들이 어디 있는가를 여쭙었다. 늙은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내 ^{온달} 아이는 가난하고 비루하여 ^{평강 공주} 귀한 분이 가까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뉘를 맡아 보니 ^{사리 분별을 하는 노모의 성품이 드러남} 향내가 특이하고 그대의 손을 만져 보니 매끄럽기가 솜과 같으니, 필시 천하의 귀인일 것입니다. 누구의 속임수에 빠져 이곳까지 왔습니까? 내 아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산림 속으로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러 간 지가 오래인데도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주가 집을 나와 걸어서 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 온달이 느릅나무 껍질을 메고 오는 것을 보았다. 공주가 그에게 자기 생각을 말하였다. 온달은 발끈해 말하기를 “이곳은 어린 여자가 다니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니 반드시 사람이 아니라 여우나 귀신이라.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온달의 성격 ② - 고지식함} 마침내 돌아보지도 않고 가 버렸다. 공주는 혼자 돌아와 사림문 밖에서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아침 다시 들어가 온달 모자에게 자세하게 갖추어 이야기하였다. 온달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우리 아이는 지극히 비루하여 귀인의 배필이 되기에 부족하고, 우리 집은 지극히 가난하여 진실로 귀인이 살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공주가 대답하였다.

『옛사람의 말에 ‘한 말의 곡식이라도 방아 찧을 수 있으며, 한 척의 베라도 바느질할 수 있다’고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말로 가난해도 마음만 맞으면 함께할 수 있다는 말. 평강 공주의 인물이 드러남
 했으니, 진실로 마음을 같이한다면 어찌 반드시 부귀한 다음에랴야 함께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윽고 금팔찌를 팔아 밭과 집과 노비와 소와 말과 그릇을 사서 살림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었다.』 처음 말을 살 때 공주가 온달에게 일러 말하기를 『삼가 시장 사람의 말을 사지 마시고, 모름
「 」: 공주의 남편이 된 온달 - 당대인들의 바람이 투영됨 『평강 공주의 성격 ③ - 지혜로움
지기 국마(國馬) 가운데 병들고 파리해져 쫓겨난 말을 골라 사십시오.』라고 하였다.』 온달이 그 말
「 」: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말을 선택함. 『온달의 성격 ③
 대로 하였다. 공주가 매우 부지런히 먹이고 기르니, 말이 날로 살찌고 늠름해졌다.

- 수용적임
고구려에서는 항상 봄철 3월 3일이면 낙랑의 언덕에 모여 사냥해서, 그때 잡은 돼지와 사슴으로
고구려의 제천 행사
하늘과 산천의 귀신에게 제사하였다. 그날이 되어 왕이 사냥을 나가매, 여러 신하와 5부의 병사들
 이 모두 따라갔다. 이에 온달도 그동안 기른 말을 타고 행차를 따라갔는데, 그의 말 달리는 것이
 늘 다른 사람보다 앞섰고, 잡은 짐승도 역시 많아서 견줄 사람이 없었다. 왕이 불러오게 하여 성
 명을 묻더니, 놀랍고도 기이한 일이라고 여겼다.

그즈음 후주(後周)의 무제(武帝)가 군사를 내 요동에 쳐들어오자,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배산
「 」: 뛰어난 능력을 지니게 된 온달 - 당대인들은 지혜로운 아내의 역할을 인식함.
 (拜山)의 들에서 막아 싸웠다. 『온달이 선봉이 되어 날래게 싸워 수십여 명의 목을 베니, 여러 부
 대가 승세를 타고 맹렬히 싸워 크게 이겼다. 공로를 논할 때 온달을 제일로 치지 않는 이가 없었
 다.』 이에 왕이 가장히 여겨 찬탄하면서 “이야말로 내 사위로다!” 하고 예를 갖추어 맞이했으며,
이길 기세 『고구려의 벼슬 이름
작하고 기특하게
 작위를 내려 대형(大兄)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총애와 영예가 더욱 높아지고 위세와 권위가 날로
벼슬과 지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융성해졌다.

양강왕(陽岡王)이 즉위하자 온달이 아뢰기를 “생각건대 신라가 우리 한수 이북의 땅을 베어 가
 서 군·현으로 삼으니 백성들이 통분하고 한스럽게 여겨 한 번도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사옵
고구려
 니다. 원하오니 대왕께서는 저를 어리석고 어질지 못하다 하지 마시고 군사를 내주시어 한번 쳐들
 어가 반드시 우리 땅을 되돌려오게 하소서.”라고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출정에 임해 맹세하기를
 “계립현(鷄立峴)과 죽령(竹嶺) 이서 지역을 우리에게 되돌려오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으리라.”
온달의 성격 ④ - 의지적임
 라고 하였다.

마침내 떠나가 아단성(阿旦城) 아래에서 신라군과 싸웠으나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넘어져 죽고
서울 아자산에 있는 산성 『미천한 신분을 극복하고 고구려를 위해 싸우다가 전사하는 온달의 모습
 말았다.

장사를 치르고자 해도 관이 여간해서 움직이지 않았다. 공주가 와 관을 어루만지면서 “죽고 사
비현실적 요소 - 온달의 추서성과 장수로서의 기개를 엿볼 수 있음
 는 것이 정해졌으니, 아아! 돌아가십시오.”라고 해서야 마침내 들어서 하관하였다. 대왕이 듣고 비
살과 죽음에 대한 당대인의 의식이 드러남 『평강 공주의 위로에 관이 움직임 - 두 사람의 사랑이 매우 깊었음을 나타냄
 통해하였다.



핵심 정리

갈래	설화, 전
성격	역사적, 영웅적
주제	온달의 입신양명과 평강 공주의 주체적 삶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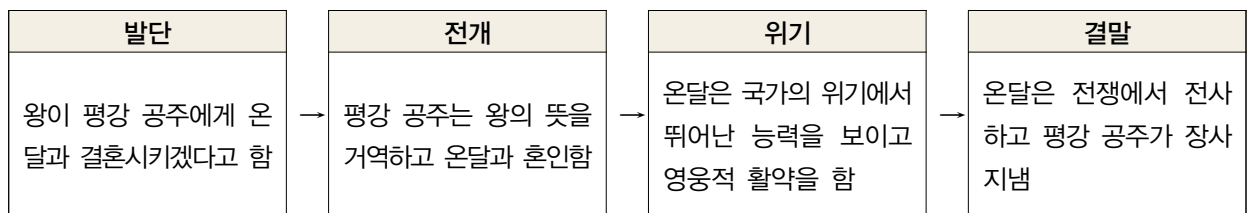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삼국사기』 열전에 실려 있는 설화로, 실존 인물이었던 온달 장군의 이야기가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가를 보여 준다. 이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평민의 신분으로 한 나라의 장수가 되어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온달의 영웅적 면모이고, 다른 하나는 부당한 권위를 거부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평강 공주의 주체적 삶의 태도이다. 이와 같은 이원적인 주제를 통해 독자들의 공감과 흥미를 자극하고 있다.

전체 줄거리

고구려 평강왕의 딸인 평강 공주는 어릴 때 아버지의 놀림대로 ‘바보 온달’을 찾아가 결혼을 한다. 평강 공주는 자신의 패물을 팔아 살림을 갖추고 온달을 훌륭한 장수로 만든다. 이후 나라의 큰 사냥 대회에서 두 각을 나타낸 온달은 평강왕의 눈에 띄고, 사위로 인정을 받는다. 온달은 전투에서 공을 세워 위엄과 권세가 성하였지만, 신라군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전투에 나갔다가 전사한다.

작품의 구조





용고집전(雍固執傳) / 작자 미상

수능특강 P. 158

이문조국어연구소



실용가 성을 내어 호령하며 왈,

진짜 용고집

“네가 나의 형제 유여함을 듣고 재물을 탈취하려고 돌입내정하였으니, 강쇠야 이놈 잡아내라.”

여유가 있음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집 안으로 불쑥 들어감

종놈들 대답하고 달려드니 **허용가** 나았으며 호령 왈,

가짜 용고집

“강쇠야 저놈 잡아내라.”

노복들이 어이없어 이도 보고 저도 보니 이 웅 저 웅이 같은지라. 양 웅이 상투하니 흰 구름 같은 곳 **백운심처**

처사 찾기는 쉬울지라. 용고집 백주당상 차방중에 우리 **택 좌수님**은 찾을 가망 전혀 없어 묵묵부답하고

진짜 용고집을 찾는 일이 세상 밖에 나설지 않고 깊은 곳에 조용히 묻혀 있는 선비를 찾기보다 어려움을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말.

“일이 났소 일이 났소. 아씨님 일이 났소. 사랑에서 일이 났소. 우리 택 좌수님이 둘이 되었으니

실용가와 허용가가 구별되지 않아 둘이 된 것 같음

보는 바 처음이라. 가중의 이런 변이 세상에 또 있는가.”

마누라님 이 말 듣고 **대경실색**,

용고집의 아내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림

“애고애고 이게 웬 말이나. 너희 좌수님이 중을 보면 결박하고 악한 형벌 무수하고 불도를 능멸

하며 팔십 당년 늙은 모친 박대한 죄 없을쏘냐. 지신이 발동하고 부처님이 도술하여 하늘이 주신

용고집의 아내조차 진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함

죄를 인력으로 어이하리.” 「」 : 평소 용고집이 악행을 저질러 벌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함

춘단 어미 바빠 불러,

여자 종

“네가 나가 진위를 알아 오라.”

춘단 어미 바빠 나와 문틈으로 내다보니, “네가 웅가냐, 내가 웅가다.” 하며 서로 호령하니, 언
어 동정 이목구비 두 좌수 똑같으니 춘단 어미 하는 말이,

“수지오지자웅이라, 게 뭐라 알아볼까.”

‘누가 까마귀의 암수를 분간할 수 있겠는가.’라는 뜻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기가 어려움을 일컫는 말.

“마누라님, 소비는 알 수가 전혀 없소.”

마누라님 하는 말이,

“너희 택 좌수님은 새로 좌수하여 도포를 급히 다루다가 불뚱이 떨어져서 안자락이 타서 구무가
진짜 용고집을 찾아낼 중도 ① - 도포에 불뚱이 튀어 구멍이 났었음
있으니 글로 보아서 알아 오라.”

춘단 어미 또 나와 사랑문 열떠리고,

“알 일이 있사오니 도포를 보사이다. 안자락에 불뚱 **궁기** 있삽나이다.”

구멍

실용가 나았으며 도포 자락 펼쳐 보니 분명할새 우리 택 좌수님이라. 허용가 나았으며,

조선시대에 대도시에서 밤에 사람이 거리에 다니는 것을 금하기 위해 밤마다 이경에 쇠북을 치던 일

“에라 이년 요망한 년 가소롭다. 남산 봉화 들 제 인경 치고 사대문 열 제 **순라꾼**이 제격일다.

수라꾼. 야경을 돌던 포졸

그만 표는 나도 있다.”

실용가와 허용가 모두 도포에 불뚱이 튄 구멍이 있음

안자락을 펼쳐 보니 그도 또한 **불구무라**. 알 길이 전혀 없어 답답한 거동 보소.

불구멍

“애고애고 마누라님 나가 보옵소서. 소비는 알 수 없소.”

마누라님 이 말 듣고 변색하여 하는 말이,



“우리 둘이 만날 적에 여필중부 본을 받아 서산에 지는 해를 긴 노로 잡아매고, 살아서 이별 말고 죽어도 한날 죽자 천지로 맹서하고 일월로 증언터니, 의외에 변이 있으니 꿈이나 생시냐. 이 일이 웬일인가. 도덕 높은 공부자도 양호의 얼을 입었다가 도로 놓여 성인 되었으니, 자고로 성인 네도 일시 곤액 있거니와, 우리 집에 이런 변이 또 있을까. 내 행실 가지기를 송백같이 굳은 마음 두 낭군이 무삼일꼬.”

이같이 자탄할 때 머늘아기 여쭙오되,

“집안에 변을 보매 무슨 체모 있으리까.”

사랑문을 열고 들어가니 허웅가 나왔으며,

“아가, 자세히 들어 보아라. 창원 마산포서 너희 신행하여 올 때 기마 십여 필에 온갖 기물 실어 두고, 나는 후배하여 따라올 제 상사마 한 필 뒤등 걸어 실은 것이 모두 다 파삭파삭 절단 나서 놋동이 한복판이 떨어져서 쓰지 못하고 벽장에 넣었으니, 그도 또한 헛말이나. 너의 애비는 내로다.”

실웅가 나왔으며,

“애고 저놈 보소. 내가 할 말 제가 하네. 애고애고 이 일을 어찌하리. 새아가, 내 얼굴 자세히 보아라. 네 시아버지는 내 아니냐.”

머느리 여쭙오되,

“우리 아버님은 두상에 금이 있고 금 가운데 백발이 있사오니 이 표를 보사이다.”

실웅가 나왔으며 머리를 풀고 표를 보니, 이 대가리 땀땀하여 송곳으로 찢어도 물 한 점 아니 날레라. 허웅가 나왔으며 요술 부려 흰 털을 빼어다가 저의 머리 붙이니, 실웅가의 표는 쓸데없고 허웅가의 표가 분명하다.

“머늘아가, 내 머리 자세히 보아라.”

하니, 머느리 나왔으며,

“예, 우리 시아버님이요.”

하니, 실웅가 갓은 복통하여 머리를 와득와득 두드리며,

“애고애고 허웅가는 제 애비 삼고 실웅가는 구박하네. 기막혀 나 죽겠네. 내 마음 설운 원정 널 다려 하여 볼까.”

사또 분부하되,

“양 웅을 각기 잘 살펴보아라.”

하고, 육방 하인이며 내빈 행객 모두 살피되 전혀 알 수 없는지라. 형방이 아뢰되,

“두 백성의 호적을 상고하여지이다.”

허허 그 말을 옳다 하고 호적색을 불러 양 웅의 호적을 강(講) 받을 제 실웅가 나왔으며 아뢰되,



“민의 애비 이름은 웅송이 읍고 조는 만송이로소이다.”

사또 왈,

“그놈 호적은 웅송만송하다. 알 수 없으니 저 백성 아뢰어라.”

허웅가 아뢰되,

「자아골 김동네 좌정 시에 민의 애비가 좌수를 거행하올 때에 백성을 애휼한 공으로 하여금 연호잡역을 삭감하였기로 경내 유명하오니, 웅돌면 제일호 유학에 웅고집이라. 고집의 연이 삼십칠이요, 부 학생에 웅송이오니 절충장군하옵고, 조는 상이오나 오위장하옵고, 고조는 맹송이요, 본은 해주오며, 처는 최씨요, 본은 진주요, 술자의 골이오니, 연이 십구 무인생이요 천비 소생이 돌쇠오니, 또 민의 세간을 아뢰리다. 곡식 두태 합하여 이천백 석이요, 마구에 기마가 여섯 필이요, 암돌 숫돌 합 이십 수요, 암탉 장닭 합 육십 수요 기명 등 안성 방자 유기 열 벌이요, 앞단이 반단이며 이층장 화류문갑 용장 봉장 가게수리 산수 병풍 연화병 다 있사옵고, 모란 그린 병풍 한 벌은 민의 자식 신흠 시에 매화 그린 폭이 꺼어져 고치려 하고 다락에 따로 었어 두었사오니 글로도 아옵시고,」

「허웅가가 실용가보다 자신의 본가와 집안의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음 (중략)

진 신 마른 신이 석 죽이요, 쌍코줄 변자 여섯 결레온 중 한 결레는 이달 초사흘 밤에 쥐가 코를 새겨 신지 못하와 안벽장에 넣었으니, 일로도 염문하와 하나도 틀리거든 장하에 죽사와도 변백무로오니, 저놈이 민의 세간 이렇듯이 유여함을 듣고 욕심을 내어 송정을 요란케 하오니, 저렇듯 무도한 놈을 처치하여 후인을 경계하옵소서.”

사또 듣기를 다하매 왈,

“그 손이 참 웅 좌수라. 술 권하여라.”

가짜 웅고집의 말을 듣고 진짜 웅고집이 진짜라고 판단한 말임
하고, 당상에 올려 앉히고 기생을 부르니 일색 기생 술을 들고 권주가 화답하되,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 술 한 잔 잡수시오. 이 술 한 잔 잡수시면 천만년이나 살으시리라. 이 술은 술이 아니라 한 무제 승로반에 이슬 받은 것이오니 쓰나 다나 잡수시오.”

하늘에서 내리는 장생불사의 강로수를 받아먹기 위하여 만들었다는 갠반 「4-4조 4음보의 운율로 리듬을 형성함. 판소리계 소설에서 자주 등장.」
웅 좌수 흥을 내어 술잔을 받아 들고 하는 말이,

“하마터면 아간 세간을 저놈에게 빼앗기고 이런 일등 미색의 이렇듯 맛난 술을 못 먹을 뻔하였다. 그러나 성주 덕택에 흑백을 가려 주웁시니 은혜 백골난망이로소이다. 한 차례 민의 집에 나오시오. 막걸리 한잔 대접하오리다.”

가짜 웅고집의 인생향을 엿볼 수 있음
“그는 염려 맡게. 처치하여 줌세.”

실용가를 불러 분부하되,

“네가 흥측한 놈으로 음흉한 뜻을 두고 남의 세간 탈취하려 하니, 네 죄상은 마땅히 의율 정배할 것이로되 고의 안세하니 바빠 어서 물리치라.”



대곤 삼십 도를 맹치하여 엄문 죄목 하되,
 죄인의 불기를 지던 형벌 죄를 엄히 물음
 “인제도 웅가라 하겠느냐.”

실웅이 생각하되 만일 웅가라 하다가는 곤장 밑에 죽을 듯하니,

“예, 웅가 아니오. 처분대로 하옵소서.”
 맞아 죽지 않기 위해 할 수 없이 자신을 가짜 웅고집이라고 인정함(자포자기의 심정)

핵심 정리

갈래	판소리계 소설, 풍자 소설, 송사 소설
성격	해학적, 풍자적, 해학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인간의 참된 도리에 대한 교훈, 개과천선(改過遷善)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설화를 바탕으로 한 판소리계 소설로, 동냥 온 중을 팔시해서 화를 입게 되는 「장자못 이야기」처럼 부자이면서 인색하고 성질 나쁜 주인공이 도술로 인해 혼이 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가짜가 나타나 진짜를 몰아낸다는 점에서 「쥐 둔갑 설화」와도 관련이 깊다. 주인공 웅고집은 조선 후기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물질적 욕망만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다가 기본적 윤리를 저버린 패륜적 인물에 해당한다. 마지막 부분에서 웅고집이 고생을 겪고 착한 인물로 변화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인물의 교화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 줄거리

웅진골 웅당촌에 살고 있는 웅고집이라는 이는 성질이 고약하고 인색하여 팔십 노모를 돌보지 않고 승려와 거지를 무시하는 등 악행을 일삼는다. 월출봉 비치암의 학 대사가 웅고집을 찾아갔다가 하인에게 매만 맞고 돌아오자, 도승이 허수아비를 만들어 부적을 붙이니 가짜 웅고집이 생겨난다. 이후 가짜 웅고집(허웅가)은 진짜 웅고집(실웅가)의 집에 가서 서로 진짜임을 다투게 된다. 웅고집의 가족들이 누가 진짜인지를 판별하지 못해 관가에 가서 진가를 겨루는데, 허웅가가 실웅가보다 족보를 자세히 알아 진짜로 인정받는다. 실웅가는 온갖 고생을 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며 죽으려 하니, 도승이 나타나 부적을 주어 집으로 돌아가라 한다. 실웅가가 집에 돌아가 부적을 던지니 허웅가는 허수아비로 변하고, 실웅가는 착한 마음을 지닌 새사람이 되기로 한다.



유연전(柳淵傳) / 이항복

수능특강 P. 270

이목조국어연구소



[앞부분의 전체 줄거리] 유연은 현감 예원의 셋째 아들로 형 유유와 함께 글을 잘 짓고 예법이 밝기로 이름이 났다. 그런데 형이 산사에서 독서를 하다가 행방불명되었다. 5년이 지나 예원이 죽자, 재산을 탐내던 자형 이지(李祿)가 유연이 유유의 아내 백씨와 결탁하여 유유를 죽였다고 모함하였다. ^{손위 누이의 남편. 손위 매부(妹夫). 매형} 유연은 해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

^{유연은 형을 죽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

연은 이미 죽었으나 나라의 여론은 끝나지 않았으니, ^{조선 시대에, 사헌부(司憲府)에 속한 정사를 벼슬} 장령 정엄이 경연에서 그 억울함을 논하였다. 이에 영의정 ^{유연 사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됨} 홍섬이 또한 말하기를 “예전에 신이 연의 옥사를 국문하는 자리에 참여했었는데 마음속으로는 원한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면서도 능히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청하옵건대 다시 실상을 조사하도록 명을 내려 주십시오.” 했으나, 일이 마침내 행해지지 못하였다.

그 16년 뒤인 기묘년 겨울에 수찬 ^{조선 시대에, 임금이 학문이나 기술을 가르치며마하고 더불어 신하들과 국정을 협의하던 일.} 윤선각(지금은 윤국형이라고 개명했다.)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유연 사건이 돌러나옴} “^{유연} 유연이 ^{유유} 유유를 죽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는데, ^{유연이 흐른 뒤 다시 유연 사건이 돌러나옴} 지난 경신년에 신이 순안현에서 걸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조선 시대에, 임금이 학문이나 기술을 가르치며마하고 더불어 신하들과 국정을 협의하던 일.} 천유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글에 능하여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린이들을 가르쳐서 입에 풀칠을 한다고 했습니다. 신이 그와 함께 여러 달 같은 절에 있었는데, ^{유연이 흐른 뒤 다시 유연 사건이 돌러나옴} 자못 영남 지방의 산천과 선비들의 이름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천유용이 걸인임에도 불구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임을 나타냄 - 천유용을 유유로 보는 근거 ①} 또 스스로 말하기를 ‘기유년 중에 영천에서 보인 시험에서 나그네 자격으로 시험에 응시했기 때문에 합격이 취소되었다고 했습니다. 신이 물어 보기를 ‘이렇다면 분명 남쪽의 선비일 것이니 무슨 연고로 여기에 왔소?’ 했더니 그 사람이 묵묵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신이 고향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자, 박장춘이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가 분명히 유유로다! 그때 나도 함께 낙방이 되었었다.’라고 했습니다.” ^{유연이 흐른 뒤 다시 유연 사건이 돌러나옴} 「 」 : 박장춘이 유유와 시험을 보았다가 함께 낙방한 적이 있음 - 천유용을 유유로 보는 근거 ②

그 뒤 갑자년에 신이 개천군 산 절에 있을 때에 천유용의 편지가 왔는데, 연이 대구에서 유를 죽여서 자복을 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이 계속 들렸다고 했습니다. 신이 놀라서 사사로이 말하기를 ‘나는 천유용의 편지에서 보았을 뿐이다. ^{유연이 흐른 뒤 다시 유연 사건이 돌러나옴} 이가 만약 진짜 유라면 서쪽으로부터 남으로 와서 동생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그간의 날짜가 얼마인지 모르겠도다! 어찌 이 같은 것이 근거가 되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유연이 흐른 뒤 다시 유연 사건이 돌러나옴} 이로부터 신이 늘 서쪽에서 오는 사람을 보면 천유용이 실제 살던 인물인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신이 궁구하여 물어본 바로는 과연 유라고 생각합니다. 죽히 연의 원한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에 법부에서는 그를 잡아들였다.

연이 죽은 뒤로부터 ^{죽은 유연의 아내} 이 씨는 기운을 못 차리고 궁벽한 마을에 숨어 살면서 매일 새벽마다 향을 피우고 하늘에 남편의 원한을 풀어 주십사고 빌었다. ^{아내의 꿈에 나타난 유연이 형 유유가 나타날 것을 암시함} 하루는 꿈에 연이 홀연히 와서 고하기를 “우리 형이 왔는데, 당신 또한 모르느냐?”라고 했다.

이 씨가 잠에서 깨어 울면서 말하기를 “아! 혼령이여! 그 징표를 주소서!” 하며 향을 피우고 하늘에 빌기를 처음처럼 했다.

다음 날 저녁에 천유용이 법부에 나아가니 이 씨가 듣고 곧 법부에 고소하기를 “연이 사람을 죽



였으며 식과 재물을 다투었다는 억지는 잘못 적용된 법입니다. 그 미망인 제가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늘에 부르짖어 그 억울함을 풀려고 했으나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진짜 유유가 나타났다고 하니 삼가 연이 죽음에 임하여 남긴 말을 올립니다.” 했다.

『유가 이르러 말하기를 “신은 천유용이 아니고, 진실로 유유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의 이력과 친족들, 하인들과 평소에 사귀어 사람들을 빠짐없이 모두 말하면서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이 유를 의심할 것이 없었다.』 집을 나간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러한즉 말하기를 “혼인을 하고 3년이 되어서도 아직도 아들이 없으니 아버지께서는 가업 잇는 것이 박복하다 하시면서 슬하에 자식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니, 이로 인하여 서쪽 지방에 들어가서 떠돌았기 때문에 끝내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했다.

핵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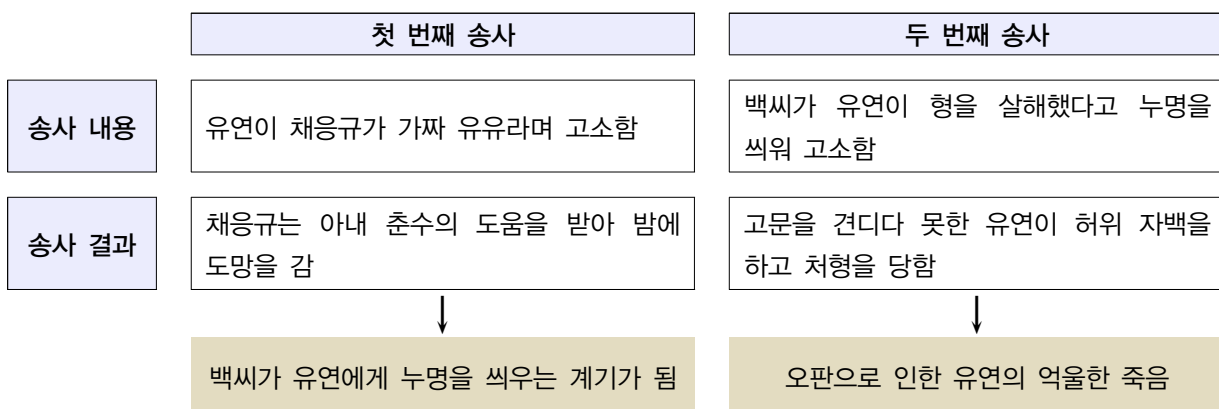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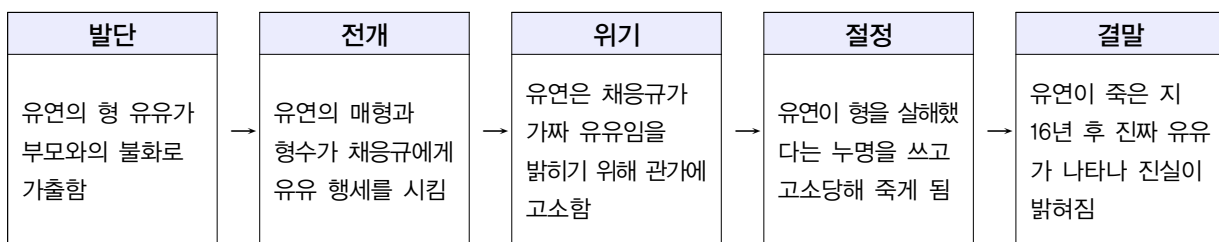
갈래	송사 소설
성격	사실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유연의 억울한 죽음과 누명을 벗는 과정
특징	① 실제 송사 사건을 소재로 취하여 사실성을 획득함. ② 장면 중심의 극적 제시로 현장감과 생동감을 부여함. ③ 실제 조서 내용을 삽입하여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형을 죽였다는 모함으로 송사를 당하고 죽은 유연의 억울한 죽음을 왕의 명으로 이항복이 기록한 글이다. 이 사건은 1607년(선조 40년)에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다.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음모와 그에 따른 사건이 치밀하게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관리의 부정까지 겹쳐 여러 번의 송사가 이루어지고 결국 유연은 누명을 벗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사실을 기록한 글이지만 사건이 복잡하고 치밀하여 소설과 같은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전체 줄거리

유연은 형 유유와 함께 글 잘 짓고 예법이 밝기로 이름이 났다. 그런데 형이 산사에서 독서를 하다가 행방 불명되었다. 아버지 예원이 죽자 재산을 탐내던 자형 이지과 사촌 매부 심용이 가짜 형을 데려와 진짜 유유라고 하다가 발각이 되었다. 그러자 유연이 유유의 아내인 백 씨와 결탁하여 유유를 죽였다고 모함하였다. 유연은 이를 해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 유연의 처 이 씨는 죽은 남편의 누명을 벗기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이때 진짜 유유가 나타나면서 모함한 사람들의 죄상이 드러난다. 이러한 사실이 조정에게까지 알려져 유연은 누명을 벗고 죄인들은 벌을 받는다.

작품의 구조



평양 성내 걸인 되어 이 집 저 집 빌자 하니, 노소인민(老少人民) 아동주졸(兒童走卒) 이놈 저
 놈 꾸짖으니 걸식도 못 하리라. 어디로 가잔 말가.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추월 앞에 나가 앉아 간
 음식 따위를 빌어먹음
 절히 비는 말이,

“추월아 추월아. 내 말 잠깐 들어 보라. 우리 조선이 인정지국(人情之國)이어든 어찌 그리 박절
 4음보의 울겨 - 파소리게 소설의 특징
 관청이나 회사, 가게 따위에서 간신히 부름을 시키기 위하여 고통한 사람
 한가. 날 살리게. 내가 자네 집에 도로 있어 물이나 길고 불 자환이나 하고 있으면 어떠할꼬.”

추월이 거동 보소. 눈을 흘겨보면서,

“여보소, 이 사람아. 자네가 전 행실을 못 고치고 ‘하네’ 소리 하려면 내 집 다시 오지 마소.”

이렇듯이 구박하니, 춘풍이 하릴없이 ‘아가씨’ 말이 절로 나고 존대가 절로 난다.

“춘풍이 이날부터 추월의 집 사환하는 일, 생불여사(生不如死)라 가련하다. 누더기 차림으로 이
 리저리 다닐 적에 거동 볼작시면 종로의 상거지라. 조석(朝夕) 먹는 거동 보면, 이 빠진 현 사발
 에 눌은밥에 토장 덩이 제격이라 수저도 없이 뜯아래나 부엌에서 먹는 거동, 제 신세 스스로 생각
 하니 목이 메어 못 먹겠네.”

주야로 한량들은 청산에 구름 모이듯 수록재(水陸齋)에 노승 모이듯, 개성부에 장사 모이듯,
 추월의 집으로 모여 와서 온갖 희롱 다 하면서, 좋은 술, 별 안주에 배반(杯盤)이 낭자하며 청가
 일곡(淸歌一曲) 화답하여 한창 이리 노닐 적에 이때 춘풍의 거동 보소. 뜯아래서 방 안을 엿보니
 눈에는 풍년이요, 입에는 흉년이라. 제 신세를 생각하고 노래하되,

“세상사 가소롭다. 나도 경성 장부로 왈자 벗님 취담(醉談)하여 청루미색 가무 중에 수만금을
 허비하고,」 또 왜 시골 내려와서 주인을 작첩하여 불원상리(不願相離) 하겠더니 이 지경이 되었으
 니 세상사 가소롭다.”

이때는 엮동이라 일락서산하고 바람은 술술하고 월색은 조용한데,

“울고 가는 저 기러기야, 내 전정을 들어 보고 내 고향에 전하여라. 우리 처자 그리워라. 나를
 그려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리저리 생각하니 대장부 일춘간장 봄눈 슬 듯하는구나. 그런 정 저런
 정 다 버리고 전에 하던 가사나 하여 보세.”

매화타령을 한다.

“매화야 옛 등걸에 봄철이 돌아온다. 뽕죽도 하다마는 백설이 분분하니 필지 말지, 어화 세상사
 가소롭다.”

이때 추월의 방에 놀던 한량들이 노래를 듣고 의심하니 추월이 무색하여 하는 말이,

“내 집의 사환하는 놈인, 서울 이춘풍이라 하는 놈이 소리를 하니 신청치 마소서.”

한량들이 이 말 듣고 하는 말이,



“서울 산다 하니 불쌍하다.”

이춘풍의 처지에 연민을 보임

하고 술 한 잔 가득 부어 주니, 춘풍이 갈지우갈(渴之又渴)하여 받아먹으니 가련하더라.

갈증이 난 듯 거듭 받아 마시니

이춘풍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

각설, 이때 춘풍의 처, 가장을 이별하고 백 가지로 생각하며 주야로 탄식하는 말이,

사건 전후의 표지

이춘풍의 아내

이춘풍

“멀고 먼 큰 장사에 소망 얻어 평안히 돌아오기 천만 축수 기다리오.”

평양으로 장사를 하러 떠난 춘풍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림

하되 춘풍이 아니 오고, 풍편에 오는 말이 서울 사는 이춘풍이 평양 장사 내려가서 추월을 작첩하여 호강으로 노닐다가, 바람결 수만금 재물 다 없애고 추월에게 구박 맞아 사환한단 말을 듣고,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하는 말이,

이춘풍의 소식을 전해 들음

“애고애고 이 말이 웬 말이고. 슬프다 이내 가장 나와 같이 만났건만, 어이 그리 허랑하고. 청루

상환 따위가 허황함

미색에 한 번 치패(致敗)도 어렵거든 만리타향에 막중국전(莫重國錢)을 대돈변으로 내어 가지고,

살림이 아주 결단남

중대한 자금 - 장사를 하겠다며 이춘풍이 로조에서 빌린 돈

비싼 이자료 돈을 빌림

또 낭패하단 말인가. 애고 답답스런지고, 뉘를 바라고 산단 말인가. 전생에 무슨 죄로 여자가 되

과거에도 춘풍이 재산을 탕진하여 아내의 도움으로 가산을 회복하였음

어 나서 가장 한번 잘못 만나 평생 고생하는구나. 이내 팔자 이렇도록 되었는가. 어찌하여 살잔 말인가. 박명한 이내 팔자 도망하기 어렵도다. 중남산 다다라서 물명주 질긴 수건 한 끝은 나무에 매고 한 끝은 목에 매어 죽고지고. 여자가 되어 나서 이런 팔자 또 있는가. 염마국 십전대왕 아귀 사자 빨리 보내어 내 목숨을 잡아가오.” 「 」: 못난 지아비를 만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춘풍의 처

이를 갈며 하는 말이,

“평양을 찾아가서 추월의 집 찾아 불문곡직(不問曲直) 달려들어 추월의 머리채를 잡아쥐고, 춘풍에게 달려들어 허리띠에 목을 매어 죽으리라.”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함

악을 내어 울다가 도로 풀쳐 생각하되,

이춘풍

“이리도 못 하리라 어이하야 살잔 말인가. 내 가장을 경성으로 데려다가 살릴지라도 어찌하리요.

「 」: 이춘풍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내가 모은 재산을 탕진하였음

아무리 생각하여도 할 수가 전혀 없다. 『소년에 꽤가하여 일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야로 품을

재산을 다 써 버려 집안을 망침

팔아 전곡 빛을 갚은 후에 의식 걱정 아니 하고 우리 양주 백년화락하겠더니.』 원수로다, 평양 장사 원수로다.”

화평하고 즐거움

『이렇듯이 지내는데 뒷집의 참판 댁이 있어, 노대감은 돌아가고 만자제 문장으로 소년 급제하여

갓은 청환(淸宦) 다 지내고 참판으로 근년에 평양 감사 부망(副望)으로 불구에 평양 감사 한단

학식·문벌이 높은 사람에게 시키던 규장각·홍문관·선전 관청 등의 벼슬

벼슬자리에 종전된 새 사람의 후보자 가운데 둘째가는 사람

말 듣고 춘풍의 처 계교를 생각터니, 그 댁이 빈한하여 국록을 타서 수다식구 사는 중에, 그 대부

살림이 가난하여 집안이 쓸쓸함 나라에서 주는 녹물

인 있단 말을 듣고 침재 품을 얻으려고 그 댁에 들어가니, 후원 별당 깊은 곳에 참판의 대부인이

평상에 누워 행세 가난기로 식사도 부실하고 초췌하다. 춘풍 아내 생각하되, 이 댁에 부치어서 가

장을 살려 내고 추월을 설치하여 보리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침재 품을 힘써 팔아 얻은 돈냥 다

부끄러움을 씻음

바느질하는 재주나 솜씨

들여서 참판 댁 대부인 조석 진지 차려 가니, 부인이 의외에 때마다 받아먹고 감지덕지하여 생각

하되, ‘이 깊은 은혜를 어찌할꼬.’ 「 」: 뒷집의 참판 댁에 바느질 품을 팔러 다니면서 기회를 얻으려는 춘풍의 아내



주야로 근심하더니, 하루는 춘풍의 처더러 이르는 말이,
 “네가 형세도 어렵고 침재 품으로 살아간다 하는데, 날마다 차담상을 지어 오니 먹기는 좋다마
 는, 도리어 불안하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내놓은 다과(茶菓) 따위를 차린 상

「 」: 춘풍의 처를 걱정하는 참판 대 부인

춘풍 아내 여쭙오되,
 “소녀 집에 음식 있어 혼자 먹기 어렵삽기로, 마나님 잡수실까 하와 드린 것이옵나니 황송하여
 이다.”

대부인이 이 말 듣고 매일 사랑하고 기특히 여겨 못내 생각하더라.

이춘풍의 아내가 판서대 대부인의 신마를 얻음

하루는 참판 영감 문안하고 여쭙오되,

“요사이 무슨 좋은 일이 계신지 화기(和氣) 만안하시니까?”

온화한 기색, 화목한 분위기 얼굴에 가득함

대부인 말씀하되,

“앞집의 춘풍의 처가 좋은 음식 차담상을 연일 차려 오니 내 기운 절로 나고, 그 계집의 정성
 감격하다.”

참판 대 부인의 신마를 얻음

참판이 이 말 듣고, 춘풍의 처를 청하여 보고 치사하니 더욱 기특히 보고 매일 사랑하더라.

부인의 말을 들은 참판 영감이 춘풍의 처를 좋게 여길

천만의외에 참판 영감이 평양 감사를 하였구나. 희희낙락 즐길 적에, 춘풍의 처 대부인에게 온공
 히 여쭙오되,

온화하고 공손하게

“이번에 천은으로 평양 감사 하셨으니 이런 경사 없사이다.”

대부인이 말씀하되,

“나 평양 가려 하니, 너도 함께 내려가서 춘풍이도 찾아보고 구경이나 하는 것이 어떠하뇨?”

대부인이 이춘풍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

춘풍의 처 여쭙오되,

“소녀는 고사하고 오라비 있사오니, 비장 한몫 주시기 바라나이다.”

조선 시대에, 감사나 유수 등의 고위 관리를 따라다니며 일을 돕던 무관 벼슬

대부인이 이 말 듣고,

“네 청이야 아니 들을쏘냐?”

하고 감사께 통기(通寄)하니, 감사 허락하고,

기별을 보내어 알게 함

“제가 비장할 양이면 바빠 거행하라.”

하니, 춘풍의 처, 없는 오라비 있다 하고, 제가 손수 가려고 여자 의상 벗어 놓고 남자 의복 치
 장한다.

춘풍을 구하려 평양에 가기 위해 남장을 하고 대부인을 따르는 춘풍의 아내 -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모습을 보임

**핵심 정리**

갈래	고전 소설, 판소리계 소설, 풍자 소설
성격	해학적, 교훈적, 풍자적
주제	무능력한 가정에 대한 풍자와 적극적 여성상의 제시
특징	① 작자미상의 국문본 풍자소설임 ② 조선말의 몰락한 양반과 평민의 삶을 반영한 작품임 ③ 근대소설의 표현법인 사실적인 표현법을 사용했음 ④ 희극적 표현이 많음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작자와 창작 연대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고전소설이다. 한양과 평양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무능하고 이기적인 남편과 유능하고 적극적인 아내가 대비되며, 조선 후기의 부패한 사회상을 짐작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등장한다.

전체 줄거리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난 한양의 이춘풍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허황된 꿈과 낭비벽으로 부모가 남긴 가산을 탕진한다. 낙담한 춘풍은 아내에게 다시는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아내는 온갖 노력으로 다시 집안을 살려 낸다. 다시 교만해진 춘풍은 장사를 하러 간 평양에서 또다시 전 재산을 잃고, 기생 추월의 하인이 된다. 아내는 평양 감사의 도움을 받아 비장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남편의 잘못을 직접 다스리고 뉘우치게 하여 화목한 가정을 회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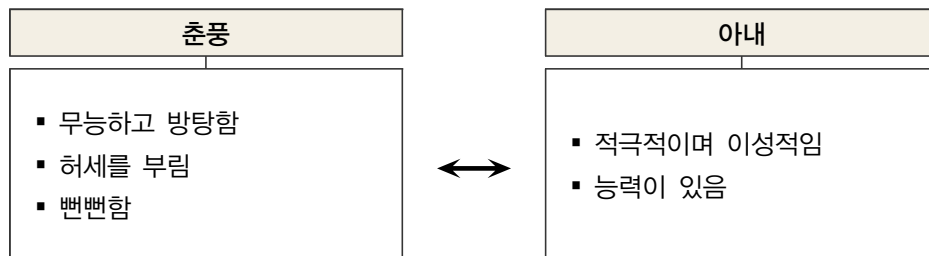
발단	주색잡기로 가산을 탕진한 이춘풍과 집안을 일으키는 춘풍의 처
전개	호조 돈을 빌려 평양 장사를 떠난 이춘풍이 평양에서 기생 추월에게 빠져 돈을 다 털림
위기	추월의 하인이 되어 고생하는 이춘풍과 남편을 구하기 위해 비장이 된 춘풍의 처
절정	춘풍과 추월을 잡아들여 형벌로 다스리고 추월에게 춘풍에게서 빼앗은 돈을 돌려주도록 한 춘풍의 처
결말	장사로 돈을 번 듯 아내에게 거드름을 피우는 춘풍을 혼내주는 춘풍의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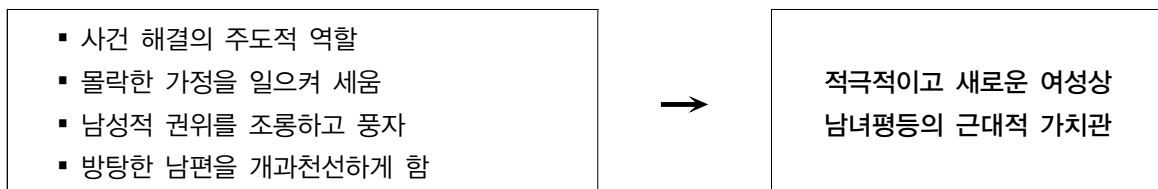
인물 분석

이춘풍	헌질한 풍채, 멀끔하고 미끈한 차림으로 기생 몇 명쯤은 문제가 아니다. 그리하여 부모가 물려준 돈은 물론 아내가 바느질을 하여 번 돈까지 모두 술과 여자와 노름으로 날려 버린다. 그것도 모자라 결국 호조(戶曹)에서 벌린 많은 돈을 기생과 어울리며 다 써 버리고 만다. 이러한 춘풍에게는 선비가 지켜야 할 도리나 윤리 의식이라고는 없다. 다만 위선과 허세에 가득 찬 모습만 보일 뿐이다.
기생 추월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여성으로 그려진다. 춘풍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온갖 교태를 부리며 홀리다가 수천 냥 돈을 탕진하고 나자 “청루 물정 몰랐던가. 평양 기생 추월 소문 못 들었던가. 자네가 가져온 돈냥 혼자 먹었던가.”라고 말하며 문 밖으로 내쫓아 버린다.
춘풍의 아내	모범적인 여인의 전형이다. 그러면서도 조선 시대 여인들은 실제로 하지 못하는, 상상에서나 가능한 일을 하는 여중호걸이다. 소극적이며 순종적인 여인이 아니라 남편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새로운 시대의 여인상인 것이다.

인물의 성격 비교



‘춘풍 아내’의 역할



작품에 반영된 조선 후기의 사회상

타락하고 무능력한 양반 계층의 모습	▪ 춘풍이 주색잡기에 빠져 가산을 탕진함
부패한 정치 풍토와 물질 중시 강조	▪ 박득만이라는 상인이 돈으로 벼슬을 사려하자 춘풍이 최 참판에게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장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의 모순과 새로운 여성상 등장	▪ 가산을 탕진하는 무능한 춘풍과 재산을 모으는 유능한 아내의 대조적 모습



임진록(壬辰錄) / 작자 미상

수능특강 P. 272

이목조국어연구소



덕령이 청정을 불러 왈,

김덕령. 임진왜란 때의 외벽자

“네 중시 나를 경히 여겨 물러가지 아니하면 명일 오시(午時)에 올 것이니 내 재주를 당하라.”

: 김덕령의 비범함과 활약상

이상하게 여겨

내일

하고 간데없거늘, 청정이 코이히 여겨 군중에 전령하되,

덕령이 갑자기 사라짐 - 덕령의 비범함(전기적 요소)

명령이나 통령, 고시 따위를 전하여 보냄

“명일에 그놈이 다시 올 것이니」 활과 총을 예비하였다가 일시에 쏘며 놓으라. 제 비록 천신이라

김덕령

「 : 김덕령의 경고를 듣고 청정은 내일 김덕령이 올 것임을 예견하고 있음

덕령의 비범함

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더니, 익일에 덕령이 자취 없이 진중에 들어가 외쳐 왈,

“너희가 오히려 물러가지 아니하니, 너희를 한칼로 주륙(誅戮)할 것이로되, 스스로 물러가게 함
 이라. 나의 신기한 재주를 보려 하거든 내가 명일 오시에 오리니 너희 군사의 머리에 흰 종이를
죄를 물어 죽임
 각각 붙이리라.”
덕령이 앞으로 기이한 재주를 부릴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음

하고 간데없거늘, 청정이 또 전령하되,

일본의 각수, 외부에서 온 적

“명일 오시에 그놈이 또 올 것이니 조총을 준비하였다가 혹 짐승이라도 진문(陣門)을 범하거든 일시에 놓으라.”

하고 군사의 머리에 각각 종이를 붙이고 기다리더니, 문득 산중으로 내려와 불러 왈,

“네 중시 나의 출입을 모르고 당돌히 물러가지 아니하는가.”

덕령의 자신감을 보여줌

하고 ‘풍(風)’자를 써 공중에 던지니, 문득 대풍이 일어나며 지척을 분별치 못하더니, 이윽고 천
 지 명량하며 바람이 그치는 곳에 만군의 머리에 붙인 종이 간데없는지라. 또 청정을 불러 왈,

덕령의 신이한 능력 - 대풍을 일으킴(전기적 요소)

“너희 돌아감을 달래어 이르되 마침내 깨닫지 못하매, 오늘날 나의 재주를 뵈나니, 적수단신(赤
 手單身)으로 만군의 머리에 종이를 일시에 거들 제 어찌 너희를 함몰치 못하리오마는 내 몸이 초
맨손과 홀몸이라는 뜻
 토에 있고 나라에 허신(許身)치 아니하였기로 너의 명을 보전함이라.”
결판을 내서 없앴(결판: 아주 망그러게 손 쓸 수 없는 상태)

자신의 몸을 내맡김

하고 ‘햇뭇을 만들어 혼백을 붙여 진중에 들여보내니, 일진 장졸의 눈에 띄는 것이 다 덕령이라.

사람의 형상. 초인(草人)

덕령의 신이한 능력 - 분신을 만들어 냄

저의 시석(矢石)에 서로 맞아 주검이 피 같고 피 흘러 내가 되니 남은 군사는 겨우 백여 기(驍)라.」

화살과 돌팔매(옛날에 전쟁에 썼음)

「 : 햇뭇에 혼백을 붙여 진중에 들여보내서 왜군들끼리 서로 덕령으로 오해하고 화살과 돌을 쏘아서 자멸하게 함으로써 왜적을 물리침
 (중략)

병조 참판 이옥이 주 왈,

김덕령이 전쟁 중에 몸을 감추고 일본과 내통하였다고 확실하는 인물

용감하고 사나움

“신이 듣자온즉 강원도 평강에 김덕령이란 자가 일대 용맹지사로 난시를 당하와 몸을 감추어 청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게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가진 사람

정의 진에 들어가 내웅이 되었다 하오니, 급히 잡아다가 그 뜻을 물으사이다.”」

내부에서 몰래 적과 동향

「 : 병조 참판은 김덕령이 일본과 내통한 것인지 밝히기 위해 김덕령을 잡아들일 것을 청하고 있음

한대, 상이 들으시고 진노하사 금부를 보내어 덕령을 잡아오라 하시다.

외금부 도사

이때, 김덕령이 청정을 조화로써 물리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의금부 도사가 나명(拿命)을 전하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음 정도로 신중하게 된 일. 또는 일을 꾸미는 개간
 거늘, 덕령이 급히 올새 철령에 다다라 도사더러 간청 왈,
불장아 오라는 명령

“친한 사람을 잠깐 보고 가자.”



한대, 도사가 불청이어늘, 덕령이 대로 왈,

“아무리 ^{청한 것을 들어주지 아니함} 어명인들 어찌 잠깐 사이를 사정(私情)이 없으리오.”

하며 소나무를 무수히 작별하니 도사가 실혼하여 아무 말도 못 하더니, 이윽고 한 사람이 공중으로
로부터 내려와 덕령의 손을 잡고 통곡하다가 공중에 올라 재주를 과시하고 땅에 내려와 앉으며 왈,

“덕령아, 내가 너더러 이런 환을 보리라 아니 일렀더냐. 이제 누구를 원(怨)하리오. 나는 이곳으로
로 쫓아 산중에 들어가 세상으로 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서로 손을 잡고 방성대곡한 후에 덕령이 그 사람을 이별하고 서울에 이르러 어전에 복지한대,
상이 진노하사 왈,

『“네 재주를 품고 난시를 당하여 몸을 감춤은 무슨 연고이며, 적진에 들어가 청정으로 삼일을 상
통함은 무슨 일인가.”』

덕령이 울며 왈,

『“소신이 오대독자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상중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음
나라를 돕지 못하옵고,』 『청정에게 왕래하옵기는 도적이 스스로 물러가게 함이로소이다.”』

상이 익노(益怒)하사 형벌을 무수히 하시되, 덕령이 조금도 두려워함이 없거늘, 상이 덕령의 죽
지 아니함을 분노하사,

“무수히 치라.”

하신대, 덕령이 아뢰대,

“소신이 형벌로는 죽지 아니하옵 것이니 ‘만고충신 김덕령’이라 하여, 현판에 새겨 후세에 유전케
하오면 신이 스스로 죽사오리다.”

하거늘, 상이 할 수 없어,

“덕령의 말대로 시행하라.”하시니, 그제야 덕령이 다리를 들어 비수로 비늘 하나를 떼고 ‘치라’하
니, 나장이 매를 들어 친즉 즉각에 죽으니라.

**핵심 정리**

갈래	고전 소설, 군담 소설, 전쟁 소설, 역사 소설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임진왜란에 관한 정신적 위안 및 민족의식 고취
특징	① 우리나라 군담 소설의 대표작 ②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허구적 상상을 덧붙여 민족의 굴욕을 정신적으로 보상하여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시킴 ③ 여러 인물의 일화를 순차적으로 엮은 단편집의 성격을 띠며 ④ 대체로 실존 인물이 등장하지만 역사적 사실이 그대로 서술되지 않고 조금씩 변용됨

작품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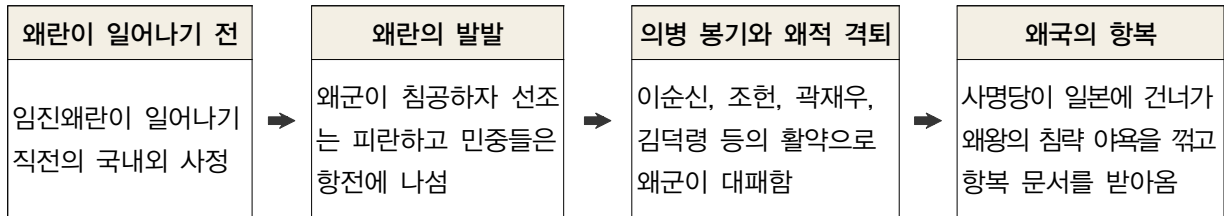
이 작품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역사 군담 소설로 왜적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를 구하려고 일어난 민족적 영웅들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임진왜란은 한산도 대첩, 행주대첩, 진주 대첩 등의 몇몇 싸움을 제외하면 우리 민족이 막대한 피해를 본 전쟁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우리가 대승을 거둔 것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허구의 세계에서나마 정신적 위안을 얻고 민족적 정기를 일으키려고 하였다. 임진왜란 당시의 체험이 민중 사이에서 단편적으로 구전되어 오다가 점차 허구적 내용으로 바뀌게 된 것은 민족적 영웅을 기대하는 민중의 소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줄거리

하루는 선조가 꿈을 꾸었는데 우의정 최일경이 왜군이 쳐들어올 징조라고 해몽한다. 태평성대에 요망한 말을 하였다고 동래로 귀양을 가게 된 최일경은 왜적의 침입을 목격하고 조정에 알린다. 왜장 청정, 소서, 수길 등이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자 이를 예측하고 거북선을 만들었던 이순신은 수군을 지휘하며 싸우다 전사한다. 그 와중에 선조는 간신히 의주로 피신한다. 왜군이 평양을 점령하자 왕은 유성룡을 명나라에 보내 원군을 요청한다. 한편 김덕령은 청정이 곤욕을 치르도록 하며 최일경은 김응서에게 소서의 첩이 된 기생 월선을 시켜 소서를 암살하도록 지시한다. 군대를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명나라에서 거절하자 「삼국지」의 관운장이 나타나 조선에 군사를 파견하게 하고 이여송을 도와 그가 청정의 목을 벨 수 있게 해 준다. 대장을 잃은 왜군은 대패하여 귀국하게 되는데 조정에서는 김응서와 강홍립을 대장으로 삼아 왜국의 항복 문서를 받게 한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13년 만에 왜군이 재침략하려 하자 사명당이 일본으로 건너가 항복 문서를 받아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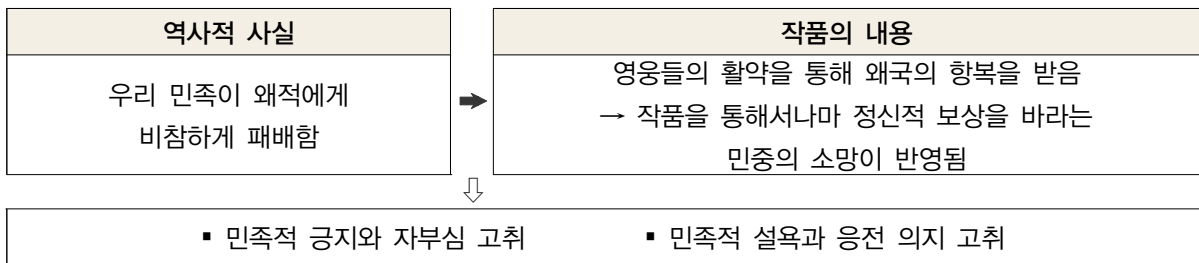


작품의 구조



작품의 창작 목적 · 주제 의식

- (1) 외적의 침입에 저항하고 민족을 수호하겠다는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함.
- (2) 당쟁의 허점을 드러내어 외적의 침략을 자초한 것에 대한 뉘우침을 표출함.
- (3) 역사적 사실의 허구화를 통해 쓰라린 패배에 대해 정신적인 보상을 받으려 함.



갈래로 엮어 읽기 - 역사 군담 소설

역사군담소설은 주로 외적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민족적 능력을 과시하여 전란을 겪으면서 피해를 입은 민족적 자존심을 고취하려는 의식과, 외침을 당하여 무능을 드러낸 집권층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쓰여진 「임진록」과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쓰여진 「임경업전」·「박씨전」이 있다. 「임경업전」은 병자호란 당시 활약한 임경업 장군의 전기를 소설화한 것으로서, 역사적 사실과는 달리 임경업의 영웅성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고, 「박씨전」은 추녀였던 이시백의 아내 박씨의 이인적 면모를 드러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역사의 실상과는 달리 임경업은 호왕이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명장으로서 호병을 물리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무능하여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잃고 간신배에게 희생되는 것으로 그려지며, 박씨는 호란 당시 도술로써 적장 용활대를 혼내준다.

임경업전 / 작자 미상

이 때는 정축 삼월이라. 열 읍(邑)을 지나 의주 경에 이르렀더라.



핵심 정리

갈래	한글 소설, 역사 소설, 전쟁 소설, 영웅 소설
성격	비극적, 민족적, 비판적
주제	민족적 영웅인 임경업의 일생을 통한 병자호란의 정신적 인 승리
특징	① 호국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간신에 대한 분노를 소설로 승화시킴 ② 실제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함 ③ 병자호란에 대한 정신적 승리감 ④ 명나라 중심의 가치관이 드러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실존 인물인 임경업을 민족의 영웅으로 그려 내어 허구적으로나마 병자호란으로 인한 치욕을 위로하고, 위축된 민족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는 군담 소설이다.

인물 분석

임경업	자조와 절개를 지키는 충신이며 민족적 영웅임
호왕	임경업과 적대 관계였다가 후에 우호적 관계로 전환됨
김자점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간신으로 충신인 임경업을 죽게 함

전체 줄거리

임경업은 25세에 무과에 급제한 후 사신 이시백을 따라 중국에 간다. 가달이 호국(胡國)을 침공하자 호왕(胡王)은 조선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 때 임경업이 청병대장으로 공을 세우게 된다. 점점 강성해진 호국은 함경도로 돌아 조선에 공격하고 인조의 항복을 받아 낸다. 호왕은 명나라를 치고자 임경업을 불러들이는데, 임경업은 지혜롭게 일들을 해결하고 종이 되어 명나라로 도망한다. 명나라와 힘을 합쳐 호국을 치려 한 임경업은 승 독보의 배신으로 호국에 사로잡힌다. 호왕의 갖은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위엄과 충성을 나타내자 호왕은 감복하여 임경업뿐 아니라 세자, 대군을 조선으로 돌려 보낸다. 임경업은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간신 김자점의 음모로 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지만 결국 김자점에게 암살당한다. 임경업이 임금의 꿈 속에 나타나 사정을 이야기하자 임금은 김자점을 처형하고 임경업의 충의를 포상한다.

이 때 임경업이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이면 높은 데 올라 호적(胡敵)의 음을 기다리더라. 문득 바라본즉 호병(胡兵)이 승전고를 울리며 세자 대군을 앞세우고 의기양양하여 나오거늘, 경업이 분기 대발하여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며 소리하여 왈

“이 도적을 편갑(片甲)도 돌려 보내지 말고 무찌르리라.”

하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말에 올라 큰 칼 들고 나가며 중군(中軍)에 분부하여

“전군(全軍)의 화가운데 자의 강고 있던 중심 부대 군사를 거느려 뒤를 따르라.”

하더라. 호장이 정제히 나오는지라. 경업이 노기 충천하여 맞아 내달아 칼을 들어 호장의 머리를 베어 내리치고, 진중을 짓쳐 들어가 좌충우돌하여 호병을 베기를 무인지경같이 하니, 호병이 황겁하여 각각 헤어져

목숨을 도모하여 달아나고, 남은 군사는 아무리 할 줄 몰라 죽는 자가 무수하더라.

호장이 상흔 낙담(喪魂落膽)하여 십 리를 물러 진을 치고, 패잔군을 모아 의논 왈

“경업은 용맹하니 장차 어찌하리오.”

하더니 문득 생각하되, ‘경업은 충신이라. 이제 조선 왕의 항서와 전교한 공문을 내어 보면 반드시 귀순하리라.’

하고 진문에 나와 외쳐 왈

“임 장군은 나와와 조선 왕의 전지(傳旨)를 받아 보라.”

경업이 의아하여 크게 꾸짖어 왈

“네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용골대 군사로 하여금 문서를 전하니, 경업이 문서를 받자와 보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지라.

“『너의 국왕이 항복하고 세자 대군을 볼모로 잡아가지니, 네 어찌 감히 왕명을 항거하여 역신이 되고자 하느냐.』

하고 만단 개유하거늘, 경업이 하교를 보았는지라. 하릴없이 환도(環刀)를 집에 꽂고 호전에 통하고 들어가 세자 대군을 뵈옵고 실성 통곡하더라.

▶ 정나라에 항복한 사실을 알고 공격을 멈춘 임경업



『』: 비현실적인 상황

하늘을 향해

홍련 형제의 억울한 사연

『말을 그치며 홍련 형제 일어나 절하고 청학을 타고 반공에 솟아 가거늘,』 부사가 그 말을 들으며

억울하게 죽임을 다한 장화·홍련이 부사의 꿈속에 찾아와 억울함을 토로함

조선 시대의 관직 명. 홍련 형제의 억울함을 벗겨주는 인물
관아의 으뜸 벼슬에 있던 이가 졸근하여 일을 시작함

날날이 분명하니 자기가 홍녀에게 숙은 줄 깨닫고 더욱 분노하여 날 새기를 기다려 새벽에 좌기

불악한 계모

를 베풀고 좌수 부부를 성화같이 잡아들여 각별 다른 말은 묻지 아니하고 그 낙태한 것을 바삐 들

하루 일과를 시작하며

남에게 해대는 독촉 따위가 몹시 급하고 심하게

계모가 '낙태'를 꾸며내 홍련 형제를 시련에 빠뜨렸음을 짐작할 수 있음

이라 하여 살피본 즉 낙태한 것이 아닌 줄 분명하매 좌우를 명하여 그 낙태한 것의 배를 가르라

부사는 '낙태한 것'의 정체를 밝히고자 함

하니 좌우가 영을 듣고 칼을 가지고 달려들어 배를 가르니 그 속에 쥐똥이 가득하였거늘 허다한

부사의 명령을 듣고

홍련 형제의 억울한 누명이 벗김

대다수의

관속이 이를 보고 다 홍녀의 홍계인 줄 알아 저마다 꾸짖으며, 홍련 형제가 애매히 처참하게 죽음

관정 사람들이

아무 잘못 없이 귀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 억울하여

을 가장 불쌍히 여기더라.

부사가 이에 대로하여 홍녀에게 큰칼을 씌우고 소리를 높여 호령하여 말하기를,

크게 화를 내며

죄인에게 씌우던 형틀

시골 백성이 고을 원을 높여 일컫던 말

“이 간특하고 흉악한 년아, 네 친고 불측한 죄를 짓고도 방자스럽게 공교한 말로 관장을 속이던

간사하고 악독함

오랜 세월을 통하여 그 종류가 드문 일

무례하고 건방지게 교묘한

가? 그때는 내 잠깐 생각하는 바가 있어 방송하였더니, 지금도 무슨 말을 꾸며 변명코자 하느냐?

백성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홍녀가 강히 국가의 관리인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 부사가 큰 화를 내고 있음

네 국법(國法)을 업신여기고 몸쓸 일을 행하여 『무죄(無罪)한 전실(前室) 자식을 죽인 연고를 자세

이전 부인 - 장화, 홍련의 친모

히 아뢰라.”

『』: ‘홍련 형제’의 비극은 계모와 무책임한 아버지(배 좌수) 모두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만, 부사가 ‘홍녀’만을 비난하며 죄를 묻고 있음

- 악행을 계모의 탓으로 돌려 선악의 대비를 뚜렷이 하고 있음

하니 좌수가 이 거동을 보매 제 몸에 돌아가는 죄는 생각지 아니하고 애매한 자식을 무고히 죽였

배 좌수(홍련 형제의 아버지)

음을 뉘우치고 다만 눈물을 흘리며 아뢰기를,

“저의 무지 무식하온 죄는 성주의 처분에 있사오나 비록 시골의 변변하지 못한 어리석은 백성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

온들 어찌 사리와 체모를 모르리잇고. 전실 장 씨 불쌍히 죽고 두 딸이 있사오매 부녀가 서로

일의 이치, 도리

제면

장화, 홍련의 친모

위로하여 세월을 보내옵더니 후사를 아니 돌아보지 못하여 후처를 얻사온즉 비록 어질지 못하오나

계모

연하여 세 아들을 낳사오매 마음에 가장 기뻐하옵더니 하루는 제가 나갔다가 돌아온즉 홍녀가 문

득 발언변색하고 하는 말이, ‘장화의 행실이 불측하여 낙태하였으니 들어가 보라.’하고 이불을 들

왕각 성을 내어 안색이 변함

계모가 계략으로 홍련 형제에게 누명을 씌움

추매 제가 놀라 어두운 눈에 본즉, 과연 낙태한 것이 적실하오매 미련한 소견에 전혀 깨닫지 못하

틀림없이 확실하다

는 중 더욱 전처의 유언(遺言)을 아득히 잊고 홍계(凶計)에 빠져 죽인 것이 분명하오니 그 죄 만

번 죽어도 사양치 아니하나이다.”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달게 받으려는 배 좌수

하고 홍녀가 또한 땅에 엎드려 말하기를,

“소첩의 몸이 대대 거족으로 문중이 쇠잔하고 가세 탕패하던 차 좌수가 간청하므로 그 후처가

외하여 힘이나 세력이 점점 약해짐

탕건

되오니 전실의 양녀가 있사오되 그 행동거지 심히 아름다움기에 친자식같이 양육하여 이십에 이르

러는 저의 행사가 점점 불측하여 백 가지 말에 한 말도 듣지 아니하고 성실치 못할 일이 많사와

저들, 두 딸

원망이 심하옵기로 때때로 저를 경계하고 타일러 아무쪼록 사람이 되게 하옵더니 하루는 저희 형

형상궁과 폐악한



제의 비밀한 말을 우연히 엿듣사온즉 그 흥쾌한 말이 측량치 못할지라 마음에 가장 놀람사와 가부 더러 이른즉 반드시 모해하는 줄로 알 듯하여 다시금 생각하여 저를 먼저 죽여 내 마음을 펴고자 하여 남에게 자기 남편을 일컫는 말 가부를 속이고 죽인 것이 옳사오니 자백하오매 법에 따라 처치하시려니와 첩의 아들 장쇠는 이 일로 말미암아 천벌을 입어 이미 병신이 되었으니 죄를 사하소서.”
 「 」 :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변명하여 아들만을 살리려는 흉녀
 하고 장쇠 등 삼 형제 또한 일시에 여쭙오되,

“소인 등은 달리 아뢰 말씀이 없사오니 다만 부모의 대신으로 죽삽고 늙은 부모를 용서하심을 부모를 대신해 희생하겠다는 의미 천만 비나이다.”

(중략)

「 」 : 고전소설의 특징: 권선징악적 주제
 각설, 「배 좌수가 국가 처분으로 흉녀를 능지하여」 두 딸의 원혼을 위로하나 오히려 쾌한 것이 없
 으매 오직 여아의 애매히 죽음을 주야로 슬퍼하여 그 형용을 보는 듯 목소리를 듣는 듯 거의 미치
 기에 이를 듯하여 다만 다음 세상에 다시 부녀지의의를 맺음을 종일 축원하는 중 집안에 살림할 이
 없으매 그 지향할 곳이 더욱 없어 부득이 혼처를 구할새 향족 윤광호의 딸을 취하니 나이 십팔 세
요, 용모와 재질이 비상하고 성품이 또한 온순하여 자못 숙녀의 풍도가 있는지라.
 배 좌수가 윤광호의 딸을 맞아 재혼함

핵심 정리

갈래	고전 소설, 가정 소설, 전기 소설
성격	전기적, 교훈적
주제	봉건 가족 제도의 모순과 권선징악
특징	① 계모형 가정소설임 ② 해원(解冤)의 모티프를 지닌 작품임 ③ 귀신이 등장하는 전기소설임 ④ 사실담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작품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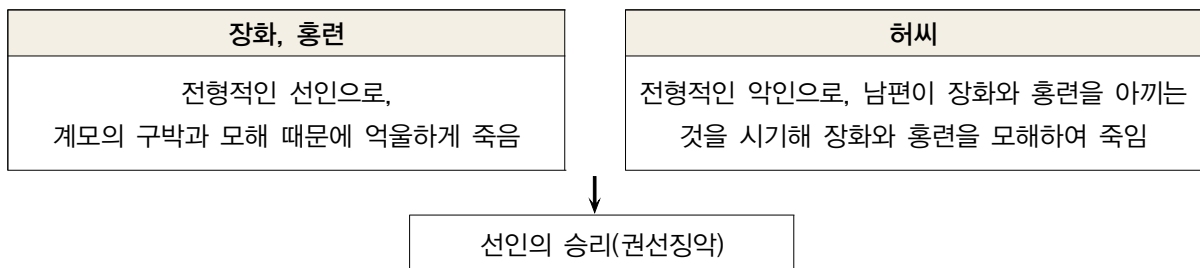
계모와 전실 소생 자식의 갈등을 소재로 한 계모형 가정소설의 대표작이며, 효종 때 평안도 철산 부사 전 동홀(全東屹)이 처리한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사이의 불화와 무능한 가정을 내세워 봉건적 가족 제도의 결함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가족의 갈등을 선악 갈등으로 치환하여 선이 승리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모순을 외면하고 계모를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한계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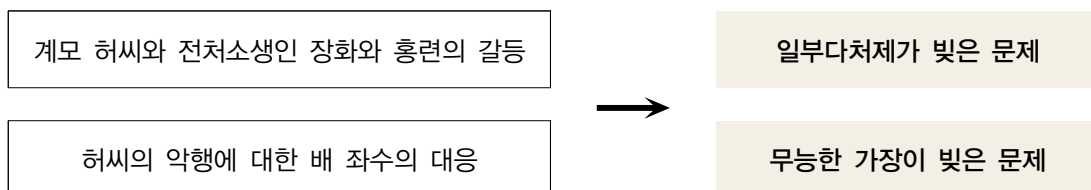
전체 줄거리

배 좌수는 장화와 홍련 두 딸을 두었는데, 부인이 죽자 재혼한다. 계모는 장화로 인해 재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여 장화를 죽이기로 작심하고 누명을 씌워 아들로 하여금 장화를 죽이도록 한다. 언니가 죽은 사실을 알게 된 홍련은 장화가 죽은 곳을 찾아가 자결한다. 이후 장화와 홍련은 귀신이 되어 부사를 찾아가 원통한 사연을 전하고, 부사는 배 좌수 부부를 심문하여 마침내 자백을 받는다. 형벌을 면한 배 좌수는 다시 윤 씨를 아내로 맞아 장화와 홍련의 후신인 두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산다.

인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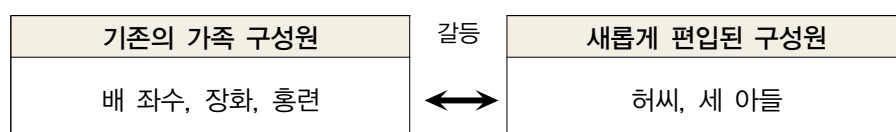


「장화홍련전」에 드러난 문제의식



갈래 이해하기 - 가정 소설

가정 소설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룬 소설을 가리키는데, 가문 소설, 가족사 소설 등과의 변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가정사를 다루되 당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을 구분하여 가정 소설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고전 소설 중에는 이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본처와 첩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사씨남정기’와 같은 작품들이 있고, 계모와 전처 소생과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장화홍련전’, ‘콩쥐팥쥐’와 같은 작품들이 있다.





갈래 이해하기 - 계모형 소설의 갈등 구조

계모형 소설은 계모로 인해 파생되는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소설로, 소규모 가정을 무대로 하고 전처 자식과의 갈등이나 재산 문제를 다루는데, 이러한 유형의 소설에서 계모는 악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전처 자식을 해치는 계략이 작품마다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고전 소설 대부분이 행복한 결말을 맺는 데 반해 계모형 소설은 계모의 학대로 전처 자식이 죽거나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갈래로 읽어 읽기 - 계모형 가정 소설

- 「장화홍련전」에서 계모는 경제적 욕망과 전처소생만 예뻐하는 남편 때문에 전실 자식을 학대하지만, 「김인향전」에서는 전적으로 계모의 성격적 결함에서 학대가 시작된다.
- 「김인향전」은 계모의 학대로 죽은 주인공이 재생하는 전기 소설적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인향의 죽음과 재생을 이끄는 결연 관계가 나타나는 점, 인향의 죽음이 누명을 벗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점 등에서 「장화홍련전」과 차별성을 가진다.
- 「장화홍련전」에서는 계모의 얼굴이 박색인데 「김인향전」에서의 계모는 미인이다.

김인향전 / 작자미상

좌수가 이리 하여 인향을 잡아 오라 하니, 인향이 황망히 들
인향의 아버지 인향이 외인과 동정하여 인심을 하였다고 오해함 인향의 오라버니
 어가니, 이때 인향 소저 인함을 데리고 바느질만 하며 모친(母
‘아가씨’를 함문 투로 이르는 말
 親)을 생각하더니 오라비 인향이 들어오는 양을 보고 반겨 내달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함
 으니, 천만 의외에 오라비 불변안색하고 이르되,
얼굴색이 굳어 정색을 하고
 “누이야, 내 말을 들어 보아라. 『우리 삼 남매 일찍 모친을 이
 『』: 인향의 말을 통해 삼 남매의 처지를 알 수 있음(모친이 돌아가시자 아버지가 계모를 돌임)
 별하고 슬픔을 금치 못하는 중에, 모친의 경계하시는 말씀 심중
 에 맞춰 계모에게 행여 들죄할까 염려하고 지내더니.』 어찌하여
큰 잘못을 저질러 죄를 얻음 멀고 가까운 곳에 갑자기 결하고 시끄러워
 『네가 행실이 부정하여 아이를 배었던 말이 원근에 당자하여 아
 『』: 인향이 외인과 동정하여 인심을 하였다는 소문이 돌자 아버지가 화가 나 인향을 죽이려고 함
 버넌께서 너를 죽이라 하시고 나로 하여금 잡아 오라 하시니.』
 진실로 실행함이 있느뇨. 네 몸을 보니 잉태한 모양 같으니 신병
몸에 생긴 병
 으로 그러한지 모르겠거니와, 이런 변이 어디 또 있단 말이나.”

하고 실성통곡을 하며 이르되,

정신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슬프게 통곡함
 “너를 죽이는 것은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밖으로 나와 좌수 앞에 꿇어앉아,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면 소자가 무슨 일이든지 담당하오리다.”
인향

하고 애걸복걸하는 말이,

『“후원에 가 인향을 보온즉 신병이 중하오니, 이번 한 번만 용
 『』: 인향을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인향
 서하여 주시면 후일 무슨 일이 있으면 소자가 담당하겠사오니,
 죄당만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차마 잡아 오지 못하였사오니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죽어 마땅함
 그저 살려 주옵소서.”』

핵심 정리

갈래	고전 소설, 가정 소설
성격	전기적, 교훈적
주제	계모의 학대로 인한 가정의 비극과 권선징악

작품 해제

이 작품은 계모가 전처소생을 학대하는 계모형 가정 소설로, 주인공인 김인향이 계모의 모함으로 죽임을 당하지만 원혼이 되어 억울함을 풀고 환생하여 부귀공명을 누리게 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인물 분석

선인			
인향, 인함	김석곡	김두룡	유성윤
계모의 학대로 죽었다가 환생함	후처 정씨의 음모로 딸들을 잃고 상심하여 죽음	인향 자매의 사연을 듣고 정씨와 노파를 처형함	인향의 몽중 암시를 따라 죽은 인향 자매를 살림

악인	
정씨	노파
외모는 아름답지만 마음이 간악하여 전처 자식들을 없애려 함	정씨와 짜고 인향이 잉태한 것으로 모략함



[앞부분의 줄거리] 명나라 때 주생은 과거에 실패하고 떠돌다가 어릴 적 친구 배도를 만나 사랑을 나누지만, 승상의 딸 선화를 본 후 변심하여 선화와 연인이 된다. 사랑을 잃은 배도는 괴로워하다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주생의 이기적 태도로 배도의 억울한 죽음을 선화와 헤어지게 된 계기, 역사적 사건을 소설의 배경으로 활용 - 작품의 사실성 획득 주생은 중군 서기로 징집된다.

마침내 주생은 조선에 이르렀다. 주생은 안주 백상루에 올라 옛날풍의 칠언시를 지었다. 그 시 한시에서, 한 구가 일곱 자씩으로 된 시를 통틀어 이르는 말 전편은 남아 있지 않은데 마지막 네 구절이 이러했다.

시름 안고 홀로 강가 누정에 오르니
 첩첩이 푸른 산 어찌 그리 많은지.
 고향 바라보는 내 눈길 가로막지만
 시름이 오는 길은 끊지 못하네.

※상임시의 역할
 - 인물의 정서 대변
 - 상문 형식에 운문을 상임하여 단조로움을 피함

『이듬해인 계사년(1593) 봄에 명나라 군대가 왜적을 대파하고 경상도까지 내려갔다.』 이때 주생은 선화를 그리워하다 마침내 깊은 병이 들어 군대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개성에 머물러 있었다.

당시에 나는 마침 불일이 있어 개성에 갔다가 그곳의 여관에서 주생을 만났다. 우리는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아 글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주생은 내가 한문을 잘하는 것을 보고는 자못 후하게 대우해 주었다. 내가 주생에게 병든 이유를 묻자 주생은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은 비가 내려 발이 묶였기에 밤에 불을 밝히고 주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생은 「답사행」 한 편을 내게 보여 주었는데, 그 노랫말은 다음과 같았다.

기델 곳 없는 외로운 그림자
 이별의 한 토로하기 어려운데

강가 나무 위로 돌아가는 기러기 줄지어 나네.
 객창의 가물거리는 등불에 이미 놀란 마음이어늘
 황혼녘 빗소리를 어이 차마 들을꼬.

주생의 외로움을 부각하는 배경 요소

낭원의 구름 아득하고

영주의 바다는 막혀 있나니

주렴 드리운 옥루는 어디쯤인지?

주생과 선화 사이의 거리감, 단절감

외로운 내 신세 부평초 되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주생의 신세를 비유



하룻밤에 오강으로 흘러갔으면.

나는 그 노랫말에 담긴 뜻이 궁금해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 누차 간절히 물었다. 이에 주생이 그
: 액자식 구성임을 알 수 있음
 전말을 알려 준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이야기이다.

주생은 또 가방에서 책을 한 권 꺼내 보여 주었다. 책 제목은 『화간집(花間集)』으로, 주생이
선화 및 배도와 주고받은 시 100여 편이 실려 있고, 또 동료들이 이들의 시를 읽고 써 준 시가
10여 편 들어 있었다. 주생이 배도와 선화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음을 드러냄 주생은 눈물을 흘리며 내게도 시를 간절히 부탁했다. 나는 원진의 「회진
 시」 형식을 본떠 30운의 배율을 지어서 책의 끝장에 써 주며 이렇게 위로했다.

“대장부의 근심은 공명을 이루지 못한 데 있을 뿐이오. 천하에 어찌 미인이 또 없겠소? 더구나
 이제 조선이 이미 평화를 찾았으니 황제의 군대가 곧 돌아가게 되지 않겠소. 『동풍은 이미 주랑 편
 이니 교 씨가 남의 집에 갇히리라는 걱정은 하지 마시오.』” ‘나’의 가치관 : 임신양명을 중시함
『 : 적벽대전에서 동풍이 불어 오나라가 승리함으로써 주유(=주량)의
비관대로 아내 소교(=교 씨)를 조조에게 빼앗기지 않았다는 『삼국지』
내용을 활용하여 주생은 주량에, 주생의 연인 선화는 교 씨에 빗대어 표현함
 이튿날 아침 작별 인사를 하는데, 주생은 거듭 고맙다고 하며 이렇게 말했다.

“제 얘기는 한바탕 웃음거리에 불과하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건 없어요.”

주생은 나이가 스물일곱이었는데, 얼굴이 수려해서 바라보면 마치 그림 같았다.

핵심 정리

갈래	한문 소설, 단편 소설, 애정 소설, 액자 소설
성격	비극적, 사실적
시점	전지적 작가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주제	운명에 대한 인간의 나약성과 비극적인 사랑
특징	① 삼각 연애에 얽힌 인물들의 갈등을 표현함 ② 역사적 사실이 이야기의 소재로 등장함 ③ 전반적인 소재를 현실 생활에서 취하고 사실적인 태도로 묘사함 ④ 이야기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시는 전기소설의 양식을 취함 ⑤ 액자 소설의 이야기 구조 ⑥ 입체적인 등장인물 : 당대 사회의 변화 양상 반영 ⑦ 남녀의 헤어짐과 전쟁을 통해 극적 긴장감을 높임 ⑧ 미완성(여운)의 결말로 비극과 낭만성을 극대화시킴



작품 해제

권필이 지은 작품으로, 주생, 배도, 선화 사이의 삼각관계를 통해 지식층 남성의 이기심과 여성의 희생, 연인에 대한 주변인물의 반응을 사실적으로 그려 낸 전기 소설이다. 주인공 주생과 결부된 중심 사건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지만, 이를 통해 조선이 갖고 있던 중세 시대의 체제적 모순과 상하 계층 사이의 부조화를 비판적 지식인의 시각에서 형상화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긴 작품이다.

전체 줄거리

중국 명나라의 청년 주생은 여러 차례 과거에 실패하고 세상을 떠돌다 어릴 적 친구 배도를 만나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만 승상의 딸 선화에게 반하게 되고, 이를 모르는 배도의 주선으로 선화의 동생 국영을 가르치게 된다. 주생과 선화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둘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 배도는 괴로워하다가 세상을 떠난다. 우여곡절 끝에 주생과 선화는 혼인을 약속하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나며 주생은 명나라 군대에 징집되어 조선에 파병된다. 서술자는 병이 나서 송도에 머물던 주생을 만나 저간의 사정을 듣고 이를 기록으로 남긴다.

발단	어려서부터 총기가 있던 주생은 시를 잘 지었는데, 번번이 과거에 떨어지자 작은 배를 타고 장사를 다님
전개	술에 취해 옛 여자 친구 배도를 만나 사랑을 나누고 동거를 하던 중 주생이 노 승상의 딸 선화를 보고 반하여 그녀를 사랑하게 됨
위기	배도의 협박으로 주생이 선화와 이별하고 배도에게 돌아오지만 얼마 후 배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남
절정	정처 없이 방랑하던 주생이 친척의 도움으로 선화와 혼약을 함
결말	임진왜란으로 종군한 주생이 상사병으로 역관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만난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 줌

액자 구조

주인공의 만남에 신비로움을 부여하고 결말 처리에 있어서 비극성과 낭만성을 고도로 승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외부 이야기	'나'와 주생의 만남
내부 이야기	주생과 배도의 만남과 혼인 → 주생과 선화의 만남과 사랑 → 주생의 배신과 배도의 죽음 → 주생과 선화의 사랑 → 주생과 선화의 영원한 이별

**인물 분석**

배도	주생	선화
주생과의 사랑을 통해 신분 상승을 꿈꾸며, 선화에 대한 질투의 감정을 숨기지 않음	배도와 선화에 대한 사랑으로 갈등함	동생을 가르치려 온 주생과 윤리적 규범을 넘어 사랑에 빠짐

신분 상승적 성격과 민중적 소망

이 작품은 다른 작품과는 다른 점이 선비의 신분을 떨치고 장사꾼으로 나서는 주생에게서 새로운 시대 의식을 엿볼 수 있으며, 배도라는 기생은 애정을 통해서 신분을 상승시키려는 민중들의 소박한 삶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전 소설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상당한 사실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대 소설의 배경 설정에 리얼리티를 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입체적 인물형

주생전에 나오는 인물은 고소설의 기본패턴인 평면적 인물을 탈피하고 있다. 또, 귀족계층만이 아니라 시장상인들이나 세속마을의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게 된 것이 큰 진전이다.

남녀 이산과 전쟁 이야기

남녀 주인공의 이산이 등장하고 전쟁 이야기가 삽입되고 있다. 애정소설이나 가정소설에서 전쟁담은 남녀 주인공의 이산을 통해 극적인 긴장도를 높여 나가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주생전에서는 극적인 긴장도를 높여 나가는 기능 이외에 미완성의 종결을 시도하고, 전쟁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하는 사실적 기능을 덧보태고 있다.

미완성의 종결수법

결말 유보를 통해 비극성과 낭만성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세련된 수법으로 독자들의 상상력에 모든 것을 맡기는 진일보한 기법이다.



긍정적 인물(○) ↔ 부정적 인물(△)

황제께서 장원 급제한 화진을 올라오라 하여 만나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면서 여러 신하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는 여양후의 아들인 화진이 과거에 장원 급제한 것을 기뻐함

“여양후를 잃은 뒤로 짐은 항상 마음이 아팠소. 이제 여양후의 아들을 보니 기린의 자식, 봉황의 새끼처럼 범상치 않소.”

그러고는 앞에서 술을 내려 마시게 하셨다. 사흘 후에 장원은 한림학사에 제수되었고 성준과 유성양은 각각 병부 원외랑이 되었다. 그러나 성 원외와 유 원외는 이부 상서 오봉을 찾아가서 말했다.

주전의 절자를 받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던 일

“저희들은 집이 절강이라서 집을 떠나 서울에 와서 벼슬을 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학문도 성글어 많이 부족합니다. 동남쪽의 한가한 고을의 태수가 되어 몇 년간 공부를 더 했으면 합니다.”

오봉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에 성 원외는 복건 남정현의 현감이 되었고 유 원외는 귀양부의 통판이 되었다. 이때 함께 급제한 신진들은 모두 승상인 엄승에게 인사를 했다. 그러나 화 장

성준과 유성양은 한가한 직무를 수행하며 학문에 정진할 수 있기를 희망함

성 부인이 집을 떠나는 계기: 실 세 모자가 화진과 화건의 두 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원만은 인사를 가지 않아 엄승이 불쾌해했다. 한림이 상소를 올려 고향으로 돌아가 늙으신 어머니

급제한 이들이 모두 승상인 엄승에게 인사를 갔으나 화 장원만은 가지 않음

를 뵈겠다고 청하자, 황제께서 허락을 하시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오라고 했다. 한림이 성준,

유성양 두 태수와 함께 소흥으로 돌아오자, 성 부인이 아들과 조카 두 사람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렸다.

성 부인은 자신의 아들과 조카가 모두 과거에 급제한 것을 기뻐함

“너희들이 모두 고아로 자라서 이렇게 출세했구나. 먼저 간 사람이 이를 안다면 아마도 땅속에서나마 환히 웃을 게다.”

그러자 두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자리를 적셨다. 이에 성 부인이 윤 부인과 남 부인에게 봉관, 화리와 함께 조정 대신의 어머니와 부인에게 내리는 명부의 직첩을 주었다. 그리고 집안에서 큰

금으로 봉환 작식을 한 관

화려한 무늬를 수놓은 신발

조정에서 내리는 벼슬아치의 임명장

잔치를 열어 유 태수 부자도 초대했다. 이날 소흥부의 지부도 풍물과 기녀들을 데리고 왔다. 새로

기린을 수놓은 관복 급제를 상징하는 회나무의 가지

지부아문(조선 시대 포졸을 달리 이르던 말)

급제한 세 사람은 인삼, 계지를 들고 사당에 절하였는데, 한림이 슬프게 우는 소리가 밖까지

한림이 사당에서 부모를 그리워하여 우는 모습 - 포졸을 주시하는 인물의 면모를 보여줌

들렸다. 아! 효자는 슬픈 일이 있어도 부모를 그리워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부모를 그리워하니 그 슬픔은 언제쯤이나 사라질까?

이때 삼 씨 모자는 한림의 급제 소식에 배가 아파서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화춘의

부인 임 씨는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손수 진수성찬을 마련하면서, 한편으로 슬프기도 했지만 기

정성을 다하는 임 씨의 태도 - 성숙한 인품을 드러냄

쁜 표정으로 정성을 다했다. 성 부인이 이 모습을 보고 여러 번 그 사람됨을 칭찬했다. 성 태수가 행장을 꾸려 임소에 가려 할 때 성 부인이 아들에게 말했다.

지방 관원이 근무하는 곳

“춘이와 그 어미가 성품이 포악하니 화진 부부는 내가 없으면 아마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게

성 부인이 화진 부부의 안위를 걱정함

야. 너는 요 씨만 데리고 혼자 가라. 이 늙은 어미는 아들을 위해서 죽은 동생의 부탁을 저버릴



수가 없구나.”

성 태수가 깜짝 놀라 울면서 애걸했다.

“어머니, 소자가 손에 못이 박이고 허가 닳도록 어렵사리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한 것은 모두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한 고을의 태수가 되었는데 하루도 봉양치 못한다면 소자의 마음이 어
성 태수는 어머니에게 자식의 도리를 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드러냄
떻겠습니까? 그리고 형옥도 이제 급제하여 벼슬을 하게 되어 며칠 안 있으면 두 제수씨를 데리고
형옥이 급제하여 집을 떠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말함
떠날 텐데, 숙모님께서서는 틀림없이 따라가지 않으실 겁니다. 한번 서울과 시골에 떨어져 있게 되
 면 해를 입히려 해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설사 조금 분란이 있더라도 제수씨가 현명하고 지혜로우니 두루 살펴서 잘 보호할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소자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십시오.”

부인은 그래도 듣지 않았다. 한림이 눈치를 채고 성 부인에게 그냥 떠나시라고 정성스레 권하니
한림이 성 부인에게 성 태수와 함께 떠날 것을 권함 - 성 태수가 표를 실천할 기회를 주기 위함
성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허락했다. 아, 이제부터 효자의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겠구나! 조물주의 의도는 무엇인가?

두 태수가 떠나는 날, 요 씨와 화빙선은 윤 부인과 남 부인의 양손을 잡은 채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어 차마 말을 하지 못했다. 성 부인이 심 씨 모자에게 간절하게 타이르고 여러 번 반복하여 부탁을 하니 돌 같은 심장이라도 감동하고 귀신도 눈물을 흘릴 만했다. 성 부인 일행이 떠난 이후로 심 씨는 등에 있던 가시를 빼 버린 듯 후련하여 휘파람을 불면서 그 아들과 모의했다.

“예전에 정 씨는 어질고 아름다워 인심을 얻은 데다가 또 화진처럼 기특한 아들을 낳아서 그 권세가 날로 높아만 갔지. 나라께서는 화진을 장자로 세우려는 뜻마저 두어 집안 하인들까지 우리
화진과 화진의 두 부인을 시기하는 심 씨의 마음이 드러남
모자를 엮신여겼다. 그런데 진이의 두 아들은 미모와 덕성이 정 씨보다 빼어난 데다가 또 진이가
윤 씨, 남 씨 화진의 두 부인의 성품을 말함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으니, 종족(宗族)들이 우러러보고 중놈들까지도 꼬여드는 모습이 예전보다 더하구나. 저놈이 한번 서울로 가서 위로는 천자의 총애를 얻고 아래로는 친구들을 동원하여
화진이 성공할 경우를 가정하여 말함
세력을 얻는다면, 용이 구름을 타고 호랑이가 바람을 얻은 것 같아서 그 세력을 어찌하지 못할 게
 야. 그러니 이곳에 머물게 해 놓고 괴롭히면서 상춘정의 원한을 갚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춘이 대답했다. 그리하여 하루는 화춘이 한림에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조정에 계실 때에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었는데도 너는 아버지께 벼슬에서 물러나
화춘이 아버지와 화진 사이의 과거 일을 들어 화진의 사직을 권유함 - 화진을 적대시하는 화춘
시라고 권했다. 그런데 이제 나라의 정치가 나날이 어지러워져서 벼슬하는 것이 위태로운데도 너는 오히려 양양자득하여 출세하려고 하는구나. 참으로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려운 게냐?”

한림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형님이 그리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찌 명심하지 않겠습니까?”

한림은 즉시 고을 관아를 통해서 고향에 남아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청하는 사직서를 올렸다. 천자는 간곡한 청을 보고 불쌍히 여겨 일 년의 말미를 주었다. 한림은 이로부터 죽우당에 홀로 머물면서 책 읽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심 씨가 계향 등을 시켜 유언비어로 선동하여 온갖 욕을 해댔고, 사람이 차마 먹을 수 없는 쓴나물과 상한 밥을 주었지만, 한림은 태연하게 견뎠다. 한림이 심 씨의 부당한 대우를 강대항 - 시련 속에서도 표를 실천하는 성숙한 인격을 보여 줌 심 씨는 또 두 부인에게 바느질과 베 짜기, 수놓기 등 온갖 힘든 일을 시켰는데, 두 부인이 타고난 재주로 심 씨의 분부대로 일을 척척 해내니 아무리 포악한 심 씨라도 꼬투리를 잡기 힘들었다.

핵심 정리

갈래	가정 소설, 도덕 소설
성격	교훈적, 유교적
배경	중국 명나라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제재	일부다처(一夫多妻)와 대가족 제도 아래서 일어나는 가정의 풍파
주제	권선징악과 충효 사상의 고취
특징	교훈적 주제 의식을 지니면서도 인물의 개성을 부각하고 치밀하게 구성하여 소설적 흥미가 풍부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사대부 가문에서 일어나는 부인들 간의 갈등과 모함을 다루고 있는 가문 소설이다.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의로운 일에 감동받는 이야기’라는 제목의 의미와 같이, 부인들 간의 갈등이 전면에서 드러나면서도 한 사대부 집안을 배경으로 형제간의 우애, 권선징악과 같은 교훈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작품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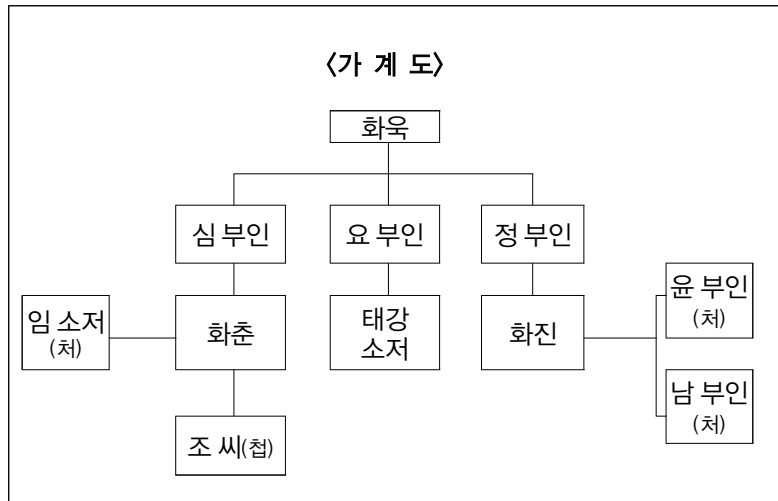
발단	화옥의 가정 소개	명나라의 병부상서 화옥에게는 세 부인 심 씨, 요 씨, 정 씨가 있었다. 요 씨와 정 씨는 각각 딸(빙선)과 아들(화진)을 낳고는 일찍 죽는다. 심 씨의 아들(화춘)은 사람됨이 용렬하였기에, 화옥은 아들 진과 딸 빙선을 편애하였다. 화춘이 부친에게 모든 것을 화진으로부터 배워서 행동하라는 질책을 받자, 밤낮으로 화진을 괴롭힌다. 그러나 과부가 되어 집에 와 있는 성 부인(화옥의 누이)의 위엄에 불만을 표면화하지는 못한다.
전개	화옥의 죽음, 계모와 화춘의 횡포	간신 엄송이 득세하자 화옥은 사직하고 낙향했는데, 이때 화춘은 부덕을 갖춘 임 소저와 혼인한다. 화옥은 진의 배필로 윤 소저와 남 소저를, 태강의 신랑으로 유 공자를 정해 놓고 성 부인에게 혼사를 부탁하고 죽는다. 성 부인이 집을 비우자, 심 씨와 화춘은 화진과 빙선을 학대하였다. 성 부인이 돌아와 화진과 빙선을 각각 성례시켰다. 화춘은 방탕해져서 불량배인 범한, 장평과 사귀면서, 임 소저를 내쫓고 간사한 조 씨를 정실로 삼았다. 화진과 성 부인의 아들 성준, 태강의 남편 유생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였다.
위기	화춘의 모함과 계략	심 씨는 조 씨와 결탁하여 남 소저를 독살하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동생의 출세를 시기하던 화춘은 불량배와 결탁하였다. 화춘은 화진을 모함하여 귀양 보내고, 그의 아내도 누명을 씌워 내쫓는다. 윤 소저의 동생이 어사가 되어 악당들을 처벌한다.
절정	화진의 활약과 개선	화진이 유배지에서 도사인 곽공을 만나 병서를 배우고 있을 즈음에, 해적인 서산해가 변경을 크게 소란하게 하였다. 화진이 백의종군하여 해적을 토벌하여 공을 세운다. 화진의 능력을 인정한 조정에서는 그를 정남대원수에 임명하여 남방의 어지러움을 모두 평정하게 한다. 화진이 남방을 평정하고 개선하자 천자는 그에게 진국공의 봉작을 내린다.
결말	심 씨와 화춘의 개과천선, 가문의 화목	심 씨와 화춘이 전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개과천선(改過遷善)하였으며, 흠어졌던 가족들이 무사히 돌아와 가문이 화목을 이루게 된다.

전체 줄거리

화옥은 심 씨, 요 씨, 정 씨 세 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요 씨는 딸을 낳고 일찍 죽고, 정 씨는 아들 화진을 낳았지만 그가 장성하기 전에 죽는다. 심 씨가 낳은 맏아들 화춘이 변변치 못하여 화옥은 화진을 편애하고, 이 때문에 심 씨와 화춘은 불만을 가진다. 화옥은 조정에 간신이 득세하자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온다. 화춘을 결혼시킨 후 화옥이 죽자, 심 씨와 화춘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화진과 그의 아내를 괴롭힌다. 화진은 과거를 치르고 벼슬을 하지만, 화춘의 모함으로 귀양을 가게 되고, 화진의 아내도 누명을 쓰고 내쫓긴다. 화진은 유배지에서 도사인 곽공을 만나 병서를 배우는데, 해적이 노략질을 일삼자 백의종군하여 해적을 토벌한다. 이로 인해 조정에서는 화진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고, 화진은 정남 대원수가 되어 남방을 모두 평정한다. 한편 심 씨와 화춘은 개과천선하고, 쫓겨났던 화진의 아내도 돌아와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



인물 분석



화씨 가문의 흥망성쇠를 중심으로 엮어진 「창선감의록」에는 유교적 봉건 윤리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인간형이라 할 수 있는 성 부인, 화진, 화진의 부인인 윤씨와 남 씨, 화춘의 부인인 임 씨 등 긍정적인 인물들이 등장한다. 특히 화진이나 화진의 부인들은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부정적인 인물들로 인한 시련 속에서도 봉건 윤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효를 실천하는 성숙한 인격을 갖춘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다.

특징으로 엮어 읽기

김만중의 「사씨남정기」와 조성기의 「창선감의록」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대부의 수신(修身)의 문제가 제기되며, 이것이 제가(齊家)와 치국(治國)의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둘째, 충·효·열이라는 유교 이념이 가정과 국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드러난다. 셋째, 선한 인물군과 악한 인물군을 매개하는 매개적 인물로 가장과 임금이 설정되며, 매개적 인물의 어리석음으로 사건이 발생하고, 깨달음으로 사건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다. 넷째, 초월적 공간이 존재하며, 초월계의 개입이 선한 주인공의 출문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채봉감별곡(彩鳳感別曲) / 작자 미상

수능특강 P.151

이육조국어연구소



〔앞부분의 줄거리〕 평양 김 진사의 딸 채봉은 단풍 구경을 나섰다가 전 선천 부사의 아들 장필성을 만나 호감을 갖게 되고 필성과 혼인을 약속한다. 김 진사는 벼슬을 할 생각에 허 판서에게 채봉을 첩으로 보내기로 약속한다. 가산을 정리하여 서울로 가던 중 김 진사 일행은 도적을 만나고, 혼란 중에 채봉은 도망하여 평양으로 돌아온다.

김 진사는 자결이라도 하고 싶으나 헛된 욕심에 눈앞이 어두워 홀로 생각하기를,
 벼슬에 눈이 멀어 허 판서에게 딸(채봉)을 첩으로 보내기로 약속하는 부정한 인물
 ‘서울에 오천 냥 맡긴 것이 있고, 더군다나 그간 과친 현감이 되었을 터이니, 몸이 귀히 된 후

채봉도 수소문하여 찾고 재산도 다시 모으리라.’

① 기존의 관습이나 질서에 저항하는 인물 ② 장필성과의 사랑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인물

하고 나머지 살림을 팔아 노자를 마련한 후 두 내외가 걸어서 서울로 올라갔다.

먼 길을 떠나 오가는 데 오는 비움

상경한 김 진사 내외는 전에 묵었던 객줏집으로 거처를 정하고, 이튿날 허 판서를 찾아갔다. 허

김 진사는 이전에도 서울에 온 적이 있었음

① 벼슬 팔기에 수단이 있는 부패한 세도가임

② 채봉을 첩으로 삼으려고 함으로써 갈등을 일으킴

판서는 김 진사를 보고 반기며,

“오, 김 과친 오시나. 그래 올라오는 데 힘들지 않았는가? 자, 우선 급할 터이니 과친 현감을 구
 김 진사와 허 판서의 약속 → 벼슬직(과친)을 붙여 이름을 부름
 경하려나?”

칙명(임금이 내린 명령)

하더니 문갑에서 칙지를 내어 준다. 김 진사가 칙지를 보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혼 빠진 사람 처

① 김 진사의 벼슬에 대한 욕망 ② 김 진사에게 불행운 조래하는 소재(딸을 잃고 육에 갈하는 신세가 됨)

럼 눈물만 흘리고 감히 받지를 못한다. 허 판서가 그것을 보고 곱곶 웃으며,

“왜, 너무 반가워서 그러나?”

김 진사가 일어나 절을 하고 칙지를 받아 앞에 놓고는,

“대감 덕에 분에 넘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마는, 운수가 불길하여 올라오다가 죽을 고비를 겪어
 대감 뵈옵 낮이 없습니다.”

허 판서 깜짝 놀라며,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죽을 고비를 겪다니?”

김 진사가 자초지종을 다 말하니, 허 판서 별안간 눈이 셀쫓해지며 가엾은 생각은커녕,

‘이런 맹랑한 놈을 보겠나! 어찌 되든 과친 현감은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내려갈 때는 허락을
 어떤 감정을 나타내면서 임이나 눈이 한쪽으로 약간 생그러지게 움직이며
 김 진사는 과친 현감 자리를 받기로 하고 허 판서에게 돈을 주었음

하더니 이제 와서 판소리를 해!’

허 판서는 김 진사의 해명을 과색하게 생각함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한번 몸을 부르르 떨며 놀라는 체한 후에 김 진사의 얼굴을 훑어본다.

“참으로 고생했네. 그래, 재물은 도적이 가져갔거니와 딸이야 왜 못 찾아 가지고 온단 말인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대감 위력이나 빌려 가지고 찾으려고 이렇게 올
 라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허 판서가 얼굴이 벌게지며 버럭 소리를 지른다.

김 진사가 약속과 달리 딸을 데리고 오지 못함

“이놈! 소위 부모가 되어서 난리 중에 자식을 잃고 찾을 생각도 아니 하고, 뉘 힘을 빌려서 찾
 으려고 해? 맹랑한 놈!”



하더니 별안간 하인을 불러 옥에 가두라 이른다.

“이놈! 네 딸을 데려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 오천 냥을 마저 바치든지 해야』 무사하리라. 이놈 아! 그따위 소리를 뉘 앞에서 하느냐? 『시골 내려갈 때는 주선해 주마 하더니 현감 자리가 굴러 들어오고 나니까 판소리를 해!’”

하고 다시 말할 새도 없이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둔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평양으로 돌아온 채봉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돈을 가지고 허 판서에게 가야 한다는 말을 어머니로부터 듣고, 돈을 구하기 위해 ‘송이’라는 이름의 기생이 된다. 한편 평양 감사 이보국은 송이가 서화에 능하다는 것을 알고, 몸값을 주고 송이를 데려가고자 한다.

“송이를 내가 부리고자 하여 본전에 천 냥을 더 주는 것이니, 네 마음은 어떠하냐?”

평양 감사 이보국이 송이를 데려가고자 함
기생 어미의 생각에 손해 보는 것 같으나 어찌하리오.

“몸값을 아니 주셔도 바치라 하시면 거역 못 할 터이온데, 하물며 돈을 더 보태 주시니 무슨 잔말을 하오리까.”

하고 칠천 냥을 받아 가지고 나온다.

그 후 송이는 감사가 있는 별당 건넌방에서 혼자 거처하며 감사의 명령에 따라 여러 가지 일을 돕는다. 기생을 면함은 다행이나, 밤낮으로 잊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소식과 장필성이다. 이 감사가 보는 앞에서는 감히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나 혼자 있을 때에는 탄식이 그치지 않는다.

장필성은 송이의 소문을 듣고 참으로 다행이라 여기나, 송이가 있는 별당은 사람 출입을 일절 금하니, 다시 만날 길이 없어 초조하다. 그렇게 지내다가 드디어 한 계책을 생각해 낸다.

‘나도 감사 옆에서 공사를 보는 관속이 되면 채봉을 만나기가 쉬우리라.’ 장필성이 관속이 되고자 하는 이유: 채봉이 기생을 면하고 감사에게 와 있음을 알고, 채봉을 쉽게 만나려는 목적
하고 여러 방면으로 주선을 하던 중, 마침 감사가 문필 있는 이방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그 방면으로 힘을 써 이방이 된다. 그렇게 감사를 뵈오니,

“가히 훌륭한 인재로다. 필성아, 이방이라 하는 것은 윗사람을 모시고 아랫사람을 대하는 책임이 중대하니, 아무쪼록 정성을 다하여 백성들이 불편 없도록 잘 거행하거라.”

장필성은 공손하게 감사의 명을 받들고 이후로는 공사 문서를 가지고 매일 관가에 드나든다. 그러나 송이의 소식을 알고자 하여도 별당이 깊고 깊어, 가까이 있어도 천 리와 같다.

한편 송이는 감사가 공사에 쓸 것을 주면 쓰라는 것은 쓰고 빼라는 것은 빼면서 별당에 머물고 있었다. 하루는 채봉이 문서 한 장을 보는데 장필성의 글씨가 분명하다.

① 장필성이 이방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계기 ② 장필성에 대한 채봉의 그리움을 확기하는 소재
‘이상하다. 글씨가 서방님 필체와 같으니, 혹시 관가에 드나드시는 일이 있나?’

장필성
하고 속으로 생각하다가 감사에게 묻는다.



“요사이 공사 문서 들어온 것을 보면 전과 글씨가 다른데, 이방이 바뀌었습니까?”

“장필성이란 사람을 새로 들였다. 네가 보기에다 글씨를 잘 썼느냐?”

이 말을 듣고 송이가 뿔 듯이 기뻐서,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나 볼까? 만나지 못하면 편지라도 띄울까? 사람을 시키자니, 만일 대감이 아시면 무슨 죄를 내리실지 몰라…….’

하고 기회를 기다리나 때가 쉽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서로 글씨만 보고 그리워하기를 어느덧 반년이라. 그리움이 사무쳐 서로 상사병이 날 지경이다.

핵심 정리

갈래	애정 소설, 세태 소설
성격	비판적, 염정적, 사실적
주제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의 성취
특징	① 새로운 여인상의 창조: 채봉(적극적이고 주체적 의지에 따라 행동함) ② 고소설의 우연성을 탈피하여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사건을 전개함 ③ 가사(歌辭)를 삽입함 ④ 인물 간의 진실한 순정을 그리기 위해 노력한 작품임 ⑤ 당대의 타락상을 제시함: 허 판서(권력계급의 매관매직과 인권유린), 김 양주(특권계급을 이용하여 시골 사람을 착취), 김 진사(자식을 팔아서까지 벼슬을 구함) 등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작가·연대 미상으로, 주인공 채봉과 장필성이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을 이룬다는 내용의 애정 소설이다. 제재나 배경이 현실적이며 고전 소설이 갖는 우연성을 많이 벗어나 인과적이고 필연적인 사건 전개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근대 소설에 근접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또한 매관매직과 같은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던 당대의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고 있으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채봉의 모습을 통해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여성상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사회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줄거리

김 진사의 딸 채봉은 단풍 구경을 나섰다가 전 선천 부사의 아들 장필성을 만나 호감을 갖게 되고 그와 혼인을 약속한다. 김 진사는 벼슬을 할 생각에 허 판서에게 채봉을 첩으로 보내기로 약속한다. 서울로 가던 중 김 진사 일행은 도적을 만나고 채봉은 부모 몰래 평양으로 돌아오지만 허 판서에 의해 옥에 갇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된다. 장필성은 기생이 된 채봉과 재회하고, 채봉은 평양 감사 이보국의 눈에 들어 이보국의 집에 와 일을 거들고 장필성은 채봉을 보기 위해 이방을 자원한다. 채봉은 가을밤 장필성을 그리워 하며 시를 쓰고 울다 잠이 드는데, 이보국이 이를 우연히 보고 채봉에게 그간의 사연을 들은 후 장필성을 만나게 해 준다. 그 사이 허 판서가 역적죄로 파면되면서 김 진사와 어머니는 평양으로 돌아오고 채봉은 장필성과 결혼을 한다.

문학사적 의의

이 작품은 사건의 상당 부분을 우연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고전 소설의 관성에서 탈피했고, 현실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의 전개와 함께 사실에 가까운 표현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근대 소설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는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작품에 반영된 사회상

19세기 후반은 조선이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다. 지배층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었고, 이에 편승하여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기회를 노리던 양반들의 파렴치한 행태가 판을 치던 시절이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백성들 사이에 양반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기도 하였지만 일부 백성들은 양반들의 권위 앞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변화의 요구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신분에 얽매이지 않는 주체적 삶에 대한 지향이 나타나고, 봉건적 사회 분위기에 저항하며 자신의 삶에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여성상이 구현되기도 하였다. 「채봉감별곡」은 이런 조선 후기 사회의 현실과 변화에 대한 갈망을 잘 반영하고 있다.



청강사자현부전(淸江使者玄夫傳) / 이규보

수능특강 P. 128

이육조국어연구소



현부(玄夫)는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검은 옷을 입은 사내(거북을 의인화함)

『』: 신인이었던 선조 대에서 몸값인 먼 조상 대로 가면서 크기가 작아지고 힘이 없어짐

『“그 선조는 신인(神人)이었다. 그 형제가 열다섯 명이었는데, 모두 건강하고 힘이 굉장했다. 그 신과 같이 신령하고 숭고한 사람 러므로 하느님이 명하여 바다 가운데 있는 다섯 산을 떠내려가지 않게 떠받치게 했다.”

라고 한다. 그 후 대대로 내려오면서 크기가 차츰 작아지고 또한 소문이 날 정도로 힘이 센 자도

신인(神人)으로서의 능력이 없어짐을 뜻함

없었으며, 오직 점치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현부는 한곳에 머물지 않고 사는 곳을 가려 옮겨 다

거북정(거북의 등딱지를 붙여 태워서 그 갈라지는 틈을 보고 길흉을 판단하는 점)

녔기 때문에 그의 출신 고향이나 조상들의 내력을 자세히 알 수 없다. 그의 먼 조상 중에 문갑(文

甲)이란 자가 있는데, 요임금 시대에 낙수(洛水)에 살았다.』 요임금이 그가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중국의 강 이름. 황하의 한 지류임

흰 옥을 예물로 그를 초빙하자 그가 기이한 그림을 지고 와서 바쳤다. 요임금이 그를 가상히 여기

어 낙수의 제후로 봉하였다. 그의 증조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이라고만 알려졌을 뿐 이름이 밝혀지

지는 않았는데 바로 홍범구주를 지고 와서 우임금에게 바쳤던 자이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백약

중국 하나라 우왕이 남긴 적지 이름

(白若)이다. 그는 우임금 시대에 곤오(昆吾)라는 곳에서 술을 주조하였는데 옹난과 함께 힘써

중국 하나라 때의 귀족 이름

공을 세웠다. 아버지의 이름은 중광(重光)이다. 그는 나면서부터 왼쪽 옆구리에 ‘나는 달의 아들

중광인데, 나를 얻으면 서민은 제후가 될 것이고 제후는 제왕이 될 것이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

거북 등에 새겨진 갑골 문자

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중광이라 하였다.

▶ 현부의 가계 소개

너그러운 마음과 깊은 생각

복두칠성의 일곱 번째 별

현부는 아주 침착하고 도량이 컸다. 『그의 어머니가 요광성이 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임신을

현부의 성품(침착하고 국량이 깊음)

복룡한 인물이 탄생할 것을 예고하는 꿈을 꾸

하였는데, 태어났을 때 관상쟁이가 보고 말하기를,

“등은 산과 같고 거기에 별들이 아롱아롱 무늬를 이루었으니 신령스러운 관상임이 분명하다.”

거북의 등딱지를 묘사함

라고 하였다.』 장성하자 주역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우주의 모든 변화의 원리를 터득하였고, 또

『』: 복룡한 인물의 탄생을 예고함

한 갓가지 신선의 방술을 배웠다. 그는 천성이 씩씩함을 좋아하여 언제나 갈옷을 입고 다녔다.

거북의 등딱지

임금이 그의 명성을 듣고 심부름꾼을 보내어 불렀으나 거만하게 돌아보지도 않고 노래를 부르기를,

『』: 자연 천화

『“진흙 속에서 노니는 재미가 끝이 없는데,』 벼슬살이를 내가 왜 바라겠는가?”

자연

새속의 부귀영화

벼슬을 거부함

하고 웃기만 하고 대꾸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그를 불러들이지 못했다.

▶ 현부의 비범한 능력과 임금의 뜻 거절

그 뒤 춘추 전국 시대 송나라 원왕 때 예저(預且)라는 어부가 그를 사로잡아 강제로 임금에게

송나라의 어부

바치려 하였다. 『그때 그가 검은 옷에 수레를 타고 왕의 꿈에 나타나서 ‘나는 청강에서 보낸 사자인

‘현부’임을 드러냄

데 왕을 뵈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이튿날 과연 예저가 그를 데리고 와서 왕께 뵈었다. 왕은 매우

『』: 계목인 ‘청강사자현부전’과 관련이 있음

기뻐하며 그에게 벼슬을 주려 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신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예저의 강압에 의한 것이요, 또한 왕께서 덕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일

뿐이니, 벼슬은 제 본심이 아닙니다. 왕께서는 어찌 저를 붙잡아 두고 보내지 않으려 하십니까?”』

『』: 벼슬에 대한 욕심이 없음을 드러내며 벼슬을 사양하는 현부

하였다.



왕이 그를 보내 주려 하는데 위평(衛平)이 은밀히 눈짓하여 말렸다. 그래서 그를 수형승에 임명
송 원왕의 신하 하였고, 얼마 뒤 벼슬을 올려 도수사자에 물을 관장하는 관리 제수하였다. 다시 발탁하여 태사령을 삼고, 나랏일의 대
하전의 관개와 보수를 맡아보던 벼슬 옛 관직을 없애고 새 관직을 내리던 일 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에게 물어본 뒤에 시행하였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거북점을 쳐서 행하던 것을 뜻함

▶ 예저의 술책에 빠져 벼슬길에 나간 현부

「왕이 일찍이 장난말로 이르기를,
 「 : 무속적·미신적 신앙보다 지족(知足)의 자세가 소중함을 간절적으로 드러냄
 “그대는 신명의 후손으로 길흉화복에 밝은 자인데, 왜 스스로 미리 자신의 앞길을 도모하지 못
천지 신령의 후손 - 고귀한 혈통 하고 예저의 술책에 빠져서 정음 치는 비범한 능력을 지님 과인에게 붙들린 신세가 되었는가?”
벼슬살이를 하게 됨
 하니, 현부가 아뢰기를,

「“아무리 밝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고, 아무리 명철한 지혜로도 헤아리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 :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것에 자만하지 말고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함
 라고 아뢰니, 왕이 크게 웃었다. 그 후 그가 어디에서 생을 마쳤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지금도
현부의 신비로움을 부각 벼슬아치들 사이에는 그의 덕을 사모하여 황금으로 그의 모양을 죽은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모신 것 주조해서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죽은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모신 것

▶ 종말을 맞은 현부

【중략 부분의 줄거리】 현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은 원서, 둘째는 원저라고 했다. 셋째는 이
 름이 전하지 않는다. 이 중에서 첫째와 셋째는 큰 잘못도 없이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했다.

현부의 후손 가운데에는 도를 얻어 천년에 이르도록 죽지 않는 자도 있었는데, 그가 있는 곳에
거북이 장수하는 동물임을 드러냄 는 항상 푸른 구름이 감돌았다. 또 자기의 덕을 숨긴 채 벼슬살이를 했던 사람도 있는데, 세상에
상서로움을 나타냄 서는 그를 현의독우라 불렀다.

거북의 다른 명칭
 사신(史臣)은 이렇게 평한다.

가전의 특징 - 작가의 논평이 들어감
 “지극히 절로 드러나는 것이 거의 없음 은미한 상태에서 미리 살펴 알고, 징조가 나타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은 성인이라도
 간혹 실수가 있는 법이다. 정음 칠 수 있는 자의 지혜 현부 같은 지혜를 가지고도 예저의 술책을 피하지 못하고 또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설의적 표현 다른 이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옛적에 공
 자는 광(匡)이라는 곳에서 고난을 겪었고 또 제자인 자로(子路)는 죽어서 짓으로 담겨지는 비극을
 겪었으니, 아, 지혜로운 현부도 실수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만하지 말고 조심하며 항상 언행을 삼가야 함을 말함

**핵심 정리**

갈래	가전
성격	우의적, 풍자적, 교훈적
주제	안분지족의 자세
특징	거북을 의인화하여 안분지족의 처세와 절제를 드러냄

작품 해제

이 작품은 거북을 의인화하여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매사 언행을 삼가는 태도를 가 지라는 교훈을 전하는 가전(假傳)이다. 동물을 의인화한 최초의 작품으로 인물의 일대기적 구성을 통한 전개를 보여 주고 있다. 현부의 조상과 가계를 소개하고 현부의 탄생과 성장, 벼슬 생활 등의 행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자손들의 상황까지 서술하여 가전체 문학에서 보여 주는 전형적인 인물의 일대기적 구성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전체 줄거리

현부의 선조는 신인(神人)이었다. 그는 힘이 세어 바다 가운데 있는 산을 지탱할 정도였다. 그러나 자손 대에 이르러 크기가 작아지고 힘도 약해져 점치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현부도 점을 잘 쳐 임금의 부름을 받았지만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예저에게 붙잡혀 세상에 나온 뒤 공을 세워 높은 벼슬을 하였다. 앞날을 볼 줄 아는 능력은 있었으나 자신과 자식에게 미치는 불행은 막지 못했다. 이러한 그의 삶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너무 뽐내지 말고 안분지족하는 삶을 살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

‘현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 작가의 주제 의식

현부는 앞날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신령스러운 능력이 있음



어부 예저의 꾀에 빠져 벼슬길에 나아간 현부가 관직을 두루 거치며 공을 세우고 존경받게 되지만, 어디에서 생을 마감했는지 알려지지 않음



현명한 사람이라도 한순간의 실수로 일을 그르칠 수 있으므로, 항상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함



‘현부’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술책에 빠져 일을 그르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함.



고유(高裕)는 상주 사람인데 위인이 강직하고 청렴결백하였다.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차례 주군(州郡)을 관장하였는데 관인들이 감히 청탁하지 못하였으며, 간악한 짓을 드러내고 숨겨진 짓을 적발해 내는 것이 한나라 때의 조광한(趙廣漢) 같은지라, 도처에 선정으로 이름이 났다.

창녕에 있을 때였는데, 전후의 의옥(疑獄)을 처결함에 매양 신이한 일이 많았다. 글솜씨가 조금 있는 어떤 중 하나가 서울의 권귀(權貴)와 교제하고 있었는데, 표충사(表忠寺)의 원장(院長)으로 세도를 믿고 행악하였다. 「그가 이르는 곳의 수령은 바빠 달려가 그 아래에서 노닐었으며, 비록 방백의 지체로도 또한 예를 대등하게 하였는데, 조금이라도 어김이 있으면 수령들이 노상 곤욕을 치러야 했으니, 도내 관리들이 기용되고 쫓겨나는 것이 모두 이 중의 손에서 나올 지경이었다. 이 자는 호를 남봉(南朋)이라고 하는 자였는데, 각 읍에 폐를 끼치고 사찰에 행악을 하였지만, 승속(僧俗)이 모두 그 앞에서는 눈도 똑바로 뜨지 못하였으며 감히 혈문하지도 못하였다.」

남봉이 마침 일이 있어 창녕을 지나가는데, 정문을 열도록 하고 들어가 수령을 보면서도 예를 차리지 않았다. 고유가 미리 관속들과 짜 두었던 만큼, 잡아 내리도록 하였다. 그 능욕하고 공갈하는 말이야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죽한지라, 마침내 즉시 때려 죽였다. 여러 날 되자 서울 권귀들의 편지가 남봉을 위해 답지하였으나, 인심은 시원하다고 일컬었다.

상서(尙書) 조엄(趙巖)이 영백(嶺伯)이 되었는데, 도내에 금주령을 행하였다. 그러고는 창녕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이방과 죄수를 심문하고 죄를 다스리는 일까지 있었다. 고유가 하루는 감영에 이르러,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술을 사 오게 하여 몹시 취한 채 들어가 감사를 보더니 말하였다.

“창녕에 비록 박주(薄酒)가 있어도 감히 마시지 못하였는데, 이제 감영에 오니 술을 담그지 않는 집이 없고 맛도 좋은지라, 하관이 양껏 마셨습니다.”

감사가 그 뜻을 알고서 미소 지을 뿐 대꾸하지 않았다.

여러 차례 군현(郡縣)을 관장하였지만, 터럭 하나도 집으로 가져가지 않았으므로, 끼니를 잇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하기는 처음이나 같았다. 상주의 이속(吏屬) 하나가 매양 청지기로 따라다녔는데, 쓰고 남은 봉급의 여분은 반드시 그에게 다 주었는지라, 그 사람은 이로 인해 부유하게 되었다. 그 뒤에 고유는 죽었는데, 그 자손은 가난하여 살아갈 수가 없었다. 이때에 그 청지기는 이미 팔십여 세가 되었는데, 하루는 그 아들과 손자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이 이처럼 부유하게 된 것은 모두 고 나으리 덕이다. 나으리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전곡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청덕(淸德)에 누가 될까 싶었고, 설혹 드린다고 해도 받



기를 허락하실 리가 필연코 없었던 고로 차마 여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듣자니 그택의 가세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니, 내 마음이 어찌 편안하겠느냐? 사람이 되어서 배은망덕한다면 하늘이 반드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내가 애초부터 유념하여 모처에 논을 사 두었고, 또 다락 위에 모아 둔 돈도 있다. 장차 이것을 드릴 터이니, 너는 내일 모름지기 그택에 가서 아드님과 손자를 모시고 오너라.

그 아들과 손자가 ‘예, 예.’ 하며 대꾸하였다. 입으로는 비록 응낙하였지만, 마음으로는 내키지 않았기에 그날이 되자 둘러대기를,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합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아버지(청지기)의 뜻을 거부하는 ‘아들’과 ‘손자’의 모습
라고 하였다.

이때에 고유의 손자가 마침 성내에 들어왔다가 잠깐 그 집을 찾아갔더니, 그 사람의 아들과 손자가 밖에서 손사래 쳐 쫓아내며, 그 할아버지와 상면치 못하게 하였다. 고유의 손자가 대로하여 말하려던 것도 말하지 못한 채, 분을 참으며 돌아오는 길에 마침 읍내의 친지를 만나 그 해괴한 형상을 말하였다. 그 사람이 노인에게 가서 묻자, 노인이 몹시 놀라 아들과 손자를 부르더니 몽둥이로 때리고는, 가마를 세내어 타게 하고 곧장 그 집으로 가서 문하에서 대죄하게 하였다. 고유의 손자가 놀라고 의아하여 나와 보자 노인이 억지로 동행하기를 청하였다. 그 집에 이르자 술과 안주로 접대하더니 말하는 것이었다.

“소인이 먹고 입는 것이 선영감(先令監)의 덕택 아님이 없습니다. 소인이 귀택을 위하여 유념하고 장만해 두었던 것을 이제 바치겠으니, 사양치 마십시오.”

청지기가 고유의 은혜를 갚기 위해 고유의 자손에게 선의를 베풀
이어 매년 이백 석을 추수할 논문서와 돈 천 냥 수표를 내어 보내었다. 고유의 손자의 집은 이로 인해 부유하게 되었다고 한다.

상주 사람이 와서 이 일을 전하기에 여기 적어 둔다.

▶ 청렴한 고유와 상관에게 의리를 지킨 청지기



핵심 정리

갈래	야담
성격	교훈적
주제	고유의 강직하고 청렴한 성품과 청지기의 의로움
특징	인물의 일화를 통해 독자에게 교훈을 전달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이희평이 엮은 『계서야담』에 수록되어 있는 야담으로, 청렴하고 강직한 관리와 의로운 청지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작품의 초점은 고유와 청지기의 훌륭한 인품에 맞추어져 있지만 세도를 믿고 행악을 일삼는 남봉이라는 중의 모습이나 다른 지역에는 엄격하면서 정작 자신의 감영에는 너그러운 감사의 형평성을 잃은 태도,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는 청지기의 자손의 모습을 통해 당대 사회의 혼탁함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작품의 구조

남봉과 얹힌 고유의 일화	조엄과 얹힌 고유의 일화	고유를 생각하는 청지기의 일화
권세를 믿고 방자하게 구는 남봉을 처단하는 고유	도내에 금주령이 내려으나 정작 감영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조엄(감사)를 지적하는 고유	고유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고유의 자손에게 선의를 베푸는 청지기



홍길동전(洪吉童傳) / 허균

수능특강 P.135

이육조국어연구소



차시 팔도에서 다 길동을 잡아 올리니 조정과 장안 백성이 망지소조(罔知所措)하여 능히 알 이
 탈관오리를 움직이고 양민을 도와 조정이 길동을 잡기 위해 애쓸 너무 다정하거나 급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갈파갈파함
 가 없더라. 상이 놀라시어 만조(滿朝)를 모으시고 친국(親鞠)하실새 여덟 길동을 잡아 올리니, 저
 희 서로 다투어 이르되, 네가 진짜 길동이요 나는 아니라 하며 서로 싸우니 어느 것이 진짜 길동
 인지 분간치 못할레라. 상이 고이히 여기사 즉시 홍모를 명초(命招)하사 왈,
임금의 명으로 상하를 부름

“지자(知子)는 막여부(莫如父)라 하니 저 여덟 중에 경(卿)의 아들을 찾아내라.”

아버지만큼 아들의 됃됨이를 아는 사람은 없음
 홍 공이 황송하여 돈수청죄(頓首請罪) 왈,

머리를 조아리고 벌을 줄 것을 청함
 “신의 천생 길동은 좌편 다리에 붉은 혈점이 있사오니 일로조차 알리로소이다.”

하고 여덟 길동을 꾸짖어 왈,

“네 지척에 임금이 계시고 아래로 네 아버가 있거늘 이렇듯 천고에 없는 죄를 지었으니 죽기를
길동의 아버지 톡 판서는 길동이 죽과 토를 모두 어겼다고 생각함
 아끼지 말라.”

하고 피를 토하며 엎드려 기절하니, 상이 대경하사 약원(藥院) 내의원(內醫院)으로 구하라 하시되 차도가 없느라.
 여덟 길동이 이 경상(景狀)을 보고 일시에 눈물을 흘리며 낭중(囊中) 주머니 안으로조차 환약 일 개씩
 내어 입에 드리오니, 홍 공이 반향 후(半晌後) 한참 뒤 정신을 차리는지라.

길동 등이 상께 주 왈,

장려 온 여덟 명의 길동 「이 여덟 명 중 실제 길동 한 명의 말을 제시한 것임
 “신의 아버가 국은(國恩)을 많이 입었사오니 신이 어찌 감히 불측한 행사를 하오리이까마는, 신
길동은 아버지 톡 판서와 천한 종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남(길동의 신분적 제약)
 은 본디 천비(賤婢) 소생이라 그 아버를 아버지라 못 하옵고 그 형을 형이라 못 하오니 평생 한이
신분이 천한 여자 중 적서 차별을 막지 못하는 허술한 국가의 제도에 대한 비판
 맺혔삼기로 집을 버리고 적당(賊黨)에 참여하오나, 백성은 추호불범하옵고 각 읍 수령의 준민고택
도둑의 때, 도둑의 무리 (浚民膏澤)하는 재물을 탈취하였사오나, 이제 십 년을 지내면 조선을 떠나 가울 곳이 있사오니
백성의 고혈을 뽑아낸다는 뜻으로, 재물을 마구 착취하여
 백성을 괴롭힘을 이르는 말 길동은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한 수령들의 재산을 탈취하다가 죄인이 되었음
 복걸(伏乞) 성상은 근심치 말으시고 신을 잡는 관자(關子)를 거두옵소서.”」

하고 말을 마치며 여덟 길동이 일시에 넘어지니, 자시 본즉 다 초인(草人)이라. 상이 더욱 놀라
질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물건

시며 진짜 길동 잡기를 다시 행관(行關)하여 팔도에 내리시니라.

가짜 길동이 나타나 벌인 일들이 임금을 기만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 - 길동을 처벌할 생각으로 잡아들이라고 명령함

차설 길동이 초인을 없이하고 두루 다니더니 사대문에 방을 붙였으되,

“요신(妖臣) 홍길동은 아무리 하여도 잡지 못하리니 병조 판서 교지를 내리시면 잡히리이다.”

자신에게 병조판서를 제수해 줄 것을 확실하게 밝힘
 하였거늘 상이 그 방문을 보시고 조신을 모아 의논하시니 제신 왈,

“이제 그 도적을 잡으려 하다가 잡지 못하옵고 도리어 병조 판서 제수하심은 불가사문어인국
 (不可使聞於隣國)이로소이다.”

소문이 퍼지게 할 수 없음

상이 옳다 여기사 다만 경상 감사에게 길동 잡기를 재촉하시더라. 이때 경상 감사가 엄지(嚴旨)
 를 보고 황공 송물(惶恐悚慄)하여 어찌할 줄 모르더니, 일일은 길동이 공중에서 내려와 절하고 왈,

매우 두려워함
 “소제가 지금은 정작 길동이오니, 형장은 아무 염려 말으시고 소제를 결박하여 경사로 보내소서.”



감사가 이 말을 듣고 집수 유체(執手流涕) 왈,

↳ (=직책 이름)길동의 형

“이 무거(無據)한 아이야. 너도 나와 동기어늘 부형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일국이 소동케 하니 어찌 애답지 않으리오. 네가 이제 정작 몸이 와 나를 보고 잡혀가기를 자원하니 도리어 기특한 아이로다.”

길동의 형은 길동이 스스로 찾아와 잡힌 것에 대해 기특하다고 말함

하고 급히 길동의 좌편 다리를 보니 과연 흠점(흉점)이 있거늘, 즉시 사지를 각별 결박하고 함거에 넣어 건장한 장교 수십을 가리어 철통같이 싸고 풍우같이 몰아가되 길동의 안색이 조금도 변치 아니하더라.

『여러 날 만에 정성에 다다르니 권문에 이르러는 길동이 한번 몸을 요동하매 철삭이 끊어지고 함거가 깨어져 마치 매아미 허물 벗듯 공중으로 오르며 표연히 운무에 묻혀 가니 장교와 제군이 어이없어 공중만 바라보고 다만 뉘을 잃을 따름이라.』 할 수 없어 이 연유로 상달하온대 상이 들으시고 왈,

“천고에 이런 일이 어디 있으리오.”

하시고 크게 근심하시니, 제신 중에 일인이 주 왈,

여러 신하

“그 길동의 원이 병조 판서를 한번 지내면 조선을 떠나리라 하오니, 한번 제 원을 풀면 제 스스로 사은(謝恩)하오리니 이때를 타 잡음이 좋을까 하나이다.”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히 여겨 사래함

상이 오히려 여기서 즉시 홍길동으로 병조 판서를 제수하시고 사문(四門)에 방을 붙이니라. 이때 길동이 이 말을 듣고 즉시 사모관대에 서띠〔犀帶〕 띠고 높은 초헌을 험거롭게 높이 타고 대로 상에 완전히 들어오며 이르되,

신하들 중 한 명이 임금에게 그 계략을 알렸기 때문

품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한 데가 있게

“이제 홍 판서가 사은하러 온다.”

하니, 병조 하속(下屬)이 맞아 호위하여 궐내에 들어갈새 백관이 의논하되,

하인의 무리

모든 벼슬아치

“길동이 오늘 사은하고 나올 것이니 도부수(刀斧手)를 매복하였다가 나오거든 일시에 쳐 죽이라.”

큰 칼과 큰 도끼로 무장한 군사

하고 약속을 정하였더니 길동이 궐내에 들어가 숙배(肅拜)하고 주 왈,

백성들이 왕이나 왕족에게 절을 하던 일, 또는 그 절

“소신의 죄악이 지중하옵거늘 도리어 천은을 입사와 평생 한을 푸웁고 돌아가오나 영결(永訣) 전하(殿下)하오니, 복망 성상은 만수무강하소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영원히 헤어짐

살아 있는 자기 나라의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

하고 말을 마치며 몸을 공중에 솟구어 구름에 싸이어 가니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더라. 상이 보시고 도리어 차탄 왈,

탄식하고 한탄함

“길동의 신기한 재주는 고금에 회한하도다. 제가 지금 조선을 떠나노라 하였으니 다시는 작폐할 길 없을 것이요, 비록 수상하나 일단 장부의 쾌한 마음이 있는지라 죽히 염려 없을랴다.”

폐단을 일으킴

나라의 기쁜 일을 맞아 죄수를 석방할 때에, 임금이 내리던 글

하시고 팔도에 자문(敎文)을 내리와 길동 잡는 공사를 거두시니라.

임금이 길동의 말을 믿어 길동 잡는 일을 그만 둠

**핵심 정리**

갈래	영웅 소설, 국문 소설, 사회 소설
성격	현실 비판적, 영웅적, 전기적
배경	① 시간: 조선 세종조(창작연대: 광해군 때(17세기 초)) ② 공간: 조선과 울도국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문체	문어체, 설명적
주제	① 봉건적 계급 타파 ② 탐관오리 응징과 빈민 구제 ③ 해외 진출 사상 ④ 이상국 건설에 대한 염원
특징	① 조선 시대의 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 의식이 두드러짐 ② 영웅 설화의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설화 문학의 전통을 계승함 ③ 최초의 한글 소설로 알려져 있음 ④ 둔갑술, 도술 등 비현실적 요소와 우연적 요소가 강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을 반영하고 있는 최초의 한글 소설로,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적서 차별, 탐관오리의 횡포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시각도 잘 드러나 있다. 홍길동이라는 영웅적인 면모를 지닌 주인공을 내세워 그의 일대기 형식으로 전개되는 작품이다. 특히 제시문에는 집을 떠난 길동이 탐관오리들의 재물을 탈취하여 백성들을 도와주는 의적으로 활약하여 조정과 대립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길동의 신이한 능력이 드러나는 부분과 길동의 분신들이 나오는 부분에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작품의 전기적 요소를 엿볼 수 있다.

작품의 구조

발단	길동은 홍 판서와 천비 춘섬 사이에서 서자로 태어난다. 그는 총명한 재주에 학식이 뛰어나 홍 판서의 사랑을 받지만, 천비 소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천대를 받고 울분 속에서 나날을 보낸다. 길동은 집안에 자신을 해치려는 무리들이 있음을 알고 출가한다.
전개	길동은 위기를 피해 집을 나와 떠돌던 중, 도적의 무리를 만나 그들의 괴수가 되어 활빈당(活貧黨)을 조직한다.
위기	길동은 팔도의 탐관오리들을 응징하고 양민을 돕지만 조정에서는 그를 잡기 위해 애를 쓴다.
절정	조정에서 길동을 회유하려고 병조 판서로 임명하자, 길동은 조선을 떠나 남경으로 가던 중 울도국을 발견하고 이를 정벌하여 왕이 된다.
결말	길동은 울도국에서 선정을 베풀다가 신선이 되어 사라진다.



전체 줄거리

홍 판서의 아들 길동은 어려서부터 도술을 익히고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기상을 보였으나 시비 춘섬에게서 태어난 서자인 탓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한을 품는다. 홍 판서의 첩 초란은 길동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기를 벗어난 길동은 집을 떠나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어 도술로써 팔도 지방 탐관오리가 모은 불의의 재물을 탈취하여 빈민에게 나누어 주는 의적으로 이름을 날린다. 길동을 잡으라는 임금의 명령에 여덟 명의 길동이 한꺼번에 잡혀와 임금과 조정을 농락하고 사라져 버린다. 이후 길동은 병조 판서의 교지(敎旨)를 내리면 잡히겠다는 방을 써서 사대문에 붙여 관가를 희롱한다. 결국 조정에서는 길동에게 병조 판서를 제수하게 되고 길동은 평생의 한을 풀어 준 천은(天恩)에 감사하며 공중으로 사라진다. 비로소 임금은 그 기이한 재주에 감복하여 길동 잡기를 단념한다. 길동은 임금에게 하직하고 부하들을 데리고 고국을 떠나 남경으로 가다가 산수가 화려한 울도국을 발견하여 그곳의 요괴를 퇴치하고 울도국 왕이 된다. 그러다 아버지 홍 판서의 부음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삼년상을 마치고 다시 울도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잘 다스린다.

인물 분석

홍길동	홍 판서의 서자로 태어나 당대의 모순 된 사회 제도에 정면으로 항거하고, 자신의 이상을 성취해 나가는 영웅적 인물
홍 판서	- 명문 거족의 후예로 전형적인 양반 - 길동의 재능을 아까워하고 그의 처지를 이해하나 적서 차별이라는 당시 사회적 관념과 질서를 따르는 보수적 인물
춘 섬	- 홍 판서의 시비이면서 길동의 어머니 - 온갖 고난과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는 전형적인 한국의 여인상

‘홍길동전’의 영웅 소설적 구조

혈통	고귀한 혈통의 인물	홍 판서의 아들
태생	비정상적인 잉태와 출생	시비에게서 서자로 태어남
능력	비범한 지혜와 능력을 지님	총명하고 도술에 능함
위기	어려서 버림을 받고 시련을 당함	초란이 자객을 보내 길동을 죽이려 함
고난	구출, 양육자를 만나서 위기를 벗어남	도술로 자객을 죽이고 위기를 벗어남
위기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힘	활빈당을 조직하자 조정에서 길동을 잡아 반역죄로 다스리려 함
결말	투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자가 됨	국가 권력과의 투쟁에서 이겨 병조 판서를 제수받은 뒤 울도국의 왕이 됨

**결말 구조**

이 작품의 결말은 길동이 병조 판서를 제수받은 후 해외로 나가 율도국이라는 이상국을 건설하고, 그 곳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당대 사회의 모순을 척결하고 새로운 이상 사회를 세우고자 하는 작가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사회 개혁에 대한 작가의 좌절을 이상향으로 도피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홍길동전’에 나타난 당대 사회의 모습

적서 차별이 엄격하게 지켜짐	적자가 아닌 서자들은 자식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벼슬길에도 나갈 수 없었다.
신분의 격차가 존재했음	홍길동의 아버지 홍 판서는 양반이며, 어머니 춘섬은 종이다.
탐관오리들의 약탈이 심했음	길동이 탐관오리를 응징하는 것을 보면 당시 많은 부패 관리들로 인해 사회가 혼란했음을 알 수 있다.

‘홍길동전’의 문학사적 의의

1. 최초의 국문소설
2. 사회제도의 불합리성을 고발한 저항 현실 참여 문학의 첫 작품
3. 영웅의 일생이라는 한국 서사 전통이 최초로 소설화된 작품
4. 전기(傳奇)적 요소는 있지만 현실적 소재로 그 이전보다 소설다운 형태를 갖추

작가 소개

허균(許筠, 1569~1618) : 조선 선조 ~ 광해군 때의 문인, 정치가. 자는 단보(端甫), 호는 교산(蛟山). 허난설헌의 동생. 선조 대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 판서, 의정부 참판을 지냈으며, 광해군 때 반란 모의 혐의로 처형되었다. 시·비평에도 안목이 높아 『국조시산』 등 시선집을 편찬하고, 『성수시화』 등 비평 작품을 썼다. 『유재론(遺才論)』, 『호민론(豪民論)』 등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한 글이다.

갈래로 엮어 읽기 - 영웅 소설

- 「전우치전」 : 조선 시대에 실제로 존재했었던 전우치를 소재로 하여, 그의 도술과 활약상을 담고 있다. 사회의 부조리 타파와 개혁 의식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홍길동전의 아류작으로 꼽힌다.
- 「유충렬전」 : 조선 후기의 작품으로, 유충렬이란 인물이 간신의 모함에 빠져 시련을 당하나 이를 이기고 국가와 임금을 구한다는 전형적인 영웅 소설이다.



“부자가 될 양으로 박을 심었다가 다수한 재산을 다 패하고 전후에 없는 고생과 매 맞은 일이며
계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후 고쳐주어 박을 얻었으나 황금을 얻지 못하고 토되게 당함
 끝에 와서는 온 집안사람이 당동 소리로 병신이 되니 이런 분하고 원통한 일이 어데 있으리오.”

일변 낮을 가지고 동산으로 올라가서 박 덩굴을 함부로 오려 버릴새 뵈지 않는 덩굴 밑에 **박 한 통**
국면 전환의 소재
 이 그저 있으되 크기가 인경 만 하고 무게가 천 근이나 되는지라.

조선 시대에, 동행금지를 알리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치던 종
 놀부가 그걸 보더니 분한 생각은 눈 슬 듯하고 허욕이 버쩍 나서 혼잣말로,

“그러면 그렇지, 인제야 보물 든 박을 얻었도다. 무게를 보아도 금이 많이 든 모양이요, 또 재물
크기가 큰 박을 보고 보물이 든 박이라고 쉽게 단정하는 놀부의 성급한 성격이 드러남
 이 많이 든 고로 남의 눈에 띄지 아니하려고 덩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모르고 공연히 한탄을 하
 였으며 그 전 박통에서 나온 초라니 말이 금이 들기는 어느 박통에 들었으리라 하더니 그 양반 말이
 과연 옳도다. 황금 든 박이 여기 있는 줄 알았다면 다른 박을 타지 말고 이 박을 먼저 켜올 것을.”

계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후 고쳐주어 박을 얻었으나 황금을 얻지 못함
 희불자승(喜不自勝)하여 그 박을 따 가지고 내려오며,

어제할 바를 모를 만큼 매우 기쁨
 “좋은 것을 좋은시고, 지화자 좋은시고. 곱사등이 같은 박복한 놈 시종(始終)을 아니 보고 달아
4·4조의 운문체 -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났으니 제 복이 그뿐이로다.” 처음과 끝

놀부 계집 내달아 하는 말이,

“그만두오, 그만두오. 박에 신물도 아니 낱나? 만일 또 불량한 박이 나오면 어찌려고 박을 또
또다시 박에서 황금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토되게 당할 것을 염려함
 따 가지고 읊나?”

놀부 이른 말이,

“방정맞고 요사한 년 물렀거라. 이 박은 정통 금박이니 재물이란면 넌들 아니 귀히 되랴. 잔말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성급한 행동을 보이는 놀부
 말고 우리 두 양주 정성들여 켜 봅세.”

박을 앞에 놓고 톱을 대어 탈새,

“슬근슬근 톱질이야, 당기어 주소 톱질이야.”

슬근슬근 타다가 반쯤 켜고 놀부가 우선 궁금증이 나서 박 속을 기웃이 들여다보니 그 속이 아
 주 싹누런 것이 온통 황금 같거늘 놀부 보다가,

“수 났구나, 그럼 그렇지. 마누라, 자네도 이 박 속을 들여다보소. 저 누런 것이 온통 황금덩일세.”

은수
 놀부 아내 하는 말이,

“누런 것을 보니 금인가 싶으오마는 그 속에서 구린내가 물큰물큰 나니 그것이 웬일이오?”
황금이 아니라 구린내 나는 물건(똥)이 담겨 있음을 암시
 놀부 이른 말이,

“자네도 미혹한 말 조금 하소. 박이 더 익고 덜 익은 것이 있으니 이 박은 아주 농익은 고로 구
 린 냄새가 나는 줄을 모른단 말인가? 어서 바빠 타고 보세.”

“슬근슬근 칠팔 분이나 타다가 놀부 양주 궁금증이 또 나서 톱을 멈추고 양편에 마주 앉아 들여
 다보니 별안간 박 속에서 모진 바람이 쏘아 나오며 벼락같은 소리가 나더니 똥 줄기가 무자위 줄
똥을 높은 곳으로 퍼 올리는 기계



기처럼 내쫓는지라. 놀부 양주가 똥 벼락을 맞고 나동그라지며 똥 줄기는 천군만마가 달려 나오는
과장법, 해학적 표현 -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듯 태산을 밀치고 바다를 메울 듯 삼시간에 놀부 집 안팎채에 가득하니 놀부 양주 온몸이 황금덩
놀부가 똥을 뒤집어 쓴 모습
 이가 되어 달아나 멀찍이서 바라보니 온 집 안이 똥에 묻혔는지라. 『만일 왕십리 거름 장사가 알게
『 』 :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시 박을 타서 화를 입게 됨 서술자적 논평
 되면 한밑천 잡게 되었다라. 놀부 늙이 기막혀 밭을 동동 구르며 하는 말이,

“여보 마누라, 이 노릇을 어찌하잔 말이오. 재물을 얻으려다가 수다히 있는 재물 다 탕진하고 나
욕심을 부리다 재물을 다 잃고 일을 못 하나 전절 것이 없어짐
 중은 똥으로 하여 의복 한 가지 없게 되니 어린 자식들과 장장 하일(夏日)에 무엇 먹고 살아나며
길고 긴 여름날
 동지선달 설한풍에 무엇 입고 사잔 말이오. 애고애고, 설운지고.”

눈 위로, 또는 눈이 내릴 때에 휘몰아치는 자고 매서운 바람
 이처럼 땅을 두드리며 통곡할 제 앞뒷집에 사는 양반 제집까지 똥이 밀려가서 그득한지라. 그
 양반들이 공론하고 고두쇠를 벼락같이 부르더니 놀부 늙을 즉각 잡아오라 분부한다. 『고두쇠 늙이
 워낙 놀부 늙을 미워하는 터이라 조총(鳥銃)같이 달려가서 놀부 늙의 덜미를 쫓쫓 쫓아 풍우같이
새총
 몰아다가 생원님 앞에 꿇린대, 생원님이 호령하되, 『 』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장면의 생동감을 높임

“이놈 놀부야, 듣거라. 내가 본디 부모에 불효하고 형제간 불목하고 일가에 불화하고 다만 재물
생원님의 말을 통해 인물의 성격이 드러남 - 탐욕스럽고 목인정한 놀부
 만 아니, 도적보다 더 심할뿐더러 무슨 몸쓸 짓을 하다가 동네 양반이 귀가 시끄럽게 네 집에 환란
군성과 개마
 이 첩출(疊出)하여 패가망신을 하니 그는 네 죄에 짝 일이어니와 네 죄로 하여 동네 양반 이 똥
같은 사물이 거듭 나옴
 으로 못살게 되니 그런 죽일 늙이 어데 있으리오. 네 죄는 종속소기(從俗所期)려니와 우선 양반
시속(時俗)에 따라 처리함
 덕에 쌓인 똥을 해전에 다 처내되 만일 지체를 할 지경이면 죽고 남지 못하리라.”

해가 지기 전
 하고 일변 고두쇠를 호령하여 놀부를 결박하여 절굿공이 찜질을 하며 기왓장에 꿰려 앉히고 똥 처
 내기 전은 끌러 놓지 말라 하니, 『놀부 늙 가뜩 망극 중 기가 막히어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기왓장
『 』 : 서술자가 사건을 요약하여 제시함
 에 꿰어앉은 채 제 계집을 시켜 돈 오백 냥을 갖다 놓고 빨리 샅군을 놓아 왕십리, 안감내, 이태
 원, 둔집이, 청파, 칠패 여러 곳에 있는 거름 장사들을 있는 대로 불러다가 샅을 후히 주고 똥을
 처낸 후에야 놀부가 겨우 놓여 와서, 부부 서로 붙들고 갈 곳이 없어 통곡하더니, 『이때 흥부가 놀
가진 돈으로 각지에 있는 거름 장사를 불러 모아 똥을 치웠기 때문
 부의 패가망신함을 알고 대경하여 일변 노복(奴僕)을 시켜 교자(轎子) 두 채와 말 두 필을 거느리

크게 놀람 사내종 가마(작은 수레)
 고 친히 건너와 놀부 양주와 조카를 교자에 태우고 말을 태워 제 집으로 돌아와 일변 안방을 치우
 고 안돈(安頓)시킨 후 의식을 후히 하여 때로 공궤(供饋)하며 날로 위로하고 일변으로 좋은 터를
(사물을) 잘 정돈함 음식을 줌
 정하여 수만금을 들여 집을 제 집과 같이 짓고 세간 집물이며 의복 음식을 한결같이 하여 그 형을
 살게 하니, 『놀부 같은 몸쓸 늙일망정 흥부의 어진 덕에 감동하여 전일을 회과(悔過)하고 형제 서로
『 』 : 자신을 매물자게 내쫓은 형이지만 아우된 도리를 다하는 착한 례부 허물을 누우침
 화목하여 남에 없는 형제가 되니라. 흥부 내외는 부귀다남하여 향수(享壽)를 팔십 하고 자손이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아들이 많음 오래 사는 복을 누림
 번성하여 개개 옥수경지(玉樹瓊枝) 같아 가산이 대대로 풍족하니 그 후 사람들이 흥부의 어진 덕
옥으로 만든 나무와 그 가지,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일컬음
 을 칭송하여 그 이름 백세에 민멸(泯滅)치 아니하더라.』
자취나 흔적이 아주 없어짐 『 』 :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 행복한 결말

**핵심 정리**

갈래	국문 소설, 판소리계 소설
성격	풍자적, 해학적, 교훈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표면적 주제 -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 이면적 주제 - 빈부 간의 갈등
특징	① 3·4, 4·4조, 4음보의 운문체와 산문체가 결합한 문체임 ② 구어체 사용이 많음 ③ 상투적 비유어, 관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함 ④ 현재형 시제를 사용함 ⑤ 서술자의 개입이나 편집자적 논평이 많음

작품 해제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흥부와 놀부의 우애에 관한 도덕적 관념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고전 소설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몰락하는 양반 사회와 서민들의 곤궁한 생활상에 대한 내용을 통해 사회 경제적인 갈등도 다루고 있다. 착한 흥부와 욕심 많은 놀부의 대비가 큰 축을 이루며 전개되는 이 작품은 탐욕스러운 놀부가 벌을 받고 이를 흥부가 감싸는 결말로 이어지는데, 이런 전개가 가혹하고 비극적인 분위기보다 다분히 해학적인 분위기로 전개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이 작품이 당시의 사회적 폐해나 그로 인한 비극적인 삶에 대해 절망하기보다 웃음을 통해 시련을 극복해 내는 서민 특유의 건강한 방식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체 줄거리

심술 고약한 형 놀부와 순하고 착한 아우 흥부가 살았는데, 놀부는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한 후 흥부를 내쫓고, 쌀을 구하러 온 흥부에게 매질까지 하며 혹독하게 군다. 어느 날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치료해 주는데, 이듬해 그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준다.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어 수확한 박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흥부는 큰 부자가 된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후 다시 고쳐 준다. 제비는 놀부에게도 박씨를 물어다 주었으나, 놀부의 박에서는 온갖 부정한 것들이 쏟아져 나와 놀부는 몰락한다. 놀부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흥부는 놀부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고, 이에 놀부는 개과천선한다. 이후 형제는 화목하게 살았다.



이육조 선생님의
변화를 이끄는 감동국어

이육조국어연구소

EBEST
수능 특강 지문 분석서

[고전문학]



Ⅲ / 고전극 & 수필

01. 작자미상, 「봉산탈출」	186
02. 정약용, 「수오재기」	192
03. 작자미상, 「양주 별산대 놀이」	196
04. 이옥, 「어부」	202
05. 작자미상, 「적벽가」	205





제 6 과장 양반춤

서양 연극의 '막' - 봉산 탈춤은 전체 7과장의 오프닝 구성을 취함

비판적·저항적 인물 - 양반을 풍자하고 조롱함 → 준항적의 '방자'형 인물

말뚝이 (병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주로 병졸, 하인이 쓰던 모자 마부의 신분용 드러냄

각각로 맞추는 느린 4박자의 강단(관객의 흥미 유발, 신명·흥취 조성)

양반 삼 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
장. 양반 삼 형제 중에서 맏이는 생님(生員), 둘째는 서방님(書房), 끝은 도련님(道令)이다. 생님
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건을 썼다. 생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
며(생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
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회화화 ④ - 양반의 정신적 결함 풍자

말뚝이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이 전개됨

『조선헌기 무능력한 양반의 전형 - 풍자와 조롱의 대상』

『』: 회화화 ① - 양반 계급의 위선과 허위 의식 풍자

생원님의 준말(생원은 평민이 양반을 이르는 말) 도복을 입을 때 머리에 쓰는 두건

소작옷의 준말, 두루마기와 유사한 옷

등줄을 길게 빼고 소매가 없는 옷

입술이 선천적으로 찌어진 사람

회화화 ② - 양반의 신체적 결함 풍자

양반의 신분과 권위 상징

회화화 ③ - 양반의 신체적 결함 풍자

▶ 말뚝이와 양반 삼 형제의 등장

※쉬이(재담의 시작)

① 총과 재담의 경계 - 총에서 대사로 전환 ② 극적 분위기 조성 - 관객의 시선 집중 ③ 화자의 은밀한 폭로 예고
④ 악공과 관객을 대상으로 함 ⑤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림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정상적인 주종 관계 표현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육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 재상(退老宰相)
사색당파의 하나 - 문매사 부정적 (관객 이름이 아님) 늙어서 벼슬에서 물러난 재상

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털이 붙어 있는 채로 무뎅질하여 다른 개의 가죽 상다리 모양을 개다리와 같이 만든 조그마한 방상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 '양반'의 의미를 '개잘량'과 '개다리소반'으로 풀이 - 방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 → 양반 조롱·풍자 → 해학성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육당을 다 지내
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
리하였소.』

『』: 말뚝이의 태도 - 병 주고 약 준다. 등치고 배 묻지른다. 어르고 뺨친다, 면종복배(面從腹背),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반들: (합창) 이 생원이라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말뚝이의 조롱을 눈치 채지 못함 - 양반의 어리석음 → 해학성

갈등의 일시적 해소 / 재담의 끝

모자라고 방정맞은 모습

※중(재담의 마무리)

① 회극적·방언적 성격 - 양반의 어리석음을 강조 ② 장면 전환의 역할 - 인물의 등장과 퇴장
③ 관객의 흥 돋우기, 신명의 분위기 조성 ④ 갈등의 일시적 해소 - 갈등의 지나친 심화를 막음
⑤ 재담 내용의 구분 - 전체 과정을 통일시키는 효과를 지님

▶ '양반'의 뜻풀이 재담

말뚝이: 쉬이. (반주 그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잘따란 곧
: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음 - 관객의 극중 개입 가능, 공연 장소와 극중 장소의 일치

방대로 잡숫지말고 연죽전(煙竹簾)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
관객의 신분 양식(평민 ↔ 양반(장죽)) 당배를 피는 가계

죽(洋漆筍竹), 자문죽을 한 발 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모각지 희자죽, 오동수북 연변
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載寧) 나무리 거이 낚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

『한 당배대의 죽품』

『한 발 반 정도의 긴 당배대』

백동으로 만든 당배대에 검은색 구리로 '수'나 '목' 자를 박은 것

『한 발: 양 팔을 벌린 길이』

육각형 모양의 당배대

『당배대를 만들 때 쓰는 대나무』

지명

재령에 있는 평야 이름



시오.』

『』: 개를 낚을 때 낚싯대를 줄줄이 걸어 놓듯이, 그렇게 담뱃대를 죽 걸어놓고 담배를 많이 피우시오.
→ 양반에 대한 조롱(당시 서민들은 양반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했음)

양반의
질책

양반들: 뭐야아!

말뚝이
의
변명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흰화(喧譁)를 금하라 그리하
시끄럽게 지껄이며 떠들
였소.

양반의
안심양반들: (합창) 흰화를 금하였다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재담의 끝

양반의 어리석음 희화화 → 해학성 유발

▶ 담배와 흰화를 금하는 재담

핵심 정리

갈래	가면극(전통극, 민속극, 탈춤) 대본
성격	풍자적, 해학적, 서민적, 비판적
배경	① 시간: 조선 후기 (18세기 이후) ② 공간: 황해도 봉산 지방 ③ 사회: 물질적 가치 숭상, 신흥 상인층 등장, 신분 질서의 동요
문체	대화체, 구어체
구성	전 7과장 중, 제 6과장 '양반춤'
주제	양반의 허세에 대한 비판과 풍자
특징	① 말의 성찬: 자유 분방한 열거와 대구, 언어 유희, 과장 사용 ②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로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 ③ 언어의 양면성: 서민적인 비속어 + 양반투의 한자어 ④ 일정한 재담 구조의 반복 ⑤ 풍자와 해학으로 조선 후기 평민 의식을 반영하고 있음 ⑥ 몇 개의 과장들이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는 유니버스 구성을 취하고 있음

작품 해제

「봉산 탈춤」은 국가 무형 문화재 제17호로, 황해도 봉산군에서 전승되던 탈춤이다. 해서 지방에서는 1년에 한 번 탈꾼들을 불러다가 장터에서 탈춤을 추게 하였다고 한다. 「봉산 탈춤」은 7개의 독립된 과장(마당)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과장과 끝 과장의 내용이 유기적인 연속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내용은 남성 중심적 봉건제 사회에서 횡포를 부리는 남성이나, 사회 특권 계층인 양반에 대한 풍자와 비판 등이 주를 이룬다.



재담의 구조

‘양반의 위엄 - 말뚝이의 조롱 - 양반의 호령 - 말뚝이의 변명 - 양반의 안심’의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말뚝이는 양반의 호령에 대해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지만 양반에 대한 조롱을 반복함으로써 양반의 무능함과 이중성을 폭로한다.

쉬이 (재담의 시작)	재담	춤 (재담의 끝)
▪ 춤과 재담의 경계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함) ▪ 극적 분위기 조성 (관객의 시선 집중) ▪ 악공, 관객 대상 (화자-은밀한 폭로 예고)	쉬이 ↓ ① 양반의 위엄 ↓ ② 말뚝이의 조롱 ↓ ③ 양반의 질책(호통) ↓ ④ 말뚝이의 변명 ↓ ⑤ 양반의 안심 ↓ 춤 갈등 갈등 회피 ▪ 동일한 구조의 재담이 반복됨으로써 ‘양반에 대한 풍자’라는 주제 의식을 강화함	▪ 재담을 구분함 (전체 과장 통일) ▪ 갈등의 일시적 해소 ▪ 장면전환 역할 (인물의 등장/퇴장) ▪ 관객의 흥취와 분위기 고조

전체 줄거리

탈놀이는 7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과장> ‘4상좌 춤’은 상좌 네 명이 사방 신에 대해 절로써 예를 표하는 것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의식무이다. <제2과장>은 ‘8목중춤’으로 여덟 명의 목중들이 등장하여 각기 자기소개를 하는 대목과, 법고를 가지고 목중이 재담을 하는 대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3과장>은 ‘사당춤’으로 거사들과 사당이 놀랑가를 부르며 논다. <제4과장>은 ‘노장춤’으로 소무에게 유혹된 노장이 파계하는 대목, 노장이 소무를 위해 신발을 외상으로 사는 등 노장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대목, 취발이가 노장에게서 소무를 빼앗고 살림을 차리는 대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과장>은 ‘사자춤’으로 목중들이 부처님이 보낸 사자에게 회개한다. <제6과장>은 ‘양반춤’으로 양반과 마부인 말뚝이가 나누는 재담이 주를 이룬다. <제7과장>은 ‘미알춤’으로 난리 중에 헤어졌던 미알할미가 영감을 찾아오지만, 영감의 첩 때문에 영감에게 맞아 죽는다.



인물 분석

	말뚱이	양반 삼 형제
신분	▪ 하인(마부): 피지배 계층 → 서민의 대변자	▪ 양반: 지배 계층 → 무능한 양반의 전형적인 인물
차림	▪ 벋거지, 채찍	▪ 부채, 장죽(양반의 권위 상징)
역할	▪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함	▪ 풍자와 조롱의 대상됨 ▪ 외양과 행동 묘사를 통해 희화화됨
태도	▪ 비판적, 저항적 인물(방자형) → 도전적, 공격적임	▪ 무식하고 무능력함 → 권위를 드러내려 하나 무식함이 폭로됨
취발이	▪ 신분: 조선 후기 경제적 능력이 있는 신흥 상인 계층 ▪ 역할: 양반이 취발이의 불법 행위를 돈을 받고 눈 감아 줌 → 양반의 부정부패를 폭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등장시킴	

'쉬이'와 '춤'의 역할 및 기능

쉬이	▪ 재담의 시작 ▪ 춤과 대사의 경계 ▪ 관객의 주의 환기 및 관심 유도 ▪ 새로운 사건의 시작 예고	춤	▪ 재담의 마무리 ▪ 장면의 구분 ▪ 갈등의 일시적 해소 ▪ 극의 신명과 분위기 고조
----	---	---	--

언어유희

같은 발음이나 유사한 발음을 이용하는 일종의 말장난인 언어유희로 말뚱이가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한다.

개잘량 + 개다리소반	▪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 '양반' (兩班)의 의미= 개잘량의 '량'과 개다리소반의 '반'
-------------	--

말뚱이 대사의 특징

- 일상적인 언어보다 거침없고 원기 왕성함
- 자유분방한 열거와 대구, 과장된 표현을 통해 익살스러움을 드러냄
- 4음보, 대구, 율림소리의 사용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함
- 양반의 어법을 흉내 내며 반어의 표현 기법을 사용함



제6과장에 나타난 조선 후기의 사회상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상	▪ 돈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됨('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 돈을 받고 취발이를 놓아 주자고 함(양반의 부정부패와 타락상)
상인 계층의 급속한 성장	▪ 세력이 강한 상인 계층(취발이: 힘세고 날래며 경제력을 갖고 있음)제시 ▪ 자본주의 사회로의 진입을 나타냄
양반의 권위와 위력이 남아 있음	▪ 종이 조각에 불과한 전령이지만, 샌님(양반)의 전령이 힘세고 날랜 취발이를 쉽게 잡아들임
신분 질서의 동요	▪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것으로 보아 신분 질서가 동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탈춤의 특징

① 독립적인 옴니버스 구성	▪ 사건들 간의 인과 관계 없이, 독립된 여러 개의 장면을 통해 하나로 엮은 구성 ▪ 여러 개의 장면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양반에 대한 풍자' 라는 주제의 동일성 때문
②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음	▪ 관객과 악공의 극중 참여가 자유로움 ▪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③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음	▪ 공연장소가 곧 극중 장소이며, 장면 전환이 자유로움 ▪ 말뚝이: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춤과 음악이 끝나고 새 처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 '취발이 살짝 들어와 한편 구석에 서 있다.'
④ 평민 의식이 성장한 조선 후기에 정립됨	
⑤ 주로 희극적 갈등 구조를 지님	
⑥ 언어 사용의 양면성: 서민층의 비속어와 양반층의 한문구의 혼용	
⑦ 극의 진행은 대사와 춤, 노래가 함께 사용	
⑧ 언어 유희, 반어적 표현, 익살과 과장, 풍자 등을 통해 양반에 대한 비판이 해학적으로 표현이 사용됨	

탈춤과 서양 연극의 차이점

구분	전통 가면극	서양 연극
구성	▪ 각 과장이 각기 주제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구성됨(옴니버스식 구성)	▪ 단일한 주제 ▪ 전체가 인과 관계에 의해 구성됨
시간 공간	▪ 극중 시·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함 ▪ 극중의 시·공간과 공연 현장의 시·공간이 구별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	▪ 극중 시·공간에 제약을 받음 ▪ 극중 시·공간과 현장의 시·공간이 엄격히 구분됨
관객	▪ 공연 중에 능동적으로 참여함	▪ 수동적으로 감상함
무대	▪ 특정한 무대나 무대 장치가 필요 없음	▪ 무대를 별도 공간으로 마련하고, 무대와 객석을 엄격히 구분함



갈래로 엮어 읽기

「봉산 탈춤」은 가면극이며, 아래 제시된 「꼭두각시 놀음」은 인형극이다. 두 장르는 희극적이고 골계적이며 독립적인 마당으로 나누어져 있는 옴니버스식 구성을 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봉산 탈춤」	「꼭두각시 놀음」
갈래	가면극	인형극
차이점	- 대사와 춤으로만 표현함 - 객석과 무대가 구분되지 않음 - 풍자와 해학을 통해 불합리한 세상에 대한 저항 의식을 표출함	- 대사와 창, 인형의 몸동작으로 구성됨 - 간단한 무대가 필요하지만 경계가 희미함 - 직접적·노골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이 나타남
공통점	희극적이고 골계적이며 독립적인 마당으로 나뉜 옴니버스식 구성	

꼭두각시 놀음 / 작자 미상

〈제5막〉

돌모리집: 여보, 영감, 별안간에 그게 무슨 말이오. 그까진 본마누라를 찾으면 무엇한단 말이오. 나는 명산 대찰 구경하러 나선 줄 알았더니 인제 보니까 마누라 좋은 산과 큰 절 찾아다녔구려. 아이고, 속상해. 이 팔자가 왜 이렇게 기막힌가.

표 생원: (화를 내며) 요사스런 계집이로군? 대장부가 아무려든 무슨 잔말이냐?

다시 사회의 남성적인 권위 의식이 드러남

돌모리집: 그렇지 작은집이란 이러기에 서러워. 본부인이 아닌 둘째 부인 (중략)

표 생원: 허허, 이게 웬 소린가. 나 같은 이 또 있는가. 어디서 마누라 소리가 나는 듯 나는 듯 하네. 나도 한번 불러 볼까. 여보 마누라, 여보 마누라.

꼭두각시: 어디서 영감 소리가 나는 듯 나는 듯, 여보 영감, 여보 영감.

표 생원: 어디서 마누라 소리가 나는 듯 나는 듯. (창) 거기 누가 날 찾나. 날 찾을 이 없건마는 거 누가 날 찾아. 「기산영수 별건곤(箕山潁水別乾坤)에 소부 허 기산의 영수에서 물당하던 소부와 허유

유(巢父許由)가 날 찾나. 채석강 명월하(採石江明月下)에 이적선(李適仙)이 날 찾나. 상산사호(商山四皓) 늙은이가 바둑 두자고 날 찾나?」

채석강의 밝은 달 아래에 있던 이태백
난을 피해 바둑을 두는 늙은이라는 뜻으로 신선을 말함

「: 중랑전과 봉산 탈춤에도 등장하는 구절(상투적인 표현 사용)

꼭두각시: 아이고, 이게 웬 소린가. (차차 표 생원에게 가까이 오면서) 아이고, 이게 웬 소린가. 거 영감이요.

표 생원: 거 마누라인가.

핵심 정리

갈래	민속극, 인형극 대본
성격	풍자적, 희극적, 골계적
구성	독립적인 마당으로 나뉜 옴니버스식 구성
제재	박 첨지와 꼭두각시의 다툼
주제	하층민의 다양한 삶의 양상 지배 계급의 횡포와 그에 대한 풍자
의의	현재까지 전래된 유일한 민속 인형극으로, 우리 민속극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연극사 자료임

작품 해제

이 작품은 남사당패와 같은 유랑 예인 집단이나 마을 주민들에 의해 연행되었던 민속 인형극이다. 흥동지, 박 첨지 따위의 여러 가지 인형을 무대 위에 번갈아 내세우며 무대 뒤에서 조종하고 그 인형의 동작에 맞추어 조종자가 말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장면에 나타난 주제 의식

이 장면은 새로운 부인을 얻은 표 생원이 옛 아내인 꼭두각시를 찾아 나섰다가 해후하는 부분이다. 당시에 성행했던 일부다처제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있다.



수오재(守吾齋)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신의 집에다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중심 소재}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글쓴이 정약용의 큰 형인 정약현} ^{외문 제기 - 독자의 관심 유발, 글의 조정 제시}

▶ '수오재'라는 이름에 대한 의문

내가 장기로 귀양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생각해 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되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이렇게 스스로 말하였다. ^{경상북도 포항시 작기면(글쓴이는 신유박해 때 작기로 유배되었음)} ^{'나'를 지키는 것의 의미}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내 발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발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정원의 여러 가지 ^{본질적 자아를 지켜야 함} 꽃나무와 과일나무들을 뽑아 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혔다. 내 땅속 깊이 뿌리가 박혀 있는 대상으로 그냥 두어도 다른 사람이 뽑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는 대상』 책을 훑쳐 없앨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가 있겠는가. 나의 의복과 나의 식량을 도둑질해 가 나를 군색하게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천하의 많은 실이 모두 나의 옷감이며, 천하의 곡식이 전부 나의 식량인데, 도둑이 비록 훑쳐 간다 하더라도 그 한들에 불과할 것이니 천하의 모든 옷감과 곡식을 모두 바닥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 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음은 강조함}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꾀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며,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한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 유혹과 위험에 약한 '나'의 속성} ^{인간은 세상의 유혹과 위험에 흔들려 자신을 잃기 쉬운 존재임} ^{『나』를 잃기는 쉬우나 다시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으리오.”

▶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

나는 ^{본질적 자아}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어렸을 때에 과거(科擧)가 좋게 보여서, 십 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관대에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 비단 도포를 입고, 십이 년 동안이나 미친 듯이 대낮에 커다란 길을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새재를 넘게 되었다. 친척과 선영을 버리고 곧바로 ^{대우법(벼슬길에 나섬을 의미)}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에는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서 숨도 쉬지 못하면서, ^{비유(벼슬길에서 쫓겨나 장기로 유배를 음)} ^{『』: 과거에는 공부와 벼슬길에 집중하여 '나'를 잃었으나, 현재에는 귀양살이를 하며 '나'를 붙잡아 함께 할 나의 발뒤꿈치를 따라 이곳까지 함께 오게 되었다.}

내가 나에게 물었다.

^{현상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로 구분하여 서로 대화함(자아 성찰)}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다귀신이 불러서 왔느냐. 네 가정과 고향이 모두 ^{소내(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마현 마을 - 정약용의 생가가 있는 곳)} 초천에 있는데, 왜 그 본바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 '나'를 지키지 못한 과거에 대한 반성



이육조국어연구소

그러나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엽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 이때 둘째형님 좌랑공도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남해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

▶ 귀양지에서 붙잡은 '나'

오직 나의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오재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큰형님이 그 거실에 '수오재'라고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 귀양지에서 붙잡은 '나'

▶ 본질적 자아

▶ 큰 형님이 살고 있는 곳

『맹자가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하였으니, 이말씀이 진실하다.』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오재의 기(記)로 삼는다.

『기』: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삼음

뜻을 기록한 문서

▶ 이 글을 쓴 이유

핵심 정리

갈래	한문 수필, 기(記)
성격	자성적(自省的), 자경적(自警的), 회고적, 교훈적 =반성적 마음이나 행동을 스스로 경계하여 주의함
구성	‘기-승-전-결’의 4단 구성
제재	‘수오재’라는 집의 이름
주제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
특징	① 경험과 사색, 자문자답을 통해서 사물의 의미를 도출함 ② 의문에서 출발하여 깨달음을 얻어 가는 과정을 통해 독자들의 공감을 유도함
출전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작품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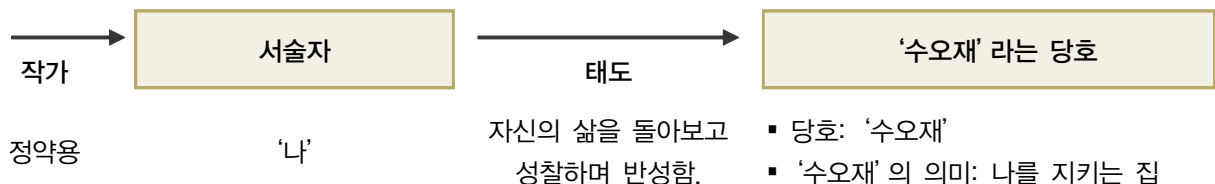
이 작품은 전통적인 한문 양식의 하나인 기(記)에 해당하는 글로서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의 ‘수오재’라는 당호를 소재로 한 수필이다. 작가의 큰형님이 집에 붙인 ‘수오재’라는 이름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봄으로써 경험으로부터 사물의 의미를 도출해 내고 있다. 특히, 이 글은 이러한 깨달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나와 또 하나의 나를 구분하여, 현상적 자아에 대비되는 본질적 자아의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 작가는 처음에는 ‘수오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현상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가 다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작가는 귀양 온 후, 자신의 지난 삶이 허망했음을 깨닫고, 본질적 자아인 ‘나’를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에 도달한다. 본질적 자아, 즉 내면적 자아를 유지할 때 비로소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거나 유혹당하지 않게 된다는 깨달음을 통하여, 큰형님이 ‘수오재’라는 이름을 지은 속뜻을 알았다는 것이다. 또 작가가 귀양지에서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나’의 모습을 살펴본다는 내용은, 반성과 성찰의 행위를 가시적으로 보여 주고 있어 특징적이다.



작품의 구조

단계	주요 내용	구성상 의미
기	▪ '수오재' 라는 명칭에 대한 의문	▪ 상식적 수준의 의문 제기 ▪ 화제의 제시와 독자의 관심 유도
승	▪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 (환경과 여건에 따른 현상적 자아의 변화)	▪ 의문의 해소
전	▪ 본질적 자아를 소홀히 한 채 살았던 삶에 대한 반성	▪ 자기 삶에의 적용
결	▪ '수오재기' 를 쓰게 된 내력	▪ 깨달음의 기록

서술자의 태도



'수오(守吾)'의 의미

'수오'는 '나를 지키다'라는 말이며, 나의 본성을 온전한 상태로 유지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작가는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오른 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자신의 본질적인 '나'는 사라지고 귀양을 가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러한 작가의 과거는 결국 현상적인 자아에 매몰되어 본질적인 자아를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나'를 본질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로 구분하고 있는데, '나'를 지킨다는 것은 현상적 자아가 외부의 유혹과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글쓴이의 체험과 깨달음

체험	깨달음
▪ 큰형님이 지은 서재 이름인 '수오재'에 대해 의문을 가짐 ▪ 공부에 힘써 벼슬길에 올랐으나, 결국 귀양을 가게 됨 ▪ '나'는 '나'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 여김 ▪ 공부와 벼슬길에서 '나'를 잃었으나, 귀양지에서 '나'를 찾음	▪ '나'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음 ▪ 본질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가 친밀하게 결합된 것 같지만, 본질적 자아는 위협과 유혹에 약하여 잃어버리기 쉬우므로 단단히 지켜야 함



주제의 형상화 방법

이 작품은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작가는 처음에는 ‘나를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데에서 시작한다. 이것은 독자들과 자신이 유사한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제시하는 공감의 기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 후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를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였음을 밝히고,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갈래 이해하기

이 작품은 전통적인 한문(漢文) 문학 양식의 하나인 ‘기(記)’에 해당한다. ‘기(記)’란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하게 된 과정을 기록하는 것으로, 독자에게 교훈이나 깨달음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지닌 글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은 작가의 형이 집에 ‘수오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사연을 적고, 그에 따른 작가의 깨달음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문장 형식으로 잡기(雜記)라고도 한다. 기(記)란 본래 기술(記述)한다는 뜻으로 쓰였는데, 문장 형식으로는 여러 가지 사물에 관해 기술한 것을 가리킨다. 기의 주제 가운데 주요한 것은 건조물(建造物)에 관한 것, 산수(山水)의 유람, 서화(書畵)와 기물(器物)에 관한 것 등이다. 기의 문장은 대부분 산문으로 쓰이는데, 주제의 기술과 더불어 주제와 관련한 자기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

작가 소개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조선 정조 때의 실학자, 문인, 호는 다산(茶山) 또는 여유당(與猶堂), 유형원, 이익 등을 계승하여 실학 사상을 집대성하여 발전시켰고, 민족의 삶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 낸 문학 작품을 썼다.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술 활동을 했는데, 대표작으로 『목민심서』, 『흙흙신서』, 『경세유표』 등이 있다.



제13과장 신할아버지와 미알할미놀이

신할아버지: (도포를 입고, 꽃이 그려진 부채를 들고 등장하여) 웬 사람이 이렇게 흰 차일을 친 듯 많아? 예전에 하던 짓거리나 하여 볼까? (노래로) 아이들아 산대곳을 다 보았느냐? 탈 쓴 팔 십 노인 나도 보자. 나도 옛그제는 청춘이더니 흥안백발 늙은이가 되었구나. 쳐다보니 깊고 큰 골 짜기와 수많은 봉우리요, 굽어 보니 흰 모래땅이로구나. 흰 구름과 푸른 시냇물이요, 황혼은 유록 한테, 적막강산이 여기로구나. (노래를 부르고 나서 한숨을 쉬며) 아— 하—.

미알할미: (산대놀이를 구경하며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낸다.)

신할아버지: (미알할미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 무엇이 앞에서 곰실곰실 움직이나 했더니 청개구리 밑으로 실뱀이 쫓아다니듯 무엇 하러 늙은 것이 쫓아왔나? 그 모습 대단히 창피하네. 떡동구리, 술, 부등가리 같은 그릇은 다 어떻게 하고 나왔나?

미알할미: (지팡이를 번쩍 들어 한 곳을 가리킨다.)

신할아버지: 본래 똑똑하니까 건넌마을 김 동지한테 맡겼어?

미알할미: (고개를 끄덕인다.)

신할아버지: 송아지와 개 새끼는 어찌했나? 오! 구장한테 맡겼어?

미알할미: (고개를 끄덕인다.)

신할아버지: 원래 모자란 사람은 아니니, 잘 알아서 하였겠지. 하지만 그것도 젊었을 때나 쓸모 있지, 지금은 쓸모가 없어. 자네도 늙고 나도 늙었으니 우리 이별이나 한번 해 볼까?

미알할미: (고개를 끄덕인다.)

신할아버지: 아, 이것 보게. 하지 말자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러네. 할 수 없다. (노래로) 죽어라 죽어라, 제발 덕분에 죽어라. 너 죽으면 나 못 살고, 나 죽은들 너 못 살랴? 제발 덕분에 죽어라. 옥단춘이가 죽었으랴? 제발 덕분에 죽어라. 두 손뼉을 척척 치며, 노란 머리를 박박 뜯고서, 제발 덕분에 죽어라.

미알할미: (신할아버지의 노래를 듣고 분한 마음에 손뼉을 딱딱 치며, 머리를 박박 뜯고 슬피 울고 난 뒤, 독약을 먹고 땅에 쓰러지면서 배 위에다 지팡이를 놓고 죽는다.)

신할아버지: (사라진 미알할미를 찾으려) 이것 보게, 마누라가 없어졌네. 어디로 갔을까? 나는 정에 겨워 그런 말을 한 것인데, 이놈의 마누라가 달아났으니, 어디로 갔을까? 한술밥을 먹던 개라도 나가면 찾는다는데, 수십 년이나 같이 산 마누라가 없어졌으니 아니 찾을 수 있나? (놀이판을 돌면서 마누라를 찾는다.) 마누라, 마누라, 어디로 갔나? 마누라, 마누라, 어디로 갔나? (노래로)



마누라, 마누라, 어디로 갔나? 만수산 넘어 송림촌으로 갔나? 『영천수 맑은 물에 귀를 씻으려 갔나? 상산에 숨어 살던 네 늙은이바둑 훈수를 갔나? 옛날 초나라 항우와 병법을 의논하러 갔나?』
 (땅에 쓰러져 있는 미알할미를 보고 놀라며) 이그— 이것 보게, 거리 부정 났구나. 우리 마누라가 죽었구나. 팔십 먹은 늙은 놈이 이게 무슨 팔자냐. 이놈의 마누라가 여기서 죽었으니, 늙은 놈이 현순백결 단돈 한 푼 없고 이 모양을 당했으니 이 일을 어찌하나. 자식이라고는 팔난봉 자식 하나 있는데, 이놈에 자식도 집 나간 지가 수삼 년이구나.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혹시 와 있는지도 모르겠다. 뜨물에도 배가 든다고 한번 찾아볼까? 이놈이 여기서 구경하고 있을까? (놀이판을 돌면서) 애, 도끼야, 도끼야, 애, 도끼야, 여기 있느냐?

(중략)

신할아버지: 애, 앉아서 울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너의 누이가 하나 있는데, 젓골에서 살다가 먼짓골로 갔느니라. 네가 빨리 가서 데리고 오너라.

도끼: 어떤 제밀한 놈이 상을 당한 상제보고 사람의 죽음을 알리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갔다 오시오.

신할아버지: 네 말이 옳다마는 늙은 내가 갈 수 있느냐? 젊은 놈인 내가 속히 가서 데리고 오너라.
도끼: 알겠소. 갔다 오겠소. (제7과장에서 왜장녀 역할을 하던, 왜장녀 탈을 쓰고 있는 사람들 몸집이 크고 영치없는 것을 서슴없이 갈하는 여자를 가리킨다. 앞의 과장에서 왜장녀는 자신의 딸 애사당을 목죽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긴다 보고) 여보, 누님.

도끼누이: 거 누구냐?

도끼: 내가 도끼요.

도끼누이: 깎귀라고?

도끼: 내가 도끼라고요.

도끼누이: 대패라고?

도끼: 이거 뭐, 우기면 뭐가 생기나? 내가 도끼라고요.

도끼누이: 요새는 너 도무지 안 오더니, 왜 왔니? 내가 왔지만 이제는 단돈 한 푼도 없다. 전에는 돈 백돈 천 냥씩이나 가져갔지만 이제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도끼: 누님—, 누님—. 내가 온 것은 돈을 가지러 온 것이 아니라 부음 전하러 왔소.

도끼누이: 부음이라니 무슨 부음이란 말이냐?

도끼: 어머니가 산대굿 구경을 하다가 죽었소.

도끼누이: 이놈아, 콩으로 메주를 쑤대도 끝이들리지 않는다.

속담을 이용해 등장인물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중략)

도끼누이: 아이고, 어머니. 정말 돌아가셨소? 어찌자는 말시오! 전에는 어머니 얼굴이 흰 분가루 같더니, 고생을 많이 해서 얼굴이 흑임자 다식처럼 시커멓게 되었소그려. 약이나 좀 써 봤소?

신할아버지: 약도 쓸 새가 없어서 못 썼다.

도끼누이: 그래도 약이나 좀 써 보지요. (약 같은 것을 미알할미 입에 넣자, 미알할미가 일어나서 도끼누이를 데리고 들어간다.)

여기에서 '미알할미의 퇴장'은 '미알할미의 죽음'을 뜻한다. 이후 '도끼누이'는 다시 등장하여 무당 역할을 한다.

신할아버지: 애, 도끼야.

도끼: 네.

신할아버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여기 아는 친척도 없고 단돈 한 푼 없이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이나. 우리가 돈이 있으면 지노귀굿이라도 할 텐데. 돈이 어디 있느냐? 우리끼리 굿이 나 해 주자.

씻김굿의 일종(죽은 이의 한을 씻겨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함)

도끼누이: 그리합시다.

(피리, 해금, 대금의 삼재이가 노랫가락 장단을 친다. 도끼누이가 무당 역할을 하며 굿을 한다.)

① '지노귀굿(씻김굿)'의 일부를 빌림 ② 배우들의 연극이 끝났음을 알려 주는 신호

도끼누이: (노래로) 바람이 월궁의 달월이성이요, 일광지성마누라 바라명실로 나리오. 이 터전 이 집안에 사람마다 다른 성씨 열에 열 명이 다니시더라도 덕도 탈도 보지 아니하시던 영부정 가망에 산 간데 그늘이요, 용 계신 데 소(沼)로다. 소이라 깊건마는 모래 위에 해소로다. 마누라 영검술을 깊이 몰라. 국이야 국이건마는 저 마당에 전이로다. 시절은 시절이오나 양전 마마님 시절이로다. 세상에 나홀로 있다고 한들 녀이야 녀이로다. 노양 신선의 초녘이야. 녀일랑 녀반에 담고, 신의 신체는 관에 모셔 세상에 나오신 망제님 놀고 갈까. 어이히히 웃자 초가망 이가망에 삼가망이 아니시냐? 좋다, 전물도 가망이요, 말게라 오신 가망 설게 받아 오신 가망, 사람마다 다른 성씨 열에 열 명이 다니시더라도 덕도 탈도 보지 않으시던 영부정 가망이 적적히 놀고 가시오.

① 공연이 마무리되는 상황을 드러냄 ② 관객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환기함

**핵심 정리**

갈래	가면극(탈춤)의 대본
성격	풍자적, 해학적, 골계적(滑稽的)
문체	구어체, 대화체
주제	미알할미의 죽음과 가족의 재회
특징	① 전체 13과장이고, 각 과장은 다른 과장과 관련 없이 독립적임 ② 익살스럽고 과장된 표현을 많이 사용함 ③ 비속어가 섞인 일상 회화조의 대사가 주를 이룸 ④ 무대 장치 없이 공간 설정을 자유롭게 하고 있음

작품 해제

「양주 별산대 놀이」는 경기도 양주 지방에 전승되어 온 전통 가면극으로 총 13과장으로 나뉜다. 가면극 공연은 대체로 널찍한 마당에서 아무런 무대 장치 없이 벌어지는데, 내용 전개 과정에 따라 공간적 배경이 수시로 변화하는 특징을 지닌다. 산대 놀이는 고려 시대에 발생하여 조선 시대에 발전한 가면극 놀이로, 이 때 '산대'란 임시 무대를 가리킨다.

제시된 장면은 제13과장으로 신할아버지와 미알할미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별산대놀이의 마지막 과장에 해당한다. 미알할미가 죽게 되자, 일찍이 집을 떠났던 도끼와 도끼누이가 모여 어머니의 장례(굿)를 치르는 내용이다. 익살, 과장, 반어, 비속어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흩어졌던 가족의 재회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전체 줄거리

「양주 별산대 놀이」는 제1과장 상좌춤, 제2과장 상좌와 움중놀이, 제3과장 움중과 먹중놀이, 제4과장 연잉과 눈곰적이놀이, 제5과장 염불놀이, 제6과장 침놀이, 제7과장 애사당법고놀이, 제8과장 파계승놀이, 제9과장 신장수놀이, 제10과장 취발이놀이, 제11과장 의막사령놀이, 제12과장 포도부장놀이, 제13과장 신할아버지와 미알할미놀이로 구성된다. 파계승 몰락 양반, 무당, 사당, 하인 및 그 밖의 늙고 젊은 서민 등이 등장하여 지배 계층의 위선과 무능을 드러내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상을 재미있게 표현한다. 제13과장의 경우, 신할아버지가 부인 미알할미와 서로 다투다가 미알할미가 죽게 되자, 아들 도끼와 딸 도끼누이를 불러 장사를 지내는데, 이때 딸이 무당 역할을 맡아 굿을 하는 내용이다.

언어유희

우리말의 언어유희는 주로 유사한 음운이나 음절을 반복 배치해 소리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렇다고 단순히 말소리의 재미만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말들로 언어를 배치하여 뜻밖의 의미 효과를 이끌어 내는 방식, 일반적 통사 구조를 관습과는 다르게 사용하여 의도적 오해나 실수를 자아내는 방식도 자주 사용된다. 또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을 늘어놓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을 제시하여 웃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도끼누이의 ‘긷’의 의미 -지노긷

도끼누이는 무당의 ‘지노긷’을 대신해 긷을 벌인다. ‘지노긷’이란 죽은 이의 한을 씻겨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 망자의 가족이 무당을 불러 벌이는 긷으로, 흔히 씻김긷이라고 한다. ‘지노긷’은 예기치 않은 죽음을 재구성하는 상호 작용 행위의 하나이다. 유족들은 긷이 끝남과 동시에 망자와의 갈등이나 애석함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떨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한다. ‘지노긷’은 사후 세계에 있는 망자와 현실 세계에 있는 유족들이 서로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게 도움을 주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인 것이다.

‘양주 별산대 놀이’의 유래

산대(山臺)놀이는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 지방에 전승되어 온 탈놀음을 말한다. 서울의 애오개(지금의 아현동), 송파, 녹번, 사직골, 구파발 등지의 산대를 본산대(本山臺)라고 하고, 양주의 탈놀음은 별산대(別山臺)라 부르고 있다. 원래는 4월 초파일과 5월 단오에 서울의 사직골 ‘딱딱이패’를 초청하여 놀았으나 지방 공연 관계로 약속을 어기는 일이 많아, 양주골의 이을축(李乙丑)등이 사직골 ‘딱딱이패’의 옷과 탈을 본떠 직접 만들고 춤을 구성하여 연회를 시작한 것이 ‘양주 별산대놀이’이다.

‘양주 별산대 놀이’의 특징

‘봉산 탈춤’이 비교적 운문적(韻文的)인 데 반해, ‘양주 별산대놀이’의 사설(대사)은 평범한 일상 회화조의 비어(俚語)를 사용한다. 특히 취발이나 말뚝이의 대사는 민중을 대변하는 대사라고 할 수 있어 관중들의 흥미를 끈다.

춤사위는 한국 민속 가면극 중 가장 분화발전된 것으로, 몸의 마디마디 속에 멋(神)을 집어넣은 염불 장단의 거드름춤과 멋을 풀어내는 타령 장단의 깨끼춤으로 구분되어 몸짓 또는 동작이 유연한 형식미를 갖추었다.

반주 악기로는 삼현 육각(三絃六角), 즉 피리 2개·젓대·해금·장구·북 등이 있는데 꿩과라호적 등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주 장단에는 염불·타령·긷거리 등이 있다.

연회의 내용은 산대도감 계통의 공통된 내용으로 조선 후기 서민 문학의 특성을 보여 주는데, 남녀 간의 갈등, 파계승과 몰락한 양반에 대한 풍자모욕서민 생활의 빈곤상 등 당시의 현실 폭로와 특권 계급에 대한 저항의식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오늘날 산대놀이라 하면 이를 가리킬 만큼 대표적인 것이 되었다.

또한 이 놀이에 등장하는 배역은 모두 32명이나 되나 겸용하는 가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되는 가면 수는 보통 22개이다. 상좌2(하나는 도련님 역을 겸용), 옴중, 목중, 먹중4, 연잎, 눈금적이, 완보, 신주보, 왜장녀(해산어멈, 노끼누이를 겸용), 노장, 소무2(애사당 또는 당녀 겸용), 말뚝이(산장수와 도끼 겸용), 원숭이 취발이(쇠뚝이 겸용), 샌님, 포도부장, 신할아버지, 미알 할미 등이다. 이 중에 상좌·연잎·눈금적이·왜장녀·왜사당·소무·노장·원숭이·해산모·포도부장·미알 할미는 대사가 없이 춤과 마임과 몸짓으로만 연기하며, 그 밖의 인물들은 대사와 노래도 있다.



‘양주 별산대 놀이’에 담긴 의식

첫째,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담겨 있다. 양반과 파계승을 희화화시킴으로써 당시 무능하고 부조리한 지배 계층에 대한 민중들의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담아내고 있다. 말뚝이나 쇠뚝이는 서민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로서, 무능한 양반들을 비하하고 조롱함으로써 양반에 대한 저항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처첩 사이의 갈등이나 남성의 부당한 횡포에 대한 고발 등을 표현하고 있다. 셋째, 벽사(辟邪) 의식이 담겨 있다. 노장 마당 또는 취발이 마당에서 노장과 대결하는 취발이의 가면이 벽사색인 붉은색이고, 귀롱나뭇가지로 노장 구신을 쫓듯이 물리치는 점 등에서 벽사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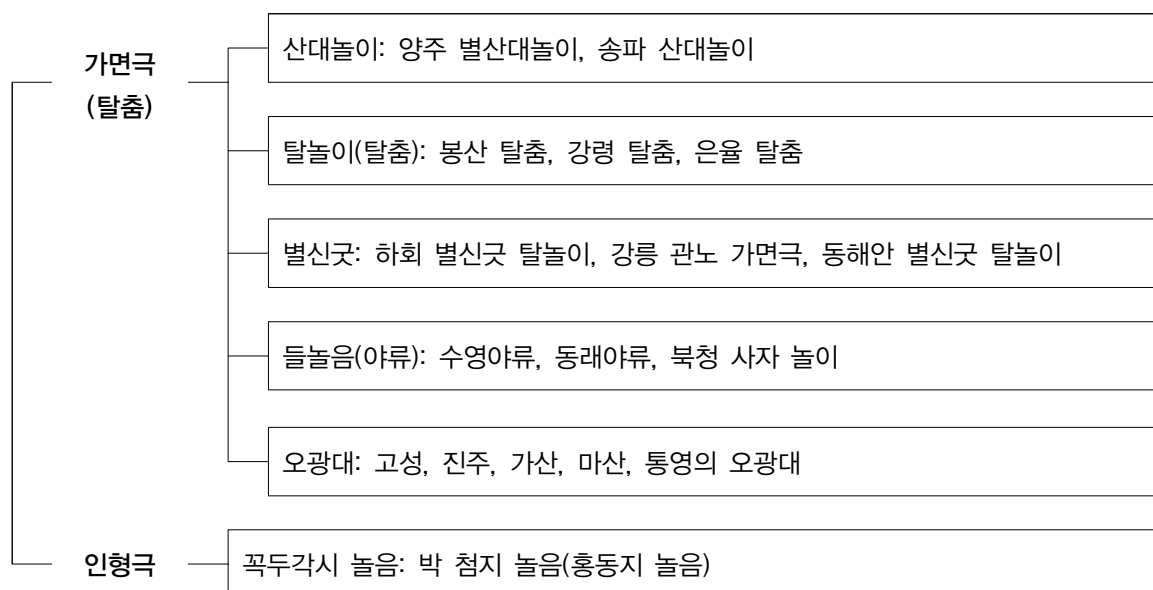
민속극의 개념

민속극은 구비 전승된 민중의 공동 창작 희곡을 무대에서 공연하는 연극을 말한다. 민속극에서 배우가 자신의 모습으로 무대에 서는 것은 물론, 탈(가면)을 쓰고 출연하거나, 혹은 인형을 무대 위에 내세우고 자신은 무대 밖에서 조정하는 것까지도 포괄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전하는 민속극은 가면극(탈춤)과 인형극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속극은 가장한 배우(인형)가 무대 위에서 구전으로 학습한 희곡을 말과 몸짓으로 표현한 연극이라고 할 수 있다.

민속극의 특징

민속극에는 무대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극중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선택, 변화시킬 수 있으며, 두 개의 사건을 한 무대에서 보여 줄 수 있다. 또한 관중이나 악사는 방관자적인 제3자가 아니라, 극에 개입함으로써 극적 단절이 제거되고 현실적 비판이 선명해진다. 그리고 대사는 말과 노래가 섞여 있고, 무언극처럼 몸짓과 춤이 의미 전달의 주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대사에 사용되는 언어는 일상적 구어를 기조로 하고, 때때로 관용적인 한문구를 빌려 쓰며, 신랄한 비어와 재담을 거리낌 없이 구사한다. 특히 신랄한 비어와 재담의 구사를 통해 봉건적 질서를 풍자, 비판함으로써 봉건적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하층민의 욕구를 담아내고 있다.

민속극의 종류





물은 하나의 국가요, 용은 그 나라의 군주다. 『물고기 가운데 큰 것으로 고래, 곤어, 바닷장어 같은 것은 군주를 안팎에서 모시는 여러 신하이다. 그다음으로 메기, 잉어, 다랑어, 자가사리 같은 것은 서리나 아전의 무리다. 이 밖에 크기가 한 자 못 되는 것들은 물나라의 만백성이라 할 수 있

은유법(현실 세계를 수국에 빗대) 상상 속의 거대한 물고기

조선 시대에 문서 기록 등을 맡아보던 하급의 구실아지 약 30.3cm

다.』 상하가 서로 차례가 있고 큰 놈이 작은 놈을 통솔하니, 그것이 어찌 사람과 다르겠는가?

「 』: 물고기를 인간에 빗대어 크기와 힘에 따라 분류함

▶ 현실 세계를 수국에 빗대

그러므로 『용은 물나라를 다스리면서, 날이 가물어 마르면 반드시 비를 내려 주고, 사람이 물고기를 다 잡아 버릴까 염려하여서는 큰 물결을 겹쳐 일어나게 하여 덮어 준다. 그러한 것이 물고기

에 대해서 은혜를 끼침이 아닌 것은 아니다.』

▶ 군주인 용이 은혜로써 나라를 다스림

하지만 물고기에게 인자하게 베푸는 것은 한 마리 용뿐이요, 물고기를 학대하는 것은 수많은 큰 물고기들이다. 고래와 암코래는 조류를 들이마셔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일을 자신의 시서(詩書)로 삼고, 교룡과 악어는 물결을 헤치며 삼키고 씹어 먹어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을 거친 땅의 농사일로 삼으며, 문절망득, 쏘가리, 두렁허리, 가물치의 족속은 틈을 타서 발동을 해서 작은 물고기를 자신의 은이요 옥으로 삼는다. 강자는 약자를 삼키고, 지위가 높은 자는 아랫것을 약탈

상상의 동물 백성 탕관오리, 포악한 관리들 시와 그림의 소재로 삼음(허황한 여경)

하니, 진실로 강한 자, 높은 자가 싫증 내지 않는다면 작은 물고기는 반드시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 관리들의 착취를 막지 않으면 백성들이 떠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사리사욕을 채우고자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들의 행태를 비난함)

▶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상황

슬프다! 작은 물고기가 없다면 용이 누구와 더불어 군주가 되며, 저 큰 물고기들이 어찌 으스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용의 도리란 작은 물고기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차라리 먼저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만 못하리라!

백성들이 나라의 바탕이 됨을 강조(민본주의 사상이 드러남) 갈고 말아서 일일이 언급하기가 귀찮스러운

▶ 탕관오리를 물리치는 것이 군주가 해야 할 시급한 일임

아아, 사람들은 물고기에게만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알고 사람에게도 큰 물고기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니, 물고기가 사람을 슬퍼하는 것이 어찌 사람이 물고기를 슬퍼하는 것보다 심하지 않다고 하랴?

관리들의 착취와 수탈이 눈에 띄지 않음 물고기가 사람을 딱하게 여길 정도로 인간 세태에 부정부패가 많음

설외적 표현

▶ 불합리한 현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상황을 한탄함

**핵심 정리**

갈래	고전 수필, 한문 소설
성격	비판적, 우의적, 비유적
창작 시기	조선 시대
구성	가-서-결
제재	군주의 정치
주제	백성을 수탈하는 관료 사회에 대한 비판 및 왕의 바른 태도

작품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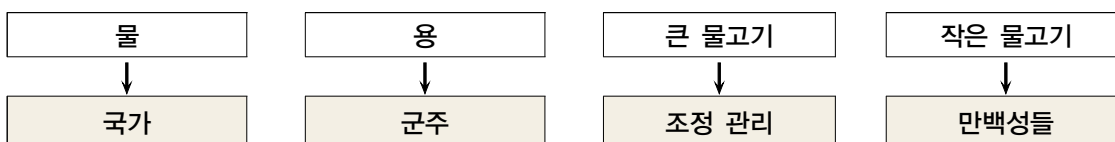
이 글은 국가의 현실 상황을 물속(수중) 세계에 빗대고, 임금을 ‘용’에, 탐관오리 및 포악한 관리들을 ‘큰 물고기’에, 백성들을 ‘작은 물고기’에 빗대어 현실의 정치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군주인 용은 작은 물고기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나 큰 물고기에 해당하는 관리들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즉, 나라의 바탕이 되는 ‘작은 물고기’인 백성들을 수탈하는 ‘큰 물고기’, 즉 관리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군주로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주장하고 있다.

작품의 구조

기	현실 세계를 약육강식의 바닷속 세상에 빗댄
서	용은 자애로우나 큰 물고기들이 작은 물고기들을 괴롭힘
결	약자에 대한 수탈은 바닷속 세상보다 인간 세상이 더 심함을 한탄함

비유를 통한 현실 비판

이 글에서 용은 가물어 물이 마르면 반드시 비를 내려 주고, 물결을 덮어 주는 등 물고기들을 염려하면서 은혜를 내리고 있지만, 수많은 큰 물고기들은 작은 물고기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힌다.





글쓴이가 군주에게 호소하는 것

이 글을 쓸 당시의 임금은 백성들을 자애롭게 보살피지만, 그 밑의 신하들과 벼슬아치들은 백성들을 수탈하며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에만 급급하였다는 점을 꼬집고 있으며, 글쓴이는 임금에게 이러한 비유를 통해 백성을 괴롭히는 신하들을 엄벌해야 함을 호소하고 있다.

작가로 읽어 읽기

거미를 읊은 부(지주부) / 이옥

“**나**는 내 줄을 짜서 내 배를 도모하려 하거늘 그대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같이 나를 해치는가?”
거미(의인화) 어둠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움

이 선생이 성내어 말하였다.

“뱃을 설치하여 산 것을 죽이니 벌레들의 적이다. **나**는 다시 또 **너**를 제거하여 다른 벌레에게 덕을 베풀려고 한다.”
거미 이 선생 거미

그러자 다시 웃으며 말하는 것이 있었다.

“**나**는 허랑방탕한 놈일 뿐 분단장을 하여 세상을 속이고 변화함을 좋아하여 좇으며 흰 꽃에 아침하고 붉은 꽃에 아양 떤다. 이 때문에 내가 그물로 잡게 되는 것이다. **파리**는 참으로 소인배라 깨끗한 옥 또한 그놈 똥이 묻어 참소를 입었고, 술과 고기에 자기 목숨이 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이익을 좋아하여 싫증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내가 그물로 잡게 된 것이다. **매미**는 자못 청렴 정직하여 글하는 선비 같지만 제 울음이 좋다고 스스로 자랑하며 시끄럽게 울어 그칠 줄 모른다. 이리하여 내 그물에 걸려들게 된 것이다.” (후략)
허영심이 많고 아첨하기 좋아함 언행이 착실하지 못하고 행실이 지저분한 번화함을 좋아함 번성하고 화려함 나쁜 행동에서 죄가 있는 것처럼 원사랑에게 일러바침 깨끗한 대상을 참소하고 욕심이 많음

핵심 정리

갈래	고전 수필, 한문 수필, 부
성격	교훈적, 성찰적, 비판적, 우의적
구성	기(이 선생의 꾸짖음)-서(거미의 반박)-결(거미의 충고)
주제	인간 세태의 모습과 경계해야 할 삶의 태도
특징	거미를 소재로 하여 우의적 방법으로 주제를 형상화함

작품 해제

이 글은 거미의 말을 빌려 도리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존재들, 즉 군자와는 거리가 먼 존재들을 통해 인간 세태를 비판하면서 군자로서의 덕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당부하고 있는 글이다. 거미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파리, 매미 등의 곤충들은 모두 허영심과 물욕, 자만심 등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자신의 그물에 걸려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인간 역시 형벌과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는 군자로서의 도리를 지키며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갈래 이해하기 - 부(賦)

한문 문체의 하나로, 본래 시경의 표현 방법의 하나이다. 글쓴이의 생각이나 눈앞의 경치 같은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을 말한다. 부의 구성은 대체로 직서체와 문답체로 나누어지고, 한편의 부는 대개 ‘서, 본문, 결어’의 3단으로 구성된다.



진 놈 배가고파 기진한 놈 고향을 바라보고 양천통곡 호천망극 길 갈 수 전혀 없네. 조조 마상에
서 채를 들어 호령하며 행군길을 재촉하더니만,

〈아니리〉

“히히히히히 해해해해.”

대소허니 정욱이 기가 막혀,

“야들아 승상님이 또 웃으셨다 적벽에서 한 번 웃어 백만 군사 몰사하고 오림에 두 번 웃어 죽
정욱은 조조가 웃을 때마다 군사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떠올림
을 봉변당하고 이 병 속 같은 데서 또 웃으셨으니 이젠 씨도 없이 다 죽는구나.”

비유(전쟁) 조조가 웃었기 때문에 '병 속'같은 전쟁터에서 모두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함
조조 듣고 대답하되,

“너희도 생각해 보아라. 주유 공명이가 이곳에다 복병은 말고 병든 군사라도 여나무 명 두었더
라면 조조말고 비조라도 살어갈 수 있겠느냐. 히히해해.”

대소허니,

〈자진모리〉

빠른 곡조 → 관공이 등장하는 장면을 효과적으로 표현

웃음이 지듯마듯 화용도 산상에서 방포성이 쿵 이 너머에서도 쿵 저 너머에서도 쿵 궁그르 궁그
동일 어휘의 반복적 사용 - 음악적 요소를 활용한 박진감 넘치는 분위기
르 궁그르. 산악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바뀐 듯 뇌고 나팔 우통팽쳐르르르 화용 산곡이 뒤끓으니
아무 말도 없이 서로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봄
위국장졸들이 혼불부신(魂不附身)하야 면면상고(面面相顧) 서 있을 제, 오백 도부수(刀斧手)가
문백이 어지러이 몰려드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

양편으로 갈라서서 대장기를 들었난디 대원수 관공 삼군 사명기라 둥두렷이 새겼는데 늠름하다.

장자는 누에 같다는 뜻으로, 길고 굵은 눈썹을 이르는 말
주안봉모(朱顏鳳眸) 와잠미(臥蠶眉) 삼각수(三角鬚)에 봉의 눈을 부릅떠 청룡도(靑龍刀) 비껴
붉은 얼굴에 봉황의 눈동자 두 뺨과 턱에 세 갈래로 난 수염

들고 적토마 달려오며 우레 같은 소리를 벽력같이 뽀지르며,

조조를 겁에 질리게 하는 관공 - 민중이 갈망하는 새로운 영웅의 모습

“어따 이놈 조조야. 날다 길다 길다 날다 긴 목을 길게 빼어 칼 받으라.”

조조가 황겁하야,

“여봐라 정욱아, 오는 장수 누구냐.”

정욱이도 혼을 잃고

“호통 소리 장비 같고 날랜 모양 자룡 같소.”

“자세히 살펴보아라.”

“기색은 홍색이요 위풍이 인후(仁厚)하니 관공일시 분명하오.”

서민이 향유하던 판소리가 양반층으로 확대되며 여러 계층의 언어가 공존함 ② 한자어구의 사용
“더욱 관공이라면 욕도무처(欲逃無處)요 욕탈무계(欲脫無計)라. 사세도차(事勢到此)하니 아무
도무지 도망갈 길이 없다 일의 형세가 이 지경에 이르니

렇게나 한번 싸워 불박에는 수가 없다. 너희들 조조의 웅명(雄名)이 삼국에 으뜸이라. 사즉사(死
조조가 관공과 싸우기로 결심함 조조 자신이 삼국에서 가장 영웅적인 인물이라고 내세움
卽死)언정 이제 내가 비는 것은 후세의 웃음이 되리로다.”

**<아니리>**

“허허 야들야 신통한 피 하나 생각했다.”

“무슨 피를 생각했소.”

“나를 죽었다고 흠이불로 덮어 놓고 너희 모도 군중에 발상(發喪)하고 앉어 울면 승장이라고
상례에서,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고 나서 상계가 머리를 풀고 슬피 울어 토상난 것을 알림. 또는 그런 절차
 막걸리 동우나 내고 피할 것이니 흠이불 둘러쓰고 살살 기다가 한 달음박질로 길로 달어나자.”
조조가 관우를 피해 도망가자고 말함(조조는 무능한 정치인으로 풍자의 대상임)

정욱이 기가 막혀,

두 나라의 명장이 조조를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함 - 앞서 한 조조의 말이 상황과 이치에 맞지 않음을 깨우쳐 줌
 “산 승상 잡으려고 양국 명장 쟁공(爭功)하오.”

공로를 서로 다투

“힘을 써서 한번 대전하야 보자.”

정욱이 여짜오되,

<중모리>

“장군님의 높은 재조 호통 소리 한번 나면 길짐생도 갈 수 없고 검광이 번뜻 나면 나는 새도 툭
 떨어지니 적수단검으로 오관참장(五關斬將)하는 수단 인마기진(人馬氣盡)하였으니 감히 어찌 당
다섯 관문의 장수를 베 사람과 말의 기운이 다 빠짐
 하리까. 만일 당적을 허랴 허면 씨도 없이 모도 죽을 테니 전일 장군께서 승상 은혜 입었으니 어
정욱은 조조가 관공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떠올리게 함 - 관공에게 목숨을 구걸해 보라는 의미
 서 빌어나 보옵소서.”

“빌 마음도 있다마는.”

“사 승상(死丞相) 목 베기야 청룡도 드는 칼로 눈목 얼마나 그리 힘들여 베오리까. 공연한 피
 내었다 목만 허비될 테니 얇은피 내지 말고 어서 빌어나 보옵소서.”



핵심 정리

갈래	판소리 사설
성격	해학적, 풍자적, 희화적(戲畵的)
문체	가사체, 구어체, 율문체
주제	① 적벽 대전과 이 전쟁을 주도해 나간 영웅 이야기 ② 주체적 세력인 민중의 의식 성장 ③ 전쟁에 패한 조조에 대한 조롱과 풍자
특징	① ‘삼국지연의’의 ‘적벽 대전’을 바탕으로 함 ② 영웅보다는 평민을 내세워 전쟁을 부정적으로 다룸 ③ 외국 문학을 창조적으로 수용함 ④ 판소리 특유의 평민적 시각을 구현함 ⑤ 기성 권위와 폭력적 권력에 대한 비판 의식을 표출함 ⑥ 근원 설화가 없으며 판소리가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소설 ‘삼국지연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짐

작품 해제

‘적벽가’는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중 적벽 대전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재창조한 판소리 사설로, 재창조 과정에서 원작인 ‘삼국지연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인물의 성격을 변용하기도 하고, ‘삼국지연의’에 없는 내용을 덧붙이는 등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감각을 살리고 있는 작품이다. 원작인 ‘삼국지연의’가 영웅 중심의 이야기인 데 비해, ‘적벽가’는 이름 없는 군사들을 중심으로 해학적인 희극미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원작에 없는 ‘군사 설움’과 ‘군사 점고’ 대목을 첨가하여 전쟁에 강제 동원된 병사들이 전장에서 겪는 설움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배자의 야망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 희생된 백성들의 참담한 고난과 전쟁의 참혹성을 폭로하고 있다. 한편 ‘적벽가’에서 인물의 성격이 변용된 대표적인 인물이 ‘조조’인데, ‘삼국지연의’에서 영웅적 인물이었던 조조를 졸장부로 희화화하여, 허세와 위선으로 가득 찬 기성 권위와 폭력적인 권력을 비판·풍자하고 있다. 이처럼 ‘적벽가’는 외국 문학인 ‘삼국지연의’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재구성한 의의를 지닌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의 구조

발단	유비가 관우, 장비와 더불어 삼고초려 끝에 제갈공명을 데려온다.
전개	조조는 백만 대군을 이끌고 남정 길에 오르게 되고, 군사들은 제각기 설움을 늘어놓는다.
위기	제갈공명의 지략에 조조는 패하고, 장판교에서는 장비에게 패한다.
절정	손권과 주유의 마음을 움직인 제갈공명은 조조와 적벽 대전을 벌여 크게 승리한다.
결말	패전하던 조조는 화용도에서 관우에게 다시 한 번 패한 후, 목숨만 부지하여 돌아간다.



전체 줄거리

유비는 제갈공명을 참모로 초빙하기 위해 관우, 장비와 함께 그의 집으로 찾아간다. 삼고초려한 후에 제갈공명을 군사로 얻는다. 한편 조조는 강남을 평정하기 위해 백만 대군을 이끌고 원정길에 오르고 조조의 군사는 제각기 설움을 늘어놓는다. 조조의 선봉 부대가 신야에 이르자 제갈공명은 불과 삼천 명의 군사로 십만 대군을 크게 무찔러 패주시킨다. 뒤이어 벌어진 장판교 싸움에서는 조자룡이 유비의 장자를 품에 안고 조조의 백만 대군 속을 뚫고 나오고, 장비는 장판교에서 홀로 버티고 서서 천둥 같은 호령 소리에 조조의 대군을 물리친다. 제갈공명은 오나라로 건너가 손권과 주유의 마음을 움직여 조조와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이도록 유도한다. 적벽 대전이 벌어지자 주유는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빌어 준 덕택에 조조의 백만 대군을 거의 전멸시키는 전과를 올린다. 불과 몇 천의 군사와 함께 도망하던 조조는 화용도에서 관우를 만나고 목숨을 구걸한 끝에 겨우 살아서 돌아간다.

「적벽가」의 골격적 성격

「삼국지연의」가 송고하고 비장한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데 비해, 「적벽가」는 인물 풍자를 통한 골격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특히 영웅인 조조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은 골격적 성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지가 된다. 이처럼 인물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골격적 성격은 영웅이 아닌 민중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풍자와 해학을 지향하는 판소리 일반의 속성과도 관련되는데, 이것이 바로 「적벽가」의 사설의 중요한 구성 원리가 된다.

「적벽가」의 충(忠)

「적벽가」는 충(忠)과 관련된다. 그러나 이 충은 관점에 따라 표상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적벽가」가 영웅이 아닌 군사들의 심리 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충은 개인에게 있어 충이란 가치관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장치가 된다. 또한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터에 끌려온 백성들의 입장에서 충이란 위정자들의 대의명분에 불과한 것으로, 군사들 개인이 지향하는 가족애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군사로서의 의무라는 충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조선 후기 사회상과 작품의 주제 의식

조선 후기는 당파 싸움과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민중들의 생활고가 극심한 시대였다. 이런 까닭에 조선 후기는 민란의 시대라 할 만큼 많은 민란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이런 민란을 진압하기 위해 역시 힘없는 백성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이다. 백성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지배층을 위한 전쟁에 동원되어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싸우다가 죽어 간 것이다. 이러한 어지러운 시대에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켜 줄 덕이 있고 지혜로운 지도자의 출현을 기대했을 것이다. 「적벽가」는 조조와 같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의 축출과 유비처럼 덕이 있고 제갈량같이 지혜로우며 관우처럼 의로운 존재의 출현에 대한 당시 백성들의 바람이 반영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삼국지연의’와 ‘적벽가’ 비교

「적벽가」는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소설 「삼국지연의」의 ‘적벽 대전’ 부분을 재구성한 판소리이다. 「적벽가」는 유비, 조조, 손권 세 영웅이 천하를 놓고 다투는 「삼국지연의」의 이야기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삼고초려와 적벽 대전 등의 사건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특히 「적벽가」는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의 시각을 작품 전면에 내세워 인물과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원작과는 전혀 다른 주제 의식을 표현하였다.

	삼국지연의	적벽가
갈래	소설	판소리
등장인물	유비, 관우, 장비, 제갈공명 등을 중심으로 함	무명의 하층 군사들을 중심으로 함
초점	웅장한 전쟁 장면과 영웅 이야기	민중의식과 지배층에 대한 비판 의식
중심 내용	삼국의 흥망성쇠 중심	적벽대전 중심
조조의 모습	영웅적	희극적, 풍자적
미의식	비장미, 숭고미	희극미

「적벽가」의 형성 과정

판소리 열두 마당 중 현재까지 전승되는 「심청가」, 「춘향가」, 「수궁가」, 「흥보가」, 「배비장 타령」, 「변강쇠 타령」, 「옹고집 타령」, 「장끼 타령」, 「무숙이 타령」 등은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된 것들이다. 애초에 간단한 이야기의 설화였던 것이 흥미성이 가미되면서 판소리가 되고, 이것이 다시 민중 사이에서 구전되다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이들 판소리는 ‘근원 설화 → 판소리 → 판소리계 소설’의 단계를 거쳐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적벽가」의 경우에는 근원 설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판소리가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되지 않았다. 「적벽가」는 중국 소설인 「삼국지연의」를 바탕으로 생겨난 판소리로, 일반적인 판소리 사설의 형성 과정과는 달리, 소설이 판소리화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판소리의 개념

판소리는 창(소리)으로서의 음악, 이야기(아니리)로 말하는 문학, 동작(너름새)를 곁들이는 무용 등과 함께 연극적 요소가 결합된 종합 예술 양식으로서, 후대에 판소리계 소설과 창극을 형성시킨 구비 서사 문학이다. 판소리라는 말은 놀이판에서 부르는 판의 소리라는 말과 일정한 장단을 가진 악조로 부르는 소리, 판에 박힌 듯이 정해 놓고 부르는 소리라는 데에서 붙여진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판소리의 발생과 전개 양상

판소리는 18세기 초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19세기에 번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서로는 1754년 만화본 「춘향가」가 최초의 자료이다. 판소리는 민중 의식의 각성과 상업의 발달로 인해 판소리 광대들이 공연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제1기 형성기	18세기 초에 형성된 것으로 추측함
제2기 전성기	19세기 후반, 신재효의 여섯 마당이 현재까지 전해짐
제3기 후퇴기	20세기 이후, 판소리의 쇠잔기. 창극화를 통한 중흥을 모색함

판소리의 특징

서사성	설화 또는 소설과의 관련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롯되며, 이야기 구성 자체도 서사성을 띠
율문성	운율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4음보격의 운문체 형태를 띠
전문성	시조나 한시와 같이 일반 문인들의 노래가 아니라 전문적인 광대에 의해 공연되는 것임
향유층의 다변성	서민층에서 향유되다가 후대에는 중인 및 양반층까지 확대됨
해학성과 풍자성	서민 의식을 반영하는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민중 예술임
언어	한시나 고사의 인용이 많으며, 일상적인 구어체를 반복하거나 과장, 비속어 등을 많이 사용함

판소리의 구성 요소

광대	창자(唱者), 노래 부르는 사람
고수(鼓手)	북 장단을 맞추는 사람

창(소리)	창자가 부르는 노래	- 장단의 변화는 단순한 박자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 표현의 변화를 겸함 - 인물의 성격, 사건의 진전, 극적 전환의 표현까지도 정단의 변화로써 전개함
아니리	광대가 창을 하는 중간 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사실	- 사건의 변화, 시간의 경과, 작중 인물들이 대화, 주인공의 심리 묘사, 작중 인물의 독백 등을 전달함 - 창자에게 휴식하는 기회를 줌



발림 (너름새)	창을 하면서 하는, 창자의 몸 짓·동작	- 창자가 부채나 손수건을 소도구로 쓰기도 함 - 판소리의 발림은 극도로 축약·상징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극의 연기와는 다름
추임새	고수 또는 청중이 내는 탄성 으로 흥을 돋우는 소리.	- 무대와 객석 사이에 형성되어 있을지도 모를 거리감을 허물어 줌 - 청자와 청중의 호흡을 조화시킴으로써 '판'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구실을 함 - 얼씨구, 얼썬, 잘한다, 지화자 등

판소리 장단

장단	빠르기	느낌
진양조	가장 느린 곡조	애련조로, 슬프고 무거운 느낌을 줌
중모리	중간 빠르기	담담하고 안정감을 주며 태연한 느낌을 줌
중중모리	중모리보다 조금 더 빠르기	흥취를 돋우며 우아한 느낌을 주며, 춤을 추거나 화려하고 요란한 장면을 연출함
자진모리	빠른 곡조	섬세하고 명랑하고 차분한 느낌을 줌
휘모리	가장 빠른 곡조	절정과 흥분과 급박한 느낌을 줌
엇모리	평조음	평화스럽고 경쾌한 느낌을 줌